

# 월드컵, 민족 그리고 국가

오, 필승 코리아 ---

대-한민국, 따단따 - 탄따 ---

한 치의 여백도 허락지 않은 짝 찬 흥분이 한반도 전역을, 아니 전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넘실대고 있었다. 월드컵 축구 한국 경기가 열리는 이곳 저곳은 활활 열기를 뿜어내는 민족혼의 용광로가 되어 코리아를,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붉고 뜨겁게 달구면서 이들 모두를 하나로 녹아내고 있었다.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단단하게 한 묶음이 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절절하게 코리아와 대한민국을 소리높이 외쳐본 적이 있는가, 언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우렁차게 우리의 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는가. 그것은 한 많은 코리아의 절규였고, 그것은 하나된 코리아의 절절한 咆哮였으며, 그것은 역사를 뛰어넘는 코리아의 또 하나의 독립선언이기도 했다.

대표선수를 비롯한 감독, 코칭 스텝,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어느새 스포츠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엄청난 무게와 의미로 다가서고 있었다. 월드컵은 어느새 코리아와 대한민국에게는 하나의 스포츠대회가 아닌 엄청난 정치적인 사건으로 각인돼 가고 있었다. 그 어떤 정치적인 사도, 그 어떤 정치적인 인물도 이들 만큼 대한민국과 코리아에게 커다란 임팩

트를 준 일이 없었으며, 그러한 일은 앞으로도 쉽게 예상키 어렵다.

이렇듯 엄청난 무게와 열기로 우리를 엄습한 월드컵의 위력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로 포장되고 있는 저 우렁찬 함성과 환희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뭉친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로 다시 일어선 코리아. 이들 구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우렁차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청천벽력이었다고, 만물을 삼키는 대하의 도도함이었다.

‘온 국민’과 ‘한민족 공동체’를 이처럼 뜨겁게 달군 열화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과 ‘민족’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탈 냉전이후 세계화의 거센 파도 속에 그 의미를 점점 퇴화시켜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기존의 ‘국가’와 ‘민족’이 견지해 왔던 위상과

그 합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이번 한일 월드컵으로 강력하게 제기됐다.

등근 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한 것은 경기의 승패나 선수들의 현란한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채색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가지는 새로운 무게와 의미였다.

세계화의 물결이 넘쳐나면서 더 더욱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움지에 밀려나 있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월드컵을 통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러한 가공할 만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전면적인 부활을 전 세계인들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품에 안는데 조금

도 인색치 않았다는 사실이다. 월드컵 현장에서는, 언제 민족주의가 배척됐고, 국가주의가 움지로 그 모습을 감춘 적이 있었던가를 반문하면서, 너무나도 떳떳하고 우렁찬 모습으로 민족과 국가는 당당한 부활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다. '축구는 민족주의를 용인할 수 있는 마지막 형식'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웅변이라도 하듯 세계화와 국제화의 새 천지에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개선장군처럼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다. 바로 이 같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전면적인 발흥의 현장에 좀처럼 풀이지 않은 하나의 커다란 의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음은 웬 일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세계인들의 눈앞에서 현란하게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민족',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채우고 있는

구성물들이 가지는 당혹스러움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팀을 달리하면서 각기 다른 나라의 뜨거운 애국심의 대상이 되어있는가 하면, 온 세계인들이 주시하는 화려한 개막경기에서 지난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했던 자기 나라 프랑스를 패퇴시킨 세네갈 팀 감독은 이번 대회가 만들어진 대표적인 조국에 대한 '배반자' 이기도

“

엄청난 무게와 열기로 우리를 압습한 월드컵의 위력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로 포장되고 있는 저 우렁찬 합성과 환희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뭉친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로 다시 일어난 코리아. 이들 구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너무나도 우렁차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청천벽력이었고, 만물을 삼키는 대하의 도도함이었다.

”

했다.

월드컵을 통해 세계적으로 물결치고 있는 조국애, 국가애, 민족애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들이 가지는 복잡성과 다양성의 정도는 각 국 대표팀들의 국적이나, 민족성의 복잡성과 다양성에서도 극명하다. 자기의 원래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귀화, 그 나라 대표팀의 떳떳한 일원으로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국민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환호의 대상이 된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한 꼴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16강 행 마저 좌절된 제  
전 세계 프랑스 인들을 애통케 한 것은 바로  
'다민족' 군 프랑스 팀이었다. 월드컵 공동개  
최의 영광을 16강 진출로 승화시키면서 전  
세계의 코리안과 일계인들의 조국애와 민족  
애의 결집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또한 바로  
이들 팀을 이끈 네델란드와  
프랑스인 감독이었다.

축구장에서는 사생결단의 적수로 대결하던  
바로 그 상대국. 그러나 바로 그 상대국 출  
신의 감독과 선수들이 자국 팀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 자기들 조국애의 뿌리를 구성하  
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월드컵 현장에서 드  
높이 고양된 민족과 국가, 그러나 그러한 민  
족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뿌리에는 대단히  
이질적이고 외래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  
되어 있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  
과 함께, 이제는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가  
의 전면적인 등장 또한 인정치 않을 수 없  
다. 하나의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구성요소  
로는 경계선을 뚜렷이 한 국경, 국적으로 통  
일된 국민이 대 전제였다. 그런데, 월드컵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국과 국가란 이러한 전통적  
인 요소를 그 구성 내용으로 하던 조국과 국  
가가 이미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구획된 국  
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된 민  
족공동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그  
것은 또, 하나의 국적으로 통일된 구성원들  
로 조직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국  
민집단만으로 구성된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는 이미 상당한 거리를 둔 새로운 조국이었  
고, 새로운 민족공동체였다.

월드컵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국경을 뛰어넘은  
민족적 연대'이었으며, '민족을 뛰어 넘은 국  
민적 연대'였다. 그동안 긴 국민국가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국민'과 '민족'을 함께 담  
아주는 '국가'의 존재에,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해주는 '국경'의 존재에 퍽 익숙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국'의 구호아래  
성공시킨 월드컵은 '국경'과 '국가'의 높은  
벽을 허물고, 그것이 가로막아왔던 많은 이질  
적인 요소를 함께 어우르는 공존적 통일성의  
場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대-한국', '오-필승 코리아'. 이는 월드컵  
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을 뿐 아  
니라, 그것이 지나가고도 여전히 우리들의  
콧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서 땀 돌고 있는 자  
랑스런 구호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세계 속에 다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렇게도 아름답고 또 거룩했으며,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까지 구체화된 '대-한국'. 그러나 그 대-한  
민국은 이미 하나의 국경과 하나의 민족성으  
로 선을 그었던 과거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  
고 있었다. 배타적이고 획일적인 내용만을  
고집해 오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다양성과  
복합성을 새로운 구성내용으로 하는, 열린 민  
족주의와, 세계화된 국가주의를 내용으로 하  
는 '대-한국'으로 재 탄생되고 있음은 월드  
컵이 웅변해준 또 하나의 외면할 수 없는 외  
침이었다.

#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정책적 부분과 실용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에는 중국 공산당의 민족에 대한 이론 및 정책 선언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이 포함되고, 실용 부분은 민족간부의 양성이라든지,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교육, 언어, 인구 등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는 것이다. 즉, 이런 구분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의 민족정책의 선언적 성격과 아울러 실제적인 성격을 검토할 수 있고, 그 결과 중국 민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민족 정책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한 후, 이런 이론적 측면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였는지를 논술한다. 또한, 제도화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결과와 영향은 무엇이었는지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이진영 / 경희대 교수

## 일반적이며 공식적인 견해

### 이론화를 앞세운 개혁·개방정책

중국의 민족정책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 소집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때 선언된 내용은 1954년 헌법 제정시 다시 논의되고, 1982년 개혁개방 후 수정된 헌법에서 다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률적으로 중국의 민족 정책을 이론화한 것은 1952년 2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實施要綱)'에 기초하여 1984년 개정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민족정책은 이런 법률적 규정의 변화에 호응하여, 주요 공산당 지도자들의 민족정책에 대한 언급과

연설,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하는 민족학 연구자들의 논리개념의 도출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정책에서 선언되는 주요 정책은 1) 민족평등정책 2) 민족단결정책 3) 민족구역자치정책 4) 사회개혁정책 5) 경제문화사업정책 6) 언어 문자존중정책 7) 풍속습관 존중정책 8) 종교신앙자유정책의 아홉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통일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라는 "조국의 대가정(大家庭)"에는 56개 민족이 살고 있으며 "민족평등은 민족단결의 전제조건이며, 민족단결은 민족평등을 실현하는 담보"로, "민족구역자치라는 구체적 실천"에 중국 민족정책은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민족구역 자치를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은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적 개혁과 경제문화 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언어, 문자, 풍속, 습관, 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선언은 시기적인 변화에

따라 실제 정책 운용상에서 많은 굴곡을 거치게 된다.

중국의 민족정책은 많은 면에서 중국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중국이 소련 공산주의의 민족이론을 중국에 맞게 개량하여 자신의 이론을 개발하고, 둘째, 이 이론은 중국의 역사적 현실과 결부하여 구체화되었으며, 셋째, 그 결과 중국의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은 소련과는 다른 운용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성립된 민족 이론과 정책도 구체적인 실행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보여, 이론과 실제 정책에서의 괴리와 함께, 소련의 경험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전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스탈린의 민족 이론에 기초하여 중국의 민족문제를 고찰한다는 것이었으며, 중국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강조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민족에 대한 개념과 민족식별에 있어서 스탈린의 이론이 원용되었다면, 구역자치 정책은 소련과는 판이하게 구별되는 중국만의 구체적인 정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초기 소련의 영향 아래 진행된 민족식별에 대해 검토하고, 중국만의 독특한 이론이 이후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상술한 구역자치와 중국의 9대 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 민족식별 작업과 정치적 성격

중국 전역이 소위 공산당에 의해 해방이 되고 치안이 안정된 후, 중국 정부는 1950년부터 민족식별(民族識別) 작업에 들어간다. 이 작업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1956년에서 1957년까지 중국 경내의 민족에 대한 기본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민족식별 작업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그 결과 1978년 모두 55개의 민족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분

류되었다.

민족식별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민족에 대한 범주화를 통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민족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인 공산주의에서 민족은 소멸될 존재로 파악된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사상이 레닌주의로 변하면서 구체적인 식민지의 상황에 직면한 레닌에게 민족문제는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레닌은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강령적 성격의 언급만을 하였을 뿐이다. 그의 입장은 민족자결 원칙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민족문제에 대해 이론화를 시도한 것은 스탈린이었다. 다섯 가지 중요 저작을 통해<sup>2)</sup> 스탈린은 민족의 개념,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등 공산주의와의 관계, 공산국가와 민족문제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언어의 문제까지 언급하였다. 스탈린의 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민족 발전의 3단계론을 제시하고, “현대민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궁극적인 민족 소멸을 주장한 것이다.

스탈린에 의하면, 민족문제는 3단계로 발전한다. 먼저 자본주의 초기에는 민족과 민족 국가가 형성되고, 이어지는 제국주의 시기에는 민족에 대한 다른 민족에 대한 압박이 나타나며 이것이 식민지 문제로 표출된다고 한다. 그러나 3단계인 소비에트 단계에서는 자본주의가 소멸하고, 민족압박도 사라지면서 민족문제는 해결되고 무산계급에 의한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의 현대 민족 개념은 이러한 세 번째 단계를 위한 개념이다. 그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민족관계를 현대민족이라고 개념화하고 그것을 자본주의 민족과 구별하였다. 현대 민족은 자본주의가 폐쇄하고 자본주의 민족 차별이 사라진 토대에서 성립한 공동언어와 민족 융합을 실현한 사회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족이 성립하는 이론으로 사대 구성원리를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공동언어, 공동지역, 공동경제생활, 공동문화심리소질을

가진 공동체가 민족이라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의 이러한 민족 이론은 소비에트인이라는 현대 민족을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소수민족을 압박하고 강제 이주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중국의 민족식별은 이런 스탈린의 민족 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중국 공산당이 변경지역의 소수민족 지역까지 모두 점령하고 안정화를 이룬 것은 1955년이다. 새로운 여러 민족집단에 접한 공산당은 이들에 대한 분류를 통하여 산술적인 대표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즉, 중국 공산당은 모든 무산계급과 함께, 모든 민족에 의한 당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1953년 3월, 모택동의 “대한족주의를 비판함(批判大漢族主義)”이라는 지시는 민족관계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다. 선언적인 측면에서 민족평등과 민족 단결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민족과 그러한 관계가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족식별 작업은 중국에 존재하는 민족은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당은 이들을 어떻게 대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이러한 민족식별작업의 정치적 특성은, 민족식별작업이 완료되고, 바로 각 민족의 대표가 인구 비례에 의해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대표를 보내기 시작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중국이라는 국가의 형식성을 완성하는데 민족식별 작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중국의 민족식별 작업은 중국 특유의 민족적 현실에서 소련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 민족 문제의 복잡성은 1) 역사적으로 민족이 생성, 소멸되었고, 그 명칭 또한 너무 많은 현실 2) 민족 분포에 있어서 대잡거 소취거(大雜居 小聚居)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3) 역사가 유구하여 그 시원 역시 아주 멀리 소급하여야 하는 현실 4) 현재의 각 민족의 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중국 전역에 상호 연관하여(대잡거) 거주하

는 여러 민족은 작은 규모로 따로 모여 사는데(소취거), 그들의 조상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역사적인 변화를 통하여 복잡하게 얽혀 그 시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중 어떤 집단은 1954년 당시 여전히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식인의 풍습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많은 집단에서 노예제가 잔존하고 있었다. 반면, 조선족의 경우처럼 이미 토지개혁을 이루어 사회주의 단계에 도달한 집단도 있고, 일부는 국경 너머에 동료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다.<sup>4)</sup>

민족식별작업은 이러한 조건에서 기본적으로 스탈린의 민족 구성 4대원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곧 하나의 원리를 추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민족의식이라는 요소이다. 즉, 하나의 구별되는 집단으로 자신들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 경우, 별개의 민족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민족의식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요소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는 하나의 민족으로 범주화하기도 하였다. 묘족(苗族)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족식별작업의 다른 정치적 성격은 역설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새로운 신생민족이 탄생했다는 점이다. 여러 집단이 민족적인 징표(ethnic marks)를 공유하지 않았으나, 공산당에 의해 민족으로 규정(identification)된 후 오히려 그들의 민족의식이 각성되고, 범주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흥미로운 것이다.<sup>5)</sup>

## 독특하고 새롭게 창조된 중화민족 개념

민족식별 작업이 이루어진 후 중국 공산당이 이론적으로 개념화한 것은 식별된 민족에 기초한 새롭게 규정한 중화민족 개념의 창출이다. “중화민족은 한족(漢族)을 주체로 하고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민족이다. 이런 개념화는 스탈린의 소비에트 시대의 현대 민족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적 변용

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창조되는 중화 민족에서 주체적 민족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체적 민족 개념은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근대 서구 국민국가(nation-state) 형성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러한 민족주의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통합이 국민국가의 기초가 되고 있다. 중화민족은 이러한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된 개념이다. 이것은 흡사 British라는 국민(nationals, nation)이 English를 중심으로 Welsh, Scottish, Irish 등의 민족이 포함되어 성립하는 것과 유사하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념을 독특하게 구체화하여 그것을 계서적 개념으로 만들었다. 즉, 중화민족에 해당하는 것을 ren(人)으로, 중화민족의 구성요소는 zu(族)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은 족의 상위 개념이다. 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은 이제 한족(한족)이라 불린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조선인도 한국인도 아니다. 그들은 조선족(조선족)으로 식별되는 중화민족의 일원인 것이다. 영어로 번역도 Chinese nation(中國人, 中華民族), Han nationality(漢族)로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의 개념이 단순히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민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일반 민족을 넘어서는 상위 민족 개념에 중화민족이 있는 것이다. 흡사 스탈린이 제시한 목표로서의 현대 민족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중화민족 안에서도 민족간의 평등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주체민족으로서의 한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족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대한족주의 보다는 소수민족의 소위 지방민족주의(地方民族主義)에 대한 비판과 투쟁이 이루어졌다.

즉, 중화민족이라는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고, 자

민족식별 작업이 이루어진 후 중국 공산당이 이론적으로 개념화한 것은 식별된 민족에 기초하여 새롭게 규정한 중화민족의 개념의 창출이다. “중화민족은 한족(漢族)을 주체로 하고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민족이다. 이런 개념화는 스탈린의 소비에트 시대의 현대 민족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적 변용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중국의 민족 정책에 있어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다.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은 이러한 민족과 국적이 혼재되고 새롭게 규정된 중화민족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티벳 문제의 근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의 재외동포의 개념과 충돌하는 조선족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중화민족 개념의 독특성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로 성립할 당시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근대적 민족 국가에서 그 구성요소인 중국인에 어떻게 현재의 소수민족을 포함시킬 것인가 고민했던 것이다. 특히, 만주족의 청(淸)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만주족을 포괄하는 형태의 국가를 완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화민족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었다. 손문은 “한족 인구에 비해 한족 아닌 자는 적으며 …… 그러므로 중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면서,<sup>6)</sup> 중국 민족의 구성 요소로 한, 만, 몽, 회, 장(漢滿蒙回藏)의 5족 공화를 주장하였고, 장개석은 역사

적 사실과 소수민족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중국에 사는 모든 거주민은 동일한 핏줄을 가지고 있고, 그들간의 차이는 지역적, 종교적 차이이지 종족이나 민족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7)</sup>

즉, 주체민족으로의 한족과 중화민족에 대한 강조는 이미 역사적으로 중화민족주의에 배태되어 있는 것이다.

## 민족관계와 역사상 통일적 다민족 국가

이러한 중화민족에 기초한 중국의 민족이론은 개혁개방기를 거치면서 이론적 정교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민족관계에 대한 연구와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개념의 시공적 확장으로 표현된다. 중화민족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구성분으로 성립하므로 이들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민족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선언적 의미에서는 평등적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통일된 다민족 국가였으며 그러한 이념적 기초에 의거해 민족관계사라는 영역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중국 경내에 존재하는 56개 민족의 조상과 그들의 역사적 성취는 중화민족의 성취이고, 그리고 민족관계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백수이(白壽彝)는 본국의 역사에 있어서 국토와 조국을 개념화하는데 두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왕조 변천에 따라 영토가 변했던 역사적 영토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중국 영토를 중국의 기본 영토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화민족이 다민족 대가정에서 살고 있으므로 중국 역사는 현재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이런 해석은 중국사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중국사는 이전에는 중국사와 변방민족사가 있

었는데 그런 구별은 잘못된 것이며,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화민족의 역사로 다시 재편되어야 한다고 확장되었다.<sup>9)</sup>

이런 역사관은 한족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보도록 요구하였다. 통칭 오랑캐로 알고 있는 변방민족의 왕조들도 모두 중화민족사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경향은 그들 중의 많은 부분이 중화민족에 동화되거나, 그 지역이 현재의 중국 영토이므로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발해나 고구려도 중국사의 일개 지방 정권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또한, 변방민족의 중국에 대한 침략은 부인되고, 그것은 중화민족 내에서 발생한 민족간의 전쟁으로 재 규정되었다.<sup>10)</sup> 즉,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은 조국의 역사에 공헌하였으며, 민족 전쟁은 불가피한 민족관계의 모순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결과 현재까지 영웅으로 취급되는 인물들에 대해 재평가하여야 하고, 민족관계를 돈독히 한 소수민족 인물이나 한족인물이 재조명을 받았다. 즉, 정통 왕조에 투항하거나 협력한 인물들을 재평가하였다.<sup>11)</sup> 특히, 개혁개방 후 강조된 것은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가 중국에서 고대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즉, 이민족이 세운 왕조들도 전통적인 조공제도에 속해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통적인 다민족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의 중국은 문화적 의미의 중국으로 지금의 중국은 이를 이어 받았으므로 중국은 고래로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중국학자들의 이론화 노력은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중국 정부가 개념화한 중화민족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한 정치-사회의 변화

중국의 독특한 중화민족 관념과 통일적 다민족국가 개념에 기초하여 그것의 구체적 실천인 민족 정책은 이 관념들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움

적었다. 중국의 민족정책, 특히 소수민족과 관련하여 개혁개방기에 주요하게 나타난 표현과 원리는 1) 다원일체(多元一體) 2)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 3)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중화민족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원일체란 중국은 다민족 사회이고, 다양한 인종적 배경과 지역적 특색이 있으며, 공산화 이전에는 그 정치-사회-경제적 다양성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다원성을 일부 인정하는 토대에서 일체화한다는 의미이다.<sup>13)</sup> 즉, 다원에는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가 일체에는 목표 지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일체에 있어서 주체 민족인 한족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원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하는 점이 하나의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 공존 장기적 융합이란 말 그대로, 한족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단기적으로는 공존하나 장기적 목표는 중화민족으로의 융합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동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거기에는 주종관계(주류사회에의 동화)가 있다는 것이다. 융합은 상호작용으로, 한족도 소수민족의 관습 등에 동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물론 어려운 얘기이다.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방침은 우리가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관용성을 종종 발견하여 착각하는 부분이다. 즉, 작은 것은 놓는다는데서 관용성의 여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큰 것이고 무엇이 작은 것인가 하는 점이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중화민족주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중화민족주의란 중국이 서구와 일본의 침탈 그리고 전근대적 요소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중화민족주의의 요소 중 “영토적 일체성과 국민적 통합”이 가장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영토적 일체성

이란 중국정부가 영토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홍콩이나 대만문제에 집착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티벳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민적 통합은 민족정책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실상의 “주체민족인 한족으로의 동화”가 목표인 셈이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장기간의 과제이나, 정책의 측면에서는 부침을 겪으면서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은 행정제도, 교육, 언어에서의 정책에서 나타난다. 큰 것은 틀어쥐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것과 연관된 것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를 구별하여 대처한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일체적 요소는 소수민족이 침범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다원적인 것은 문화적인 면에서만 허용된다. 중국정부의 영토나 민족관념은 불가침이나, 언어나 풍습 등은 보호되고 때로는 장려된다. 우리는 연변에서 한국어가 쓰여진 간판을 보고 중국의 민족정책을 본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문제도 단순히 문화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화 할 경우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1957년의 조선족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어 순결논쟁과 이후 연결된 반우파 투쟁에서 중국정부는 조선족 학자들을 지방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숙청한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중국의 민족 정책은 ‘구역자치’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역자치란 소수민족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일체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책이다. 구 소련이 민족공화국 정책을 사용하여 후에 분열하는데 빌미가 되었다면, 구역자치제는 소련보다 더욱 통제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행정개념이다. 이것은 형식적인 자치이며, 주로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전개

### 모택동 시기의 중국 민족정책(1949-1978)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적 발전에 기초하여 실제로 중국 민족정책의 실행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은 크게 나누어 두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모택동 시기(1949-1978)와 개혁개방기(1978-현재)가 그것이다.

물론, 1949년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중국의 민족정책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정권 성립 후 중국의 민족정책에 일정부분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다.<sup>14)</sup>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성립하고, 그 결과 제 민족이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집행으로서의 중국의 민족 정책은 1949년 이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민족정책의 특징은 기본적 생성과 변화 발전 그리고 좌절로 특징지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면서 많은 민족이 중국의 경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전술한대로 민족식별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분류와 대표성을 획득하고, 구체적인 민족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기의 민족 정책은 시기적으로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1) 중국의 건국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반포되고, 그 속의 공동 강령이 선포된 1954년까지의 1단계 2) 민족정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민족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민족식별을 하며, 이를 출판의 형태로 표출한 시기인 1958년까지의 시기 3) 정풍운동(整風運動)에 이은 반우파(反右派) 투쟁과 민족지역에서의 지방민족주의 반대 운동이 실시되고, 소수민족지대에서 소위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는 1966년까지의 시기 4) 문화혁명이 시작되고 소수민족 정책이 실제로

정지되고, 소수민족에 대한 극단적 동화정책이 실행된 시기로 1974년까지의 시기, 마지막으로 5) 문화혁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일부 지역에서 서서히 변화를 보이는 1978년까지 4년간이 그것이다.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혁명전설시기로 평가하는 이 시기의 기본적 특색은 다음과 같다.

#### 선언적 입장과 국가적 통일(1949-1954)

이 시기 민족정책의 특징은 일부 해방된 지역에서 민족정책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동시에 미해방 지구에 대한 정복과 치안 확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만주의 조선족 지역처럼 이미 1946년에 중국 공산당이 접수하여 소위 치안을 확보하고, 변구(邊口)에서 실시했던 사회주의 개혁이 시작된 곳도 있지만, 티벳의 경우처럼 기존 거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치안 확보가 막 시작된 지구가 혼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 시기에는 중국의 국가적 통일을 완수하고, 각 지구에 정권을 성립시키는 것이 그 주요 임무였으며, 이런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은 선언적 특색과 부분적 실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적인 헌법이 부재하고, 각 지구에 정부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예로 만주지역에는 동북인민정부가 54년까지 존재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은 현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중앙에서 민족정책과 관련하여 정한 방침은 1950년의 “소수민족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에 대한 지시”가 그것이다.<sup>15)</sup> 이 정책의 골자는 각지의 소수민족의 정황이 각기 다르므로 중요한 문제는 중앙에 보고하여 처리하나 기타 문제는 각 지구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을 훈령한 것이다. 특히, 각 소수민족지구에서의 사회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민족의 종교, 풍속, 습관 그리고 현존하는 토지제도나 세수구조 등을 고려하여 그 완급을 조절할 것을 명하고 있다.

## 민족구역자치와 민족식별(1954-1958)

이 시기는 중국의 민족정책의 기초가 전국적 차원에서 성립한 시기이다. 전국적 범위에서 치안이 확보된 후, 헌법이 선포되고, 그것에 기초한 공동강령에서 평등, 단결, 호혜적 관계의 원칙이 확립되면서, 중국의 민족정책은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 진입한다. 이 시기에 실시된 정책은 민족구역자치에 대한 정립, 민족식별, 민족지구 안정화, 소수민족간부 배양, 교통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는 중국 정부가 현재도 민족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방침이다. 민족구역 자치란 기본적으로 “민족 평등에 기초하여 소수민족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평등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제도로 민주집중제의 원칙에서 건립되어 인민민주전정(프로레타리아독재)이 실행되는 정치형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구역자치는 전술한 중화민족주의에 근거하는 세 가지 원칙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는바, 그것은 국가통일의 원칙, 민족단결의 원칙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원칙이 그것이다.<sup>16)</sup> 환언하면, 지역적 할양 등의 민족자결권의 부정, 중화민족에서의 이탈 금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형식 즉 공산당의 단독 집권 인정 등의 특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구역자치는 각 민족에게 자치지방으로의 기능을 일정부분 허용하는데, 이렇게 건립된 자치기관은 중앙의 통일적 영도를 받으면서 중앙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입법권, 언어문자사용권, 소수민족간부 배양권, 경제적 권리와 기타 사무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된다. 즉, 민족구역자치는 중국과 중화민족에서 분열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공산당의 일당독재에 저항하지 않는 한 행정-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자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구역자치에 의해 중국의 소수민족은 지방정권으로 각 급의 정권기구를 조직하고 그

민족구역 자치란 기본적으로 “민족 평등에 기초하여 소수민족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평등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제도로 민주집중제의 원칙에서 건립되어 인민민주전정(프로레타리아독재)이 실행되는 정치형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표를 뽑아 중앙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즉, 성급에서는 5개의 자치구가, 지구급에서는 자치주와 맹(盟 : 몽고족에게 허용)이 그리고 현급에서는 자치현과 기(旗 : 몽고족에게 허용)가 중국 각지에 성립하게 된다.<sup>17)</sup>

이런 지방정권의 성립은 민족식별의 기초 하에서 이루어졌다. 민족식별에 대해서는 전술하였으므로 생략하나, 식별과 관련하여 몇 가지가 추가되었다. 그것은 먼저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어 명칭의 변화이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변방민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뜻에서 모멸감을 주는 명칭이 쓰여졌다. 이런 명칭이 제거되었다. 예를 들어 묘족(苗族)의 경우 원래의 묘(猫)에서 개를 의미하는 앞의 부수가 생략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족식별 작업에 대한 결과가 각 소수민족에 대한 소개서의 형태로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간지(簡志), 간사(簡史), 개황(概況)의 형태로 출간되어 각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조선족의 경우 조선족간지, 조선족간사, 조선족개황이 중국어와 조선어로 편찬된 것이다. 이런 편찬은 이후 1978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중국 민족에 대한 그 당시의 현황과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민족지구의 안정화는 지난 시기에 이어 중국 정부가 계속 추진했던 정책이다. 일부 소수민족 지역은 점점 산골이거나 오지여서 사람의 왕래가 어려웠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토비가 준동하고 있었고, 미얀마 국경 등에는 국민당의 군대가 저항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숙정작업은 중국의 국가적 체면과 공산당에 대한 신뢰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 중공 중앙의 지도자들은 변방 민족지구를 시찰하고, 이런 작업을 독려한 것이다. 또한, 지역 사정에 맞게 신중하게 처리한 지난 시기의 문제가 잔존하여, 민족지구 일부에서는 부족간의 내부 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토지개혁과 중공 중앙에 대표를 선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질서와 친중공의 새로운 세력간의 내분이 있었던 것이다. 민족단결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게 있어 이런 분열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주로 친중공계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진압되었다. 양산(涼山)이족(彝族)의 참사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민족지구 안정화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변방의 소수민족지구와 한족지구를 연결하는 교통망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것은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중공의 통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소수민족지구와 한족지구와 연결되어 민족통합이 촉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건설을 통해 빈곤에 허덕이는 많은 소수민족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생활을 개선하며, 특산품 등을 교역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주로 변방지역인 관계로 중국인민해방군이 이 부분에서 많은 공헌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 중요한 정책은 소수 민족간부의 배양이라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에 있어, 민족 스스로가 통치해야 하는 사정에서 중공의 민족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할 중간자가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소수민족 지배층은 중국의 사회주의 개혁의 성격과 맞지 않았으므로, 친중공적인 민족간부의 양성은 시급한 일이었다.

1950년 반포된 “소수민족간부 배양 시행방안”과 “중앙민족학원 성립 시행방안”이 그 골자로, 이에 기초하여 민족간부의 양성이 있게 된다. 북경에 중앙민족학원<sup>18)</sup> 설립을 필두로 각 지구에 민족학원이 설립되었는데, 모두 13개였다. 특히, 정치훈련반이나 정치학교 형태의 숙성과정은 이 시기에 성립되어 후에 민족학원이나 당에 흡수되기도 하였다.<sup>19)</sup> 이 결과, 1953년에 10여만에 불과했던 민족간부가 1958년에는 40만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들은 중국민족정책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20)</sup>

### 사회주의 건설과 지방민족주의 반대 투쟁 (1958-1966)

이 시기는 중국 전체적으로는 급격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는 시기이다. 즉, 농업, 공업, 수공업에 있어, 소위 집체적(集體的) 소유가 달성되고, 인민공사라는 정치, 사회, 경제가 혼합된 형태의 사회주의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특히, 대약진 운동기간 동안 보인 소위 공산풍(共產風)은 “한 발만 걸으면 천당에 가고, 하루만에 삼사(三社 : 合作社, 高級社, 人民公社)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과격한 개혁을 요구하였다.<sup>21)</sup> 그러나, 이 시기는 또한 3년 자연재해와 인제가 결합된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시기에 민족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족지구의 농업과 공업의 발전에 있어 1962년에서 1965년 3년간 70% 이상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다.<sup>22)</sup> 그러나, 경제적인 면의 논쟁을 피한다면 이 시기는 전기에 성립한 중국의 민족정책이 좌초하기 시작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정풍운동의 결과 나타난 지방민족주의 반대 투쟁과 모택동의 10대 관계에서 보듯, 민족문제를 근본적 계급 모순관계로 파악하는 행위와 그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측면에서 몇몇 민족자치지방을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걸음마를 걷듯이 이제 막 성립한 민족정책이 본격적인 정치적 태풍

을 만나 좌초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던 정풍운동과 이어진 반우파 투쟁은 소수민족정책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전국적 규모로 민족식별과 민족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는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문화적인 측면이 공격받기 시작하였다. 1957년 제출된 “소수민족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풍과 사회주의 교육에 대한 지시”에 의하면, 소수민족지구는 둘로 나뉘어 정풍의 파고를 맞이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미 사회주의적인 개조가 어느 정도 완성된 지역은 한족지구와 같은 정풍운동이, 그렇지 못한 지구는 여전히 조사와 연구를 통해 개조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소수민족지구의 정풍은 지방민족주의 반대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지방민족주의란 “통일된 국가인 민족의 대가정에서 민족관계를 말살시킬 수 있는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로 정의하고 있는데,<sup>23)</sup> 이것이 반우파 투쟁의 와중에서 우파적 행위로 지목받게 된 것이다. 즉, 당시의 노선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대노선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우파로 규정하였는데, 민족문제는 우파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지방민족주의는 사실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의 한 표현으로 생각되었는데, 대민족주의의 다른 한 표현인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는 우파로 예단되지 않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대한족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었다.<sup>24)</sup> 그러나 이런 대한족주의는 소수민족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지 모르는 한족(간부)의 편향된 행동을 규제하자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지방민족주의에 대한 반대는 군중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되었다. 지난 시기 당의 권유에 의해 민족교육을 강조하던 민족간부 및 교육자들이 대거 우파분자로 낙인찍혀 일부는 노동개조를 당하고 일부는 직무를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다.

민족지구에서는 정상적인 정권기구가 무너진 후 무정부 상태에서 인민해방군의 사실상 계엄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민족지구가 가지는 변경적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계엄은 1971년까지 지속되고, 1971년 이후에도 반군 반민(半軍半民)의 혁명위원회가 지속된다.

특히, 1957년 모택동의 소위 “10대 관계론”에 한족과 소수민족의 모순이 포함되고, 거기에서 “엄중하게 존재하는 지방민족주의”를 척결하여 민족단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중앙의 입장은 이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sup>25)</sup> 또한, 1958년 발생한 청해성 소수민족 반란 사건의 결과 민족문제에 있어 계급적 성격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는 모두 계급의 적으로 매도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민족문제의 계급투쟁화는 문화혁명기에 심해지나, 이미 1958년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정책에서는 20년의 고난기가 시작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 할 것이다. 지방민족주의 반대투쟁은 실제적인 조치로도 나타나는데, 몇몇 민족자치현을 폐기하거나 합병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하북성에서 있었던 회족자치현들에 대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sup>26)</sup>

### 문화혁명과 소수민족(1966-1978)

문화혁명은 소수민족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의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고, 기본적인 정책의 원칙마저 훼손되는 시기이다. 문화혁명기는 일반 한족 지구에 있어서도 피해가 컸던 정치운동이지만 소수민족 지구에서는 이중의 재앙이 있었다. 민족간부들의

대부분은 소위 비판을 당하여,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혹은 하방(下方)되어 농촌 등지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소수민족관련 기관들의 활동은 정지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소수민족정책은 정지하였으며, 군중운동적 측면에서는 탄압이 자행되었다. 소수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문화혁명기의 소수민족정책은 국방차원, 급격한 한화(한화)추진, 제도적 권리의 위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방차원의 접근은 소수민족지구가 주로 변방에 위치하여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소 분쟁으로 인한 국경의 긴장과 영토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소수민족의 이탈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기에 공산당과 홍위병의 압박을 피하여,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피신한 소수민족에게는 “반국(叛國 : 나라를 배반함)”의 쪽지가 붙거나, 그 나라의 특무(간첩, 비밀요원)로 매도되어 처형되거나 압박을 당하였다. 인구의 20-30%가 해당된 지역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 고문과 구타, 재산몰수 등이 뒤따랐다.<sup>27)</sup> 특히, 민족지구에서는 정상적인 정권기구가 무너진 후 무정부 상태에서 인민해방군의 사실상 계엄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민족지구가 가지는 변경적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계엄은 1971년까지 지속되고, 1971년 이후에도 반군, 반민(半軍半民)의 혁명위원회가 지속된다. 소위 정권기구가 재성립하는 1974년 이후에도 많은 지역에서 군사통치적 성격은 유지되었다.

이런 통치체제의 특이성 속에서 급격한 한화가 추진되었다. 민족적인 형식과 내용은 모두 투항주의나 수정주의로 매도되어 타도해야할 조건이었다. 그 결과 당에서도 민족정책과 연관된 통전부, 민족사무위원회, 종교사무위원회가 “소와 뱀 등 귀신의 집합처”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민족간부는 “자산계급의 대리인”으로 반혁명

수정주의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sup>28)</sup> 이러한, 상층부의 민족기구 부분과 민족간부에 대한 탄압은 민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정지시켰을 뿐 아니라, 후속 민족간부의 양성도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문화혁명 후기에 진행된 “계급대오정리운동”은 기층차원에서 기초간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부분의 민족간부가 탄압을 받아, 중국의 민족문제는 한족화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한족화란 한족의 언어, 문화, 사회제도와 다른 것을 미신, 봉건주의, 수정주의로 몰아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중국어의 사용이 강제되고, 한족과의 혼인이 장려되고 민족간 혼인자는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 소수민족의 종교는 철저하게 탄압받고 파괴되었는데, 티벳불교 사원의 반 이상이 전파되었고, 승려는 환속을 강요당하였으며, 회교지역에서는 회교도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는 행위가 연속되었다.

사회제도 상에서도, 사회주의개혁이 더욱 급격하게 추진되어 소위 초기에 공산당에 협력했던 상층부의 소수민족 인사들이 모두 지주, 부농 등의 이유로 처형되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인민과 바로 마주치게 된 것이다. 소수민족지역의 모든 표식은 제거되고,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에게 한족을 배우고 따를 것을 요구하게되었다. 소수민족에게는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뿐 아니라 언어, 종교, 문화 그리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 소 결

모택동 시대의 소수민족정책은 기초적인 성립 후에 바로 붕괴의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언적, 제도적 측면에서 1950년대 초반 민족정책의 성격이 기본적인 제도화의 과정을 밟아갔다면, 1950년대 중반 이후는 정치투쟁의 와중에서 민족정책 자체가 실종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집행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적 개조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성립하였으나,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기초적인 조사도 안 된 상태로, 소위 민주주의적 개조만이 완성된 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지방민족주의 반대투쟁과 문화혁명 은 소수민족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10년 동란으로 문화혁명을 얘기하지만, 소수민족에게는 “20년의 고난기(1958-1978)”라는 표현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출범 후 바로 좌초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학에 있어서 1956년에서 1958년까지를 짧은 ‘황금기’로 표현하는 데서,<sup>29)</sup>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성과는 민족이론에 대한 연구와, 학교의 설립, 민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의 완료, 그리고 형식적 이나마 민족구역자치라는 제도의 생성을 통해 중국 민족정책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등소평 시대의 민족정책은 모택동 시대의 유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 개혁 개방기의 소수민족 정책(1978- 2000)

1978년 12월의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11기 3중전)는 중국에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노선의 도입을 가져왔다. 이후 중국 사회는 급격한 변모를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큰 변화는 소수민족에게도 큰 변혁을 일으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기와 진폭은 한족지구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개혁개방을 맞아 중국의 소수민족문제는 국가의 분열 요소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중국의 국내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변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한다. 이런 상황변화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은 내부적인 개방과 근대화라는 요구와, 중국 전체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

중국의 소수민족은 내부적인 개방과 근대화라는 요구와, 중국 전체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요구 그리고 국제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또한, 이런 요구는 중국의 민족관계에 있어 중화민족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호 모순적인 조건을 요구받게 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는 요구, 그리고 국제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또한, 이런 요구는 중국의 민족관계에 있어 중화민족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호 모순적인 조건을 요구받게 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개방기의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모택동 시기와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가? 또한, 모택동 시기에 비해 발전된 측면이 있는 것인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중국 소수민족정책이 가능하였는가? 이 절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게 된다. 개혁개방기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변화한다. 첫 단계(1978-1984)는 정책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모택동 시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여 1950년대 초반의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에 대다수의 소수민족지구는 여전히 개방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는 사실상 등소평 시기의 소수민족정책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소수민족정책기(1984-1997)라 할 수 있는 이 기간은 중국 전역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소수민족 지구에도 응용하려고 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면개방기의 소

수민족정책은 질적으로 변화하는 중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정책의 어떤 부분이 남아 있고, 그것이 시기적인 변화를 담보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고찰할 수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 회복기 (1978-1984)

개혁개방 후 소수민족정책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는 파괴된 정권기구들을 재건하고, 탄압 받던 민족간부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위 회복 작업은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이 성립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회복이 5년이나 걸렸는가? 그것은 중공중앙 자체에서도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이 있었으나, 소수민족지구는 철저하게 파괴되어 이러한 회복 작업을 담당할 민족간부도 부족하고,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 긴 탄압에 노출되었던 소수민족들이 신뢰를 가지는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전국의 통일전선, 민족, 종교, 사업 부문들이 ‘투항주의로선을 집행하였다’는 모자를 벗겨줄 것을 건의하는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의 지시요청보고(1979.2.3)”에서 “민족정권 부문이 소와 뱀 등 귀신의 집합체”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집단” “자산계급의 대리인”으로 매도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발표하고, 이후 “지방민족주의분자의 모자를 벗겨줄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의 지시요청보고(1979.9.28)”에서는 지방민족주의에 대한 당의 입장이 착오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과거사에 대한 당의 착오와 반성을 표한 후 소위 새로운 시기의 민족정책에 대한 대강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sup>30)</sup>

등소평의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의 통일전선과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과업”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민족사업정책과 종교정책(1979.9.13)”과 양정인(楊廷仁 : 회족)의 “사회주의적 현대화 건설시기에 나서는 민족의 임무(1979.5.22)”는 공산당의 새로운

민족정책의 대강을 밝힌 것이었다. 즉, 통일된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발전이 비교적 뒤떨어지고, 소수민족지구에 사실상의 불평등이 잔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원인이나, 임표 등 4인방에 의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기의 소수민족정책은 “여러 소수민족이 한족의 발전수준을 따라 잡거나 그 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소수민족의 현대화에 초점을 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족사업임무는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조국의 통일을 공고히 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전술한 중화민족주의의 원칙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측면에서도, 선언적인 정책 발표를 하는데, 평등권의 보장, 경제문화발전, 풍속습관 존중, 종교신앙자유존중, 민족사업기구의 회복 등의 모택동 시기 초기와 비슷한 선언이었다 특이한 것은 회복문제에 있어, 소수민족 출판이나 언어사용에 대해 국가가 보조하고, 소수민족 특산물을 개발하는데 국가가 나서는 등의 규정을 만든 정도이다. 이런 규정은 후에 소위 3가지 우대정책으로 발전하는데 1) 민족지구를 도와주는 경제정책 2) 소수민족의 풍속습관 존중하기 위한 상품(예로 종교용품 등)에 대해 국가가 생산 공급하는 것 3) 민족간부와 종업원을 양성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회복기에서 특히 중시된 사항은 민족관계의 강조이다. 소위 20년의 고난기에 대한족주의에 의해 피해를 본 소수민족에게 한족의 공산당이 다가가기 위한 정책은 여러 문헌을 통해 언급된다. “민족관계를 잘 처리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자(1981.7.16)”와 호요방의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의 민족관계와 통일전선(1982.9.1)”에서는 소수민족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신중성이 요구되며, 민족관계를 잘 처리해야 민족단결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모택동 시기의 초기와 달라진 점은 별로 없고, 단지 이론상의 변화가 정책에도 나

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지구에서의 회복기는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의 변화의 속도에서 더 뒤쳐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한족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등소평의 불균등 발전론에 의해 연해지역에서 떨어진 소수민족지역은 개방의 시기도 늦고, 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된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년여의 회복기와 그후의 기초적인 정권 설립 등은 개혁개방기에 소수민족지구가 한족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발전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소수민족정책 (1984-1997)

구체적인 개혁개방기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한다. 민족구역자치법의 개정은 중국의 민족정책이 이제 정상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중국의 민족정책의 집결체로 총 67조로 이루어져 있다. “평등, 단결, 공동번영의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54년의 법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족자치에 대한 범위를 규정한데 의의가 있다. 특히, 민족자치지방의 구획선 변경을 그 민족의 자치기관과 상의해 결정한다든지(제14조), 자치구역(구, 주, 현)의 책임자는 꼭 그 지역 민족간부로 임명한다는 조항(17조), 각 민족이 서로의 언어를 상호 배우도록 규정하고 간부의 경우에는 일부 의무화(49조)한 조치는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법을 선포함에 따라 민족지역에는 다시 자치기관들이 복원되었다. 특히, 현 아래의 자치조직이라 할 향(鄉)에도 민족자치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본적인 행정조직 아래에서도 자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소수민족정책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국가적인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 경제 도입

소수민족지구에서의 회복기는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의 변화의 속도에서 더 뒤쳐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한족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등소평의 불균등 발전론에 의해 연해지역에서 떨어진 소수민족지역은 개방의 시기도 늦고, 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된 상태였던 것이다.

의 원칙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으로 정해지면서 소수민족정책도 이러한 국가정책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1)</sup> 즉, 경제발전이 주요한 목표가 되어 소수민족지구에서도 생산력의 증가를 통한 발전을 이루고, 이러한 발전은 중화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민족지구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 부각되었다. 기존의 정치중심 사고를 변혁하고 관념의 변화를 유도하여 민족전통문화를 현대화하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시장구조에 적응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된다.<sup>32)</sup> 특히, 연안 한족지구에서 발전하고 있던 향진 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족지구에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나,<sup>33)</sup> 소유제를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도 논의된다. 강택민은 “중국의 현 단계 소수민족문제는 집중적으로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경제 문화 발전 요구를 더욱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34)</sup> 즉, “오직 경제를 성장시켜 소수민족의 생활을 개선해야만 소수민족들이 중심으로 기쁘게 심복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런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 등소평의 민족정책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sup>35)</sup> 또한, 소수민족에 대한 경험은 모택동 보다 풍부한 등소평은 소수민족에 대해 어떠한 이상주의적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용주의적으로 사고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실용성의 기초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발전인 것이다. 개혁 개방기의 중국의 민족정책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 특이하게 전개된 티벳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의 기초를 알 수 있고, 다른 정책과의 연결 고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발전에는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인 면에서의 통제의 유지였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통제는 전술한 민족 사업임무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민족관계에 대한 강조와 공동 번영에도 나타나고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역자치제를 통해 민족평등이 실현되고, 소수민족정책의 중심이 소수민족지구의 경제발전에 있으니, 중화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당의 지도사상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당의 지도사상은 민족단결과 국가안정을 통한 단기적 공존과 장기적 융합의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조류가 다민족 국가에서는 민족융합이 있는 국가가 발전하고, 민족분열이 있는 국가는 멸망한 경우를 보아, 민족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sup>36)</sup> 특히, 1990년대에 발생하는 “민족과 종교라는 구호 아래 발생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민족분열주의자들의 행동은 ……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중화민족 대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로 …… 맹아상태에서 싹을 잘라야 하며 결연히 대항하여야 한다”는<sup>37)</sup> 입장은 중국의 공식적인 민족정책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강택민은 1990년대 중국 민족정책의 임무를 1) 소수민족지구경제발전 2) 사회적 진보 3) 개방확대 4) 민족구역자치제도 견지 5) 진일보한 민족단결로 요약하고 있다. 그는 소수민족문제가 가지는 장기성, 복잡성,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중화민족

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단결이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여 역시 정치적인 통제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sup>38)</sup> 이론 부분에서 전술한 민족관계에 대한 연구의 강조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민족학의 기본적 임무는 중화민족의 단결이 강조되면서, 각 민족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역사적인 민족단결의 사례와 민족융합의 사례 그리고 그 시기의 민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장려되었고, 공동번영을 위한 민족 간 모순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두어진 것이다. 이런 민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민족간부양성의 문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새로운 사회주의시기 민족관계를 처리하는 민족간부의 양성이 각 방면으로 시작되게 된다. 모택동 시기와 다른 점은 정치분야 보다는 주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의 소위 전문적이고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민족간부 양성이 중시되었다는 점이다.<sup>39)</sup>

경제가 중시되고 정치적인 면에서 안정이 강조되면서 추진된 것은 문화적 측면에서의 복구였다. 주로, 소수민족 언어, 문학, 역사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었고 강조되었다. 그 결과, 1950년대에 출판되었던 책들의 복각이 진행되고, 민족관계사적 측면에서 연구가 심화 진행되었다. 또한, 민족출판사에 대한 지원, 민족어 방송국과 신문사의 설립과 지원이 계속되고, 내용과 형식에서 일정부분 자유가 허용되었다. 특히, 교육 사업과 의료사업에 대한 강조는 민족지역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1992년 전면 개방과 그에 따른 중국 사회의 질적 변화가 초래한 것은 소수민족 지구에 대한 보조가 시장논리에 밀리게 되면서 중단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소수민족 지역은 중국의 정책보다도 더욱 강력한 시장의 논리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혁개방기 중국 민족정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민족문제의 국제화이다. 대표적인 것은 티

벋문제로 3장에서 상술한다. 또한, 개혁개방기의 중국 민족정책은 모택동 시대와는 다르게 다변화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sup>40)</sup> 소수민족과 연관한 각 부문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개혁개방기의 성과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부문별 연구가 진행되었고, 다른 국가의 연구자 입장에서는 중국 민족정책의 다변화와 연관된 부문별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일관되게 유지되는 방식은 1) 민족구역자치: 즉 제도와 행정 기구의 발전에 초점을 두는 것 2) 경제발전: 개혁개방기 중국의 정확한 소수민족 정책의 집행에 따라 어떻게 계수적으로 발전하였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 3) 인구문제: 두 자녀를 허용하면서 소수민족의 인구가 어떤 방식으로 증가하고, 당의 보건정책을 선전하는 것 4) 민족교육정책: 언어와 문자의 자유 사용과 교육이 이루어진 성과를 보이고, 지방민족주의반대 투쟁에 대한 기억을 없애는 것 5) 민족문화정책: 전술한 출판, 방송, 문화, 예술에서 당의 보조 내용을 밝히는 것 6) 민족간부정책: 얼마나 많은 민족간부가 양성되었고 그들이 중앙이나 지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함 7) 민족종교와 관습정책: 문화혁명기와는 달리 당에서 배려하는 종교정책이나 각 민족의 특색 있는 관습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 8) 민족관계: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요구되어 지는가하는가를 선언적 의미에서 논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41)</sup> 이러한 정책의 구분은 8쪽에서 전술한 민족정책의 선언과도 동일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은 중국처럼 민족이 다양하고 각 민족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다. 특히, 각 민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확하

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이 아이를 둘씩 가질 수 있다는 중국의 인구정책을 분석하면서, 조선족의 출산율이 한족보다 낮은 이유를 조선족 지역의 경제발전 정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조선족 지역은 한족 지역처럼 일찍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어, 다른 소수민족지역과는 달리 인구정책에서 한족에게 적용하는 한 자녀 가지는 것을 당에서 독려했던 것이다. 즉, 조선족 지역의 이런 특수사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분석하는 개별적 부문적 민족정책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중앙의 민족정책은 단순하게 선언적, 제도적 측면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8가지 부문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은 생략한다. 그러나, 중앙의 기본적 정책이 표출되는 민족관계 부문 등은 충분히 앞에서 설명하였다.

### 전면 개방기의 소수민족정책(1998-2000)

1992년 전면적 개방이 실시되고, 4연(연해, 연강, 연선, 연변)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변강에 위치한 소수민족지구의 변화도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특히,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90년대에도 이어져 중국 사회는 새로운 질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소수민족 사회에 미친 영향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그에 따른 소수민족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였다. 90년대 중반이래 진행되어온 소수민족 사회의 변화는 1997년 15차 대회를 고비로 중국 사회가 소위 온포(溫飽) 단계를 지나게 되면서 더욱 전국적 규모의 시장경제에 종속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근대화가 가져온 변화는 중국 공산당이 추진해 온 이데올로기적인 민족정책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지역을 해체시키고 있다. 즉 소수민족지역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전술한 90년대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중앙적 통제가 일부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사실상의 방기가 중국 정부의 현 소수민족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혁이 심화되고, 시장경제체제가 복잡해지는 신정황에서 중국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방면의 모순은 증대하고 있는데, …… 이런 모순은 개방확대에 따른 민간의 외부 접촉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되고 있는 소수민족정책의 방향은 간부제도에 경쟁을 도입한다든지, 민족지역발전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든지, 민족교육을 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전 시기의 방법과 별로 다를 것 없는 대안인 것이다.<sup>42)</sup>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변환기에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에 주목하여 소수민족지구에서의 정치적 안정방책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즉, 건국 이래 누적된 소수민족지구의 불만요소를 기층차원에서 파악하고, 새로운 참여적 정치체계를 만들어, 정부기구가 좀 더 민주적, 과학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소수민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구하면 변방의 안정이 유지된다는 발상이 그것이다.<sup>43)</sup> 그러나 이런 발상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소수민족의 갈등과 도전

그러면 중국의 소수민족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의 수립과 진행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가? 소수민족은 중국의 민족정책의 하나의 대상에 불과한 것인가? 또한, 중국의 50년 통치는 소수민족의 족성(ethnicity)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소수민족의 분리 이탈의 움직임은 없었는가? 그들이 이용한 전략과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 소수민족의 대응과 변수

중국의 소수민족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현상을 살펴보는 데는 몇 가지 특색이 존재한다. 그것은 전술한 대로 55개 소수민족의 다양성으로 인해 하나로 그 반응 양식을 범주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수민족들은 언어, 지역, 종교, 문화, 인종적인 측면에서 다양할 뿐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도 개별적인 민족에 따라 그 특색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특히, 55개 소수민족 상호간의 교류도 역설적으로 중국이 성립하고, 소수민족이 범주화되고서 발생한 일로, 그들간의 관계 역시 부분적 지역적 차원에서만이 고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운남성 남서족(納西族)에 대한 정책은 몽고족에 대한 정책과 다르고, 몽고족에 대한 정책은 조선족에 대한 정책과는 또한 다른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민족정책이 이론적 틀과 그에 기초한 선언이나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적인 운용에서는 역사적인 경험과 한족과 그 민족 간의 교류의 특색, 그리고 지역적 사정이 많이 고려되어 운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는 소수민족의 대응방식은 웅당 달랐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수민족의 대응방식을 결정한 변수로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구별, 지역적 변수, 그리고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결합한 외교적 변수의 세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구별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구별은 중국의 민족정책에 있어 기본 이론에 대응하는 양식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민족정

책의 핵심인 민족구역자치는 소수민족에게 중국의 영토에서 할양할 수 있는 권리와 중국의 주권에 대응해 실질적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구역자치라는 것이 명(明), 청(淸) 시기의 이민족 통치방식을 현대적으로 운용한 점에서 중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항하는 정치적 민족주의의 영역은 그 범주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화적 민족주의란 정치적인 주권과 영토라는 기본적인 범주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않으면서, 언어와 풍습, 종교 등 그 민족을 구별하는 민족의 족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과거 청의 이민족 통치방식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 예부에서는 조공국가를 취급하였고, 둘째, 이변원(理藩院)에서는 역사적으로 독립 국가의 경험이 있고 최근 청에 복속된 민족의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몽골, 티벳, 터키 계통의 종족들이 해당되었다. 이 곳에서는 청황실의 태자에 해당하는 작위가 민족의 지도자에게 부여되었는데,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지 않는한 고도의 자치는 보장되었다. 마지막으로 토관(土官)과 토사(土司)제도인데, 중국의 군현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그 지역 민족출신의 향리를 임명하거나 혹은 유력자를 임명하여 통치하는 방식이었다.

현대 중국의 이민족 통치 방식인 구역자치의 위계제도 중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응용되어 변한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독립 국가의 경험이 있거나,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자치구라는 성급의 자치구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소수민족에게는 자치주와 자치현의 작은 단위의 자치가 민족간부의 통치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청 시기와 비교하면 통제의 정도는 더욱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통치방식에서 소수민족의 대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치적 민족주의가 고양된 민족으로는 몽골, 위구르, 티벳, 회,

조선족의 5개 소수민족이 해당되고 있다. 조선족을 제외한다면, 중국정부가 자치구를 허용한 다섯 민족 중 네 민족이 포함되고, 청 시기의 이변원 귀속 민족에서는 회족을 제외한 세 민족이 포함되고 있다. 회족과 조선족의 경우는 중국 민족정책에서 특이한 집단이다. 회족은 기본적으로 인종적이기보다 종교에 의해 나눈 범주이다. 특히, 이슬람화한 한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분포의 다양함에 따라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달랐다. 중국의 무슬림이 하나의 족성적 일체를 이룬 것은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회족으로의 분류가 공식화한 이후이다.

그러므로 회족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위의 세 민족과는 구별된다. 조선족 역시 중국 소수민족 중에는 특이한 존재이다. 조선족은 소위 중국의 토착 소수민족이 아닌 이민자로 이루어진 민족이다. 이런 특수 입장은 중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자치에 있어, 처음에는 성급으로 나중에는 주급으로 격하시킨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광서의 장족(壯族)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정치화하지 않았던 민족이다. 인구가 많아 자치구가 허용되었으나, 정치적 민족주의는 여전히 강력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틀로 중국 소수민족의 대용을 분석한다면, 몽골, 티벳, 회, 조선족 4개 민족의 대용과 기타 51개 민족의 문화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네 개 민족”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도<sup>4)</sup> 이런 정치와 문화로 민족주의를 구별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지역적 변수

민족주의와 연관된 또 하나의 변수는 지역이다. 주지하다시피, 성급의 자치구가 보장된 다섯 개 민족의 거주지는 한족이 거의 살지 않았던 그 민족의

역사적, 전통적 거주지이다. 5개의 자치구 면적만 하더라도 중국의 전체 면적의 반에 해당하는 영역이 포함된다. 특히, 이들 지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에게는 무척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해안을 제외한다면 이들 지역은 중국의 한족 지역을 북으로부터, 서로 그리고 남쪽까지 에워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에서의 특이점은 이런 지역적 변수를 고려하여, 한 민족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以夷制夷)를 하거나, 지역적 통합과 격화(일종의 게리맨더링)를 통해 분열을 일으키거나, 혹은 한족인구의 대량 이주를 통해 한족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의 경우는 몽골에서는 동 몽골 부족과 서 몽골 부족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선택적으로 중국의 지도부에 받아들여 갈등을 유발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울란푸로 대표되는 동몽골 부족의 친 중공 경향은 몽골족 내부의 한족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고양을 어느 정도 초기에 안정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분열 정책은 문화혁명 이후 오히려 양 몽골의 통합과 정치적 민족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분열책은 티벳에서도 시도되어,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를 대립시키거나, 지역적으로 캄(Kham), 암도(Amdo), 쟡(Tsang)으로 전통적으로 구성된 체제를 이용하여 분열을 시도한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초기의 분열을 제외하고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의 방법은 첫 번째의 이이제이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민족구역자치 지방을 축소하거나 합병하거나 취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몽골의 경우, 현재 동북지방에 해당하는 몽고족 거주지의 동쪽이 모두 흑룡강성에 편입되었다. 티벳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캄과 암도는 일부는 사천성에 편입되고, 일부는 청해성을 신설하여 행정 구역을 달리 하였다. 즉, 족성적 티벳(ethnic Tibet)의 범위는 현

재의 서장자치구에서는 무척 축소된 것이다. 조선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 인문 지리적으로 길림성의 연변에 가깝고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해림, 영안, 묵단강 지역을 흑룡강성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런 축소, 합병, 취소 행위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즉, 그곳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행정 범위를 다르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한족 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로, 흑룡강성에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그 해당 행정 기관에 민족 자치 기구가 없으므로, 언어의 사용에서부터 교육, 경제활동, 그리고 민족교류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민족구역보다 더욱 한족화가 촉진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의 방법은 한족의 대량 이주이다. 중국은 호구와 단위제도의 국가이다. 이런 측면은 중국에서 인구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지역에 한족이 이주한 것은 정책적 성격을 가진다. 초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이주는 주로 동북의 흑룡강성과 길림성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혁개방 전 까지 즉 1980년 이전의 이주의 중심은 내몽고였다.

1980년 이후 이주는 주로 신강 위구르 자치구와 티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은 서부 개발로 서부 즉 소수민족지구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한족의 대량 이주는 소수민족과 한족과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소수민족 사회의 사회, 경제 구조는 물론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주에 대한 소수민족의 저항은 직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지역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동일한 소수민족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한족에 대한 그리고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방 후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목구(목구)의 몽고족과 도시의 몽고족의 차이는 커지

고 있다. 이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대응하는데는 이러한 지역적 성격의 제한을 받는다.

### 외교적 변수

외교적 변수는 개혁개방 후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30년간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중국 민족문제를 내부화하고 민족정책에 있어 외부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 경향을 만들었다. 하지만, 개방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더 이상 내부적으로만 민족문제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티벳에 대한 인권이나 자치에 대한 문제가 서구에서 전면적으로 부각되면서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의 주요 관심은 티벳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런, 티벳에 대한 관심은 티벳에 대해 특별적 조치를 가져왔고, 중국의 민족정책에서 독특한 양상을 띄게 만들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위구르족과 회교에 대한 국제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서 중국 정부로 하여금 또한 특수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선족의 경우도 한-중수교 이후 급격하게 외교화한 민족이다.

이러한 민족문제의 외교적 쟁점화는 중국의 외교정책과 소수민족 정책을 상호 연관시켜 고찰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빈번해진 소수민족 민간인들의 외국 접촉은 중국의 민족정책 체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고, 저항을 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외교 정책 변수와 연관한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은 티벳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많은 문건이 없는 형편이다.

### 민족집단의 대응과 소수민족 민족주의

그렇다면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소수민족의 저항과 반응은 어떠한가? 위의 변수에서 지적하듯, 55개 소수민족 중, 몇몇 민족에 대한 정책은 중국의

“중국 공산당은 티벳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몰아내고 티벳을 조국의 대기정 안에 편입시켜 민족구역자치를 통해 티벳 인민의 개혁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티벳 문제에 대한 국제적 간섭은 “조국의 통일을 막고, 조국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주시를 받고 있으나, 대다수의 민족에 대한 정책은 개별적인 성격보다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의 반응에서 중요한 민족인 정치화한 민족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정치화한 민족의 경우는 중국정부의 주시를 받는 몽골, 위구르, 티벳, 회, 조선족이다. 또한, 이런 중요 정치적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중국 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운남, 귀주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몽골족의 저항

내몽고 자치구에 주로 거주하는 몽골족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 시대부터 계속 고민한 문제이다. 티벳 문제가 80년대부터, 위구르 문제가 90년대의 문제라면 몽골문제는 60-70년대의 주요 문제였다. 특히, 이 시기부터 존재한 내몽골인민당 문제와 그에 따른 중국정부의 처형과정은 내몽골인들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소외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전술한대로 중국 공산당은 몽골인들의 내분을 조장하였다. 특히, 중국 측에 협력하였던 울란푸(Ulanfu)에 대해서도 문혁 기간 중에 탄압을 가하여, 그와 동몽골 세력을 소외시키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여러 정치적 사건을 조작하여, 몽골인을 처형하였는데,<sup>45)</sup> 200만 몽골족 중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에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내몽골인의 독립운동은 해외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몽골인민공화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만 몽골인 1600만 한족에서 이야기하듯, 한족의 집단이주로 인해 내몽골은 이름만 자치구이지 사실상 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다.

인구에서 아주 희박한 부분만이 전통적인 농경, 목축에 종사하고 있어 비록 민족의식은 강하다고 할 지라도 중국내의 몽골인들은 어느 다른 소수민족보다 일찍 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몽골인의 경우 몽골어를 구사하는 비율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실제적인 몽골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50만도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중국민족정책의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것이 몽골에 대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몽골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몽골 족은 유목지구나, 흑룡강성의 북부, 청해성, 신강성, 동내몽고 등에 분산 거주하여 사실상 통합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 국제문제화한 티벳 문제

티벳문제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속한다. 특히 개혁개방후 외국과의 교섭과정에서 티벳문제는 항상 중요한 외교적인 장애가 되었다. 서구인들에게 티벳은 중국의 인권 수준과 민족정책의 현 주소가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서구의 태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후 일관되게 정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경제적으로는 티벳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티벳문제와 연관된 주요 이슈는 1) 티벳이 역사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였는가? 2) 중국의 티벳

점령 후 티벳의 종족성은 억압받았는가? 3) 티벳의 인구는 한족 유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4) 티벳의 독립운동은 성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티벳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민족이론의 대가인 이유한(李維漢)이 “서장의 민족해방의 길”에서 언급한 17개 조항에 관한 설명이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sup>46)</sup> 즉, “중국 공산당은 티벳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몰아내고 티벳을 조국의 대가정안에 편입시켜 민족구역자치를 통해 티벳 인민의 개혁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티벳 문제에 대한 국제적 간섭은 “조국의 통일을 막고, 조국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티벳 민족은 중국의 주장에 대해 모두 부정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티벳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티벳인들은 티벳은 독립국이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청나라 시기에도 실제적인 독립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침략할 때 티벳은 독립국으로 영국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티벳의 반대는 달라이 라마의 망명으로 표출된 것이며, 이후 문혁기에 자행된 티벳의 문화에 대한 침략은 티벳인을 절멸(ethnocide)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한족의 대량 이주로 티벳 사회에서 도시 부문이 급속하게 한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티벳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여는 유엔의 결의안이나 달라이 라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미국의 티벳 인권문제를 중미관계 진전에 결부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은 티벳의 자결권에 대한 허용과 인권적 사항에 대한 것이다. 유럽의회에서의 티벳 인권에 대한 결의안 통과에서 나타나듯 서구 국가들은 티벳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중국

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현안으로 티벳 문제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중국 전체의 경제적 이득과 연결하여 티벳에 대한 관심은 21세기 들어 좀 감소한 느낌이다.<sup>47)</sup>

현재 티벳인의 문제는 급격한 한족의 도시유입과,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의 인도에 있는 티벳 망명정부로의 이주, 사천성 및 칭하이성 일부 티벳인의 한족화, 그리고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티벳인으로서의 구심점인 종교의 쇠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일부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폭력노선에 기반을 둔 독립운동을 주장하고 있으나, 달라이라마 사후의 티벳은 민족통합에 있어 심각한 도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부개발은 티벳을 사천성과 연결시켜 개방시키는 계획으로 티벳의 한족 유입은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의 티벳은 점차 내몽고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위구르족의 분리운동과 한족 이주민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주목을 받는 집단은 터키계의 위구르인이다. 위구르인들은 무슬림으로 인종적으로는 터키-이란계이나, 언어적 측면에서 터키어의 일종인 위구르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래 중국 성립시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독립국을 세웠던 경험에 있고, 중국에 귀속되면서도 유혈 충돌을 하였던 때문에 분리의식이 강하다. 몽골과 티벳의 경우와는 달리 신장으로의 한족 이주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전의 발견으로 인해 군인 중심의 위구르 촌락과는 분리된 고립적인 이주가 가속화되었다. 이들 이주 한인들이 위구르인과 섞이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그 결과 가장 활발한 민족 분규가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다.<sup>48)</sup>

위구르인들의 민족운동은 터키계 민족들의 범터키 운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에 따른 지원,

또한 이슬람의 지원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무장 전투가 위구르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고, 북경 등 도시에서 테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국외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활동하면서 국내의 위구르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으로 중국내의 2000만 무슬림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모에서 다른 점에서 위구르인들의 활동은 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위구르인의 분리독립운동은 중앙아시아 각 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위구르 망명정부는 터키의 보호 아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01년 만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장 위구르인에 대한 체포가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위구르인이 이슬람주의자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은 후 중국으로 파견되고 있다고 한다. 신장자치구의 중요 위구르족 집결지인 카슈카르, 우루무치 등에서는 중국 공안이나 군대와 전투가 있었다는 소식이 자주 드리고 있다. 이런 위구르족의 저항운동은 현재 중국 정부가 당면한 소수민족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강택민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위구르 자치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위구르족 및 터키계 주민들 그리고 무슬림과의 연대로 그 차단은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회족 : 영원한 이방인?

몽골족의 문제가 모택동 시대의 문제이고, 티벳장족의 문제가 덩소평 시기의 문제이며, 위구르인의 문제가 현재 강택민 시기의 문제라면, 회족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이다. 중국에서 회족은 특수한 존재이다. 이들은 하나의 독립된 민족이 아니다. 단지 한족 중 회교를 믿는 사람들을 중국정부가 범주화한 것이다. 물론 인종적으로 당 시대 이래 중국에

이민 온 아랍인의 후예가 있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한족과 외양상 다를 것이 없다. 단지 복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종교적인 소수집단인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회족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물론 영하회족자치구나 감숙성에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회족의 분포는 사실 한족의 분포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분포의 다양성은 회족이 상호간에 분리 고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청나라 말기에 운남 등에서 회족 반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진압은 회족 정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특히, 건국 후 회족으로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범주화하자 회족의 단결력은 커지게 되었다.<sup>49)</sup>

물론 중국의 회족은 이슬람의 여러 분파(수니,시아 등)와 또 여러 혼합적인 분파를 모두 받아들여 이념적으로는 현재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상층부를 통제하고 있다고는 하나, 1천여 년의 뿌리깊은 지역적 종교적 특색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여러 지역에서 형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랍어와 혼용되어 쓰이는 그들만의 특수용어와 폐쇄적 생활로 일반 한족에 대한 저항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순교자 마명심과 연관된 유적들의 성역화 문제와 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충돌과정에서 빚어진 유혈사태와 그후의 대응에서 집단적인 단결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90년대 북경에서 벌어진 회족 또는 무슬림의 권리를 향상하여야 한다는 시위는 중국 정부에서 진압하지 않고 진행되도록 하였을 정도로 회족의 문제는 중국의 민족 통합에 있어서 현재 뇌관과도 같은 것이다.

### 조선족 : 소수민족의 모범?

조선족은 중국의 민족정책에서 특이한 존재이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토착화한 민족이 아니고, 이주한 민족으로 후에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었다. 조선

족 지역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찍부터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된 지역으로, 만주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여 반일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족 지역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미 1946년 중국 공산당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사회주의적 개조가 시작되었다.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국공내전에서 중국인민해방군으로 참여하는 참군 운동을 통하여 조선족은 중국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1950년대 중국의 민족정책 수립시 조선족 지역에서의 경험은 중국공산당에게 하나의 모델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주민족으로서 한반도에 모국이 존재하는 관계로 한국전쟁을 통해 민족간부의 많은 부분을 소실하고, 1957년부터 시작한 반우파 투쟁과 지방민족주의 투쟁, 그리고 문화혁명기의 계급대오정리운동을 통해 실제로 거의 모든 민족간부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과정은 조선족 족성의 급격한 한족화에 기여하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선족의 반응은 정치적이거나보다는 문화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언어, 문학, 예술, 출판, 교육을 통한 이런 문화적 민족주의는 일부 정치화하면서 조선족의 문화마저 위협받게 된다.<sup>50)</sup>

1992년 한국과 중국 정부가 수교하자 조선족의 민족주의는 다시 한번 고양되게 된다. 그러나, 외부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조선족의 민족주의는 곧 중앙정부의 주시를 받게 되고, 통제받게 된다. 현재, 조선족의 문제는 민족주의가 아니다. 인구의 변동으로 인한 조선족 사회의 붕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200만 조선족 중 20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관내로 진출한 조선족도 10만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심각한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사정은 자치주를 제외한 한족과의 혼거(혼거)

지역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조선족 후속 세대가 한족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티벳인과 함께 조선족의 족성을 약화시키는 힘은 중국의 민족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근대화와 그에 따른 변화인 것이다. 조선족은 한때 중국 소수민족 중 모범 소수민족으로 알려졌다. 이제 한족화가 진행되면서 중국민족정책의 목표인 융합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 운남성, 귀주성 등의 군소 소수민족들

운남성과 귀주성은 중국의 인종 모자이크 전시장이라 일컬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한족과 주로 잡거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민족주의화하는 소수민족과는 달리 이들은 명과 청 시기에는 개별적인 국가를 형성하지 않고, 한족 이민자와 공동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소수민족 상호간에도 서로 잡거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자치주와 자치현이 여러 민족 공동의 자치지방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로, 언어, 의복, 풍습 등에서 특이한 민족이 많은 관계로,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하렐이 지적하듯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가지는 문명화 정책이 가장 잘 나타난 민족으로 묘사되고 있다.<sup>51)</sup>

이들은 청 말기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다. 특히, 많은 지역이 산악의 오지인 관계로 사회 경제적으로 중국의 주요 한족 거주지 보다 생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사회 개혁을 통해 이곳의 사회구조를 바꾼 후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 정책이 가장 성공을 거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생활 환경이 좀 더 좋아졌고, 계속 한족과 잡거한 관계로 문화혁명기에도 특별하게 박해를 받지 않았다. 현재는 중국 전체의 한족간의 차이보다, 이곳의 소수민족간 혹은 이곳 소수민족과 한족간의 차

이가 더 적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한족 화 혹은 이 지역화 하였다. 이것은 이곳의 한족도 소수민족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어서, 대리 등 여러 도시에서 한족과 소수민족의 차이는 의복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산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특이성을 관광산업의 진작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서부개발은 이 소수민족들이 더욱 중국 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그에 도전하는 소수민족의 도전은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인 지향과 그에 기반 한 정책적 기초의 운용, 그리고 실제적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지난 50년 간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민족정책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 즉, 중화민족주의에 기반한 민족관계는 변화하지 않는 원칙으로 오히려 시기를 거치면서 좀 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즉, 중화민족이라는 이상적 개념과 주체민족인 한족의 역할이 강조되는 민족관계는 통일적 조국, 민족단결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소수민족에게 지도 원리로써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 것이다. 모택동 시대에는 정치운동을 통하여, 덩소평 시대에는 경제발전 우선론에 근거하여, 중국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좌에서 우로 이동하였다는 근본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나, 민족정책에서는 이러한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그리 큰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전통적인 중국의 중화주의적 민족관념이 새롭게 확장되어 적용되고, 그것에 이론화가 시도되면서, 중국 안의 소수민족은 '중화민족의 대가정' 안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위협받으면서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일관되게

중국의 민족정책을 단기공존에 기반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장기적 융합을 하려는 동화적 정책으로 파악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문화적 민족주의에 대한 양보는 정치적인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탄압의 근거이며, 이 점에서 중국 민족정책이 가지는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문제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위의 이데올로기적인 도전이 아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도전으로 시장경제의 도입과 중국의 국제화라고 하는 경제의 개방화가 몰고 온 중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기반한 소수민족 사회의 변화이다.

이러한 근본 변화를 정책에 "입안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한족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의 차이를 줄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민족 자치 정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민족지구가 위치한 변경 지구의 발전을 위해 서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등

소평 시기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 받아 서부개발을 통한 조국 통일과 사회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sup>52)</sup> 그러나, 서부개발 자체가 민족지구보다는 서부의 한족지구 중심으로 추진되고 소수민족에 대한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중국의 민족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의 변화와 중국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소수민족이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사회가 근본적인 해체를 경험하면서 중국 사회에 좀 더 통합될지 아니면, 중국정부의 정책이 좀 더 다원적인 성격을 가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이런 변화는 변화에 대응하면서 진행되는 소수민족 자체의 민족주의에 따라서도 많이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에서의 소수민족문제는 이런 근본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1) 김상진, 장철준 편저, 『민족리론과 민족정책』(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2) 참조.

2) 그 자신 러시아인이 아니고 그루지야(조지아)인인 스탈린은 민족문제의 전문가였다. 수 없이 많은 민족관계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대표적인 것은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당내의 민족문제와 당면 임무에 대해" "당과 국가건설중의 민족문제" "민족문제와 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 문제" 등 다섯 편이 대표적이다. 그의 민족 이론은,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編, 『斯大林論民族問題』(北京: 民族出版社, 1986)을 참조하라.

3) 千里原 主編, 『民族工作大全』(北京: 中國經濟出版社, 1994), pp. 248-249.

4) 黃光學 主編, 『中國的民族識別』(北京: 民族出版社, 1995), 제3장 참조.

5) Stevan Harrell, "Civilising Projects and Reaction to Them" in Stevan Harrell (ed.) *Cultural Encounters on China's Ethnic Frontiers* (Hong Kong: Hong Kong Univ. Press, 1994), pp. 23-24.

6) June Dreyer, *China's Forty Millio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6), p. 16.

7) 黃光學 主編, 전개서, pp. 90-91.

8) 白壽彝, "關於中國民族關係思想的幾個問題"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pp. 181-187.

9) 金家오, "在教學上如何處理祖國歷史上的民族關係", 전개서, pp. 76-79.

10) 孫祖民, "處理歷史上民族關係的幾個重要準則" 전개서, pp. 156-160.

11) 賡대용, "關於我國歷史上民族英雄的評價問題" 전개서, pp. 678-91.

12) 구구영은 중국의 다민족 국가형성과정을 하 시기에서 찾고 있다. 즉, 하(夏) 시기에 잉태된 이 개념은 사이(四夷)와의 교섭을 거치면서 진한시기에 한족이 형성되고, 삼국과 남북조 시기에는 민족의 대용합이 이루어져, 실제적인 다민족 국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런 통일적 다민족 국가는 수당 시기에 크게 발전하여 다원적 문화를 꽃 피우고, 이후 원 이래로 새롭게 확립된 민족관계에서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구구영, 『中國統一多民族國家的形成』(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참조.

13) 賈孝通,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賈孝通,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9), pp. 1-36.

14) 이 진영, "한민족 중국인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책의 기원에 대하여(1927-1949)" 『제외한인연구』 제 9집 (제외한인학회, 2000.12)에서는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민족 정책이 이미 49년 이전에 그 기초가 성립되고, 또한 이런 경험이 중국의 일방적 민족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15) 江平 主編, 『中國民族問題的理論與實踐』(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4), p. 118.

16) 王紅曼, 『新中國民族政策概論』(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0), pp. 51-52.

17) 중국의 행정조직은 5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성급-지구급-현급-향급이 그것인데, 향급의 경우 민족향은 1983년에 설치되기 시작한다.

18) 이후 중앙민족대학으로 개칭되며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기관이다. 실용적, 정책적 성격이 강했으므로 조선어과는 1995년에야 독립적인 학과로 설립되었다.

- 19) 조선족의 경우 민족간부 양성은 국공내전에 주로 동북군정대학 김립분교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순수 조선족의 기금으로 세워진 최초의 민족대학인 연변대학이 민족간부 양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족의 경우는 이 시기에서는 예외에 속한다.
- 20) 江平 主編, 전개서, p. 121.
- 21) 郭大烈 主編, 『論當代中國民族問題』(北京: 民族出版社, 1994), p. 84.
- 22) 『當代中國民族工作大事記』, p. 195.
- 23) 千里原 主編, 『民族工作大全』, p. 574.
- 24) 모택동은 “批判大漢族主義(1963)” “反對大漢族主義(1965)” “再論反對大漢族主義(1965)”를 통해 선언적 의미로 민족단결을 위해 한족이 소수민족에게 관용적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 『中國共產黨主要領導人論民族問題』(北京: 民族出版社, 1994), pp. 94-95, pp. 113-116.
- 25) 毛澤東, “正確處理少數民族問題(1957)”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 『中國共產黨主要領導人論民族問題』, pp. 144-145.
- 26) 中華人民共和國 民族工作大事記 (1949-1983) (北京: 民族出版社, 1984), p. 197. 1958년 12월 20일에 있던 조치였다.
- 27) 조선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도피하려 하였으나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이들을 향하여 총격을 가해 일들을 막았다고 한다. Jeanyoung Lee,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Minority, 1949-1995”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 of London, 1998. 4장 3절을 참조할 것.
- 28) 郭大烈 主編, 『論當代中國民族問題』, p. 87.
- 29) Wei Yang Chan, “Evolutionary theory and cultural diversity: a study of the ethnology of China's national minorities,” p.
- 30) 이하 인용되는 중국의 문헌은 모두,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새로운 시기 민족사업문헌선집』(북경: 민족출판사, 1990)에서 인용하였다.
- 31) 사마의 艾瑪提(이스마일 에마티), “加強民族理論研究 爲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和各民族的團結進步服務”, 조경년 主編, 『論民族問題』(北京: 民族出版社, 1994), p. 19-20.
- 32) 조경년, “關於民族地區建立和發展社會主義市場經濟中幾個問題的思考” 전개서, p. 44-45, pp. 47-49.
- 33) 왕옥소, “加快鄉鎮企業的發展時振興民族地區經濟地區經濟的一項戰略選擇” 전개서, pp. 53-61.
- 34) 江平 主編, 전개서, pp. 137-138.
- 35) 王兆軍, 吳國光 (김태룡 역), 『동소평이후의 중국』(서울: 조선일보사, 1994), p. 269.
- 36) 부흥한 다민족 국가로 백인 중심의 미국을, 멸망한 국가로 소련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주체민족인 한족의 역할을 대비시켜 논하고 있다. 江平 主編, 전개서, pp. 152-153.
- 37) 李鵬, “固護民族工作 爲實現各民族共同繁榮而努力奮鬥(1990.2.15)”,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 『中國共產黨主要領導人論民族問題』(北京: 民族出版社, 1994), p. 226.
- 38) 江澤民, “加強各民族大團結 爲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手前進(1992.1.14)” 전개서, pp. 248-259.
- 39) 유선조, “新時期民族理論的深化和發展” 조경년 主編, 『論民族問題』, pp. 111-119.
- 40) 목강, “論社會主義新時期民族問題的多極化發展” 전개서, pp. 369-372.
- 41) 江平 主編, 『中國民族問題的理論與實踐』(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4), 郭大烈 主編, 『論當代中國民族問題』(北京: 民族出版社, 1994), 王紅曼, 『新中國民族政策概論』(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0) 등 지금까지 중국민족정책을 검토하는 책들이 가지는 공통적 특성이다. 이런 입장은 서양연구자들에게도 적용된다. Thomas Heberer, *China and its National Minorities* (Armonk: M.E. Sharp, Inc., 1989).
- 42) 毛公令, “關於社會轉形期民族工作若干重大問題的探究” 中央民族大學學報, 1999.6.
- 43) 마숙원 主編, 『邊疆少數民族地區 政治發展與政治穩定』(雲南大學校出版社, 2000)을 참조.
- 44) 동아일보, 1994.1.28.
- 45) “내몽골자치구 사업과 관련한 중앙서기처의 토론회요지록(1981.7.16)”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새로운 시기 민족사업문헌선집』, pp. 176-179.
- 46) 리유한, “서장의 민족해방의 길,”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편, 『새로운 시기 민족사업문헌선집』, pp. 103-128.
- 47) Thomas Heberer, *China and its National Minorities* (Armonk: M.E. Sharp, Inc., 1989), 제 8장, pp. 118-126 참조.
- 48) Justin Jon Rudelson, *Uyghur Nationalism Along China's Silk Roa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을 참조할 것.
- 49) George and Louise Spindler, *Ethnic Identity in China: The Making of a Muslim Minority Nation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를 참조.
- 50) Jeanyoung Lee,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Minority in China, 1945-1995”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1999); Jeanyoung Lee, “Integration to the Chinese Society: Korean Minority in China during the Campaign Period (1957-1978)” *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 (Hanyang Univ, Summer 2001); Jeanyoung Lee, “Koreans and Korean-Chinese Relations in Manchuria, 1911-1945: a nation or an ethnic minority” *Korea Observer* Vol.32 No.2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ummer 2001)를 참조.
- 51) 그에 의하면, 지배자인 한족이 자신들의 선진문명을 전파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소수민족 지역을 문명화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수민족은 중앙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적, 미성년적인 그리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한족의 지배는 남성적, 완숙적, 근대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즉, 소수민족의 특이성, 사회제도의 다른 점을 회화화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Stevan Harrell (ed.), *Cultural Encounters on China's Ethnic Frontier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94) 참조.
- 52) 民研中心, “跨世紀民族工作的綱領性文件” “跨世紀民族問題研究與探索”(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0), pp. 3-6.

# 중국의 지도자별 민족이론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依法治國전략을 제시, 적극적으로 민족법제의 건설과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행하고, 각종 제도와 정책으로 소수민족간부를 육성하며, 소수민족의 문화와 예술, 신문, 출판사업을 중시해 민족교육과 과학기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마르크스주의 민족 관과 민족이론, 민족정책의 선전 교육과 애국주의교육을 강조하고, 사회전체의 폭넓은 민족단결과 진보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민족화목과 우애, 그리고 공동진보의 사회적분위기 조성, 더 나아가서는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협력적인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金炳鎬 /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

## 모택동의 민족이론

모택동은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중국 각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다. 모택동은 중국혁명 건설 중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원리를 중국혁명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시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독창성이 풍부하며, 중국국가현상에 맞는 중국 특수의 과학지도사상이 담긴 모택동사상을 만들어냈다. 모택동사상은 중국혁명 건설의 정확한 이론원리와 경험이 결합된, 중국 각 인민을 응집시키며, 중국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이론이다.

모택동사상 중의 민족문제는 중국공산당의 풍부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모택동 민족관의 기본내용은 공산당과 국가의 민족문제 해결 방안과 정책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모택동의 민족이론을 지지하며, 민족평등을 실행하고 민족단결을 굳건히 유지하여, 각 민족의 공통번영과 발전을 이

루어야 한다.

제11회 3중전회 이래, 국가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더불어, 사회과학연구자들 특히 민족연구자들이 광범위하게 모택동이론 사상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1983년 이전까지 모택동의 민족이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1983년 이후, 모택동 탄생 90주년과 100주년을 기념하며, 각국 각지의 출판사가 다량의 모택동 민족이론저작과 논문 음향제품 등을 발표하며, 모택동 민족이론과 마르크스 민족이론에 큰 발전을 보였다. 지금부터 약 20년 간의 모택동 민족연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 < 민족문제에 대한 연구 >

### 민족과 민족소멸 이론

모택동은 그의 반세기가 넘는 혁명활동 중 수 차례 민족과 민족문제에 대한 중요한 관점들을 제시했다. 이것은 모택동의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에

대한 응용과 발전이며, 모택동의 민족이론은 마르크스의 민족이론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 민족주체이론

金炳鎬는 “모택동의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에 대한 위대한 공헌”이라는 글에서, 모택동은 마르크스주의경전이론 속에서 민족주체이론에 관하여 더욱 심도 깊은 지적을 했으며, 이것은 농민과 노동자 등의 인민군중이 민족의 주체라는 이론이다.

모택동은 민족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부류는 상층부류로 착취계급이며(자본계급) 소수다. 또 하나의 부류는 90/100을 차지하는 부류로 노동자, 농민, 소 자산계급으로 이들 없이는 민족을 구성할 수 없다.

농민 노동자 등의 인민은 민족의 주체이며, 이들은 민족을 대표하며, 이들의 이익은 곧 민족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 이론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민족문제의 실질과 민족이익의 진정한 합의, 민족해방과 발전의 진정한 意義 등을 포함한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 민족소멸이론

모택동은 1958년 成都회의 중 “첫번째로 계급이 소멸되며, 그 후 국가가 소멸되고 그 다음으로 민족이 소멸되며, 전 세계는 모두 이와 같다”고 말했다.

朱在憲은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에 대한 위대한 공헌자 모택동”이라는 글에서 위에서 상술한 문단이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에 중대한 공헌을 했는데, 그것은 마르크스-레닌의 민족이론 중 민족소멸에 대한 객관적 규칙을 가장 먼저 과학적으로 제시했으며, 민족소멸과 계급, 국가소멸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로 연관시켰으며, 민족소멸의 객관적인 규칙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민족이라는 역사적 범위의 확실한 경계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은 古今中外의 역사와 실전을 연

구한 보편적인 원리이다.

### 정치상 민족과 부족

金炳鎬는 이 문제에 대한 모택동의 생각이 소련과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1953년 중공 중앙은 “과거 몇 년간의 공산당의 소수민족에게 실행했던 정책의 주요경험”에 대한 토론 중 모택동은 부족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나, 정치적으로는 어느 것이 민족이며 어느 것이 부족이라는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민족평등이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 아래 중국민족은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모택동은 각 소수민족, 특히 人數가 적고 발전이 낙후된 소수민족도 똑같이 민족평등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족문제 이론

#### 민족문제 발생의 근원과 실질적 이론

金炳鎬는 모택동은 중국과 세계민족문제현실에 대한 고찰분석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말한다. 모택동은 1934년 “민족의 압박은 민족 착취에 있으며, 이러한 민족착취제도를 뒤엎지 않으면 안되며 민족의 자유연합은 민족의 압박을 대신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일전쟁 중 그는 “민족투쟁 중 계급투쟁은 민족투쟁 형식의 표현이며, 이러한 형식은 양자의 일치성을 나타낸다”라고 지적했다.

그의 이러한 논술은 민족압박의 발생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며, 민족압박 소멸의 루트를 명시해주며 민족문제의 실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 다시 말해 민족투쟁은 즉 계급투쟁 문제의 일부분이다.

徐傑舜은 모택동은 민족의 상이는 민족문제를 발생시키는 기본요소로 이러한 민족의 상이는 중국에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이며, 중국의 민족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기본요인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 민족문제와 사회혁명 이론

金炳鎬는 모택동이 마르크스주의 민족문제와 사회혁명 관계이론에 의거하여 중국혁명은 세계혁명의 일부분이며, 국내의 민족문제는 중국혁명 전체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모택동 동지의 민족문제와 사회혁명문제에 관한 이론”이라는 글에서 金炳鎬는 마르크스가 제일 처음 지적한 민족문제가 사회혁명 전체문제 중의 일부분이었다는 원리를 가지고, 모택동은 중국혁명 과정에서 이 이론을 심도 깊게 분석했으며, 국제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의거하여 중국혁명의 성격 변화와 중국혁명이 속해있는 전선의 변화 속에서 결론을 얻어냈다고 말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적 적용의 구체화며 당대의 국제민족문제의 구체화이다.

또한 모택동의 민족문제와 사회혁명관계이론에 대한 발전이다. 이 결론은 우리에게 민족문제와 사회혁명의 관계를 주의하여야한다는 점을 깨우쳐준다. 즉 민족문제는 사회혁명과 병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혁명 전체의 일부분인 문제이며 사회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時遠은 “중국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모택동의 공헌”이라는 글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실패로 끝난 후, 공산당은 잘못된 소수민족의 민족해방투쟁과 중국혁명과의 관계문제를 처리하고, 민족문제를 구체화하여 소수민족지구의 혁명과 중국혁명의 관계를 설명하고, 민족에 대한 압박의 근본원인은 민족착취이며, 이러한 착취제도는 반드시 뒤엎지 않으면 안되며, 민족 자유연합은 이러한 민족 압박에 대신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사상은 당시 민족혁명의 임무가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투쟁으로 민족압박을 뒤엎고, 민족해방과 민족자결권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소수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독립적인 것

이 아니라 중국혁명의 일부분인 것이다. 이 중요한 사상은 중국혁명과 항일전쟁시 가장 넓은 민족통일 전선을 만드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또한 공산당은 소수민족 내부 혁명과 漢族지구의 혁명과 과정, 정책, 방식, 기본원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였다.

###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문제

朱在憲은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國內 大漢族主義와 지방민족주의 등에서의 모택동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공헌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모택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상 처음으로 국제주의의 내용과 민족형식을 결합시켰으며 진정한 국제주의는 잘못된 민족주의나 애국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택동은 중국 민족문제 중 大漢族主義와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고, 특히 大漢族主義를 철저히 비판하며, 한족과 소수민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강조하여,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의 중요한 사상을 논했다.

時遠은 모택동은 大漢族主義의 근원이 구사회의 통치계급의 민족압박의식에 있다고 보고, “大漢族主義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에서 모든 당은 이 사상이 현실민족관계에 미치는 위험작용을 충분히 인식하여, 민족정책진행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했다. 그 밖에 모택동은 “인민내부 모순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리방법에 관하여”라는 연설 중 이 두 종류의 민족주의의 근원이 민족내부 모순에 있으며, 정확한 처리 방법과 과학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사회주의혁명시기의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 < 중국의 민족문제 해결 정책 >

모택동은 중국 신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건설 과정 중, 중국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이론과 정책을 제시했다. 그 핵심내용은, 민족평등, 단결, 자치, 발전이다. 민족평등과 단결은 중국민족문제의 근본원칙이며 총괄적인 정책이다. 민족구역자치는 중국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형식이며 기본정책이다. 각 민족의 발전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목적이며, 현실 목표이다.

## 민족평등, 민족단결 이론

모택동은 중국혁명건설의 지도자로서 살아온 그의 일생 중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을 민족문제를 처리하는 기본원칙과 근본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중국의 민족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했다.

### 민족평등이론과 정책

金炳憲은 모택동이 “소수민족의 과거와 현재 생활의 본질”에서 제시한 민족이론과 정책을 4가지로 정리했다. 국내 각 민족의 평등을 추구한다. 蒙, 回, 藏, 番 등 각 민족은 한족과 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중국 내의 각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각 민족은 언어, 문자, 풍습, 습관, 종교, 신앙 등 방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가사업에서 민족평등정책을 철저히 준수한다.

楊進鎔은 “모택동의 민족평등사상”이라는 글에서 모택동의 민족평등사상을 8가지로 정리했다. 민족단결은 사회주의사업의 승리를 보장하며, 모든 사업은 민족단결과 조국통일에 유리해야한다. 중국의 각 민족은 인구, 역사, 발전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조국의 문명발전에 위해 공헌했으며 모두 평등하다. 소수민족의 풍습 습관을 존중한다.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며, 모든 소수민족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한다. 성심성의껏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발전에 힘쓴다. 소수민족간부 배양에 힘쓰며, 지, 덕, 미

모택동은 1934년 “민족의 압박은 민족 착취에 있으며, 이러한 민족착취제도를 뒤엎지 않으면 안되며 민족의 자유연합은 민족의 압박을 대신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일전쟁 중 그는 “민족투쟁 중 계급투쟁은 민족투쟁 형식의 표현이며, 이러한 형식은 양자의 일치성을 나타낸다” 라고 지적했다.

를 갖춘 소수민족간부를 육성한다. 각 민족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大民族主義(대한족주의)의 극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족단결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이룩한다.

“모택동의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사상에 대하여”라는 글은 모택동의 민족평등사상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착취제도가 사라져야만 진정한 중국 각 민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에 의거, 스탈린의 자본계급 민족형성의 4가지요소에 집착하지 않고, 중국소수민족이 어느 발전계급에 속해 있느냐, 인구가 얼마나에 상관없이 모두 정치상 민족이라고 승인한다. 우월한 민족이란 없으며,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 민족단결이론과 정책

金炳鎔은 모택동은 중국혁명과 건설과정 중 마르크스주의의 민족이론을 최대한 발전시켰다고 말한다.

모택동은 민족 단결의 중요성과 민족단결의 기초, 조건, 목적, 목표, 민족 내부 단결과 민족 간의 단결의 관계 등 완전한 사상이론체계를 만들었다. 모택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민족단결의 핵심역량을 서술했으며, “공산당의 단결을 통해서만 계급과

민족의 단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大漢族主義와 지방민족주의를 일종의 인민 내부 모순으로 보았으며, 무산계급의 투쟁 속에서 중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모택동은 민족단결을 중국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특히 소수민족의 통일전선사업을 중요시하고 이것을 각 민족단결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소수민족 간부들의 민족단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는 모택동 민족이론 중 가장 큰 특징이며, 또한 중국민족단결의 기본경험이다.

민족 단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관하여, 爲勝強은 “모택동의 민족단결관에 관한 위대한 意義”라는 글에서, 모택동은 해방 전 민족 단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압박과 착취를 들 수 있으며, 해방 후에는 大漢族主義를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밖에 모택동은 민족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조건으로 大漢族主義와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한다. 소수민족의 경제발전에 힘쓴다. 민족구역자치는 민족단결을 실현시키는 정치적 보장이다. 소수민족간부를 대거 육성한다.

布赫는 모택동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공헌은 고도의 민족평등과 민족단결 원칙의 고수와,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 풍습, 습관 종교신앙을 존중한 것에 있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지금, 모택동의 민족평등단결사상은 개혁개방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王 柳는 중국의 민족문제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며, 민족관계 역시 각 민족노동인민간의 관계를 말하며, 민족모순은 여전히 인민 내부 모순이 원인이며 특히 경제방면에서 그 모순이 많이 나타난다 - 각 인민이익의 불일치에서 오는 모순이라고 말한다. 그럼으로 우리는 모택동의 민족평등과 단결사상을 지지하고 동시에 大漢族主義를 비판하며 민족이기주의를 극복해야한다.

## 민족구역자치이론과 정책

민족구역자치는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 민족이론을 응용하여 만든 전무후무한 성과이며, 중국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형식이며 제도이다. 몇 십년의 경험이 증명하듯 민족구역자치는 중국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정책이다.

### 민족구역자치이론의 형성에 관하여

모택동의 민족문제에 대한 초기 주장은 연방제와 민족자치자결이었다. 그러나 혁명의 발전에 따라 특히 많은 경험과 이론 활동을 통해, 모택동은 항일전쟁시기 중국에 가장 적합한 민족문제 해결 대안을 생각했다.

周忠楙는 “연방제에서 민족구역자치로”라는 글에서 모택동의 연방제, 민족자치자결에서 민족구역자치로의 변화는 당시의 역사배경과 특수한 환경이 좌우했으며, 다량의 접촉과 소수민족에 대한 분석,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또한 모택동과 당중앙은 교조주의의 잘못을 극복하고 정확한 대처를 했다고 말한다. 金炳鎬는 教條主義의 잘못에 대한 극복은, 모택동의 정확한 중국민족관계상황과 혁명투쟁상황에 대한 분석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다.

### 민족구역자치 이론

張崇根은 “민족구역자치이론은 모택동 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에서 민족구역자치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국가구성형식으로 단일 인민공화국을 실행하며, 연방제를 취하지 않는다 이는 민족문제강령이며,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며, 민족자결권을 취하지 않는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집중 통일된 중화인민공화국 안에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행,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책으로 한다. 그밖에 張崇根은 민족구

역자치제도는 중국정치 특색인, 국가통일을 지지하며, 민족평등원칙을 고수하고 다양한 형식의 존재를 인정하며, 각 민족의 특이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 민족구역자치의 완성과 발전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소수민족간부의 육성과 민족구역자치제도의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金炳鎬는 모택동의 민족구역자치이론정책의 관건은 소수민족간부의 육성으로, 이것은 민족문제 자체특징으로 민족간부의 특징과 특수작용이 결정한다고 했다. 溫華는 “모택동의 소수민족육성이론”이라는 글에서 모택동은 소수민족 간부의 육성을 위한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으며, 직접 소수민족육성을 위한 방침과 정책을 정하여, 광범위한 소수민족 공산주의 간부를 만드는데 공헌했다고 한다. 溫華는 모택동의 소수민족출신의 공산주의 간부육성은 매우 중요하며, 깊은 이론의의를 가진다고 말한다. 소수민족공산주의 간부는 민족노동인민을 대표하며 민족노동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소수민족 간부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각 민족공동의 발전을 실현하고 공동번영을 이룩한다. 자본주의계급과 민족주의와 민족은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 국내 계급투쟁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족문제를 반영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간부를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수민족공산주의간부의 육성은 간부의 민족화와 공산주의화를 결합시켜,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 민족구역자치제도의 법제화

“모택동 민족이론연구”라는 책의 제5장에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의 민족구역자치에 대한 입법과정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다. 모택동은 자신이 직접 정한 기초 위에 헌법으로 민족입법을 형성하고, 민족구

역자치법을 주체로 그 밖의 관련법규와 민족자치, 지방자치조례, 단행조례 등 민족법규체제를 만들었다.

## 소수민족발전이론과 정책

### 소수민족발전이론과 정책

金炳鎬는 모택동의 소수민족발전이론과 정책을 3가지로 말한다. 이런 지역(소수민족지구의 해방 전 낙후된 모습)에서는 반드시 사회혁명이 필요하다. 국가와 한족은 성심성의껏 소수민족발전에 힘써야 한다. 소수민족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면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이 가장 시급하다. 이러한 모택동 사상은 마르크스 민족이론에 큰 공헌을 했다.

### 민족지구 사회혁명

모택동은 해방 전 중국의 소수민족지구에는 원시적인 노예제나 봉건제가 존재,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개혁을 통해 소수민족지구의 민주개혁과 사회주의개조를 완성해야한다고 했다. 高延群은 모택동은 민족지구의 사회혁명은 낙후된 사회제도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는 것으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번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모택동은 사회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와 민족발전의 동력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소수민족지구의 사회혁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신중하게 대처해야하며, 이러한 혁명은 반드시 소수민족 자신들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蘇華清, 張秋生은 “모택동의 민족관”이라는 글에서 모택동이 소수민족지구의 민주개혁을 강조하고 반드시 소수민족 자신의 힘으로 이끌어야하며, 신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 소수민족 발전

모택동은 구소련의 민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교훈 삼아 성

심성의껏 소수민족발전에 힘써야 됨을 강조했다. 모택동은 중국국내의 경험과 소수민족지구의 중국 현실사회 속의 지위, 국제 민족문제를 교훈으로 소수민족을 성심성의껏 최대한으로 도와 주는 것이 소수민족발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역설했다. 黃鑄는 민족 간의 불평등이라는 각도에서, 모택동이 말한 각 소수민족을 돕는 것은 각 소수민족의 발전과 진보를 뜻하며, 이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뜻한다는 관점에서 오직 민족단결만이 강력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한다며, 조국의 건설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야만, 소수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발전하고 불평등이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밖에 소수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고, 불평등을 서서히 해소하는 것은 현대화된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모택동은 소수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사업에 있어서 공산당의 중요한 지표를 만들고, 이 방면에 중요한 이론을 제시했다. 朱在憲은 “마르크스주의 민족관의 위대한 공헌자 모택동”이라는 글에서 소수민족지구의 정치, 경제, 문화건설사업이 국가건설사업에 차지하는 전략적인 지위를 설명하고, 구 소련의 잘못된 소수민족정책을 교훈 삼아 각 소수민족 모두에게 적합한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高延祥은 자력갱생과 함께 국가의 도움으로 소수민족의 경제를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金炳鎬는 모택동의 소수민족발전에 대해 이야기 하며, 무엇보다도 민족지구의 경제사업에 힘써야 하며, 소수민족의 문화 정치 교육의 발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모택동사상 중 민족문제이론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책은, 모택동은 중국의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시킨 후 먼저 소수민족의 경제발전에 힘을 기울여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당의 경제노선과 방침, 정책을 소수민족지구와 연결시켰다고 말했다.

## < 민족공작원칙과 방법 >

학자들은 모택동의 민족공작사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

**모택동 사상은 민족지구 사업 발전에 지도적인 작용을 한다.**

將成光的 “모택동의 西藏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설의 역사적 지위와 작용”은 등소평의 西藏문제해결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지시점을 민족, 종교, 통일 정책과 민족 규율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민주혁명 시기의 내몽고에서의 모택동 민족이론의 실천”은 내몽고 민족문제라는 관점에서 모택동의 민족이론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朱培民的 “모택동과 新疆”은 新疆의 평화해방을 위해 모택동이 新疆에서 실행한 우수한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택동 주석과 소수민족”은 모택동이 소수민족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표하고, 소수민족의 지위를 존중하고, 소수민족권리를 대한 보장하며, 소수민족의 중국혁명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소수민족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한다. “모택동과 민족공작”은 민족사업 중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을 서술하고, 3가지 방면에서(민족자치구, 민족차별을 인정하고 민족특징을 인정하는 것, 통일전선이론의 민족공작에서의 運用) 모택동의 민족공작원칙을 논하고 있다.

陳國安의 “건국 초기 모택동 민족이론의 貴州 소수민족지구에서의 실천”은 건국초기 貴州에서의 민족공작을 내용으로 (사회혁명, 소수민족간부 배양, 민족구 자치, 민족공동번영 등) 모택동 민족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 모택동의 중국민족문제 해결과정 중 제시한 민족공작 원칙과 방법

金炳鎬는 “모택동의 마르크스 민족이론에 대한 위대한 공헌”이라는 글에서 모택동의 민족공작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 원칙성과 유연성, 동일성과 특수성의 결합, 2. 인민내부 모순의 정확한 처리는 사회주의민족공작의 주제이다, 3. 민족공작은 각 민족의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해야한다, 4.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 5. 모든 공작은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을 원칙으로 한다. 6. 수시로 한족과 소수민족의 관계를 조사한다. 7.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무산계급의 민족정책교육을 실시한다.

모택동 민족이론 연구 중 모택동 탄생 100년 기념으로 쓰여진 金炳鎬의 “모택동의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에 대한 위대한 공헌”은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모택동 이론의 저서로 평가받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모택동이 이론과 정책 방법 3방면에서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에 공헌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택동이 중국신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중 마르크스주의 원리와 중국의 실제상황을 결합시켜 더욱 내용이 풍부하고 발전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완성시켰으며, 중국의 민족문제 해결에도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1995년 5월 민족출판사에서 출판된 『모택동 민족이론 연구』는 모택동 민족이론에 대한 전문연구서적으로 중국특색 민족이론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민족이론계는 개혁 이후 모택동 민족사상 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모택동 민족이론에 대해 전문서적은 부족한 편이다.

## 등소평의 민족이론

등소평의 민족이론은 등소평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민족이론학계의 등소평 이론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1996년 출판된 金炳鎬 主編의 “등소평 민족공작사상”은 중국 민족이론학계의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성과다.

## < 민족이론체계 연구 >

### 민족이론체계 형성

많은 학자들은 등소평 민족이론이 제11회 3중전회 이후, 중국민족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중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金炳鎬 主編의 “등소평 민족공작사상”은 등소평 민족이론의 체계형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등소평은 새로운 역사시기에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과 현 단계의 중국민족문제를 연합시켜 정확한 민족문제해결의 길을 열었으며, 중국의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이론과 방침 정책은 이때부터 새로운 등소평 사상의 색채를 띄게 되었다. 그러므로 등소평 이론은 새로운 시기에 중국의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고심 끝에 서서히 형성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彭英明은 “중국특색사회주의민족이론”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의 형성과 발전과정 중 등소평 민족이론의 형성과 발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형성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의 11회 3중전회 이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사상의 민족이론은 더욱 심오한 발전을 거듭해, 등소평의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이론으로 탄생했다. 등소평 민족이론의 형성은 중국 공산당의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의 형성과 일치한다.

등소평은 제5회 전국 정치협력 2차 회의 보고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민족이론의 시작을 밝히고, 1992년 중앙민족회의와 당의 14大에서는 중국특색사회주의민족이론이 이미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론

으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이론은 등소평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지도 아래, 중국의 새로운 시기의 민족사업 실천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다.

杜玉亨은 “등소평의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이론 연구”에서 제 13회 3중전회에서 등소평의 민족이론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제 11회 3중전회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지금까지의 민족문제의 실질은 계급문제라고 생각해왔던 사상을 접음으로써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 탄생의 시초가 됐다고 말했다. 楊發仁은 “등소평 민족이론은 중국민족문제해결을 위한 위대한 사상무기이다”라는 글에서 등소평 민족이론이 신민주주의시기에 형성되었으며, 등소평 이론의 형성과 발전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단계는 11회 3중전회 이전으로 이 시기에 등소평의 민족이론은 주로 항일전쟁과 건국초기 中央 西南局공작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시기는 제11회 3중전회 이후로 이 시기는 등소평 민족이론이 새로운 발전을 보인 시기이다.

## < 민족이론 체계 구성 >

많은 학자들의 등소평 민족이론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등소평 민족이론에 대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를 출발점으로 한다. 1. 중국민족문제 기본사상에 대한 이해 2. 중국민족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이론과 정책사상, 3. 민족공작 기본 원칙방법방면의 사상이 그것이다.

金炳鑰는 등소평 민족이론사상의 내용범위가 넓고 심오해, 중국의 민족문제기본사상 뿐 아니라 중국민족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이론과 정책사상, 그리고 민족공작 원칙 방법사상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彭英明의 “중국특색사회주의민족이론”, 李家秀의 “등소평의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에 대한 발전” 등

에서는 각각 다른 중국민족문제해결 각도에서 등소평 민족이론의 사상내용을 논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과 같은 경제가 낙후한 다민족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소수민족지구의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이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선진사회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민족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다.

“등소평 동지의 민족문제이론의 학습은 민족지구 경제사회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보고는, 등소평의 민족문제 이론에는 네 가지 중요 관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중국 각 민족 대단결은 모든 인민의 근본이익이다. 2. 중국의 민족정책은 완전한 민족평등 위에 자리잡고 있다. 3.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중국민족정책의 우수성을 말해준다. 4. 민족지역발전은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가져온다. 黃鑰는 “등소평 민족문제사상의 학습은 중국 전체 민족의 대단결을 발전시킨다”라는 글에서 등소평 민족문제의 2가지 기본사상을 말했다. 1. 진정한 민족평등과 민족구역자치 2. 소수민족지구 발전은 곧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의미한다. 金炳鑰는 등소평 이론을 네 가지 층으로 구성된 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핵심층은 민족발전이며, 기초층은 민족문제의 기본논점이며, 중심층은 정책과 보장제도, 마지막으로 목적층은 최종적인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실현이다.

朱在憲의 “등소평 동지의 民族問題 이론체계 初探”은 등소평문집 1-3이 등소평 민족이론체계를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朱在憲은 “중국소수민족번영의 실현을 위한 이론”에서 등소평 민족이론을 지도사상, 민족문제인식론, 민족정책론, 민족공작론, 역사사명론, 지도자 지위론의 6개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杜玉亨은 등소평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민족이론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이론이 형성됐고, 또한 이것이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이론의 기초가 됐다고 말한다. 중국특색사

회주의 민족이론은 기본이론과 목적, 保障 3부분으로 이루어진 이론체계이다.

## < 민족이론의 지위 >

근래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방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등소평 민족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민족이론과의 관계, 2. 등소평 민족이론과 등소평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과의 관계 등이 주된 관심영역이다. 등소평 민족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민족사상의 관계에 대해 강택민은 1994년 9월 29일 “국무원 2차 전국민족단결표창대회강연”에서 등소평 동지는 중국의 새로운 시기의 민족사업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민족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것은 등소평 민족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말로 등소평 민족이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시기의 중국의 민족사업을 위한 지도사상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金炳鎬는 등소평 민족공작사상에 대한 주요내용, 특징, 이론 등을 가지고 등소평 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金炳鎬는 등소평 민족이론이 민족발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등소평 민족이론의 돌출은 주로 3가지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1. 민족문제 실질에 대한 이론 돌출, 2. 민족지역 자치이론에 대한 돌출, 3. 민족공작 근본임무 이론에 대한 돌출이 그것이다. 杜玉亨은 진정한 민족평등과 지역자치 등 6가지 방면에서 등소평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을 탄생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등소평민족관初探”은 등소평 민족이론과 마르크

“등소평의 민족평등사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진정한 민족평등의 실현은 등소평이 일관된 주장으로 “민족평등은 책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국 민족 내에서 진정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평등의 실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족이 진정으로 평등을 실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각 민족이 경제 및 문화의 개선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스-레닌주의, 모택동 민족이론의 계승 발전관계를 1. 민족지구발전 2. 민족지역발전 성공여부에 대한 관찰, 3. 진정한 민족평등, 4. 민족구역자치제도 등으로 파악한다. 李家秀는 “등소평은 새로운 시기의 중국 민족문제에 기본원칙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방침 정책 등을 제정해,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민족이론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등소평 동지의 마르크스주의 민족문제에 대한 중요한 공헌”은 등소평이, 후진민족과 후진국이 어떻게 사회주의 이론을 건설할 수 있는가와 마르크스 민족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중국의 현 단계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등 세 가지 방면에서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한다.

1980년대 이래, 등소평의 민족문제에 대한 수많은 공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산계급정당의 사업중점의 경제건설로의 전환과 소수민족지구의 발전이었으며, 등소평은 후진민족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가의 중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사회주의 이론과 민족문제이론이 매우 풍부하다.

王連芳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발전역사와 중국의 민족공작실전각도에서 등소평 민족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민족이론의 계승발전문제를 연구, 등소평 민족이론에 2가지 중요점을 제시했다. 1.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것, 2. 중국경제개혁제도의 지향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것.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이론이 이 두 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하며, 또한 등소평 동지의 각 민족에 대한 위대한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등소평 이론과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의 관계에 대하여 金炳鎬는 전자는 후자의 구성 부분이라고 말한다. “등소평 민족공작사상”은 등소평 민족이론과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 건설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등소평의 민족공작사상은 등소평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 건설의 중요구성부분으로 이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의 포함부분으로 이 이론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특색을 띄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 민족이론의 특징 >

학자들의 등소평 민족이론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 주요관점은 ‘三性’(求實性, 系統性, 時代性)과, ‘三統一’(민족이론과 객관적인 실제상황의 통일, 사회주의 본질과의 통일, 당의 정책과의 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

金炳鎬는 등소평 민족이론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개괄했는데, 그 주요 특징은 求實成, 系統成, 時代性으로 들고 있는데 求實性은 현실을 중시하고, 형식주의를 반대하는 등소평 이론의 중요특징이라고 말한다. 또한 등소평 이론은 새로운 시기의 시대감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杜玉亨은 등소평 민족이론의 특징을 三統一로 정리하고 있는

데, 1.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과 세계의 객관적인 실제상황과의 통일, 2. 민족이론과 사회주의 본질과의 통일, 3. 민족이론과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의 통일이 그것이다. 朱在憲은 등소평의 민족관에 대한 사상체계는 완벽한 이론성과 계통성 그리고 논리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한다. 등소평의 민족관은 이론성과 논리성의 통일, 전략관과 정책관의 통일, 그리고 인식론과 실천론의 통일을 나타낸다. 등소평의 민족관은 중국실제상황을 중시하며, 민족사업을 강조하는 체계적인 이론이다.

## 민족이론의 내용

### 민족평등사상

민족평등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의 민족문제처리 기본원칙 중에 하나이다. 민족이론학계는 등소평이 제시하는 민족평등사상이란 민족평등원칙의 새로운 발전으로 등소평 민족이론의 중요관점이라고 말한다. 金炳鎬는 ‘민족평등은 등소평 이론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한다. “등소평민족공작사상” 제4장에서는 등소평이 진정한 민족평등사상을 실행했으며 이는 중국의 민족정책 민족공작, 민족관계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진정한 민족평등은 비록 西藏을 지적하고 한 말이었지만, 그 정신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민족평등은 “각 민족의 경제생활 문화생활에 평등한 정치적 전제와 보장이 주어지고, 각 민족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의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다. 민족평등을 위해서는 1. 민족지구의 빠른 발전과, 2. 사회주의민주건설과 정신문명건설의 강화, 3. 사회주의 법제건설의 강화가 필요하다.

“등소평의 민족평등사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진정한 민족평등의 실현은 등소평이 일관된 주장으로 “민족평등은 책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국 민족 내에서 진정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평등의 실현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각 족이 진정으로 평등을 실감할 수 있나 하는 것으로, 각 민족이 경제 및 문화의 개선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민족관습과 종교신앙의 존중은 민족평등의 전제이며 보장이자, 또한 민족자치는 민족평등의 루트이며, 민족공동번영의 실현과 공동진보는 민족평등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한다.

杜玉亨은 민족평등은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당대 중국민족문제에는 아직도 불평등 현상이 존재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시기는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는 시기이라고 말한다. 朱在憲은 동소평의 민족평등은 민족지구발전전략입장을 나타낸 사상으로 중국발전의 기본전제는 안정이며, 내부모순과 개혁을 순조롭게 처리하고,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소평의 민족평등은 민족모순을 정확히 처리하고 개혁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

### 민족단결 사상

민족단결은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민족정책 중의 하나이다. 민족단결사상은 동소평 민족이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동소평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민족평등단결사상을 계승·발전 강화시켰다. 중화민족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중화민족 대단결을 위해 투쟁하고 조국통일사업을 실현해 더욱 풍부하고 발전된 당의 민족단결정책사상을 확립했다. 金炳鑰는 동소평은 민족단결을 매우 중요시했으며, 특히 민족 단결에 큰 의미를 두고 민족단결을 위한 길을 열고 민족단결의 진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그는 동소평의 민족단결 사상 중 당의 기본노선의 공고함이 민족단결의 정치기초가 되었고 소수민족과 소수민족경제발전이 민족단결의 경제기초가 되고 있으며, 당의 단결은 곧 민족의 단결이라며 지도자의 단결을 강조했다. 또

한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를 강력히 반대하고 민족 간의 거리는 단결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소평의 민족단결사상은 전체중화민족의 대단결을 강조하며, 단지 광범위한 민족단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단결을 이끌어낼까, 민족단결의 근본목표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민족경제를 발전시킬까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劉紹川, 張炯의 “민족단결의 강화는 조국통일을 촉진한다 : 동소평의 민족단결과 조국통일촉진을 위한 어록 중에서”는 동소평의 민족단결사상을 논한 글로, 동소평의 민족단결사상은 7가지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1. 전 당의 단결은 전 인민단결의 기본 조건이다. 2. 당 지도자의 개선은 당과 각 민족 인민 단결의 열쇠다. 3. 전국 각 민족인민의 단결은 중국공산당 사상이론 담당자들의 공동임무이다. 4. 전국 각 민족들의 모범적인 노동과 혁명은 인민단결의 핵심이다. 5. 전국 각 민족 인민의 첫 번째 임무는 조국통일전략공작이다. 6.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소수민족의 이익을 우선하여, 선진 지역은 낙후된 지역을 도와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하며, 이것이 민족 대단결을 보장한다. 7. 조국통일과 민족통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며,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黃賢友는 동소평 민족단결이론은 당의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 점”인 기본노선을 고수하고 4개의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소평의 민족단결이론은 6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1.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각 민족 단결과 왕래의 물질기반을 제공한다. 2. 민족단결의 강화는 각 민족인민의 단결을 의미하며, 또한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의미한다. 3. 중국특색사회주의건설은 각 민족단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요소이다. 4. 진정한 민족평등은 민족단결의 전제조건이다. 5. 민족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대민족주의와 지방민

족주의를 반대하고 실사구시의 태도로 임해야 한다. 6. 민족단결의 목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杜玉亨은 등소평이 지적한 “정치관점의 차이를 떠나 중화민족이라는 입장으로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세계화교가 포함된 중화민족 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에 따라 조국통일은 중화민족 모두의 이익에 대변하는 민족단결정책사상이라며 높이 찬양했다.

### 민족구역자치

등소평의 민족구역자치제도는 등소평의 민족공작사상의 핵심내용이다. 등소평은 민족구역자치이론과 정책제도를 강력히 지지했는데 1. 민족자치제도는 중국 국내상황을 잘 표현한 정책이다. 2. “공동강령”이 규정한 민족구역자치정책은 당의 약속의 실현이다. 3. 민족구역자치는 민족경제발전을 기초로 한다. 4. 사회주의민주와 법제건설의 강화는 소수민족거주지역의 진정한 민족자치를 이끈다. 또한 그는 등소평이 제시한 소수민족지구의 진정한 자치의 실행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1. 각 소수민족거주지구는 당연히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해야 한다. 2.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각 민족자치구역에 충분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민족자치구역은 민족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공헌해야 한다.

何群은 “등소평의 ‘진정한 실행’에 관한 사상의 의”라는 글에서 “진정한 실행이란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민족지구자치정책을 실현하고 소수민족을 신용하며 소수민족지구자치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등소평이 주장하는 진정한 민족구역자치란 민족공동번영과 사회주의본질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등소평의 민족구역자치사상은 實事求事の 정책표현으로 그 현실意義와 이론意義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杜耀富의 “모택동, 등소평의 민족구역자치법 건설의 역사적 공헌”은 등소평이 시대의 필요에 응해 민족구역자치와 자치법을 더욱 강화하여 더욱 완벽한 민족자치제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등소평이 서남지구에 실행한 민족구역자치을 위한 고된 사업은 당과 국가를 위한 고귀한 재산이며 경험이라고 말하고, 등소평의 민족구역자치법 건설은 신시대 중국 민족사업에 큰 역사적 공헌을 했다고 말한다. 등소평은 1982년과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을 제정 실행했다. 그는 또한 등소평의 민족구역자치법은 중국특색사회주의 민족구역자치법 건설이라는 주요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한다. 1. 4가지 기본원칙을 고수한다. 2. 민족구역자치법의 기본원칙을 창건하고, 민족문제해결에 있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충실히 따르며 현실중심원리를 고수한다. 3. 민족구역자치법 건설의 근본임무를 확립한다. 4. 낙후된민족지구발전에힘쓴다. 王玉은 ‘등소평의 민족지구자치사상의 주요표현으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 1. 중국의 민족지구자치정책은 중국실제상황에 맞는 정확한 마르크스주의 정책사상이다. 2. 소수민족의 진정한 민족평등을 위해서는 진정한 민족구역자치 사상의 실행이 필요하다. 3. 민족구역자치 정책사상의 발전을 피해야 한다.

### 소수민족 발전과 민족공동번영

소수민족지구를 발전시키고 민족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은 등소평 민족이론의 핵심이며 주요목표이자 등소평 민족이론 사상 연구의 쟁점문제이다. 金炳鎬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등소평 민족공작사상의 중심내용으로 당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사상이라고 말한다. 민족지구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각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것은 등소평 민족공작의 근본 목표이다. 王勳銘은 “각 민족공동번영의 이론목표 : 등소평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학습”이란 글에서

민족공동번영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1. “생산력해방과 생산력 발전” 각 민족번영을 위한 물질기초 확립, 2. “착취의 소멸”과 “양극화의 소멸”, 사회주의제도는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우수한 사회환경을 제공한다. 이 조건은 민족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는 또한 ‘등소평의 민족발전의 실질은 발전이라며, 중국공산당은 각 민족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치적 보장이라고 말한다.

劉甲金은 “지역차와 조화로운 발전 : 등소평의 공동번영사상에 관한 학습”에서 공동번영은 사회안정과 통일 그리고 민족시장경제 형성까지 포함한다고 말한다. 민족지구의 지역차가 좁아지고 경제가 발전되어야 비로서 진정한 민족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金炳鎬는 등소평은 “일부 지구의 우선적인 발전 전략”이 가져오는 문제(민족문제 포함)에 대해 인식하고 낙후된 지역의 협력과 경제, 문화발전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민족경제의 발전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은 민족공동의 번영을 촉진하며, 이는 등소평 동지가 주창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중요한 방침이자 중국사회주의 민족정책의 근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신시대 민족발전관의 확립”이란 글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아래서 경제발전은 곧 민족공동의 번영이며, 평등단결의 기초이고 정치안정의 보장이며, 사회안정의 기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등소평과 변방지역 경제발전”이라는 글에서는 “변경민족지구경제발전은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시키고, 사회주의시기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施正一은 “소수민족지구경제발전전략방침 : 등소평 동지의 발전전략지도사상학습”에서 발전 전략사상의 내용, 대책, 전략목표 등 등소평 발전 전략 지도사상에 대해 논하고, 이러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지구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

등소평 이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기초 위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건설 실천 그리고 당대 시대적 특징을 결합시켜 발전시킨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관점과 방침 정책의 이론체계이다. 등소평 민족이론은 실천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모택동 민족이론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다.

하다며 14가지 발전전략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웠다. 민족지구는 반드시 기회를 잡고, 빠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것은 등소평의 민족발전사상의 중요내용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와 민족번영의 관계 : 등소평의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학습”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각 민족공동의 번영관계를 논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목표는 민족지구의 번영을 위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周健은 “사상해방, 신 관념, 민족지구시장경제건설”이라는 글에서 민족지구시장경제가 왜 사상해방과 새로운 관념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필요한지, 어떻게 새로운 관념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새로운 관념이 민족지구의 시장경제를 촉진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민족지구의 발전은 국가와 선진지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빈곤지구의 협력사업은 등소평의 발전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다. 朱培民은 “등소평의 민족경제발전이론과 실천”이라는 글에서 등소평은 국가의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경제지원뿐 아니라 발달된 지구의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지원 또한 강조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소수민족지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등소평의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조한다. 민족지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은 등소평 민족이론의 중요한 내용이다. 金炳鎬는 '민족지구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은 등소평 민족공작 사상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관계 처리문제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

등소평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성과 임무를 강하게 말하고, 정신문명의 건설을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민족지구 사회주의 문명건설의 兩大임무로 1. 도덕사상의 건설, 2. 과학문화의 건설을 들고 있다. 藍 彬은 "등소평의 중화민족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전략사상"이라는 글에서 등소평은 이상과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근본임무라고 말하고 있다. 애국주의를 고양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건설하는 것은 민족정신문명건설의 주요내용이다. 金炳鎬는 전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등소평의 민족정신의 함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등소평이 말하는 민족정신이란 민족의 자존심 민족의 자신감, 그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조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또한 민족정신의 올바른 이해만이 민족정신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何常林은 "등소평의 민족정신"이라는 글에서 등소평 민족정신의 3가지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1. 민족자존심과 자신감, 2. 민족자주자립의 정신, 3. 민족자치정신. 등소평은 민족自立自強정신의 핵심은 自立自主와 自力更生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朱在憲은 등소평의 민족의 자긍심과, 자존심, 자신감의 강조는 등소평 민족관의 支柱이며 중화민족발전의 근본정신이라고

말한다. 蔡孝恒은 4가지 방면에서 등소평의 소수민족지구구제사업에 대해 논하고있는데, 등소평의 소수민족구제사업은 소수민족지구의 발전과 변형뿐만 아니라 전 국가의 발전과 안정과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등소평이 강조하는 소수민족구제사업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모든 당은 내륙과 소수민족지구의 구제사업에 고도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 중앙은 내륙과 소수민족지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2. 국가는 소수민족지구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 또한 소수민족지구에 고급인재를 파견해야한다. 3. 우선적으로 발전된 지역은 낙후된 지역과 소수민족지구를 지원해야한다. 4. 소수민족지구의 교육사업과 인재배양, 인민 의식수준 고양 등은 소수민족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5. 국가의 지원과 소수민족 자력의 노력이 합쳐져야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민족지구경제발전은 반드시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한다. 李瑞는 "등소평의 발전과 안정과의 관계에 대한 사상- 내용고를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내용고를 예로 민족지구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그는 변경지역민족들은 반드시 발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발전 중에 나타나는 불안정한 요소를 극복해 지역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발전과 민족공동번영과의 관계문제에 대해, 杜玉亭은 "발전과 각 민족공동번영"이라는 글에서 "발전은 중국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한족 또는 세계민족 모두에게 공용되는 개념이며 공동번영은 중국소수민족현대화발전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각 민족의 공동번영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의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민족공동번영이론의 실제의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 민족공작사상 연구 >

### 민족공작 지도사상

등소평의 민족공작지도사상은 등소평 민족이론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시기의 민족공작의 이론지침이다. 이 지도사상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이 심오한 연구를 하고 있다. 金炳鐸은 “등소평은 민족공작을 매우 중요시하며, 민족지구의 발전을 강조하고 전국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강조, 전 중국 중화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현대화전략의 근본목적은 중국을 부강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전 인민의 공동번영과 부강을 뜻한다고 말한다. 민족지구 사회생산력의 발전과 민족공동번영의 실현은 등소평의 중국민족공작의 근본지도사상이다.

“등소평의 민족공작원칙과 방법”이라는 글은 등소평의 민족공작지도사상은 민족발전이 민족지구의 모든 성패를 가늠하는 객관적인 표준이라고 말한다. 민족지구의 모든 사업과 방침 정책은 모두 민족지구생산력발전이라는 불변의 목적을 가장 우선 시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상해방을 이끌고 관념을 개선하고 민족경제를 촉진하여 민족지구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爲劍峰은 등소평의 민족공작에 대한 지도사상은 경제발전을 민족공작발전의 지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莫百生的 “등소평의 민족사상”은 민족평등을 지지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민족관의 기본원리이며 관점이다. 등소평은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을 매우 중요시하며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을 신시대 민족공작 지도사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張炯은 “민족단결과 조국통일은 신시대 등소평 민족사상의 핵심이다”라는 글에서 민족단결을 지지하고, 조국통일을 보호하는 것은 민족공작의 최고 원칙이며 지도사상이다. 민족공작은 반드시 두 가

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각 민족은 모두 사회주의기본방향을 따라야 한다. 사회주의 안에서만 진정한 공동번영과 공동발전이 가능하다. 2. 각 민족은 우애 있게 지내며 서로협력 하여 단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翁乾麟은 등소평의 민족공작지도사상을 6가지로 개괄했는데 그 중 하나는 민족공작은 반드시 신중하고 온건적인 방법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施正一은 등소평의 민족공작 지도사상에 대하여 “경제건설만이 민족지구의 낙후된 모습을 구제할 수 있으며,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시킬 수 있다. 개혁개방의 지지는 곧 민족지구의 생산력발전을 뜻하며, 민족경제의 발전을 뜻한다.

또한 4개 기본원칙의 고수만이 국가의 통일과 안정 민족 평등단결을 보장하고, 민족지구의 순조로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에 걸맞는 경제현대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楊金銀은 “신시대민족공작지침”에서 등소평 민족공작사상에 대해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실사구시 사상노선은 신시대민족공작의 근본지침이다. 2. 각 민족공동번영은 민족공작의 근본 목적이다. 3. 민족구역자치의 실행은 민족공작의 기본정책이다. 4. 경제발전은 신시대민족공작의 중심임무이다. 5. 민족단결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근본보장이다.

### 민족공작 기본원칙

등소평 민족공작 기본원칙은 마르크스-레닌이론과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 및 소수민족지구의 구체적인 실제상황을 결합시킨 것으로 다음 4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1. 민족의 장기성과 복잡성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민족공작의 우선원칙이다. 2. 민족공작과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의 총임무와 목표는 같은 것으로 이는 민족공작의 중요원칙이다. 3. 정치, 경제, 문화방면에서 성심성의껏 소수민족을 도우며 소수민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는 민족공작의 기본원칙이다. 4. 안정된 진보를 이

끈다. 이는 민족공작의 기본방침이다.

馬俊毅는 등소평 민족공작기본원칙은 민족공작의 장기성, 복잡성, 중요성의 사상인식을 수립하고 정치, 경제, 문화 방면에서 성심성의껏 소수민족을 돕고 봉사하며 민족공작의 안정된 진보를 이끌고 정확한 민족정책을 제정하여 소수민족과 함께 의논하는 현실위주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翁乾麟은 “등소평은 중국 민족공작의 경험과 교훈을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중국의 현 단계에 맞는 민족문제 근본원칙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먼저 민족평등원칙의 지지는 마르크스주의 민족문제해결의 기본준칙으로 중국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과 민족정책의 고수를 말한다. 다음으로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행은 소수민족지구의 발전을 이끄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해야한다. 1. 어떻게 중국의 東西部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공동 번영을 이룩할 것인가? 2. 어떻게 다른 민족을 학습하고 다른 국가의 선진된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朱在憲은 민족공작중요원칙에 관하여 등소평은 소수민족지구공작을 강조하며, 모든 공작은 반드시 소수민족과 함께 의논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楊發仁은 사상해방과 實事求是는 모두 현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등소평의 민족공작의 중요원칙이라고 말한다. 이 원칙의 고수만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의 민족이론과 당의 기본노선, 방침 정책을 중국의 민족지구실제 상황과 결합시켜 민족지구의 각종공작을 처리하고 민족단결과 사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 민족공작의 주요방법

등소평 민족공작 주요방법에 대해 金炳鐸는 1. ‘정책은 즉 생명이다’, 정확한 정책의 제정과 실행은 민족공작 성패의 중요한 열쇠이다. 2. 소수민족과의 상담은 민족공작의 기본방법이다. 3.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연구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민

족공작의 기본방법이다. 4. 원칙성과 특수성의 결합-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은 민족공작의 중요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劉紹川, 張炯는 “등소평 민족사상연구”라는 글에서 “등소평 동지는 소수민족과의 상담을 통한 민족공작전개라는 원칙과 공작방법을 고수하고 당의 통일전선 공작방법 또한 소수민족 내부관계를 통해 이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朱在憲은 ‘민족공작방법에 관하여 등소평 동지는 “안정된 방법으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하며 모든 일은 소수민족과 함께 협상을 통해 이뤄야 한다. 민족공작에 대한 태도는 實事求是로 언제나 성심성의 것 대처해야한다”고 말한다. 劉紹川, 張炯는 實事求是와 조사연구는 등소평동지의 민족공작 해결방안으로, 등소평은 소수민족문제해결을 위한 조사연구를 중시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한 상황 이해와 문제해결 및 공작전개, 각 방면 대표자 등의 의견수렴 등은 중국민족공작에 실질적인 지도意義를 갖는다.

등소평의 민족이론은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하며 중국 학설계의 연구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본문은 그 중 일부분의 내용을 기재 논술했다. 등소평의 민족이론은 등소평 이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기초 위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건설실전 그리고 당대 시대적 특징을 결합시켜 발전시킨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관점과 방침 정책의 이론체계이다. 등소평 민족이론은 실천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모택동 민족이론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중국 신시대의 새로운 민족공작지도사상으로 대두했다. 개혁개방이래 등소평 민족이론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을 믿는다.

##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이론

13회 4중전회 이후, 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복잡한 국내 정세 아래, 중국의 민족사업에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 특히, 1992년 중앙민족공작회의와 당의 제14차 전국대표대회, 15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중국의 민족문제 해결과 민족사업과 정 중,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을 기초로, 세계의 민족문제에 대한 경험과 교훈, 중국 국내의 새로운 민족사업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중국 특색의, 체계가 완벽한 신시대에 걸맞는 민족이론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모택동 사상을 계승하며, 등소평 이론 이후 더욱 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발전시킨, 중국 민족이론 발전의 3번째 단계이다. 중국공산당 제1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이론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1992년 1월 중앙민족공작회의와 동년 10월 제14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민족이론 계에서는 민족공작강령과 민족공작사상각도에서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이론에 대해 다량의 연구를 실시했다. 朱在憲의 “중국 민족공작강령에 관하여 : 중앙민족공작회의의 중 강택민 동지의 연설을 중심으로”, 赤民의 “제14차 전국대표대회 보고가 민족공작이론에 미친 공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당의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이전까지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이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떤 특정부분이나, 특정 연설 내용에만 집중되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당의 제15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매우 중요한 회의로 등소평 이론의 위대한 업적을 깃발로, 21세기를 향해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민족이론도 더욱 발전시켰다. 당의 15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

중국 공산당 3대지도자집단은 민족지구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의 경제발전에서의 중요한 지위를 강조하고, 민족지구의 인구, 자원, 환경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소수민족의 현실을 반영하여, 계획출산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소수민족지구 인민의 의식수준을 높여,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의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중국의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제3대 지도자들은 민족이론의 관점과 민족정책 실행방법, 민족공작사상과 민족공작의 실천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金炳鐸의 “중국민족이론 발전 현상과 전망,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이론의 발전”, “중국 민족이론 발전 20년사”, 楊儒의 “당의 제3대지도자들의 중국 민족문제이론 해결과 발전”, 王鐵志의 “신시대 당의 민족정책이론과 실천,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공작 사상이 민족정책에 미친 영향”, 學增의 “신시대의 중국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에 대한 발전” 宋奎의 “당의 제3대 지도자집단의 중국민족문제에 대한 기본해결 사고 방향” 등이 있다. 이러한 논문과 과제 등은 주로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이론 체계와 주요 내용, 실천을 연구한 것이다. 이제부터 이러한 연구성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 민족이론 체계 연구 >

#### 민족이론 형성기반

등소평 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부합시킨 것으로, 모택동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이론이다. 등소평 이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등소평 민족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당대 중국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민족이론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민족이론의 중국에서의 새로운 발전이다. 중국 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이론은 등소평 이론의 지도 아래 등소평 민족이론을 계승하고, 중국의 민족문제의 기본사실을 철저히 인식하여, 사회주의의 발전 속에 나타나는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의 민족문제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기초로 형성 발전된 이론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이론은 등소평 이론의 계승 발전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중국에서의 새로운 발전이다.

## 민족이론의 주요 내용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민족이론을 계승하였으며, 더욱 광범위한 범위와 내용-민족문제의 기본 사상, 기본 이론, 정책사상, 기본원칙, 방침사상 등을 다루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이론 주요 내용은 : 등소평의 민족이론을 민족문제해결의 지표로, 민족평등을 지지하고, 실천 중에 민족평등을 보장하며, 소수민족발전과 민족지구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고도의 민족지구자치제도를 확립하고, 민족간부육성에 힘쓰며, 민족법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정책의 우수성을 발휘하여 발전된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확립하고, 각 민족공작 지도자들의 지도아래, 지역모순과 민족모순, 인민모순을 처리하고 민족지구의 안정과 민족문화의 발전, 민족지구의 정신문명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종교와 민족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회주의에 걸맞는 새로운 종교목표를 세우고, 사회주의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키우며,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민족분리주의를 강하게 반대한다.

##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사상

당의 15대는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강령을 제시하고,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경제, 정치, 문화의 기본내용을 서술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민족문제해결을 민족공작의 전개 속에서 구체화하는, 즉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민족공동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며, 전체사회주의 초급단계의 민족공작을 행동강령으로 한다.

새로운 시기의 민족공작 목표는, 소수민족 민족지구 경제사회의 진보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빈곤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개혁개방의 步調를 더욱 활발히 하며, 합리적인 지역 분배를 달성하고, 조화로운 지역경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정치상의 책임은,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중심으로 당의 지도자를 강조하고, 민족법제를 강화하고, 민족간부를 육성하며, 종교공작을 통제하고, 세력분열을 방지하는 것이다. 문화목표는,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양하고, 민족문화를 넓히 홍보하며,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또한 지속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민족 관과 당의 민족정책을 교육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이상 몇 개의 방면에서 자신의 이론사상을 전개했으며, 사회주의초급단계의 민족공작과 기본강령, 현실의 민족공작실전과 결합시켜, 중국민족공작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

## 민족문제 해결의 기본전략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4대 발전 전략을 제시 실행하고 있다.(沿邊개방전략, 과학기술전략, 지속적인 발전 전략, 4部개발전략.) 이러한 전략과 민족지구의 발전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지구의 개혁개방과 현대화의 추진은 중국공산당 제1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전략이자 방침이다.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국책이다. 80년대 중국의 대외개방의 중점은 동부해안지구였다. 90년대 초 중국은 四沿개방방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四沿이란, 沿海, 沿邊, 沿江, 沿線(주요교통간선) 말한다. 변방 민족지구는 개방과 함께 개혁의 최우선지로 변했다. 李鵬은 1992년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변경지역의 무역발전과 육지 변경지역의 대외개방 확대는 중국 전체 대외개방 다원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중국은 변방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변경지역 무역과 주변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변경지역 인민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변경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변경지역전략은 이곳 민족지구의 경제 발전과 사회진보를 가지고 올 것이다.

1995년 5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科教興國” 전략을 제시했다. 당의 十五大가 실행하는 이 전략은 과학기술의 빠른 성장을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열쇠로 생각하고, 경제건설의 중점을 과학기술의 진보와 노동자의 의식발전에 두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민족교육과 민족지구과학기술사업, 민족지구 경제건설을 연계하여, 민족지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科教興國전략의 실행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노동자의 의식수준을 높이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과학기술의 인재를 민족지구 합리적으로 활용한다. 대대적인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민족지구 경제성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민족지구발전의 길을 개척한다.

당의 14회5중전회와 十五大는 명확한 전략을 제시했는데, 계획출산과 환경보호를 국가의 국책으로, 경제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중국민족지구의 대부분의

민족단결은 사회안정의 전제이며, 국가통일의 기초이다. 사회안정과 국가통일은 민족 전체의 번영과 진보를 가져온다. 강택민은 “만약 국가가 통일되지 않으며 민족은 단결할 수 없고, 사회도 안정될 수 없으며, 각 민족의 공동발전 역시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서부지역은 자연환경이 열악하다. 서부지역은 長江, 黃江, 珠江 등의 주요강의 발원지로, 서부지역의 자연환경은 전국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공산당 3대 지도자집단은 민족지구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의 경제발전에서의 중요한 지위를 강조하고, 민족지구의 인구, 자원, 환경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소수민족의 현실을 반영하여, 계획출산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소수민족지구 인민의 의식수준을 높여,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의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제3대 지도자집단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 속에서 비로써 민족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의 제14회5중전회에서 강택민은, 地區經濟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한 전략문제- 동 서부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는 서부민족지구의 개발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민족이론의 기본 특징 >

중국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덩소평 이론의 민족이론과 중국 민족과 민족문제의 구체적인 실제상황을 접목시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

자집단의 이론은 시대성과 실제성, 계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이론의 탄생과 발전은 역사환경과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론은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탄생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정 중, 갖가지 새로운 민족문제에 봉착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제는 시대성이 민족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이론은 實戰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이론은 중국의 민족이론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고, 이러한 대안은 구체적인 전략, 정책, 방법을 제시, 민족문제 해결에 끊임없는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이론은 조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13회4중전회 이후 9년의 연구 끝에 민족공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신시대에 맞는 방침, 원칙, 방법을 세우게 되었다. 즉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과 관점, 방법을 가지고 조직적이며 과학적으로 새로운 시기에 발생하는 중국의 민족문제에 대응하고 있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 민족문제이론의 주요 내용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이론은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한데, 중국 민족문제의 여러 방면뿐 아니라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민족문제의 발전방향과 세계 민족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 민족과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관점

강택민은 1992년 11월 개최한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통한 민족문제의 관찰과 처리과정에서 기본적인 관점과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민족의 탄생과 발전 멸망은 모두 긴 역사적 한 과정으로, 민족문제는 오랜 기간 존재하며, 사회주의단계는 민족이 공동번영하는 시기로, 각 민족의 공통점이 많아질수록 또한 각 민족 고유의 특징도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공동추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민족은 인구의 많고 적음, 역사의 길고 짧음, 발전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 중국문명에 크나큰 공헌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며, 모든 민족은 서로 단결해야한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과 민족문제에 대한 기본관점이다.

## 민족문제에 대한 주요사상

모든 당은 민족문제의 長期性和 복잡성,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민족과 종교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택민은 1993년 11월7일 전국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그의 중요한 사상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1992년 1월 14일 그는 “나는 민족문제의 장기성과 복잡성,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반드시 중화민족과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과 주요지도자들은 이같이 민족문제의 “三性”(長期性, 複雜性,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문제는 국가의 중대문제이다. 강택민은 1989년 9월20일 전국소수민족지구 구제공작회의에서 “민족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중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1992년 1월 14일에는 “민족문제는 중국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중대한 문제다. 중국공

산당은 성립이후 지속적으로 민족문제를 중시해왔다. 민족문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1993년 11월 7일에는 “민족문제는 중국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로 사회와 변방지역 안정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 조건 아래 정확히 민족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민족문제를 잘 해결하고 민족사업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은 사회전체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복잡한 상황아래, 중국은 민족문제를 중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강택민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거해 혁명과 건설과정 중 민족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민족평등사상의 보장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민족평등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각종 사업을 통해 소수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 각 민족 간의 평등한 관계를 확립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평등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중국에 있는 모든 민족은 인구, 지역,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 공헌했으며, 모두 중화대가정의 평등한 일원이라는 점이다.

모든 민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각종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평등을 기초로 한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十五大는, 사회주의 민족관계의 평등한 발전과 단결,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민족공동번영과 진보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소수민족이 평등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 강택민은 소수민족지구 구제공작회의 중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지구자치법의 진일보한 선전과 사업을 통해, 자치제도의 법제를 강조하고, 소수민족의 경제와 문화(언어)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고,

소수민족의 풍습습관을 존중하며, 종교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민족지구의 확실한 자치를 인정한다.” 같은 해 李鵬은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소수민족을 중화대가정의 일원으로 여기며,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 교육, 문화 등 각종 방면에서 비교적 낙후해 있는 소수민족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평등문제에 대한 공고한 입장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 민족단결과 조국통일

민족평등의 기초 아래 민족 단결과 조국통일의 강조는 모든 민족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문제에 대한 강택민의 기본사상이다.

민족단결은 사회안정의 전제이며, 국가통일의 기초이다. 사회안정과 국가통일은 민족 전체의 번영과 진보를 가져온다. 강택민은 “만약 국가가 통일되지 않으며 민족은 단결할 수 없고, 사회도 안정될 수 없으며, 각 민족의 공동발전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강택민은 중국민족의 단결현황과 중요성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각 민족의 단결은 매우 공고하며, 이러한 민족 간의 단결이 사회진보, 경제발전, 정치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통일, 민족단결은 민족을 부흥시키는 것이며, 국가분열, 민족분쟁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단결은 즉 번영, 분열은 멸망을 의미한다.”

강택민은 진일보한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각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大民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를 반대하며,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모든 단체나 사상은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소수민족과 한족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방정부는 자치민족과 기타민족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민족단결을 위해 공헌한 각종 단체와 인물을 표창하며, 이러한 활동을 적극 지지

할 것이다.

多民族居住區, 특히 변방민족지구에서는 군인과 지방정부 그리고 소수민족의 단결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또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분열주의자 하고도 투쟁할 것이다.

### “三個不離開”

강택민은 1990년 9월 新疆시찰중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위대한 중화민족은 조국의 대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생활하고 있다. 각 민족 간의 관계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형태의 민족관계로, 한족은 소수민족 없이 존재 불가능하며, 소수민족 역시 한족 없이는 존재 불가능하다. 또한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의 협력 없이는 중화민족은 역시 존재 불가능하다. 이러한 “三個不離開”사상은 중국공산당 제2대 지도자집단의 한족과 소수민족의 “兩個不離開”사상의 진일보한 발전이다.

1990년 9월 강택민은 내몽고시찰 중 “중화민족은 중화 대가정과 사회주의 조국 속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성장했다.”라고 말했다. 1989년 7월 강택민은 西藏시찰 중, 수십 년에 걸친 한족과 기타민족간의 협력을 西藏인민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994년 7월 강택민 동지는 제3차 西藏공작회의에서 “상품사회의 발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의 건립으로 장족은 기타민족과 상호 협력, 의존 공동진보를 이룩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떠날 수 없는 관계로 성장했다.” 이것은 사회 발전과 민족진보의 필연적인 결과로, 중국은 이러한 민족의 발전방향을 환영한다. 이러한 三個不離開 사상지도 아래, 중국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더욱 발전 개선되었다.

### 민족지구자치제도

소수민족자치제도는 중국민족문제해결의 근본제도이다. 강택민은 15大정치보고중 소수민족자치제

도를 중국의 3대 기본민주제도로 정했다. 이것은 등소평의 “진정한 민족자치의 실행”의 계승으로 중국 민족자치제도는 큰 발전을 가져왔다. 강택민은 1993년 11월 전국 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민족자치제도의 지지와 발전을 강조했다. 또한 1992년 1월 중앙 민족공작회의에서는 소수민족과 민족자치구의 정책과 법규는 자치법의 정신을 받아들여, 자치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지도자들도 민족자치제도의 발전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국의 기본정치제도이며, 이는 지도자와 소수민족을 서로 단결하게 하는 정치제도이다. 국가통일과 민족구역자치의 관계는,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리를 보호하고, 민족자치지방은 국가의 방침과 정책을 지지하며, 국토통일을 지지한다. 중국 제3대 지도자집단은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중요시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욱 발전된 제도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민족지구 발전과 민족공동번영

균형된 지역경제발전의 추진과 서부지역(민족지역포함) 경제개발의 촉진, 각 민족의 공동번영의 실현은, 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당의 중국특색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의 중요사상이며 사회안정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1992년 1월 14일 강택민은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소수민족과 민족지구경제 사회발전은 곧바로 중국 전체현대화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민족지구의 현대화는 전국기타지역의 현대화이며, 소수민족의 번영은 중화민족의 번영이다. 이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서로 돕고 협력해야한다. 각 민족의 발전과 공동번영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동부지역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중부 서부 민족지구의 발전을 빼놓고도 논할 수 없다. 중부 서부지역(민족지구 포함)의 개발은 이미 중국경제발전의 필연적 선택이다.

생산력의 합리성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은 중국의 현대화 건설과 각 민족의 단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택민은 “새로운 역사시기 속에서 민족사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며, 소수민족지구의 경제문화발전을 촉진하여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한다. 이것은 소수민족과 민족지구 인민 전체의 요구이며, 또한 사회주의 민족정책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1994년 강택민은 “한족과 소수민족의 협력 없이는 공동진보란 있을 수 없으며, 소수민족지구의 자원과 합리적인 개발 없이는 균형 있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역사와 현실이 중국 각 인민의 운명을 하나로 만들었으며, 중화민족의 부흥은 56개 민족의 공동번영을 뜻한다. 중국인민은 당의 기본 노선과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민족지구의 생산력 발전에 힘쓰고, 각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여야한다. 경제발전은 민족단결의 물질적 기초이다. 민족지구는 자력강생을 강조하고 자신의 경제적 우세를 발휘해야한다. 정부는 민족지구의 경제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며, 중국 내 발달된 지역도 민족지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공동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1995년 3월 6일 강택민은 제8회 인민대표회의 제3차 회의에서 新疆과 내몽고, 廣西대표단공작보고에서 “한족 지구와 경제발전지구는 적극적으로 소수민족지구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해 지원해야한다.

이것은 민족문제 처리의 지도사상이며, 장기간 관철해온 사상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과정 중 각 지역의 불균형한 발전이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은 일부분 지역의 발전을 먼저 이룩하고, 차차 전지역의 발전을 거두어 마침내는 전국의 공동된 번영을 이룩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3대 지도자집단

강택민은 “ 소수민족지구의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의 사회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의 과학, 문화 사상,도덕 수준과 신체건강을 높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택민은 민족교육을 적극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사상문화를 공고히 하여 각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은 소수민족지역의 발전을 강조하고, 중국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요구를 민족사업에서 실천해나갈 것이다. 그럼으로 민족문제는 중요한 경제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시 매우 중대한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 소수민족 간부 육성

소수민족간부 육성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강택민은 1992년 1월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도덕소양이 갖추어진 우수한 소수민족청년간부를 육성하는 것은 민족공작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택민은 1990년 2월 15일 “소수민족간부 육성의 많은 관심이 민족지구발전과 민족문제해결에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수민족간부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소수민족 중급/고급 간부를 배출해야한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정치사상 그리고 당의 노선과 방침을 잘 아는 과학과 문화방면에 지식이 풍부한 소수민족 간부만이 민족과 종교의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소수민족간부의 지

적 소질을 높여 민족지구 발전에 이바지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1990년 新疆사찰시, 민족자치지구의 능력 있는 소수민족간부육성은 당의 노선과 방침정책을 보장하고 각종사업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수민족간부의 육성은 소수민족간부 수량의 확대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소양이 높은 간부를 육성하는데 그 중점이 있다고 말했다.

胡錦濤는 1993년 6월 전국 소수민족간부육성공작회의에서 “소수민족간부를 육성 배출하는 것은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소수민족간부의 육성사업은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성공을 기증하는 일로 민족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1994년 李瑞環은 “민족사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족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 소양이 갖춰진 소수민족간부가 필요하며 이것은 중국의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민족간부 육성과 이론 발전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 민족문화와 민족지구 사회사업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사회사업의 발전은 각 민족의 진보를 의미한다. 이것은 강택민이 1992년 1월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중요한 사상으로, 소수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지구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의에서 강택민은 “소수민족지구의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의 사회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의 과학, 문화 사상, 도덕 수준과 신체건강을 높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택민은 민족교육을 적극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사업을 발전시키

며, 사회주의 사상문화를 공고히 하여 각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족언어 문자의 TV, 신문 등 언론 매체에서 더욱 많은 사용을 권하고 의료 위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족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체질의 인민 육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사상문화의 확대와 공고는 소수민족과 민족지구문화사업의 근본임무라고 말했다. 과학부흥전략을 강조하고, 민족문화전통을 지키며, 민족지구정신문명건설을 강조, 전체민족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주요 사상이다.

### 인민 내부모순 처리와 민족지구 안정

사회주의 제도 아래에서 민족문제는 곧 인민 내부 모순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현 단계 중국민족문제에 대한 기본 관점이다. 강택민은 1993년 11월 전국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민족과 종교간의 모순은 대부분 인민 내부 모순이라고 말했다.

1989년 3월 제7회 인민대표회의의 제 2차 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李鵬은 “중국의 현 단계 민족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이익의 기초에는 인민 내부의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李瑞環은 1994년 7월 “현 단계 중국 민족 종교 영역에서 발생하는 주요문제는 인민 내부 모순”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민족지구 안정은 곧 전국의 안정을 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강택민은 1993년 11월 전국통일전략공작회의에서 “만약 국가가 통일되지 못하면, 민족 역시 단결할 수 없으며, 사회는 불안정해져 경제건설을 이룩할 수 없어 각 민족은 공동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1991년 12월 貴州 시찰때 “사회안정과 국가의 장기간의 치안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으며, 新疆시찰시에는 정치안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즉 민족모순을 진지하게 처리해야 하며, 민족단결을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보호하는 것은 각 인민 공동의 염원이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문제에 관한 사상이다.

## 민족분열주의 반대

“우리는 애국주의와 민족평등단결을 지지하고, 단결을 파괴하고 조국을 분열시키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기본 강령으로 민족분열주의사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강택민은 1990년 2월 15일 “反분열투쟁은 정치투쟁의 하나로, 이것은 민족문제도 아니며 종교문제도 아니다.

조국통일을 보호하고 민족분열을 반대하는 것은 장기간의 정치임무이다. 민족분열분자는 각 민족 인민 전체의 적이다. 모든 인민은 반드시 민족분열주의를 반대하고, 민족간부에 의지하여 서로 단결하며, 민족분열주의를 고립시키고 민족분열분자를 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상이다.

## 사회주의시기 민족공작

강택민은 1992년 1월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중국은 민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험을 얻었다며, 사회주의시기 민족공작의 특징으로 장기성, 복잡성,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택민은 민족공작의 복잡성과 장기성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올바른 민족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택민은 “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주의 시기 민족공작의 근본 임무”라고 말했다. 또한 강택민은 민족지구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표했는데, 1993년 11월 7일 민족지구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재차 강조했다.

강택민은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문제 역시

민족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李瑞環은 1994년 9월 8일 민족지구의 주요 임무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지도 아래 중국의 민족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라고 말했다.

## 제 3대 지도자집단 민족법건설과, 민족정책 발휘에 대한 사상

당의 十五大는 依法治國을 강조,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을 강조하고, 진일보한 민족법규의 건설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혁명과 건설사업과정 중 민족정책과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를 제정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과 제도는 중국정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민족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을 관철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민족정책의 법률, 법규화, 법에 의거한 민족발전은 시대적 요구이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민족법제의 건설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강택민은 1992년 1월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민족지구자치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민족지구자치법을 실행하고 법규체계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확충하여, 자치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세기 말에는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법규체제와 감독체계를 완비하고 민족자치지방의 혁명, 발전 안정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 제 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공작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이다.

## “4가지 보호”

강택민은 1993년 7월 전국통일전선공작회의에서 종교문제를 강조했다. 1. 전면적이고 정확한 당의 종교정책을 관철할 것, 2. 법에 의거하여 종교사업을 관리할 것, 3. 종교를 사회에 순응시킬 것. 이 3

가지는 당의 제3대 지도자 집단의 종교에 대한 기본 이론이다. 적극적으로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를 순용시킬 것은 강택민과 李鵬이 각각 1993년 11월 1일과, 1994년 7월 4일 강조한 것이다. 李瑞環은 1996년 2월 14일 “순용”이란 모든 종교는 법률을 존중하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민족단결을 보호하며 국가 통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인민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의 존엄성과 인민의 이익, 민족단결, 그리고 국가통일의 보호 이 “4가지 보호 사상”이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종교이론의 기본 사상이다.

## 민족공작 사상

중국공산당은 중국사회주의 사업의 핵심 역량이며 또한 중화민족단결통일의 핵심역량이다. 중국공산당은 국제형세와 국내건설의 필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중국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며, 당의 진일보한 민족공작의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강택민이 1992년 1월 중앙민족공작회의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중국공산당 제 3대 지도자 집단의 중요 사상이다. 강택민은 “당의 민족공작 지도에 대한 강조는 전면적인 당의 기본노선실행과 “實事求是”를 이념으로 한 민족문제해결이다.

또한 민족간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민족관과 당의 민족정책, 교육 그리고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당의 사상 건설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앙 및 지방 그리고 당위원회, 정부는 모두 민족공작에 심여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당 위원회와 정부 주요담당자들은 민족공작에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이론은 광범위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킨 중국민족공작의 지도사상이다.

## < 민족공작 실천 연구 >

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소수민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공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공작은 1. 민족지구 시찰을 강화하고, 2. 관련민족문제와 민족공작회의 및 대화를 강화하고, 3. 민족지구 발전과 민족단결정책을 강화한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소수민족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소수민족빈곤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민족지구 지도공작과 실지조사연구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한 경험과 교훈으로 인민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험(실제상황)과 이론을 복합시켜 정책을 개선하고 민족공작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민족지구 조사

강택민은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핵심이다. 1990년 7월 20일~26일까지 강택민은 西藏시찰에 나섰다. 이것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당과 국가의 지도자가 西藏을 시찰한 것으로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이 얼마나 西藏개발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나를 나타내 주고 있다. 강택민은 西藏 경제발전 큰 관심을 가지고, 에너르기 자원과 교통의 발전이 西藏경제발전의 우선조건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 8월 과 1998년 7월 강택민은 두 차례 新疆을 시찰했다. 첫 번째 시찰 시 그는 新疆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공작의 주제로 시찰했으며, 두 번째 시찰 때는 국가중점사업인 南疆鐵路와 타리무油田 및 新疆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각 우수 기업을 방문했다. 강택민은 新疆시찰시 민족과 종교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민족분열주의를 비판하며, 사회정치의 안정을 강조했다. 1998년 중국공산당 제3

대 지도자 집단의 新疆시찰은 중국의 민족사업과 서부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강택민은 민족지구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7월에는 西藏을 방문했으며, 1990년 8월과 1998년 7월 두 차례 新疆을 방문했고, 1990년 9월과 1999년 1월 두차례 내몽고를 시찰했으며, 1991년 7월, 1991년 8월, 1993년 7월 3차례 青海를 시찰했고, 1991년 12월, 1996년 10월 두 차례 貴州를 시찰했다. 또한 1989년 11월 운남성을 방문했으며, 1999년 4월에는 昆明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각지에 퍼져있는 소수민족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96년 6월 3일 강택민은 하남성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한족에 비해 낙후되어있다. 한족은 이러한 소수민족을 도와 함께 발전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은 수시로 민족지구를 시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연구방법은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민족공작실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 민족지구사업

중국 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민족지구 빈곤구제사업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다. 중국의 빈곤인구 중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대부분의 소수민족거주지는 민곤지구에 속하고 있다. 592개 빈곤현 중 소수민족 현은 모두 257개로 전체의 43.4%에 해당된다. 1989년 9월 강택민은 전국 소수민족빈민구제사업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강인한 투쟁정신을 강조하며 민족지구의 빈곤구제사업의 촉진을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집단의 정책과 지도 아래 중국은 서부지역의 자원 개발과 기초설비건설에 정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서부자원개발에 국가적인 투자를 행하고 있으며 지역을 뛰어넘는 에네르

기 자원, 교통, 통신 등 중대한 기초사업을 국가의 투자와 지도아래 건설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민족지구의 대외개방을 중시하고, 해안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민족지구의 대외개방의 시작은 90년 초로, 1990년 강택민은 新疆시찰 때 “대외개방의 실행은 중국의 중요국책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야한다. 新疆지방은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다. 우리는 생각을 좀 더 넓혀 사회주의 전제아래 대외개방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원은 1992년 黑河市, 滿洲里市, 二連浩特市, 博樂市 등 13개의 開放市를 지정하고,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했다. 또한 1993년에는 延邊市, 등 7개의 민족지구를 개혁개방지역으로 지정했으며, 1997년에는 내몽고의 臨河市와 口縣, 五原縣, 杭綿後旗, 青海省剛察縣과 회족 및 토족의 자치현을 외국인 개방지구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민족지구의 외자유치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依法治國전략을 제시, 적극적으로 민족법제의 건설과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행하고, 각종 제도와 정책으로 소수민족 간부를 육성하며, 소수민족의 문학과 예술, 신문, 출판사업을 중시해 민족교육과 과학기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은 마르크스주의 민족관과 민족이론, 민족정책의 선전 교육과 애국주의교육을 강조하고, 사회전체의 폭넓은 민족단결과 진보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민족화목과 우애, 그리고 공동진보의 사회적분위기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협력적인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건설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3대 지도자 집단의 민족공작실전은 중국의 민족공작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으며, 중국민족이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 중국의 민족분쟁지역 분석

개혁개방기를 맞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문제갈등 중에서도, 여기서는 新疆, 티벳, 蒙古 지방 민족분쟁의 내용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조정남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신강 위구르의 민족분류

중국의 가장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신강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에서 가장 첨예한 민족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분쟁지역의 하나다. 이곳의 민족문제는 만주족이 건립한 清朝가 당초 터키계 무슬림의 거주지였던 이 지역을 그들의 정치적 영역으로 편입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비록 만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분리, 이른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새로운 건설을 둘러싼 '민족반란'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다.

중국의 대표적 터키계 무슬림으로는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키스족, 우즈베크족, 타타르족 등이 있으며, 1990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이들은 각각 720만, 111만, 14만, 15만, 05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이 민족집단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신강위구르족이 대표적이다. 위구르족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新疆위구르자치구는 중국 서북부에 위치, 총면적은 중국 전체면적의 17%인 165만 평방킬로미터로, 5,600킬로미터의 국경선을 가지고, 몽골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

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 8개 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sup>1)</sup>

1991년 말, 소련방 붕괴 이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강위구르족과 같은 터키계 이슬람민족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 동일 민족세력과의 연대는 위구르족의 독립기운을 더욱 부채질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즈베크스탄의 수도 타슈켄트가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중심지이며 신강위구르족에 있어서는 메카에 이은 제2의 성지로 인식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소련 붕괴로 더욱 가까워진 것도 신강위구르인의 독립기운을 높이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sup>2)</sup>

신강위구르자치구는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을 통한 빈번한 중앙아시아 제국과의 무역은 단순한 상행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양 지역 사이의 인적왕래와 정보교환의 파이프 역할도 하고 있다. 이전부터 위구르인은 '가맹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소련방의 중앙아시아 각국을 그들 민족국가 건설의 모델로 삼아왔다. 과거 모택동이 "신강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 소련 사람들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상회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신강위구르자치구와 소련령 중앙아시아 제국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 위구르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의존심을 약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중국 당국은 소련 해체에 따른 인근 이슬람국가들의 독립이 자국내 이슬람 민족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93년에 걸쳐 위구르족을 중심으로 한 터키계 무슬림에 의한 폭동을 비롯, 무차별 폭탄테러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1996년 5월 12일에도 카슈카르에서 위구르인 신강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모스크바에 가는 도중에 같은 위구르인 민족 독립파 3인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등의 사건이 있었고, 1997년 2월 5일-6일 양일 간에는 동지구의 伊寧(쿠르자)에서 위구르인에 의한 대규모 민족폭동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 중에서 특히 앞의 사건은 피습된 부주석이 신강위구르자치구 최대의 모스크 지도자이며, 범인이 위구르인 농민의 제보에 의해 체포되어 총살당하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sup>3)</sup> 왜 위구르 민족 독립파가 같은 민족지도자의 암살을 시도하고, 또 같은 민족인 농민이 이들의 추적에 협력한 것인가. 여기에 지금의 위구르 사태의 복잡성이 있다.<sup>4)</sup>

위의 두 사건이 카슈카르와 쿠르자에서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양 지방은 1930~40년대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위구르인의 민족독립운동이었던 이른바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카슈카르는 1933년 11월 '코란 엄수', '중국지배의 타도'를 기치를 내걸고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이른바 '제1차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sup>5)</sup>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쿠르자는 1940년대에 소련의 지지를 얻은 위구르 지식인들과 일부 우즈베크스탄인, 타타르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된 '제2차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특히 1944년 1월

중일전쟁 직전부터 일본의 지지로 내몽골의 민족독립운동이 빈발하게 되면서, '민족의 독립'이 일본 제국주의에 이용될 위험을 감지한 중국은 '민족의 독립'의 내용을 그 민족정책에서 배제, '민족자결론'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그리고 전후의 내몽골에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은 '민족자결론'을 완전히 포기, 민족정책을 '민족자치론'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7일에는 소련군의 지원을 얻은 '쿠르자 봉기'에 의해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 수립되고, 그 지배지역을 이리, 달바카타이, 알타이 등으로 확대하면서 존속했던 2년 간 쿠르자가 이의 수도였다.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도 이 지역에서 위구르인 독립운동은 이어졌다. 쿠르자 주변에서는 1962년 4월 이리, 구루바카다이 등의 이슬람계 주민 6만 명 이상이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소련으로 망명했으며('이리사건'), 카슈카르와 그 주변 지역에서도 1972년 '미깃티 사건', 1981년의 '燎原黨事件', '10:30사건', 그리고 1990년의 '빠린사건' 등 민족독립운동이 빈발했다.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의 민족분리운동은 일반적으로 '동투르키스탄독립운동'으로 불리고 있다. 투르키스탄이란 '터키계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지만, '동투르키스탄'이란 본래 위구르어는 아니었다. 또한 19세기 말 영국인의 저작에서 사용한 'Eastern Turkestan'도 신강 전체를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1933년 11월 신강 남부의 카슈카르에서 '동투르

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된 것을 계기로, '동투르크스탄'은 민족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중국으로부터 독립의 심벌로 위구르어에 정착했다. 1933년의 제1차 독립운동기를 거쳐 1944년의 제2차 운동기를 맞아, 같은 해 11월에 이닝 시내에서 '동투르크스탄 공화국'이 수립된다.<sup>6)</sup>

역대 동투르크스탄 독립 운동을 살펴보면, 그 기본적인 주체는 위구르족이며, 그 운동은 우라마(이슬람학자,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지식인들에 의해 지도돼, 이슬람의 지하드(성전)를 통해서 민중을 동원하는 등의 행동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운동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달성, 독자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과거에는 물론 현재도 이 두 지역이 특히 위구르인 독립운동의 활발한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은 위구르인이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955년 성립한 신강위구르자치구는 단일의 위구르인에 의한 자치구가 아니라, 터키계 이슬람 민족의 카자흐인, 키르키스인, 우즈베크인, 타타르인, 이란계 타지크인, 그리고 몽골인, 회족, 한족, 만주족 등 13개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복합민족지구의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민족들의 공존지구이기는 하나 특히 위의 두 개 시는 그 가운데서도 유독 위구르계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그 구체적인 분포 상황을 보면 1630만 명의 총인구 가운데 한족이 600여만 명, 위구르인이 약 770만 명, 카자흐인 121만 명, 키르키스인과 몽골인이 각각 15만여 명, 회족 74만 명, 기타 20만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투르크스탄 독립운동은 어디까지나 위구르인이 주체다. 120만 명을 상회하는 신강위구르자치구 내의 카자흐인은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국외에 있는 위구르자치구 민족독립조직에도 위구르인 이외의 민족, 특히 카자흐인과 키르키스인은

거의 참가하지 않고 있다. 동투르크스탄 독립운동은 위구르인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인구의 대다수를 위구르인이 점유하고 있는 쿠르자와 카슈카르가 그 중심지다.

위구르족은 중국 최대의 터키계 민족집단이며, 선조는 몽골 고원의 回紇, 回鶻 등으로 소급된다. 840년 回鶻 汗國이 괴멸하고부터 그 일부는 오늘날의 신강남부 지역에 정주, 카라한조 시대(9세기-1212), 차카타이한국 시대(1246-1514), 알칸드 한 시대(1514-1684), 준갈한국 통치시대(1684-1759)를 거쳐, 乾隆帝의 준갈한국 정복전쟁에 의해 1760년대부터 청조의 지배아래 들어갔다. 청조는 만주족에 의해 건설된 왕조나, 건용제는 이 토지를 '신강'으로 이름 붙여, 자기들이 중국에 새로운 영토를 가져왔다고 자만하는 한편, 중국의 한족을 견제하기 위해, 위구르족을 만주족의 정치적 맹우로 치켜세웠다. 즉 위구르사회를 위구르족의 유력자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는 통치제도를 도입, 문화와 경제 등 각 측면에서 한족과의 민족적 거리를 철저히 했다. 그 때문에 위구르족의 중국인 의식, 중국국가의식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오늘날 민족분리운동의 먼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화민국시대(1912-49)에는 楊增新, 金樹仁 등 한족군벌에 의한 신강 지배 과정에서 민족차별이 극심했기 때문에 일부의 위구르 지식인들은 지체된 자민족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신문화운동을 일으켜,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1930년대의 '동투르크스탄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가까운 원인으로 작용했다.<sup>7)</sup>

위구르지구 민족 소요의 또 하나의 배경은 빈곤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신강위구르자치구는 전반적으로 빈곤 지대이나, 특히 위구르지역의 빈곤상은 대단하다. 최근 공산당중앙이 낙후된 지방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만들으로써 민족분열과 독립움직임을 해소하려는 정책의지와 적극적인 개발정책

에 힘입어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식량 생산은 연속적으로 증가되어 위구르 농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이곳의 낙후성의 정도는 크다.<sup>8)</sup>

이 지역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 공업, 건설용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겨우 38.4%이고, 그 가운데 농업면적은 총면적의 22.1%에 지나지 않아 원천적으로 빈곤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특히 위구르인이 집중되어 있는 신강위구르자치구 남부는 농민 1인당 농지 점유면적이 적고, 그것도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현재 이 지구는 100만 이상의 농업노동력이 있는데, 국가의 통제력이 약한 농촌지역에 대량의 잉여노동력의 발생은 말 할 것도 없이 이 지구 사회안정의 커다란 위협이다.

신강위구르자치구는 공업기반이 약하고, 가공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지에 판매하는 상품의 80% 이상이 광물자원이나 농산물 등 제1차 생산품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시스템에서는 자연자원이나 원재료의 채취에 의존하는 경제는 아주 불안정하다. 예컨대, 원류 1톤 가격은 중국 국내시장에서 1000원전후이며, 국제시장에서는 1156원이나,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 내지에 운반할 경우는 국가가격에 따라 216원밖에 되지 않고, 그외 제1차 상품의 판매에서도 공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위구르인이 '신강의 자원이 중국 내지에 약탈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와도 관련되어 있다.<sup>9)</sup>

신강의 민족분규는 또 이 지구의 산업개발을 위해 파견된 漢族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생성되고 있다. 1954년에 '建設新疆, 保衛邊疆'을 슬로건으로 '新疆生產建設兵團'이 조직된 이후 1990년대 전반까지 40여년 간 건설단은 저수량 30억 평방미터가 넘는 댐을 112개나 건설했다. 그런데 이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곳에는 많은 한족인구가 모여들었

고, 또 댐의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위구르 농민들과 건설단과의 대립이 이어져 왔다. 건설단의 구성원은 거의 중국 내지에서 온 한족으로, 독자적인 행정, 경제, 문화교육, 사회복지의 체계를 형성해오면서 현지의 주력 민족집단인 위구르 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민족적 차별의식을 확산시켜 왔고, 이것이 현지의 민족분규를 내연시키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자리잡았다.<sup>10)</sup>

구체적으로 현재의 위구르인들이 견지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경향은 다양하며, 이 중에는 극단적인 민족분리나 독립운동보다는 민족구역자치제도<sup>11)</sup>의 완전한 실시를 비롯한 온건한 민족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sup>12)</sup> 결국 상당수의 위구르인은 민족독립운동에 참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족자치의 틀 안에서 민족적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카슈카르에서 일어난 우라마 암살미수 사건은 이러한 온건한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극단적인 민족 독립파의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쿠르자에서 일어난 위구르인에 의한 민족폭동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신강위구르자치구 민족문제 격화의 또 하나의 배경은 인근 동일민족세력들과의 연계성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인 독립운동조직 '민족연합혁명전선' (National United Revolutionary Front)은 1996년 12월 우루무치에서 일어난 버스 폭발사건이 그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또 터키에 있는 위구르인 독립파 조직인 '투르키스탄 자유조직' (Organization for Turkistan Freedom)은 1997년 3월 7일 북경시 변화가 西單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사건이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선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중국 국외에 복수의 위구르인 독립파 조직이 있음은 확실하다. 최근의 위구르인 독립파에 의한 일련의 사건에 의해 많은 중국인들은 점점 민족문제에 관한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태의 근원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중국의 지도부는 이 지역과 커다란 민족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는 대중아시아 외교에 힘써왔다.

구소련 중앙아시아의 주요 민족은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인과 같은 터키계 무슬림이다. 신강위구르인들의 민족분규의 확산에는 중앙아시아의 영향이 있음은 틀림없다. 실제 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를 활동거점으로 하는 '동투르키스탄 독립', '위구르스탄 독립'을 호소하는 위구르인의 독립운동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외교를 전개해 왔다.

1994년 7월 李鵬 총리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 국을 방문, '선린우호와 평화공존의 견지, 호혜협력, 타국의 내정 불간섭, 독립주권 존중, 지역안정의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정책을 발표, 이후 중앙아시아 제국과 중국 정부 지도자가 수 차례의 상호간의 방문외교를 통하여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 그리고 1996년 4월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중국 上海에 모여, 중국과 '변경지대에서의 군사영역의 상호신임의 강화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고 '보다 좋은 이웃, 보다 좋은 벗, 좋은 사이'임을 세계에 과시했다. 7월에는 江澤民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상대국과의 공동 커뮤니케이션에서 "양국은 어떤 형태의 민족분열에도 반대, 어떤 조직이나 세력이 자국에서 상대의 분열활동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삼 천명되기도 했다. 특히 인접하고 있지 않는 우즈베키스탄을 강택민, 이봉 두 사람이 방문한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중심이며, 위구르인에 있어서는 타슈켄트가 제2의 종교적 성지인 것을 배려했던 것으로,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민족문제가 확실히 중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의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열린 중국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의 회기 중에 강택민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은 모두 소수민족대표를 찾아, 또 각 민족대표를 초청하여 이례적인 회견을 통해 소수민족지역에서의 사회의 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금후 중국은 경제개발을 촉진해 가면서, 중앙아시아제국과의 연대도 한층 강화하여 민족독립운동의 해결에 전력을 다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위구르인은 티벳에서의 달라이라마와 같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종교지도자가 없다. 그 때문에 중국 국외에 있는 위구르인 독립파도 다양하며,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위구르인은 이슬람이라는 국경을 초월한 종교가 있으며, 또 중앙아시아제국과 같은 터키계 이슬람 민족국가의 모델도 존재한다. 위구르인 독립파에 의한 독립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없어질 수 있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신강위구르자치구에 언제 조용한 날이 되돌아올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sup>13)</sup>

## 티벳문제

티벳은 1950년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에 의해 점령당할 때까지 한 번도 중국의 영토가 된 적도, 또 중국인들에게 지배당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관하여 티벳은 중국 고유 영토의 일부이며, 티벳인은<sup>14)</sup> 중국의 한 지방에 사는 소수민족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티벳인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티벳 독립의 역사는 티벳고원의 통일 때부터이며, 이때의 티벳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西藏自治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西藏自治區는 원래의 티벳 가운데 중앙티벳, 서티벳, 서북티벳이다. 당초의 티벳은 지금 중국 青海省에 포함되어 있는 동북 티벳(압도), 四川省의 서반부의 동

티벳(감) 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지역이다.

당시 티벳은 당, 아랍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다했다. 그러나 9세기중반 달마 왕이 살해되어 티벳제국이 와해되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정치적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 11세기에 들어, 지방의 제후들이 각각 불교사원을 경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교단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성행했다. 이렇게 하여 티벳인들은 중앙정부가 없는 체로 불교 신앙에 의해 연대하는 특이한 종교집단이 되었던 것이다.

13세기 몽골제국이 성립되면서 티벳도 그 일부가 되었다. 몽골제국은 징기스칸 일족들이 수립한 여러 왕가의 연합체였다. 그 가운데서도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칸이 건립한 왕가가 원이었다. 원의 본거지는 몽골고원으로 중국은 그 식민지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의 북경은 황제의 避寒地였고, 원제국 전체의 수도는 아니었다. 원은 중국인의 왕조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몽골인이 중국에 들어와 건립한 왕조 또한 아니었다. 때문에 원조를 '티벳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 '중국의 중앙 정부'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14세기 원조가 몽골 고원에서 철수하고 중국에는 중국인의 명조가 성립하였으나, 明朝는 元朝와는 달리, 지배권을 중국에 국한했기 때문에 물론 티벳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元朝의 후예인 몽골인은 몽골 고원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7세기에 滿洲人들이 발흥하여 그들을 복종시키면서 징기스칸으로부터 계승된 지배권을 이어 清朝를 건립하고 후에 중국을 정복했다.

따라서 청조는 만주인의 제국이며, 중국은 그 식민지의 하나에 불과 했다. 북경은 황제의 겨울 수도 이었고, 여름의 수도는 몽골 고원의 承德이었다. 때문에 淸도 元과 같이 중국을 제국의 일부로 지배한 왕조이기는 하나 '중국의 중앙정부'로는 부르지 않는다.<sup>15)</sup>

청조는 18세기 티벳을 정복했으나, 이곳은 티벳인

의 자치에 맡겼고 게르쿠파 불교의 교주 달라이라마가 지도하는 자치정부를 조직시켰다. 청은 황제의 대표인 만주인과 소수의 호위병을 라사에 주재시켰을 뿐 직접적으로 중국인이 티벳 통치에 관여한 일은 없었다. 청은 이곳의 티벳 불교를 보호했고, 티벳인들은 이런 관대한 종교정책을 쓰던 청을 인정했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그동안 청의 지배를 받아오던 몽골인과 티벳인들이 독립을 선언, 몽골인은 러시아, 티벳인은 영국의 후원을 요청했다. 중국에 성립한 중화민국은 청조의 전 영토를 계승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sup>16)</sup> 몽골인도 티벳인도 그때까지 중국인에 지배당한 일이 없었기에, 중국의 주권을 승인할 리 없었다.

1912년 청조의 붕괴로, 티벳은 중국의 영향력(군대와 관리 등)을 이 지역에서 추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때부터 1951년까지 티벳은 사실상 독립국가였다. 티벳은 이 사이 모든 정부기능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손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이때도 그들의 국제적인 지위는 불안성을 완전히 청산치는 못했다. 중국은 티벳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계속했고, 영미를 포함한 서방제국이 티벳의 독립 승인을 거부한 것은 중국의 주장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자, 티벳의 독립 상태는 종말을 가져왔다. 티벳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중국 공산당정부도 과거의 장개석 정권과 같았으나, 공산당 정부는 국민당 정부와 달리 자기들의 견해를 강압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티벳에 단순한 점령 이상의 것, 즉 달라이라마와 그의 정부가 중국과의 '재통합'에 정식 합의하도록 요구했다. 티벳이 이를 거부하자, 중공 정부는 1950년 10월 티벳 동부를 점령했다. 중공에 점령당한 티벳은 외국에 대해 널리 도움을 요청했으나 티벳의 지원 요청에 대해 인근 국가

들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심지어는 유엔까지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할수없이 북경에 교섭단을 파견했다. 이렇게 하여 티벳측은 1951년 5월, 티벳의 평화적 해방에 관한 17개 조의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합의로 티벳은 공식적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티벳에서의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에서는 적어도 티벳 국민과 지도자가 개혁을 원할 때까지는 달라이라마 정부가 티벳을 통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7개조의 합의는 결국은 실행이 곤란했다. 8년간의 공존 후, 티벳에서 반중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CIA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반란은 즉시 진압되어, 달라이라마는 1959년 8만여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인도로 망명, 그곳에서 티벳 망명정부<sup>17)</sup> 세웠다. 중공은 이곳에서 봉건제와 농노제를 폐지, 농목지에 집단농장체제를 도입했다. 거대한 승원 시스템도 해체, 문화대혁명기에는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되었다.<sup>18)</sup>

중국공산당의 티벳 정책은 민족문화의 철저한 파괴, 티벳어의 사용 근절, 중국인화하지 않는 티벳인들을 철저히 차별하는 방법으로 이곳을 완전히 중국의 일부, 중국인의 거주지화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의 이곳에서의 민족탄압정책은 극심해 심지어 티벳 여성에게는 강제적인 불임 수술을 하게 함으로써 티벳 인구의 증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도 했다. 이 잔혹한 통치방법은 1978년 이래 덩소평이 중국의 최고권력자가 된 이후에도 별다르게 변화된 것이 없었다.<sup>19)</sup>

1978년 鄧小平이 권력을 잡자, 티벳문제 해결을 위한 신노선을 내걸었다. 덩소평은 달라이라마에게 조사단을 티벳에 파견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완전한 독립만을 제외한 모든 문제는 함께 논의하여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1979년부터 1980년에 걸쳐 3차례 조사단을 파견했

다. 그러나 중국측의 기대에 반해서 조사단 일행이 현지에서 본 것은 냉엄한 현실과 뿌리깊은 티벳 민족주의 감정이었다.

티벳에 대한 회유정책은 민족정책과 경제정책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했다. 민족정책은 불교사원의 재개, 새로운 승려의 육성, 티벳어 인쇄물의 배포 인정, 현지의 중국인 간부들을 대거 티벳인으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티벳 문화와 종교 활성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1965년에 창설된 티벳자치구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다 티벳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 경제적 유효책으로는 티벳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금의 일시적인 면제, 시장가격 이하로 상품가격 인하, 인프라 정비 등의 조치를 도입, 티벳인의 생활수준을 급속하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회유적 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티벳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 국제적인 반중 캠페인에 힘을 쏟던 달라이라마는 티벳은 티벳 및 티벳인에 관해서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하며, 외교는 중국이 책임주체가 되나, 통상, 스포츠, 교육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티벳이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티벳의 독립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에서 허용한 한정적 자치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벗어난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라사를 중심으로 빈발했던 티벳인의 폭동을 계기로 북경정부는 티벳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문화개방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우회적인 정책에 착수했다. 실제로 북경정부는 티벳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티벳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자금을 이곳에 투입했다. 이곳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투입된 대규모 정부자금에 눈독을 들여 비티벳계 漢族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이곳으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티벳과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은 촉진되었다. 이곳의 티벳계 사람들의 분명한 목표는 티벳에서의 영주가 아니라, 이곳에서의 돈벌이였다. 영구적인 이주는 아니지만 이곳으로 유인된 티벳계 인구는 대단했다.

티벳, 티벳인, 망명중의 티벳인은 이런 변화된 상황으로 그들의 고향이 없어져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만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상황을 역전시킬 힘은 없다. 달라이라마의 대외 캠페인이 해외에 살고 있는 망명자 사회에 상징적인 이익을 주었으며, 티벳의 티벳인을 달라이라마 지지로 돌아서도록 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티벳의 내실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 중국의 신 강경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경정부는 현재 달라이라마와의 대화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경정부는 자기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타결에는 달라이라마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달라이라마의 지지자들에 의한 반정부적인 활동을 대단히 불쾌하게 보고 있다. 특히 북경정부는 달라이라마나 민족주의적 티벳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하여도, 티벳을 급속히 근대화한다고 하는 현재의 정책으로, 중국의 티벳에서의 관여가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티벳이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고 믿는 신세대 티벳인이 궁극적으로는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이 북경의 바램이다. 친중국적인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정책이 티벳의 인구구성,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킨다면, 북경의 티벳 지배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북경의 경제통합정책은 잘 진전되고 있으며, 반대로 그들의 달라이라마에의 신뢰는 점차 저하되고 있다.<sup>20)</sup>

중국이 안정적인 체제발전을 계속하면서 티벳의 중국화를 착실하게 추진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달라이라마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중국정부와 전면적인 타협을 통한 굴복이고, 다른 하나는 티벳 독립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타협은 티벳의 독자적인 역사성을 포기하고 중국에의 굴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로 적극적인 티벳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일 또한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내부적으로 티벳 사회에서의 중국화의 정도가 크게 진척되면서 티벳인들의 독립의식이 크게 퇴색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현재의 중국이 취하는 티벳 정책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벳의 독립노력을 지원해 줄 국제적인 지원세력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국은 1966년 이래 티벳자치구를 분명히 중국의 일부로 보아왔고, 이 정책은 중국의 인근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견해와 일치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은 티벳을 독립국가로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해외 티벳 망명정부와의 외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도 달라이라마로서는 커다란 한계일 수밖에 없다.<sup>21)</sup>

## 몽골문제

중국공산당은 내전초기에 내몽골의 민족자결, 민족독립을 인정, 혹은 적극적으로 선동하였다. 예컨대 1928년 중공중앙위원회는 “내몽골의 민족독립운동을 환기하기 위하여 ‘민족독립’을 크게 선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몽골에서의 운동방침을 지방조직에 확실히 지시<sup>22)</sup>했고 1929년 2월 30일에는 ‘몽골위원회의 편지’에서 “내몽골민족공화국을 수립, 민족자결의 권리를 승인한다”고 말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그후 내몽골에 대한 중공당의 입장은 변화했다. 일본의 괴뢰정부로 1936 수립된 ‘몽골독립정부’, 1937년 10월의 ‘몽골연맹자치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기존의 '독립자치'를 견지한다면 내몽골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1937년 중공은 몽골의 독립을 부정하게 된다. "현재 몽골에서의 중심적 임무는 抗日援蒙이다. 이 중심 임무에 따라, 현재 특히 중요한 것은, 蒙漢민족의 연합과 일치 항일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현재도 여전히 몽골인의 독립과 분열을 선전, 한족 지배자와의 대립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일본에 이용될 찬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sup>24)</sup> "蒙漢聯合抗日은 당면 綏遠蒙古工作의 최고원칙이다."<sup>25)</sup>

1937년에 이렇게 '몽골인의 민족독립'이 1937년에 부정된 이후 '민족독립', '민족국가 건설', 연방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은 중공 문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했다. 그것은 1937년 8월 15일의 '중공항일수국10대강령'에서도 표명된 "民族自治와 民族自決의 원칙에 따른, 연합하여 抗日"<sup>26)</sup>한다는 것이었다.

항일전에서 중공은 내몽골의 민족문제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연안에서는 '蒙古文化促進會'(1940. 6. 20), '蒙古文化陳列館'(1940. 6. 20), '징기스칸기념관'(1940. 7. 24) 등이 설치되었다. 당시 몽골인에 대한 민족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족자치'였다. 中共陝甘寧邊區中央局은 1941년 5월 '陝甘寧邊區施政綱領'을 공포, 그 17조에서는 "민족의 평등 원칙에 따라 몽골, 회민족과 한민족의 정치경제문화상의 평등의 권리를 실행, 몽골, 회민족의 종교 신앙 및 풍습 습관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sup>27)</sup>

중공이 '민족독립'을 부정, 주저 없이 민족정책을 항일우선으로 바꾼 것은 당연히 당시 중공의 항일 민족통일전선 결성과 제2차 국공합작에 대한 열의와 노력과 연결되는 것이며 이는 또 일본치하내몽골 민족운동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공이 '자결'과 '자치'를 결

합, '민족자결'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공동체 레벨에서의 변화가 인정될 수 있을 가의 여부에 따라 자치와 자결은 본래 모순하는 것이다.

중공의 민족정책 결정은 결코 '민족자치'의 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또 1949년 인민공화국 건국을 경계로, 민족자결에서 민족자치로 변했다고 하는 간단한 도식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공당 제2전대회의 민족자결론에서 시작된 중공의 민족정책의 결정은 중공을 둘러싼 사회환경, 국제환경의 변화 및 중공자신의 실력의 성장을 배경으로, 항일전쟁기의 유명무실한 민족자결론의 시기를 거쳐, 전후에 최종적으로 민족자치론으로 귀결되는 길을 걸어왔다.

중국 국내 민족문제와의 관계에서 보면, 중공의 민족정책의 결정은 근대의 몽골민족독립의 흥망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몽골의 독립운동기에, 중공은 코민테른의 강한 영향을 받아, 민족자결권의 승인과 연방국가체제의 제창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민족자결론'을 발족시켰다. 중일전쟁 직전부터 일본의 지지로 내몽골의 민족독립운동이 번성하게 되면서, '민족의 독립'이 일본 제국주의에 이용될 위험을 감지한 중공으로서는 '민족의 독립'의 내용을 그 민족정책에서 배제, '민족자결론'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그리고 전후의 내몽골에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공은 '민족자결론'을 완전히 방기, 그 민족정책을 '민족자치론'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몽골민족독립운동이 중공의 민족정책결정과 강하게 연결된 이유는 민족독립운동 자신이 중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파급한 것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운동의 결과에 좌우되지 않은 중공과 소련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에서, 중공이 소련지지의 외몽골독립 및 내몽골의 민족독립

운동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중공에 대한 소련의 강한 영향력, 지도력에 의한 것이며, 후기의 중공이 내용물독립운동에 반대한 것은, 소련과 중공 세력의 지배지역과의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몽골지역을 확보, 소련과의 분쟁에서 승리를 취한다는 상당히 단순한 지정학적 이유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국 국내의 민족문제와 민족독립 운동이 중공의 현실이익과 직접 연결되었을 때일수록, 중공의 민족정책결정의 변수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의미에서는 민족구역 차치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 민족문제와의 연관성에서, 실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1) "外交時報", 1997년 6월호(外交時報社).
- 2) 龔學增, 胡岩編著, "民族問題與宗教問題講座"(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4), p. 3
- 3) "人民日報", 1996년 8월 1일자.
- 4) 王柯, "ウイグル人の 獨立運動とは", "中央公論", 1997년 5월호.
- 5) 원래 위구르어에는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말은 없었다. 이 말은 1930년대, 당시의 중국 신강성 남부 위구르인지역에서 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터키계 이슬람주민, 특히 위구르인들에 의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의 심볼로서 생겨났다. 현재 중국에서는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말은 당국에 금지되고 있다.
- 6) 王柯, "東トルキスタン共和國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95) 참조.
- 7) 王柯, "經濟統合と民族分離の相剋", 佐佐木信彰 編, "現代中國の民族と經濟"(世界思想社, 2001), pp. 249-251.
- 8) "人民日報", 해외판, 1997년 2월 10일자.
- 9) 顧西就, "新疆大學學報", 1992년 제2기.
- 10) 王柯 앞의 책, p. 49.
- 11) '民族自治'는 '民族自決'과 비교할 때 '독립'을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공산당은 당초, 외몽골 독립문제에서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자결', 즉 각 민족에 독립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그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중국의 영토상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또 코민테른 해산에 의해 소련의 영향력도 없어져 1938년 중국공산당이 기존의 '민족자결'의 원칙을 '민족자치'로 변경시켜, 각민족에게 '團結, 抗日'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대전 직후 정치적 공백기에 내몽골에서는 민족독립과 외몽골과의 병합 움직임이 있었으나,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동의 아래 각 정치세력을 통합하여, 1947년에 내몽골자치구를 설립시켰다.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 민족구역자치정책의 원형이 되었다.
- 12) 西林, "新疆大學學報", 1996년 제2기.
- 13) 같은 책, p. 51.
- 14) 티벳고원지방에 살면서 티벳어를 사용하고 티벳불교 및 티벳 토착종교인 폰교를 신앙하고 있는 민족을 총칭하여 티벳인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藏族이라고 부르고 있다.
- 15) 山内昌之 編, "21世紀の民族と國家"(日本經濟新聞社, 1993), pp. 178-180.
- 16)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은 몽골인도 만주인도 '중화민국'의 일부이며, 따라서 元도 清도 '중국의 중앙정부'이며, 때문에 그들이 주권을 행사한 티벳은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입장이다.
- 17) 1959년 라사에서의 민족반란 직후, 중국이 티벳 지방정부의 해산을 명한 직후, 달라이라마14세가 망명지 인도에서 수립한 망명정부. 그러나 이 정부는 인도를 비롯한 어떤 나라로 부터도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북인도 히마찰 프라티슈주의 Dharamsala에 있으며 티벳난민의 정착과 문화의 보전에 노력하는 한편 위싱턴, 제네바 등 해외 7개 소에 사무소를 열고 국제연합과 세계 각국에 대해 티벳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 18) Melvyn C. Goldstein, "The Dalai Lama's Dilemma", Foreign Affairs, Jan-Feb, 1998.
- 19) 山内昌之, 위의 책, pp. 180-182.
- 20) 같은 책.
- 21) 같은 책.
- 22) 中共中央統戰部 編, 앞의 책, "中共中央治內蒙特支的指示信"(1928년 10월 23일), p. 91.
- 23) 같은 책, p. 102.
- 24) "中共中央關於內蒙古工作及民族委員會的信"(1937년 2월 7일), 中共中央統戰部 編, 앞의 책, p. 450-451.
- 25) 같은 책, p. 546.
- 26) 같은 책, p. 553.
- 27)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編, 民族問題理論研究室, "中國民族區域自治文獻資料集" 제1집, p. 2.

## 달라이라마의 딜레마

티벳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티벳의 언어, 문화 종교가 번창하는 티벳이라는 고향의 존재를 보장하는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티벳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이다. 만일 쌍방간의 중요한 타협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과거와 같은 증오와 불신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현재의 중국이라는 정치적 굴레 가운데 그러한 타협안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영역에서는 티벳자치구가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 한편에서 북경정부가 티벳의 공산당과 정부의 지도적 지위에 개혁파 티벳인을 임명한다. 그렇게 한다면 10년 후에는 티벳인 관료의 비율이 현재의 60-70%에서 85-90%로 대폭적으로 증대해 갈 것이다.

멜빈 골드스타인(Melvin C. Goldstein)<sup>1)</sup>

문화영역에서는 티벳의 문화를 지배적 수준으로 높이려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조치는 2개 국어교육의 비중을 중국어로부터 티벳어로 이행시켜, 티벳어 문서의 공식용어로서 티벳어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 개혁의 상세안은 1987년에 티벳인과 중국인의 개혁주의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이미 기초되어, 문제없이 법제화되었다.

사찰에서의 승려 수의 제한철폐 등의 문화정책도 쌍방이 함께 이야기가 되어, 다음에 현실정책 내에 포함되었다.

인구와 경제라는 중요한 영역에서는 북경정부는 티벳인이 자치구에서의 경제발전의 주요한 수익자가 되도록 티벳 내 비티벳인의 수를 크게 감소시키고, 외부로부터의 경제의 경쟁 압력을 감한다는 조

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나, 필요하다면 보다 완만한 페이스로 감속시키면서 무엇보다도 티벳의 번영을 최우선시켜야 한다. 티벳에서의 비 티벳계 거주자의 태반은 불법체류자들이기 때문에, 북경정부는 그들의 재이주나 재고용에 책임을 물을 입장은 아니다. 따라서 곤란은 있다고 하더라도 북경정부는 비티벳계 거주자 삭감 책을 우선 사항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이런 수순의 답습은,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인구구성면에서 매우 티벳적인 티벳을 탄생시킬 것이다. 티벳의 근대화를 계속, 예컨대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티벳인에 의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티벳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그들이 외부에서 원조가 이 이상 될 수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

1) 티벳 정치 시스템을 인류학적인 접근으로 분석하여 박사 논문을 쓴 이후, 일관하여 티벳 정치, 문화, 종교를 비교문화, 인류학적 어프로치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자. 현재는 캔사스주 리스브러대학 교수로, 동 대학의 티벳 연구센터의 소장을 겸하고 있다. 최근의 저서에 <The Snow Lion and the Dragon : China, Tibet and the Dalai Lama>가 있다.

서도 압도적 다수는 상황을 시인, 지지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이 취한 길을 다당제와 같은 보다 민주적인 제도로 진화해 간다면, 티벳에서의 정치적 지도층의 정치기반도 넓어지게 될 것이다.

티벳이 근대사회로 변모해 가는 것은, 풍부한 언어, 문화, 종교를 온존하는 것과 아무런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민족의 고향으로서 티벳의 존속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 티벳 쌍방에 있어 이익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나타난 해결책에 대한 최대 장애의 하나는 망명 티벳인이 요구하고 있는 대티벳의 재생이다. 대티벳의 구축은 북경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상이다. 그러나 티벳자치구 밖의 티벳인 거주구에 대한 같은 개혁을 행해, 북경과 티벳 간에 새로운 신뢰감과 존경을 확립시키기까지 5-10년 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상상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티벳인의 반중국적 자세나 분리주의 감정을 생각하면, 북경이 티벳문제의 '민족적' 해결을 중국의 입장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북경 정부의 호의적인 배려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티벳에 대한 북경정부의 주권과 관리권을 강화한다고 하는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북경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은 달라이라마뿐으로, 망명정부라기보다도 달라이라마 개인이 타협안을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만드는 중심인물이다. 중국 측으로부터의 양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달라이라마는 먼저 중국, 그리고 티벳으로 돌아가, 티벳에서의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티벳인과 비티벳인 사이에 협력과 조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둘러싸고, 라사의 티벳인을 설득해서 소란을 그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진정한 티벳인에 의한 티벳과 중국의 일부

인 것 사이에 본질적인 모순이 없고, 양립 가능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 중국의 일부가 되는 데 대한 티벳인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와 카리스마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타협 프로세스가 일단 시작되면, 망명 티벳인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 착실히 진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달라이라마가 이런 해결책을 받아들인다면, 구미의 티벳 독립에 대한 지지는 없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중국에서도 티벳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로서도 그것은 그가 대변하는 사람들과 문화의 명확한 고향으로서의 티벳 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타협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자치구 이외의 티벳인 거주 구를 타협 과정의 적용 이외로 할 것인가 어떨 가를 비롯하여, 정치적 타협의 이점에 대해 망명자 사회 내에서의 컨센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달라이라마는 망명정부의 통일적인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타협안을 받아들인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공산이 크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일상적인 행동에서 판단한다면 그는 타협에 저항할 것이다. 그 결과 만약 중국과 달라이라마가 각각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앞에서 나타난 큰 테두리에 따라서 대화에 의해 분쟁해결의 가능성은 적게 될 것이다.

그렇수록 사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진행의 역할이 필요하다. 직접적이든 비공식 외교든, 조정대리국의 알선이든, 미국은 어떻게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달라이라마의 중국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생각하면, 만약 중국에 되돌아간 후에도 중국측이 약속을 위반하는 등의 일이 생겨나면, 미국은 그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한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북경에 대해 미국의 의회나 구 미제국의 강경파가 어떻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각오를 지킨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타협으로 향한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는 어떤 종류의 위협을 감당하게 된다. 중국은 내정 간섭에 대해서 지독히 신경과민이며, 미 의회의 비판세력이 워싱턴에서 달라이라마를 공산당원에 팔아먹었다고 주장할 위험도 충분하다. 그러나 달라이라마의 동의 아래 신중하게 일을 진행시켜 간다면, 이들의 위험도 최소한으로 억제될 것이다.

등소평 사망, 강택민의 정치기반의 강화, 그리고 미국에서 티벳 문제 담당 특별조정관이 새로이 임명된 것은 타협으로 향한 지금까지는 없었던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형태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달라이라마일 것이다. 이미 60을 훨씬 넘긴 그는 남은 세월 어떤 행동을 하면 티벳인을 보호하고, 티벳류의 생활을 제대로 존속시킬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외세력이 적을 분쇄해 주는 것을 기대해서 달라이라마는 앞으로도 계속 방관자의 위치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가까운 장래 티벳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수단은 대폭적인 타협을 받아들이든가, 혹은(이 쪽이 보다 가능성이 높으나) 주저주저하면서도 티벳에서의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조직적인 폭력을 가지고 대항하는 신전술을 암묵적인 상태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달라이라마와 그의 지도자들이 틀림없이 폭력보다는 타협을 선택하려는 전략을 형성하는 것이 미국 및 티벳인 쌍방을 이롭게 하는 것은 명확하다.

〈Foreign Affairs〉, 1998/3월호에서 전재

● ● ● ●  
신간안내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제를 통해 규명한 현대의 정치현상

## 현대 정치의 이념구조

조정남 저 / 교양사회 / 값 15,000원

### 주요목차

- 현대의 정치이념
- 소련의 정치이념
- 중국의 정치이념
- 개도국의 정치이념

## 과격·확대되는 신강 독립운동

놀랄 만한 속도의 경제적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대국 중국에 대해서, 터키가 이렇게 상당한 정도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과 터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오랫동안 수면아래서 복잡한 갈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것은 바로 新疆의 독립문제다.

莫邦富(중국인, 국제 저널리스트)

### 터키와 중국, 미묘한 관계

한 쌍의 거대한 선박이 흑해를 방황하고 있다. 러시아(구 소련)해군 모함 와리야크다. 정식으로의 항공기 탑재 순양함. 1985년 12월,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니콜라이에프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했으나, 1991년 12월,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우크라이나공화국이 니콜라이에프 조선소를 접수한 후, 와리야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연방과 대립하다가 1992년 3월에는 결국 건조공사를 중지하는 결정에 내리기에 이르렀다. 당시, 선체 100%, 추진기와 상부 구조물의 80% 정도가 완성된 상태였으나, 그대로 폐함이 되고 말았다. 1998년 우크라이나는 와리야크를 마카오의 '創律'이라는 관광회사에 2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물론 탑재되어 있는 기관 부 등 중요한 부분은 제외됐다. 창을 측에 의하면, 와리야크가 중국본토로 회항한 후에는, 해상 카지노 겸 호텔로 개장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2000년 와리야크는 중국본토에의 회항 도중에 있었다. 그러나 항로 도중의 보스포러스 다타렐스 해협을 관리하는 터키 정부는 이 선박의 정지를 명령했다. '자력항해능력이 없는 무동력의 대형 함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그 때문

에 와리야크는 흑해상에서 2년 가까이 방황하게 되었다. 레이더, 안테나, 전기 계통은 물론 항해 동력 장치까지 제거된 지금, 와리야크는 거함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다에 떠 있는 철 덩어리와 같은 것으로 변해, 군사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은 벌써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 해군의 항모 리미프와 함께 제트전투기를 60기를 탑재 할 수 있는 거함인 것은 틀림없다. 항모 건조에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중국 해군에 있어서는 와리야크를 통해서 항모 선체의 설계나 재질 등 귀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미국과 NATO는 말할 것도 없이 항모의 중국 보유라고 하는 사태를 저지하고 싶은 것이다. NATO의 일원인 터키는 이러한 의향을 수용, 폐함이 된 와리야크의 보스포러스 다타렐스 해협의 통과에 대해서 완고하게 이를 허용하지 않을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여름부터 미-중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것을 본 터키는 통항 허가를 언제까지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 통항 허가를 주는 대신, 중국 정부에 10억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그 외에도 20항에 이르는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묵묵히 이들 조건을 전부 수용했다. 그리하여 동년 8월

말, 터키정부는 드디어 와리야크의 해협통과를 허가했다. 2년 가까이 흑해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던 와리야크는 2001년 12월 2일 드디어 보스포루스 다 탈렐스 해협을 통과, 드디어 에게 해로 들어가, 중국 본토를 향한 여로를 시작했다.

## 테러행동에 나선 신강 독립세력

신강위구르자치구는 총인구 1925만 명 가운데 이슬람을 신봉하는 위구르족이 전체 인구의 40%이상을 점하고 있다. 한편, 1960년대에 일어난 구 소련에의 대량 도망사건을 비롯, 여러 가지의 형태로 해외에 이주한 위구르인도 많다. 그 대부분은 터키 계가 주요민족인 카자흐스탄이나 터키 등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어느 통계에는 터키에는 10만 명, 카자흐스탄에는 30만 명, 그 밖의 중앙아시아 제국이나 독일에도 많은 위구르인이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달라이라마가 이끌고 있는 티베트 독립운동과 같이 신강에도 독립운동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된 세력은 독립을 회구하는 해외 위구르인 그룹이다. 이들 그룹은 1990년경까지 주로 해외거주 위구르인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구 소련의 해체를 계기로 신강 독립세력은 독립을 요구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 신강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켜, '동투르크스탄'이라는 이슬람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신강 독립세력은 다양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군소 난립적인 형태로, 지금 현재로는 통일된 커다란 조직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티베트 독립운동을 지도할 달라이라마와 같은 정신적인 지도자도 없다. 그 때문인지, 오랫동안 신강 독립세력은 존재감이 희박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1992년 12월 신강 독립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의 자금원조를 받아, 이스탄불에서 '동투르크스탄 민족대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미국, 호주, 파키스탄,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스위스 등으로부터 30여 개의 신강 독립조직의 대표자들이

회의에 참가, '동투르크스탄 국제민족연합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회의에서, '동투르크스탄국'을 국명으로 정하고, 국가, 국기, 국가를 대표하는 휘장의 디자인 등을 결정했다.

다음해인 1993년 4월 5일, 미국, 독일, 프랑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앙아시아의 등 17개국 위구르인 대표들이 터키에서 다시 국제회의를 개최, 한국전쟁에 참가한 경험을 가진 터키계 위구르 퇴역군장 모하메드 리자 빈킨을 정부수뇌로 하여,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더욱 UN과 국제인권단체, 이슬람단체에 대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청하는 등 중국의 민주화 운동조직이나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연대도 강화하도록 호소했다. 그 이후, 신강 내에서의 신강 독립세력이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한편, 그 존재 감을 높이기 위한 저항운동을 급격하게 과격화시켜, 테러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

1997년, 중앙아시아의 신강 독립세력은 새롭게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을 지도해 온 원로급의 지도자 에이샤 유스프 알프티킨이 제창하는 '비폭력투쟁'을 '40년세월을 허송시키게 한 것'으로 이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논조에 따라, 신강 내에서의 저항활동은 일반 테러사건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버스폭파, 경찰서에의 직접습격 등과 같은 도발형, 무차별적 테러사건으로 확대되어 갔다.

1999년 12월, 18개 국 40개 이상의 독립조직을 대표하는 300명 전후의 관계자가 이스탄불에 모여, 무력으로 건국한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10년 이내에 1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창립하여, 신강에서의 테러작전 이외에, 게릴라전 내지 정규전을 행하는 공통의 인식에 도달했다. 그를 위해 다수의 신강 독립조직이 많은 회원들을 아프가니스탄, 체첸, 카슈미르 등의 전장에 파견하여 실전훈련을 받게 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구와 국가에 20이상의 군사훈련기지를 만들어, 1천 명 가까운 멤버들은 드디어 중국 국내에 침입, 신강 및 그 밖의 지역

에서 테러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여 선별적 테러를 포함한 폭파사건이나 총격전이 빈번하게 됐다. 1999년 2월, 콜라 가까이에 있는 3824부대 미사일 기지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에서는 군용 트럭이 18대나 불탔고, 20여 명의 군인이 사상했다. 2001년 8월 7일, 인기 관광지 구차에서 무장한 신강독립 그룹과 총격전이 벌어져, 그곳의 공안국장이 사망했다. 신강 독립세력은 이들 테러사건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널리 어필하게 되었다.

## 독립조직의 실태

신강 독립 세력은 온건파와 과격파로 나뉘지고 있다. 온건파 중에는 특히 신강의 높은 수준의 자치를 요구하는 세력과 ‘동투르키스탄공화국’ 건국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 있다. 예컨대 ‘동투르키스탄협회’ 등이 그것으로, 그의 스웨덴지부의 책임자 팔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입장은, 지나치게 과격한 요구는 필요 없다. 漢民族과 공존하고, 함께 동투르크스탄 땅의 부를 향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도 한민족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을 배척하지 않으며, 그들에게도 이 땅의 산물이나 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우리들의 기본요구는 1955년의 자치구법의 회복이며, 헌법 아래 위구르자치구 자치법에 따라 생활하고, 이 땅의 부로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온건파는 신강의 독립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의 선전이나 로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를 위해 이슬람의 색채를 전면 내거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중국국내에서의 반체제활동에 ‘성역’이라는 종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과격파는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을 아주 최근까지 지배하고 있던 탈레반 정권과 같은 ‘동투르크스탄 이슬람국’을 만들려고 요구한다. 과격파관계자는 중국 공산당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언어는 무장 투쟁의 총성밖에 없다고 말한다.

출신지역에서 보면, 신강 북부출신의 지식인들은 온건파에 많고, 러시아 또는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다. 아프간 북부동맹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자주 보인다. 신강 남부출신이나 저변의 노동자 등은 과격파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탈레반에 대한 지지도 열렬하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조직은 터키에 본부를 둔 ‘동투르키스탄청년의 집’이라는 조직이다. 2천여 명의 멤버를 가진 젊은이들이다. 멤버는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폭파나 저격 등의 훈련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터키 군에서의 병역경험을 가진 사람도 많고, 쿠르드 게릴라와의 작전을 통해 실전경험을 쌓았다. 그 중에는 미사일이나 군용기, 전차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부 비서장인 압둘라 짜이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폭탄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 때문에 ‘동투르키스탄 청년의 집’을 위구르인의 하마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 자신도 자폭수단을 상용하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원리주의해방조직 하마스를 본보기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본부를 둔 ‘동투르키스탄 민족해방전선’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테러를 불사하는 과격파조직이다. 1940년대, 구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의향으로 신강에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 설립되었다. 동투르키스탄 민족해방전선을 이끌던 80을 넘은 고령의 지도자 유스프는 그 해 ‘동투르키스탄공화국’ 군에서 장교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그 후, 신강위구르자치구 박물관 관장의 자리에 있었다. 1956년 소련으로 도망한 이래, 폭력적 수단에 의한 동투르키스탄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가끔 신강에 결사 부대를 침투시키고 있다. 1994년에 공동으로 신강 내부의 테러사건의 지휘를 하기 위해서 유스프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과 그 밖의 27개 과격파독립조직으로 ‘조국의 불꽃’이라는 이름의 지휘본부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근년 중국에서 발생한 버스폭파, 무기강탈, 탈옥, 미사일기지방화사건은 모두 그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뉴스 미디어에 말했다.

신강을 포함한 서부지구개발의 국가계획을 중국 정부가 발표한 후, 신강 독립세력은 '서부대개발'은 한족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 이상이라고 보고, 그 계획의 실시에 대해서,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01년 5월 20일,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무책임자 曾蔭權과 재무책임자 梁錦松이 200여명의 기업가로 구성되는 대형 경제시찰단을 이끌고 신강을 포함한 중국 서부를 시찰했다. 출발 전 본부가 독일 문헌에 설치되어 있는 신강 독립조직 '동투르크스탄정보센터' 대변인은 '신강에 관한 정치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은 중국 정부에 도움이 되는 어떤 대형 투자에도 반대한다. 일련의 활동을 통해, 홍콩시찰단의 신강 방문을 저지할 것이다'고 말하고, 특히 홍콩시찰단 멤버의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경고가 보도된 이후, 홍콩에서는 격진이 일어났다. 동요하는 인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홍콩의 경찰당국도 특별행정구 측도 크게 술렁거렸다. 신강 독립세력의 경고에 어쩔 줄 몰라하는 홍콩측의 당혹감이 역력했다.

## 터키와 중앙아시아는 기지

2001년 9월, 미국에서 다발적으로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테러활동을 보는 세계의 눈이 대단히 준엄해 졌으나, 신강 독립세력은 여전히 테러노선의 포기를 명백하게 약속하려 하지 않는다. 홍콩시찰단에 경고를 한 그 '동투르크스탄 정보센터'의 대변인은 홍콩의 일간지 『星島日報』의 취재에 대해서 "만약 국제사회가 신강 독립운동을 지지해 준다면, 앞으로 또다시 테러를 통해서 독립을 요구하는 것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해도 좋다"고 답한다. 테러수단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교환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교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테러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강 독립세력의 주된 활동기지는 중앙아시아와

터키이고, 조직의 본부의 태반은 중국이 구입한 폐합 와리아크의 해협통과를 2년 가까이 허락지 않았던 터키에 설치되어 있다. 터키국민들 대부분이, 신강을 그들 민족 발상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관계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신강을 자기들의 '어머니 같은 땅'이라고 부르는 정부고관도 있다. 터키에는 과거 차례로 판도를 확대, 겨우 200여 년 사이에 3대륙에 20개 이상의 제 민족과 많은 인구를 포용한 오스만제국을 구축한 빛나는 역사를 부흥시키려 하는 범 터키주의가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다. 근년, 이 범 터키주의를 더욱 확대시킨 두란주의도 대두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터키계 주민들 마저 시야에 넣어,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 있는 터키계 제 민족의 일체성을 요구하는 경향도 차차로 현저하게 되었다.

오잘 터키 대통령이 1993년에 사망한 후, '뉴스위크'지가 '터키 권의 지역'을 묘사하는 그의 명언을 실었다. 오잘은 이 지역의 범위를 아드리아 해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으로 정했다. 오스만제국의 꿈을 꼭 이뤄야겠다는 심정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었다. 스탈린 시대인 1940년대에 겨우 수년간밖에 존재치 않았던 '동투르크스탄공화국'의 지도자의 한사람이었던 에이자 유스프 알푸테킨은 중국공산당이 신강 전역을 장악하면서 동투르크스탄이 없어진 후, 이미 터키어로 망명했다. 에이자는 오랜 비폭력운동으로 신강 독립을 획득해야 된다고 호소, 운동을 지도했었다. 그는 신강의 '달라이라마'적 존재로서, 오랫동안 신강 독립운동에 관계했던 커다란 정신적 지주였다. 신강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던 그는 터키국민 가운데서도 높은 인기를 모았다. 1995년, 이스탄불에서 94세의 고령으로 죽었을 때, 100만여 명의 터키인이 그를 죽음을 애도 문상행렬에 참가했다. 그 가운데는 일반대중은 물론 정부고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에이사는 터키대통령의 묘 근처에 매장되었다. 터키정부는 특히 이스탄불에 그의 이름을 딴 공원을 건설했다. 이 공원은 그 이후, 신강 독립운동의 성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던 중국정부는 당연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터키와 거리를 둔 사이프러스의 마카리오스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파격적인 환영을 받은 것도, 터키를 견제하려 하는 중국의 외교의식이 움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4년 7월, 터키군이 사이프러스에 침공, 83년 11월, 터키는 그 점령지역을 일방적으로 '북사이프러스 터키공화국'으로 독립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일관하여 이 터키괴뢰정권을 인정치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에의 외교 견제작전은 근래 들어 직접교류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수년간, 중국을 방문한 터키의 고관은 거의 예외 없이 신장 독립세력을 지지하면 중국 터키관계에 수복불가능 한 틈이 생긴다고 하는 중국정부로부터의 경고를 받고 있다. 1999년 4월에 터키를 방문한 李鵬 전국인민대표대회위원장, 국방위원장 등도, 중국의 영토 보존을 강조했다. 1년 후인 2000년 4월에, 江澤民 국가주석은 다시 아프간을 방문, 신장 독립세력에의 지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렇게 계속된 외교적 압력이 효과를 거둔 것인지, 터키정부는 에이샤 공원을 비공개로 했고, 터키에 살고 있는 위구르인의 터키 귀화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일련의 중국지향의 조치를 강구했다.

터키정부 자세의 미묘한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신장 독립세력은, 반대로 대량의 멤버를 신장에 잠입시켜, 테러 활동을 한층 힘을 넣어, 스스로의 존재를 어필하려 했다. 그에 대해 중국정부는 2001년 6월, 상해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상하이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반 테러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려 했다. 아카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테러, 분리주의, 과격주의에 대처에 관한 상하이조약"은 6개국의 사법기관이 이들 세력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상해협력기구의 가맹 6개국의 국방장관도, 6개국의 군사협력을 강화, 테러나 분리주의,

과격주의에 대한 군의 실질적 협력을 약속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세계를 진동시킨 동시다발테러사건이 발생했다. 테러와의 싸움은 중국이나 상해협력기구 가맹국을 고민하게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에서의 국제사회의 중요과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신장 독립세력의 존재를 가능한 한 은폐시키려 한 중국정부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신속하게 이에 대처했다. 10월 10일, 唐家璇 외무장관은 중국도 '東突' 관계자에 의한 테러의 공포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 발언에 나온 '東突'이라는 말은, 중국의 국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 있어, 처음 듣는 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東突'이란 '東突厥斯坦', 즉 동투르크키스탄을 지칭하는 것이다. '東突'이란 6세기 남북조시기부터 중국북방에서 세력을 떨치던 터키계의 유목민족을 말한다. 이 말 자체는 오랫동안 역사를 말할 때의 고유명사로서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정치를 말할 때에는 그다지 사용치 않았다. 한편, 동투르크키스탄은 오랫동안, '東土耳其斯坦'으로 번역되어왔다. '토이기'라는 문자를 보면, 중국계의 인간들은 어쨌든 터키공화국을 상기고 한다. '東土耳其斯坦'을 사용치 않고, 애써 고색창연한 '突厥'을 인용해 내, 신어로 '東突厥斯坦'이라고 번역한 것은 역시 터키를 배려한 외교상의 고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朱鎔基 총리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수민족정책을 포함, 중국에서는 인권보호의 면에서는 아직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많다. 테러 노선으로 내달리는 신장독립 세력과 대결함과 동시에, 신장의 현상에 대한 위구르 족 주민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종교도 민족도 인종도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 개방의 은혜를 보다 효과적으로 향수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정부에 부과된 금세기 최대의 과제임은 분명하다.

출전 "『世界』 2002년 1월호

## 몽골 민족독립운동과 중국공산당 민족정책

‘민족의 독립’이 제국주의에 이용될 위험을 느낀 중공으로서는 “내몽골과 綏遠省의 정세는 대단히 긴박하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몽골독립정부는 이미 수립했다. 현재, 일본군은 綏遠省 동부에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체를 주머니에 넣은 소련에 침공하기 위해, 내몽골 전체를 일본의 식민지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그 위기감이 주로 중국본토와 소련이 직면하는 일본침략에 있다는 것을 흘려, “내몽골 인민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왕이 지도하는 독립자처에 따른다면, 내몽골은 일본의 식민지로 변해 멸망해 갈 것”이라고 내몽골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王 柯 / 일본 神戸大學 교수

### 공산주의와 민족 식민지 문제

코민테른 극동 근로자대회에 대해, 코민테른에 의해 편집된 ‘극동 근로자대회 -의사록 전문’이 대단히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22년1월23일의 제2회의에서 일본인 片山潛에의 낭독된 대회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정세와 워싱턴 회의 결과 보고, 2. 각 국으로부터의 보고 3. 민족, 식민지문제에서의 공산주의자의 위치 및 공산주의자와 민족혁명정당과의 협력보고 선언<sup>1)</sup>. 민족과 식민지문제는 대회의 중요한 의제였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1919년 1월의 베르사이유 강화회의, 특히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에 걸쳐 개최된 워싱턴회의는 미국 주도로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국제협조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워싱턴회의는 1921년 7월 11일의 ‘몽골정부수립’에 의해 표면화된 외몽골 독립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영토 보존만을 호소하고 있다.

외몽골 독립에 관해서는 여기서 상론하지는 않겠으나,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소련의 지지로 성립된 것은 분명하다. 워싱턴회의를 배경으로, 중국 남방

혁명정부에서 몽골 반환을 주장하는 정치가도 나타난 것 같다. 그것은 당연히 코민테른에 몽골 독립문제에서의 일종의 위기감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지노비예프의 보고에서, 몽골 독립문제에 대해서 중국 남방 혁명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사방팔방 적에게 포위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에 말살되고 있는 중국의 혁명가들에, 내전이 지금도 끝나지 않는 시대에 중국이 화북, 화남뿐 아니라, 많은 다른 지역단위로 분열되어 있는 시기, 그리고 나라는 지금도 외국 제국주의자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때, 만약 그들 사이의 공론가가 몽골은 곧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아니 잘못 이상이라고 우리는 화남의 혁명가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 잘못은 몽골뿐 아니라, 중국마저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억압하려는 민족은 그들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 지금 우리는 중국의 혁명가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제국들이 중국 인민의 해방을 바란다면, 만약 제국들이 일본과 다른 억

압자로부터 중국 인민이 해방되는 것을 원한다면, 제군들의 정책은 그 운명이 제군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몽골인과 같이 민족에 관해서는 선견지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sup>2)</sup>

39명으로 구성된 중국대표단 가운데 14명은 공산당원이었다. 몽골문제에 대한 코민테른의 강경한 자세는 중국공산당의 대표에 강한 인상을 주었음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1922년 1월26일에 제8차 회의에서 사하로프에 의해 행해진 ‘민족, 식민지문제와 그것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의 보고에서 ‘중국공산당원이 직면하고 있는 최초의 일은, 외국 지배로부터 중국을 해방, 토지를 국유화하고, 단일의 연방제민주공화국을 만들어, 통일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sup>3)</sup>고 중공에 확실히 지시했다.

중공 단장 張國燾를 비롯한 다수의 단원은 귀국 후 곧 중공 2전대회에 참가, 중공지도부의 멤버가 되었다. 중공 2전대회 선언이 몽골문제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면, 극동 근로자대회의 주장이 2전대회에 전달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은 2전대회 직전인 6월 30일에 중공의 중앙집행위원회서기 진독수는 이미 코민테른에 보고서를 제출, “각 혁신당파에 연락, 몽골독립의 승인과 소비에트러시아의 승인과 운동을 일으킨다”고 중공의 국제정치문제에서의 운동방침을 코민테른에 보고하고 있다.<sup>4)</sup> 즉 당시의 중공은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민족정책도 포함된 정책결정을 했던 것이다. 또 이 시기는 코민테른이 민족과 식민지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던 시기이기도 했으며, 레닌의 민족자결과 연방제 국가구조의 사상은 각국 공산당 내지는 민족주의 정당에 넓게 확대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5)</sup>

1920년 7월, 코민테른 2회대회는 ‘식민지, 민족문제에 관한 테제’를 결정,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가입 조건’ 가운데 “식민지를 점유하고, 다른 민족을 압박하는 나라의 공산당으로서는, 식민지 문제와

피지배 민족문제에 대해서, 특히 명백한 노선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었다.<sup>6)</sup>

2전대회는 중공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결정하고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가입하기 위해 최후의 조치가 강구되었다.<sup>7)</sup> 즉 소련 지지하의 외몽골 독립문제에 직면해 가면서 코민테른의 한 지부가 된 중공은 사실상 중공의 최초의 정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2전대회 선언<sup>8)</sup> 가운데, 그 민족사상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지, 중공이 2전대회에서 민족정책을 표명한 것은 당시의 외몽골 독립문제에 관한 중공이 그 정치태도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몽골의 독립은 실제 소련의 지지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공은 민족정책의 결정에서 코민테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민족자결권의 승인(소수민족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할 권리의 승인)과 연방국가체제의 제창(같은 정치시스템 가운데에서의 각 민족의 평등)을 두 가지 내용으로 한다.

## 내몽골 독립을 부정하는 민족지결론

1922년 2전대회부터 중일전쟁까지 중공의 민족정책에 관한 문헌 가운데, 몽골의 민족문제에 관한 것은 계속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1925년 4전대회 제1차대회 확대집행위원회의의 ‘몽골문제에 관한 결의’, 1928년 10월 23일의 ‘중공중앙의 내몽골 특별지부에의 지시’, 1929년 2월 30일의 ‘중공 중앙의 몽골위원회에의 편지’, 1929년10월의 중공의 ‘몽골 국내에 있는 중국노동자애의 편지’, 1930년 중공 중앙의 ‘내몽골에 있어서의 활동계획 대강’, 1931년 11월의 ‘중국영내소수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 1935년 12월 20일의 중화소비에트 중앙정부의 ‘대내몽골인민서’ 등이 있다. 이들 문헌을 조사해 보면, 중공은 1920년대 초에는 외몽골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1920년대 말까지 그의 시점이 내몽골로 옮

거잖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내몽골 자치운동'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사회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의 선동으로 만주지방의 몽골인이 '몽골자치군'을 설립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34년 4월 23일, 명목적으로 국민정부에 통괄되는 '몽골지방자치정부위원회'가 탄생했다. 그러나 1929년 9월 28일 중공중앙위원회의 "운남성위원회에의 지시는, 민족독립은, 우리당의 활동에 의해서는 적당한 슬로건이 아니다. …… 만약 '민족독립'의 슬로건을 내건다면, 객관적으로 운남성 노동자 농민의 소수민족과의 연합전선을 분열시켜, 프랑스제국주의에 이용될 결과가 된다. 그 때문에 현 단계의 슬로건은 '민족자결'이며, '민족독립'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sup>9)</sup> 민족자결은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지배 아래 있을 때는 그 종속민족이 이민족 아래 스스로의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민족자결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체제의 가운데, 정치공동체레벨에서의 변화가 인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 민족의 독립권리를 인정하면, 민족의 자격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시기 운남성의 케이스와 내몽골의 케이스를 비교하면, 민족독립이라는 슬로건이 중공에 거절되는가 아니면, 용인되는가의 주된 이유는, 그 민족의 독립이 '제국주의 침략'에 연결되는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공은 주로 어떤 국민정부와 군벌세력에 대항하여 그 세력을 어떻게 약체

화할 것인가 하는 것에 주목, 내몽골의 민족독립운동을 인정, 또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몽골 민족문제도 국제적 배경을 가지게 되었다. 1936년 수립된 '몽골군정부'와 1936년 5월 수립된 '몽골독립정부', 특히 1937년 10월 수립된 '몽골연맹자치정부'는 모두 일본의 지지로 성립된 괴뢰정부였다.

기묘한 일은 이 세 몽골인 정부의 얼굴은, 앞의 '몽골지방자치정부위원회'와 거의 같았다. 즉 적어도 일부의 몽골인은 민족독립의 우선을 원칙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몽골자치정부의 수립할 가능성을 검토해 온 것이다. 이것은 또 몽골인에 의한 자치정부가 예컨대 일본의 괴뢰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몽골인의 민족독립의 바람에 따른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거기서 '민족의 독립'이 제국주의에 이용될 위험을 느낀 중공으로서는 "내몽골과 綏遠省의 정세는 대단히 긴박하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몽골독립정부는 이미 수립했다.

현재, 일본군은 綏遠省 동부에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체를 주머니에 넣은 소련에 침공하기 위해, 내몽골 전체를 일본의 식민지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 위기감이 주로 중국본토와 소련이 직면하는 일본침략에 있다는 것을 흘려, "내몽골 인민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왕이 지도하는 독립자치에 따른다면, 내몽골은 일본의 식민지로 변해 멸망해갈 것"이라고 내몽골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다.<sup>10)</sup>

『中國研究月報』, 1935년 1월호

1) 코민테른 편 『蘇東動勢者大會』(日本 合同出版, 1970), P.46

2) 코민테른 편, 앞의 책, P.60-61

3) 코민테른 편, 전계서, P.225

4) 中共中央統戰部 편, 전계서, 〈中共中央執行委員會書記陳獨秀給共產國際的報告〉 P.6

5) 1922년 1월에 많은 중공대표가 출석한 국동노동자대회도 코민테른이 그들의 민족과 식민지사상을 선전하는 장이 되었다. 이초강, 이강, 「공산주의와 중국혁명」(신화출판사, 1991, P.11)에 의하면, 국동노동자대회는 '당시의 국제 상황을 분석하여, 워싱턴회의의 실질 내용 및 그들의 중국분할의 음모를 지적했다. 공산주의의 인태내셔널 동방부의 주요 지도자는 대회에서 '공산당들의 민족식민지문제에 입할 태도 및 민족혁명 정당과의 연합에 대해서'의 보고를 행해, 공산당원으로서의 민족부르조아계급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민주 운동을 지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동 근로자대회에 참가한 중국 단장의 張國龍 단원이었던 구추백, 任壽時, 柳秀松 등은 귀국 이후에 곧, 중공2전대회에 참가했고, 몇 사람은 중공지도부의 멤버가 되었다. 국동노동자대회의 주지는 2전대회에 전달되었다고 생각된다.

6)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編, 〈列寧論民族問題〉, 民族出版社, 1987, P.827

7)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國』, 東京大學出版部, 1989, P.112

8) 로버트 C. 노즈, 『모스크바와 中國共產黨』, 恒文社, 1974년 P.101

9) 같은 책, P.110

10) '中共中央關於內蒙工作的指示信'(1936년 8월24일), 中共中央統戰部 편, 앞의 책, P.417-418

## 鄧小平, 李光耀, 李登輝

중국의 鄧小平, 싱가포르의 李光耀, 대만의 李登輝 등 세 사람의 공통점을 물으면 많은 사람은 그 특징을 드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客家 출신으로, 그들의 공통점도 거기서부터 연유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객가란 일반적으로 중국의 중심지인 황하 주변에 살던 漢족 중에서 몽골족(元)의 침공으로 宋나라가 망할 때, 또 만주족(淸)의 침범으로 明이 망할 때, 이민족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양자강 유역까지 남하하여 그곳에 정착한 실향민 집단을 말한다.

徐壬壽 (SIS연구원장, 전 서울대 교수, 정치학)

그들의 실향 경위가 이러하니 당연히 그들은 반골의 기개와 불굴의 자존심이 그들 성품의 바탕이 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또 언젠가는 귀향할 것을 기약하면서 그들은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음은 물론, 객가의 말, 객가의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데도 많은 정력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험준한 산악지대를 개간하는 등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험된 상념에 놀아날 수 없는 현실 적응과 더불어 강인한 인고의 정신을 몸으로 익혀오기도 했다.

이런 특징들은 대체로 중국인들 전체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특히 6천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객가들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한결 더하다. 이들이 다시 이민족 지배를 피해 남하하면서 華南지방에서 또는 동남아로 진출하여 華僑의 신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지역발전의 중추가 되었으리라는 점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 객가의 활약상 전모를 기술할 수는 물론 없으나, 앞의 세 사람의 행적만을 일별해도 그들의 특징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등소평은 중국 개방 개혁의 총 설계자인 동시에 건인자였다. 중요한 시기에 세 번이나 숙청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되살아나 '不倒翁', '不死鳥'의 별명이 붙어 있다. 走資派로 몰린 두 번째 실각 때도 그 주창자였던 劉少奇는 전신 경련을 일으켜 3인자인 陶鑄와 더불어

어 분사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인 그는 태연히 살아남아 모택동 사후 四人幫을 처단하고 실권을 잡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기존 중국공산당의 정책노선을 크게 전환시켜 공산정권에 의한 자본주의화를 국책의 중심으로 한 일이다. '색깔이 검은 회든 쥐를 잡는 게 고양이'라는 그의 '黑苗白苗論'은 실로 기상천외의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가히 선배인 洪秀全, 文天祥, 孫文 등의 면모를 방불케 하는 객가적 혁명기질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비슷한 현실에서 움츠리고 만 북한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의 자본주의 화에 앞서 정치의 민주화를 달성코자 한 소련의 혼란과 비교하면, 그의 현실감각은 두드러진다.

그의 눈에는 경제적 생산력을 극도로 쇠퇴시키고 만 공산주의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마땅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공산당의 독재권력이 불가결하게 보였으리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대국으로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객가적 현실노선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요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1954년 인민행동당을 결성하여 싱가포르의 자치 독립운동을 전개했을 때부터 그는 자유진영에 섰다. 물론 이는 통상무역의 증개지로서 싱가포르의 입지조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첨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공산주의나 독재정치는 알맞지 않다.

그러나 지식수준도 낮고 잡다한 민족이 모여 사는, 빈곤하고 낙후된 구식 도시를, 번영하고 선진적인 도시국가로 만드는 데 영미식 민주주의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법의 지배가 미치는 법률 만능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통제체제가 그의 노선이다. 30여년 그의 통치는 싱가포르를 연간 개인소득 2만 달러가 넘는 도시국가로 만들었다.

이데올로기나 공리공론에 빠지지 않고, 현실과 실재를 존중하며 착실하게 나라 발전을 도모해 가는 그도 객가적 정신의 사도라 할 수 있다.

고도의 식견과 설득력으로 동서 양진영에서 높은 존경을 받아온 그는, 수상직에서 물러난 지금도 싱가포르의 실질적 지도자임에 변함이 없다. 그를 독재자라 평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그는 그러한 단편적인 민주론과는 차원이 다른 곳에서 있다 하겠다.

이동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었다. 다만 국민당의 민주화가 그의 임무였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이해할 수 있다. 이동휘는 경제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각양각색의 정파를 조종하여 최초의 민선 총통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더 큰 난제가 있었다. 과거 미사일 발사훈련에서 보듯이 중국본토에 의한 끊임없는 병합 위협이 그것이다.

대만이 엄연히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수용하면서 되도록 중국 본토와 거리를 두고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중국의 일부로서 경제협력을 서두르면서 중국과 별도로 UN가입을 도모하는 일은 곡예에 가까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운 과업 달성 과정

에, 그의 객가인으로서의 진면목이 나타났다.

홍콩과 마카오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국내의 정치를 조율하고 독자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어려운 일은, 바로 천년의 고난을 겪은 객가인의 탁월한 지도력을 필요로 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몇 객가의 지도력을 살폈다. 그들은 우수한 소질과 다양한 경험을 넘는 역사인식과 세계관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받은 교육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등소평은 16세 때 프랑스에 유학한 후 모스크바의 東方大學과 中山大學을 나왔다. 이광요는 옥스퍼드 대학, 이동휘는 일본 경도대학 미국 코넬대학 출신들이다. 복잡다기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환기적인 특수 상황에 처한 오늘날의 정치에서는 두뇌와 지식에 더하여 세계적 시야와 역사적 안목이 불가결하다. 무식과 暗愚로는 하나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 낼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객가인이

이런 점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도 바로 이 같은 그들의 교육 중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 동양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중국인 속에서 그 핵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객가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간단한 상대들이 아니다.

나는 홍콩에 가면 꼭 한번은 객가 요리점에 들른다. 결코 호화롭지는 않으나 그들의 체취가 났 요리를 즐기면서 나는 머릿속의 중국인 인물지도에 객가라는 필터를 켜워보곤 한다. 홍콩을 찾는 한국인들은 반드시 한번은 객가 요리점에 들를 것을 권하고 싶다.

동양에서 동양인으로  
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중국인 속에서 그 핵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객가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간단한 상대들이 아니다.

## 중국 서북지방의 回族

중국의 서북지방은 행정구역상으로는 陝西省, 甘肅省, 青海省, 寧夏回族自治區, 新疆위구르自治區의 5지역을 포용하고 있으나, 자연이나 인문환경의 유사성과 경제 발전면에서 내몽골자치구도 여기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들 성과 자치구는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지방의 사회와 문화는 중국 서남, 동남과 동북에서의 소수민족 거주지역과 비교하여, 터키계, 몽골계, 티벳계와 이란계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내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슬람교와 티벳 불교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인도나 중앙, 서아시아로부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또 비옥한 농경지대에 접하는 섬서성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내륙의 고원산맥이나 사막으로 둘러싸여, 농업생산량이 저하, 공업도 그다지 발달하지 않고 있다.

王建新 (일본 神奈川大學 외국인연구원)

서북지방의 경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발전의 기운에 휩싸여 있었으나, 1950년대 말 구소련과의 관계악화 이후로,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서 근대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을 방침을 취한 것을 계기로, 그 발전이 크게 지체되어, 오늘날 동부연해지역이나 중부지역과의 격차가 현저하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긴장정세가 없어짐과 동시에, 중앙아시아독립 제국, 몽골 및 러시아연방 등과의 무역활동의 자극을 받아, 서북지방의 경제발전에는 활기가 나타났다. 근년, 특히 1999년 11월 중앙정부가 '서부대개발' 정책을 발표하고부터, 서북지방은 그 광활함과 자연자원의 풍부함, 국제무역상의 이점 등이 인식되기 시작, 경제발전의 잠재성과 국제정치상의 전략적 지위도 일약 주목을

받게 되었다.(<표1> 참조)

서북지방에서는 오늘날, 새로운 발전기회를 잡으려 각종 환경정비를 진척시키고 있으나, 자연자원의 배분이나, 거주지역 등을 둘러싼 사회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조급히 좋은 투자환경을 정비하려는 정부로서는, 경제발전의 격차나 지역사회와 문화의 특수성 등으로 소수민족문제가 최대의 골칫거리다. 중국정부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서북지방의 풍부한 자원을 나라 전체의 경제발전의 동력원으로 하려하고 있으나, 소수민족사람들은 그 지방사람들로서의 메리트를 살려 경제발전의 성과를 가능한 한 많이 획득하기 위해, 자 민족의 정치경제기반을 공고화하려 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방향은 정부가 바라지 않은 방향으로 진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표 1> 서북지방과 연해지역의 비교

|     | 토지면적 (만 Km2) | 인 구 (만 명) | 경제규모 (億 元) | 1인 당 (元) |
|-----|--------------|-----------|------------|----------|
| 陝 西 | 20.65        | 3,570     | 1,326.40   | 3,707    |
| 甘 肅 | 45.43        | 2,494     | 781.34     | 3,137    |
| 寧 夏 | 5.18         | 530       | 210.92     | 4,025    |
| 青 海 | 72.12        | 496       | 202.05     | 4,066    |
| 新 疆 | 166.00       | 1,718     | 1,050.14   | 5,904    |
| 內蒙古 | 118.30       | 2,326     | 1,094.52   | 4,691    |
| 廣 東 | 17.80        | 7,051     | 7,315.51   | 10,428   |

◆ 자료출처 : 중국연구소 『中國年鑑』 創土社, 1999년판에서 작성

## 서북지방의 회족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여기서는 이러한 소수민족 층의 움직임 중에서도, 특히 回族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전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가를 분명히 하고 싶다. 이것은 서북지방에서의 경제발전과 소수민족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회족은 1992년 현재 약 860만 명이며, 중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 분포의 특징은 동남방면은 밀도가 낮으나, 서북방면으로 오면 밀도가 높고, 거의 그 총인구의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표2> 참조)

또 서북지방 가운데서도 자연환경이 척박하고, 보다 빈곤하고 민족문제 등이 많은 청해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와 신강위구르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

서북지방의 회족은 전통적으로 건조지방에서 농업 등에 종사해 왔으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농업에 관해서는 신강 남부에서의 지하수에 의한 원예농업, 청해, 감숙과 영하의 고원지역에서 잘 나타나는 강우에만 의존하는 계단식 밭, 황하유역에서 행해지는 지상수 관계 농업 등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어느 것도 건조 한

냉지대에서의 농작물이 주다.

교역의 경우, 과거는 사막 오아시스나 고원산지의 경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카라반 행상대나 도시지역의 마을이나 농작물 집산지에 있는 재래시장 운영자가 많았으나, 현재는 가축의 사육에서 판매, 농작물의 가공, 공업제품의 도소매, 부동산, 여관, 레스토랑의 경영까지, 모든 지역생활을 지탱하는 경제활동을 전개, 다각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거주관습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회족은 서북지방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개별 지역이나 거리의 특정 장소에 집중, 자 민족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그 커뮤니티 중심이 교육이나 교통 등의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대적인 변화가나 행정 관리 시설 등이 있는 중심부로부터 벗어난 교외에 있다. 또 회족 주택은 清真寺(이슬람사원)를 둘러싸고 지워져 있으며, 사회단위는 회족의 표현으로 '坊'이라고 불려진다. 같은 방에 속하는 사람들은 '坊民'으로 인정되고, 같은 종교의식에 참가하거나 공동사업 등에 협력하거나 하는 의무를 가진다.

언어생활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서북지방의 회족은 北京語에 가까운 서북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 전달에는 지장은 없으

〈표 2〉 회족 인구 분포

| 지방명 | 인구수       | 지방명 | 인구수       |
|-----|-----------|-----|-----------|
| 陝 西 | 130,899   | 甘 肅 | 1,094,354 |
| 寧 夏 | 1,524,448 | 青 海 | 628,847   |
| 新 疆 | 681,527   | 內蒙古 | 192,808   |
| 黑龍江 | 179,078   | 北 京 | 207,006   |
| 福 健 | 92,124    | 河 南 | 868,865   |
| 天 津 | 159,349   | 山 東 | 459,597   |
| 湖 北 | 77,265    | 貴 州 | 126,500   |
| 安 徽 | 300,294   | 上 海 | 49,704    |
| 四 川 | 108,638   | 湖 南 | 93,205    |
| 山 西 | 57,761    | 江 蘇 | 121,120   |
| 江 西 | 9,331     | 雲 南 | 522,046   |
| 浙 江 | 17,186    | 遼 寧 | 263,422   |
| 西 藏 | 2,987     | 廣 東 | 8,845     |
| 吉 林 | 122,777   | 河 北 | 492,022   |
| 廣 西 | 28,190    | 海 南 | 5,695     |

◆ 자료출처 : 「歷次人口普查回族人分省統計表」  
邱樹森 主編 『中國回族大辭典』(1992)

나, 각 지역별 차이는 존재한다. 협서, 감숙과 청해의 회족 방언은 각각 독자의 억양과 표현을 가지나, 신강 회족의 말은 이 3자를 조합한 것 같은 것이다. 내몽골과 영하의 회족 방언은 산서의 漢語 方言에 상당히 가깝다. 또 회족은 그들이 사는 지역의 터키계, 티벳계, 몽골계 등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에 능한 사람들이 많고, 각각의 언어와 자기들의 언어를 혼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특히 종교 언어로서의 아라비아어나 페르시아어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회족의 한어를 모어로 한다고 보통 이야기되고 있으나, 독특한 민족언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자들도 적지 않다.

서북지방의 회족에는 民族內婚의 습관이 있고, 자 민족집단 내부에서 혼인상대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족이나 다른 비 무슬림 민족과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회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결혼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이슬람교를 믿는다면 어떤 상대와의 결혼도 가능하다고 하는 ‘族外教內婚’이라고 불리는 방식도 있다. 남편 쪽에서 거주하는 습

관이나 가부장적 권위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친족관계는 부계원리로 조직되어 있으나, 동남연해지역의 회족들에게서 보이는 한족의 친족조직에 유사한 것은 아니다. 계보관계는 일부의 신비주의 그룹에서 교주의 도통 및 형통상의 정통성을 정하는 의미의 것을 제외하고, 자기중심적인 조직에 지나지 않고, 혈연관계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이의 경제와 의례활동에의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이외에 사회조직상의 의의는 없고, 부계 친족 조직에 특유의 일련의 관행이나 관념체계도 존재치 않는다.

이슬람 전통에서도 서북지방의 회족은 중국의 동남, 동북 및 중부지역에서의 회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다종다양한 종교 교단의 존재나 종교생활이 왕성한 상황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종파는 수니파의 전통을 지키는 조용한 노교, 중국적 특징을 강조한 西道堂, 근년 왕성해진 신교 이후와니와 현대 지식인에 인기 있는 샤라피야 등이 있다. 신비주의교단의 경우, 크게는 호피야, 자프리아, 카디리아와 그부리야의 4개로 나누어져 있으나, 최근 백년에 성립된 靈明堂 교단도 있다.

이들 종파와 교단은 수많은 청진사와 拱北(교조나 교주의 묘를 둘러싼 參詣修行施設)을 가지고, 회족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철저한 이슬람으로 정해진 식 습관을 지키고, 전통의 상을 입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흰 모자를 머리에 쓰고, 여성은 화려한 실크 의상을 즐겨 입고, 머리를 뽕로 감싸고 있다.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이슬람의 ‘色蘭’을 말하는 것이 빠질 수 없는 의례다. 손님을 초대할 때에는 ‘八寶茶’나 ‘油香’과 ‘撒子’가 나오는 것도 서북 회족 특유의 관습이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이슬람적 분위기가 배어있다.

이런 자연, 사회, 문화환경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회족 사람들도, 현재의 경제발전이 수반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 집단을 수호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회족 사람들이 가진 자민족집단 에의 귀속의식과 지배적인 한족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지탱되어온 민족적인 내셔널리즘의 사고양식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고, 민족의 '대의'라고도 할 수 있는 회족 전체의 통합에 대한 집착은, 사회계층이나 종파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그러나 회족의 민족적 내셔널리즘 이외에, 적어도 이슬람부흥주의와 여성 자립론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반드시 전자에 수렴되고, 부속적인 것은 아니다. 회족 전체의 장래는 이들 세 가지의 상호작용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서북지방의 회족 사회에서의 사회계층의 사고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사고양식과 사회운동이 어떻게 관계되고, 민족집단 전체의 발전에 어떤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살핀다.

## 회족의 관료, 지식인 계층과 민족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

서북지방 회족 사회에서, 관료, 지식인들은 특수한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들은 어릴 때 자 민족의 전통교육을 받으면서도, 커서는 대학 등에서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이나 인문지식 등을 접해, 유물주의나 무신론적인 생각도 자기들의 관념체계의 일부로 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국가 행정기관이나 연구직에 종사, 정부와 자 민족과의 사이의 가교역할을 한다. 그들은 다 문화생활의 경험, 풍부한 지식과 유연한 사고력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얻기 어려운 인재로서 중시됨과 동시에 자민족 내부로부터도 유능한

사람으로서 존경되고 있다. 그들의 수는 회족 인구 전체와의 비율에서는 많지 않으나, 정부의 지지를 배경으로 회족 민중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들의 사고양식은 다중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것이 최대의 특징이다.

회족 지식인과 접촉하면 언제나 '認教' (이슬람을 중하게 여긴다)든가, '認族' (민족을 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인 언사는 20세기의 초기 회족이라는 민족명칭이 아직 정식으로 고정화되어 있지 않을 때부터도, 회족 관료, 지식인들 가운데 논의되고 있었다.

이슬람은 회족 민족문화의 중심이며, 일상생활에서도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회족 민중의 지지를 잃든지,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위화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또 종교는 종교지도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나, 민족적인 것은 행정이 관여되는 것이기도 하여 자기들이 책임을 가진다고 하는 암묵의 사명감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 정치적 압박을 받은 이슬람교 전통의 대응이라기보다는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부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민족의 독자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 집단전체의 발전에 있어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나라의 정치 상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으나, 자 민족의 종교신앙이나 생활관습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허용치 않는다고 하는 비판도 많다.

공산당원이며, 또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활동이나 민간관습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불리한 입장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종교나 관습 사이의 거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성립되기도 한다.

한편, 종교지도자나 민중들에 있어 정부 사람이라고 불려, 존경을 받으면서도 경계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청조말기부터 民國期에 걸쳐, 회족 관료들이 정부에 협력하여 자기들의 동포를 진압한 일도 있으며, ‘官至三品必反教’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가 생겨난 것일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서북지방의 회족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점점 종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종교를 연구하고 있다든지, 민중의 요구를 이해하지 않으면서 민중을 관리하고 있는 등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로, 그들이 정부와 민중 쌍방에 통용할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최근, 회족 지식인들 가운데, 이러한 ‘족’을 중시하는 사고양식을, 사회학이나 민족학 등의 연구분야에서 이론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예컨대 ‘認教’와 ‘認族’에 관한 종래의 회족 지식인의 견해를 가지고, 민족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려는 회교 연구자들은, 민국 시기 이전의 회족 연구는 “教를族보다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 인식상의 역사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 교의 연구에서 족의 연구로 전향하는 것은 보다 과학적 세계관과 방법론의 지도가 필요하게 된다”고 하여, 족을 중시할 학문연구의 정당성을 호소한다. 또 회족 가운데 오랫동안 전해져온 속담 ‘天下回回是一家’(세계의 회회는 모두 가족)의 ‘회회’의 두 문자는 본래부터 무슬림을 의미하는 말이며, 그 경우는, 특히 교를 주요시했다. 일종의 범 이슬람주의적 사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회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담의 의미는 회족 이론가들의 논의 가운데서, ‘天下回族是一家’와 같이 이해되게 되었다. 이 낡은 속담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지금부터 유행

할 것이 틀림없다. 이들은 민족을 중시하는 생각이 현대 회족 사상계의 주류화 해 간다고 하는 이데올로기화 작업이기도 하다.

민족을 중시하는 사고에 관해, 또 하나의 커다란 움직임은 중국의 ‘개혁 개방’ 이래, 회족 지식인 가운데서 나타난다.

각 지역의 다양한 ‘소 전통’을 취해, 회족의 ‘대 전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는 일련의 ‘창출’ 작업이다. 1983년부터, 1~2년에 1번 정도로, ‘회족사 토론회’라는 전국대회가 열렸다.

1998년 곤명에서 열린 제11회 대회에서 ‘회족학회’의 성립이 선포돼, 두 가지의 전국대회가 중복되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해인 1999년 말 북경에서 열린 대회의 명칭은 ‘回族學 研討會’로 개칭됐다.

매번, 대회의 개최지에서, 많은 회족 주민이 동원되어 성대한 축하행사가 행해지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으나, 참가자와 발표자의 명부를 확인해 보면, 정부관료,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작가, 신문출판사의 책임자, 기업가 등의 이름들과 더불어, 특히 회족의 사회적 명사들의 모임이라는 느낌이 있다. 발표의 논제는 회족의 역사, 인물 지, 인구문제, 이슬람 신앙, 풍속습관, 신문출판, 언어문화, 민족관계 등이며, 종합적이 되어 있으나, 어느 것이나 회족 전체의 존재와 발전, 그리고 문화전통의 형성과 현상 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회족 사회와 문화를 통합시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관료 지식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관심사가 있다. 서북지방의 회족 사회에서는 종파나 신비주의적 교단 등의 내부투쟁은 늘 문제가 되어 있으나, 적당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는 대단한 위기를 초래하고 만다.

예컨대 1994년에 영하의 銀川시 주변에 근거지를 둔 자브리야파 신비주의교단의 내부에서 ‘械鬪’(흥기를 가진 난투)가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군과 경찰의 개입으로 진압하였으나, 교주를 비롯한 다수의 신자가 체포, 투옥되었다. 발전해가는 회족 커뮤니티의 하나였으나, 종교적 견해의 불일치로 내부 투쟁을 일으켜, 사회치안의 위협하게 한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억압되었다. 때문에 그들은 정부가 민족전통의 건설을 늘 통제하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회족 민중에게도 사회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자기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 종파나 지역, 지역사회간의 투쟁을 그만두고 민족전체에의 귀속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서북지방 회족에 있어 '서부대개발'은 발전을 이룩할 둘도 없는 기회다. 이 기회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도 '족'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슬림의 취약한 경제적 기초, 개인판매, 수동 가공공장의 경영규모, 그리고 현대 경영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 등으로, 선진지역의 기업집단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러한 실력 차이가 무슬림에 커다란 압력과 도전을 가져온다. 패배한 경우는 형제 민족과의 경제발전의 차가 더욱 커져, 무슬림의 종합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한 경제기반이 없어지면 하나의 몽상이 되고 말 것이다.

어쨌든, 회족의 관료, 지식인 계층에서의 민족적 내셔널리즘의 사고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으며, 자 민족 민중에게도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회족 전체를 리드하는 계층에게까지 통용할 것인가, 통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에 민중 수준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 서민의 전통과 이슬람교

서북지방의 회족 사회에서는 주민의 습관과 생활

에 있어서 이슬람 신앙이 행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서도 살핀 것과 같이, 회족 사회에서의 친족집단은 경제나 의례적 활동 등의 협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계보 관계에 관한 일련의 관념 체계가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상의 기능은 한정되어 있다.

그 대신 清真社나 拱北이, 회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사회조직상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특히 개혁 개방 이래의 20년 간에 민족의 전통문화를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에 따라, 회족 일반민중의 레벨에서 清真社나 拱北을 수복하거나, 새롭게 건설하거나, 이 둘을 굳건히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진사는 문화대혁명기에 봉건세력의 총 본산으로서 폐쇄 돼, 거의가 기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명예회복되어 다시 그 기능을 회복했다. 청진사는 대도시의 중심부나 교통이 편리한 교역지나 주택가에 건설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는 되어있으나, 관습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회족 사람들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종파의 청진사도 있다. 예컨대 신강 우루무치시의 南大寺와 坑坑寺, 둘판시의 西大寺와 南大寺등은 자후리아파 신비주의 교단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본교파의 신도가 주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 청진사는 일반 교파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비주의 교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슬람에 관한 기본교육이나 예배 등 일상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무슬림이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청진사의 설립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의 자조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말부터는 '종교활동 장소'로서 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오래된 청진사의 경우는 坊民選舉에 의해, 5~7명으로 구성되는 '寺管會'(청진사 관리위원회)를 조직, 적임의 아혼(종교지도자)을 정하

고 나서 정부에 신청하여 추인을 받아, 합법적 종교 활동의 장소가 된다.

신설의 경우는 조직자가 청진사 건립의 이유, 설립조건, 관리체계, 아픈 등의 종교지도자의 상세한 정보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 심사를 받는다. 신청이 각하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단 신청이 수리되면, 청진사는 특수한 이유가 없는 한 정부의 간섭 없이, 방민에 의한 자유운영이 가능, 회족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한 청진사에 소속하는 방민의 호수는 주소의 변동이나 임시거주 인원의 증감도 있어, 확실한 상태가 파악하기 어려우나, 사관회에 의한 등록을 근거로 대체적인 규모는 짐작할 수 있다. 보통 소규모적인 청진사는 50~100호로, 대규모의 청진사는 수백 내지는 수천 호 이상의 방민을 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청진사 관리에 있어, 아흔의 권한이 신비주의교단에서의 종교지도자와는 달리, 아주 제한되어 있는 듯 하다. 현재 규모가 큰 청진사는, 예배, 종교교육, 복지 등의 시설을 포함한 종합 이용이 가능한 회민 회관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예컨대, 후후호트시 회민구의 清真大寺, 銀川市の南關大寺, 蘭州市의 西關大寺, 西寧市の 東關大寺, 西安市의 東大寺, 우루무치시의 陝西大寺 등은 광대한 예배당 이외에, 종교학교(그 교실은 각종민간 교육이나 야간교실에도 이용된다), 회의실(내부회의용이나 결혼식이나 그 밖의 회민행사 등에도 차용된다), 욕실(예배의 세정용이나 목욕탕으로서도 이용된다)도 병설돼, 관리활동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아흔들은 예배의 지도나 종교교육에 힘을 넣어, 종교지도자의 본령을 발휘하는 한편, 일체의 관리권한을 寺管會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사관회의, 아흔이 조용히 있고, 단지 사관회의 책임자들의 결정에 따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

도 자주 있는 풍경이다.

지역사회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엄을 부리지 않는 분위기가 아주 민주적인 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청진사는 坊民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以寺養寺'(면세 등의 우대를 주어 자급자족시키는 정책)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청진사의 넓은 부지와 교역중심지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은천시 남관대사는 청진사 주변의 공지에 상점가를 건설하여 이를 대여, 집세로 청진사 내부의 시설을 증축하거나 다른 사업에 진출한다는 경영방침을 취하고 있다. 청진사 시설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 찾아오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거기서 청진사의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 입장료를 받는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청진사는 돈벌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나, 회족 주민들은 보다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사관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서북지방 회족 청진사 건설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주민의 넓은 지지를 받아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청진사는 예배나 종교 교육을 하는 엄숙한 분위기를 가진 종교시설 일 뿐 아니라, 같은 관념체계, 생활습관과 언어를 가진 회족 주민들의 모임 장소이기도 하며, 상호원조를 이뤄내는 지역사회의 복지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나 여성과 아이들에게 있어 사랑 받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도시 가운데, 漢, 티벳, 몽골계, 터키계 등 많은 민족과 다양한 문화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소수자인 회족 주민에 있어,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차별에 대항하여 자기 방어를 이루기 위해서도, 청진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활동이 불가결한 것이다. 거기에, 주민들 사이에, 청진사는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족의 지역사회와 생활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

정 청진사에 다짐에 따라,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한편, 회족 전체에의 귀속의식이 약화되는 것도 일반민중의 현실이다.

한편, 拱北을 둘러싼 일반 민중들의 움직임도 현저해지고 있다. 봉건적인 미신으로서 비판되어 파괴된 수많은 拱北도 문화대혁명 종료 후에 명예회복 되었으나 시기적으로는 청진사보다 상당히 늦었다.

서북지방에서 공북이 종교시설로서 인정돼, 참배나 수행활동이 재개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최초는 당초의 공북의 墓廟를 수복하여 신자への 종교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정도였으나, 1990년대에 이르면, 墓廟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관련 시설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컨대 蘭州市 臥牛山頂의 靈明堂拱北의 경우, 그 건설은 교단 제3대 교주 汪守天의 지휘로 198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년이 되어서야 기본 부분의 건축이 끝나, 주변 시설의 정비단계에 들어갔다. 독립된 성과 같은 拱北은 八郭라는 墓廟(교조와 2대 교주의 묘가 들어 있다)와 砂라고 하는 墓廟에 연결돼 참배 홀로 구성된 건물, 三環門이라는 墓廟가 있는 정원의 입구, 대전이라는 예배 홀과 주변의 偏廳(교실과 회의실이 들어 있다)등의 건물이 있으며, 건설 중의 拱北 전체의 입구에 해당하는 五朝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16년 간 3억 元이 들었으나, 전체의 정비에는 또다시 5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규모는 서북지방 최대라고 한다. 건축비는 감숙, 청해, 영하, 신강 등에 분포하고 있는 25만 정도의 신자들로부터 기부로 충당하고 있다.

신비주의 교단은 크게 호피아, 자후리아, 가디리아, 구부리아의 4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은 더욱 많은 분파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스스로의 拱北을 중심으로 교단을 조직하고 있다. 공북의 규모가 크고 영향범위가 넓은 것은 많지 않으나,

전체 수는 많아, 확실한 통계를 잡을 수 없다. 설치된 장소도 청진사와 달리 변화가나 교역의 중심 등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황량한 산악지대가 많다. 그 조직형태와 종교활동의 특징에서 보면, 청진사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먼저, 대부분의 신비주의 교단이 전국 조직을 가지나, 그 본존 공북(교조의 묘가 있는 참배수행시설)에 교단본부가 병설되어 있고, 거기서 교주가 각지의 지부에 파견한 리더들을 통해 전국의 신자를 지휘한다.

이러한 본존 공북의 대다수가 감숙과 영하의 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회족 신비주의 교단의 수행관념에 있어, '敎'와 '道'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서로 다른 개념이며, '敎'는 육신오행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수행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나, '道'는 이슬람에서의 신비 체험에 근거한 수행이다. 전자는 일반의 아혼에 따라 배우는 것이나, 후자는 위대한 師匠의 지도가 없으면 일반인에게는 행하지 않은 수행내용이다.

따라서 '교'를 신앙하기만 한다면 청진사에서조차 충분하나, '도'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수행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는 위대한 교주가 지키고 있는 교조의 공북에 다니는 것이다. 또 공북은 종교 교육이나 수행이나 제사 등을 행할 장소이나, 현세 이익을 찾는 일반민중의 소원도 받아, 병의 치료 등의 기능도 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 신자 만에게만 이용되는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라, 교단외부의 사람이나, 비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방문할 수 있다.

교단 소속의 신자들은 세습적으로 신자가 된 사람도 있으며, 또 개인 단위의 신 가입자도 있다. 어쨌든 신자는 '敎'만의 종교 실천은 이슬람 신앙의 근본에 관계되는 내용을 경시한 것이 되고 만다는 문제의식을 가지나, 누구라도 '도'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본격적으로 이슬람 신비학의 진수를 알고 싶다면, 사장의 지도를 통한 엄격한 수행이 필요하다, 일반인이라도 교주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도’의 중요성을 철저히 믿고, 가능한 수행을 한다면 한사람의 신자로서 인정된다. 교단의 가입과 이탈은 중요되지 않으나, 일단 가입하면, 신자는 교조나 교주들의 위대함과 기적을 믿고, 교단의 리더에 절대적으로 복종치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신자들과 친척과 같은 관계가 이뤄져, 보호와 원조아래, 늘 변화하고 경쟁이 격렬한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과 안심감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발전, 현대교육이 보급된 현재에 있어, 신비주의 교단의 신자는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회족 민중이 가진 공복에 대한 집착은 많은 현대 지식인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우리파나 사라피야파가 이슬람 부흥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것과 같으나, 그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 서북지방의 많은 지역에서, 공복과 그 관련 시설의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으나, 그러한 큰돈을 사용한다면, 학교나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복에의 참배는 너무 지나친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제사에서, 미신적인 행동이 많아, 교주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蘭州市와 臨夏市 사이에 있는 唐旺鄉의 南方面 山頂에 쿠브리야파 장문의 木尊 拱北이 설치돼 있다. 중요한 종교제사가 있을 때, 교주에 의한 ‘模頂’ (손으로 머리를 스다듬는 행위)의 예식이 있고, 나이 많은 신도라고 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머리로 교주인 20대의 자식의 손을 받는 것을 본 회족 지식인은, 격렬한 비판을 하기도 한다.

또 蘭州市내의 農民巷이라고 하는 마을의 중심부에 자부리아파의 교조, 馬明心의 拱北이 있으나, 매

년 음력 3월 27일이 되면, 교조의 순교를 기념하여 蘭州 주변이나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신자들이 모여든다. 도로나 시장도 참배 차 모여드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며, 교조의 공적을 기리는 것은 좋으나 묘를 둘러싼 제사활동을 하는 것이 지나쳐 코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단 측은 언제나 간단히 그 비판을 받아드리려 하지 않는다. 영명당의 본존 공복에서 교주의 말에 따르면, 어느 대학의 교수가 拱北道堂을 방문했다. 그는 광대한 정원과 건축물은 대단하다고 말했으나, 拱北 주변의 건물에 새겨진 용이나 새 등의 동물의 그림에 불만을 느껴, 교주에 비판을 했다. 교주는 그가 어디서 왔는가를 묻자, 거리의 청진사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곳으로 왔다고 대답했다.

교주는 그의 흰 사스 가슴 주머니에 들어 있는 100원 지폐를 발견하고, 그런 것을 몸에 지니고 잘도 예배가 될 것이라고 비웃었다. (지폐에는 모택동 등의 두상이 그려져 있다). 그 교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말하기보다도, 먼저 자신의 신앙심을 체크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교주는 이에 반발했다. 이 건물은 중국적 건축의 풍격도 계승한 것이며, 그것 자체가 중국의 이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들 민중 레벨의 움직임은 청진사를 둘러싼 坊民聯合이나 의례작법에서, 지역주의 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하고, 拱北을 둘러싼 교단의 태도에 있어, 집단 내부적이고 엄격성의 색채가 농후하다. 이런 움직임은 지역적, 집단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족 전체에 있어 그다지 메리트는 아니라는 비판이 성립할지 모른다.

이들 종교적인 태도에 대해, 종교지도자와 민간 리더들이 행하는 역할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민족의 대 전통을 만들려 하는 관료, 지식인계층의 내서 널리증적 움직임의 영향은 풀뿌리 민중에게까지 제

대로 침투하지는 않은 것 같다.

## 여성의 사회적 자립과 종교교육

현재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정책 때문에 경제발전  
에 활력이 흘러 넘치고 있으나, 다양하게 새로운 사  
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대규모 국영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에 의한 실업문  
제다. 또 40~50대인데도, '內退'(기본생활비를 보충  
하는 조건으로 퇴직하는 것)나 '下崗'(지위로부터  
떠난다는 뜻으로, 실업의 은어)으로, 생활 형편이  
급속하게 나빠져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가운  
데서도 가장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은 나  
이든 사람들과 신체장애자 등의 '弱勢群'들과 여  
성들이다.

지금까지 나라의 정책에 의해 보증되어온 여성의  
사회적 자립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재, 어떤 방법  
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자립의 길을  
개척해 갈 것인가는 여성전원의 문제이나, 회족의  
여성은 중국 여성의 전체와 자 민족 내부 쌍방에서,  
불리한 입장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  
해, 어떤 민간 회족 여성 평론가는 '여성의 사명'이  
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쓰고 있다.

"여성에 관한 자료는 많으나, 우리 무슬림 여성을  
논한 것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 코란과 전  
승을 잘 연구해 보면, 남성은 공부해야 하고, 여성  
은 공부에 어울리지 않으며, 남성은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나, 여성은 그렇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교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동포의 일부는 이슬람의 이름을 빌  
려 여성이 배우려는 것을 부정하고, 야만스럽게도  
무슬림 여성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확실히,  
우리들 일부는 동양인의 전통을 여성에 강요,  
생활상의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나, 다른 일  
부는 서양의 蒙昧主義에 따라 여성해방이나 남녀평

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쌍방 모두 코란을 인용하여 자기들의 관점에 서  
있다. 우리는 남녀는 인권, 인격과 존엄에서 평등하  
며, 알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같다고 인식한다. 그러  
나 이것은 남녀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해방이라는 개념은 여성자신의  
이익과 특유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서양  
식의 여성해방은 아니다. .... 여성은 가정의 지킴  
이요, 가족의 리더, 아이들의 보호자, 행복의 원천,  
미덕의 상징이라고 과거 예언자가 말했다. 여성은  
학교이며, 여성을 길러내면, 우수미덕의 인민도 길  
러낸다고 이집트의 시인도 말했다. --- 그 인류의  
어머니 특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이슬람은 여  
성에 베풀 주었다. 이것은 문명과 진보의 최고의 표  
상이다."

그녀가 말하는 동양인의 전통이라는 것은 한족사  
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계 친족집단에 근거한 지  
역사회의 조직적 태도와 유교의 윤리체계 등에 근  
거한 남존여비 적인 여성관을 가르치고, 서양의 蒙  
昧主義라는 것은 근현대 구미 계 사회에서의 여성  
의 해방이나 사회에의 진출에 따라 나타나는 부적  
절한 성 관념과 풍습을 지칭하는 것에 틀림없다.

그녀는 회족 내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슬람을  
빙자하여 여성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  
들은 이슬람 적인 것이 아니고, 중국적 전통과 서양  
적 현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  
아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 회족 본래의 여성관이나  
진정한 여성해방과 사회적 자립은, 이슬람에의 완  
전한 귀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슬람적 페미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  
각은 서북지방의 회족 여성 가운데 상당히 유행하  
고 있어, 그 결과로서, 현재의 회족 여성의 종교교  
육 붐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다. 1998년 여름 필  
자는 신강 우루무치시 天山區의 어떤 회족거주지  
에서 탐문조사를 했다. 1980년대 말에 메카 순례에서

돌아온 몇 사람의 중년여성이 회족 주부나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코란연구회를 시작했다.

공부 내용은 아라비아어의 기본지식, 코란낭독 연습, 여성문제에 관한 좌담회 등이 있고, 전통문화를 유지, 회족 여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생각하려는 것이 연구회의 취지였다. 우루무치 시내에 회족여성 전용의 교육시설이나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연구회는 처음 어떤 과자점 시설의 일부를 빌려 행했으나, 후에 종교활동에 민감한 행정관리들의 주의를 받아, 장소를 이전하면서도 활동을 계속, 1998년까지 40기쯤 이어졌다. 참가자는 우루무치 시내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회족 여성 약 300명이었으며, 이들은 대도시에서 그다지 착용되지 않는 벨이나 스카프를 머리에 둘렀기 때문에, 주변에 ‘紗巾邦’(스카프족)이라고도 불린 적도 있다.

신강의 상황과는 달리, 중국 중부 가까운 지역에서는 회족 여성의 종교 교육은 과거부터의 전통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가를 얻어 공개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근년의 상황은 상당히 변하고 있다. 2000년2월에, 후후포트시 회민구의 청진여사의 70대의 여자 아흔 寇秀芝에 인터뷰를 했다. 그녀가 근무하는 청진여사는 1946년에 설립된 것이다.

1980년대 전반까지 주로 여성예배나 주부들에 대한 계몽 교육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그 후 회민구 정부의 인가도 얻어, 서서히 조건을 정비하여 정규교육을 시작했다. 현재 예배 이외에도 전문과 4년제 종교학교로, 주로 서북 각지에서 온 18~25세의 26명의 생도들에게 코란 강독, 고전과 현대 아라비아어 문법, 아라비아어 독음, 전승과 교의 등 계 6종의 수업을 행하고 있다. 사회교육으로서, 매주 화, 금요일 오후에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슬람 계몽 강좌를 열고 있다.

이런 회족의 종교 교육의 정규화에 수반, 그 규모와 사회화의 정도도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2000년 봄과 여름에 감숙성 임하 시내에 있는, 전국 각지에서 온 350명 정도의 여자학생을 포용하고 있는 中阿女子學敎를 방문했다. 그곳의 교장에 의하면 1980년대 전반까지의 회족 여성의 종교 교육은 청진여사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예배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나이든 여성들만의 모임일 경우가 많고, 교육 내용도 초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도, 소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으나,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1979년, 15세가 된 그녀는 동시의 馬志信 선생이 中阿女子 학급을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빨리 입학, 그 학급 최초의 생도의 한사람이 됐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馬秀蘭씨는 수권의 아라비아어, 중국어의 번역서와 다수의 논문을 가진 이슬람 여성학의 연구자임과 동시에, 2,5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한, 35명의 교직원을 가진 민간전문학교의 교장이다. 근년 국내외로부터 무슬림 시찰단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 馬씨는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여성교육가가 됐다.

이들 사례로, 회족 여성들은 자기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국가의 공적교육체제 이외에, 사회적 자립을 쟁취키 위한 루트를 자력으로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족 여성의 종교 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반드시 민족주의적 이슬람 부흥주의 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000년 여름, 蘭州市 城關區에 있는 李家灣 청진사 부속 淑德女子學校를 방문한 적이 있다. 놀란 것은 이 여자학교는 청진사의 동쪽에 건축된 8층 건물 빌딩으로 이전해 있었다. 또 내장공사 중 이 건물은 숙덕여자학교, 무슬림보육원과 노인정으로 구성된 숙덕교육복지센터가 된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센터의 교육자이며, 지배인이기도 한 馬東梅등 두 사람 모두, 30대 여성이며, 臨夏의 馬秀蘭교장과 유

사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두 사람의 교육방침에는 독특한 점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이슬람은 세계의 종교, 다민족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교육도 회족 자신에 한정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난주시 시민의 전체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센터의 교육을 엄격한 보수교육의 방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규범체제로부터 현대과학기술, 음악무용, 예술까지, 공영학교과 비슷한 교육을 행하고, 아이들의 풍부한 감수성과 유연한 사고를 육성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였다.

서북지방에서의 회족 여성의 종교 교육은 지역의 정치정세에 의해 그 발전의 모습과 방법이 다르나, 이슬람교에의 귀의를 여성론의 토대로 하는 문제의식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또 그녀들은 동양과 서양의 전통에 따르기보다는, 먼저 종교지식을 흡수하는 것에 의해 자기들의 능력을 사회에 인식시켜, 자 민족 내부에서의 사회적 자립을 획득함과 동시에, 전국 내지 세계로 향한 발언을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녀들의 사고형태는 관료, 지식인계층이 가지고 있는 듯한 민족주의적인 것은 아니나, 일반적 종교교육의 엄격주의, 보수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유연성을 내포한 개량주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결 어

이상, 현대 중국의 경제발전에 수반한 서북지방 회족의 새로운 사회와 문화의 동향에 대해서 살폈다. 관료, 지식인계층은 중국 전체의 정치적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 정부의 민족정책의 집행자가 되어, 동시에 그 향유자로서의 이점을 살려 자 민족의 대 전통을 만들어 내려고, 적극적으로 회족 민중들에게 격려하고 있다.

그들의 사고양식은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정부에 있어서 그 정통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민중의 전통으로서, 이슬람은 전면적으로 부흥하고 있으며, 종교의식상의 엄격주의나 보수적 분위기를 가지면서, 더러는 봉건, 미신적이라고 비판되는 일도 있으나, 민중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강한 정치적 힘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반드시 관료, 지식인 계층이 가진 민족적 내셔널리즘 사고양식에 흡수되지 않고, 양자간의 긴장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여성들도 각성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 자립은 동양과도 서양과도 달리, 이슬람에의 귀의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반드시 자민족주의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연성도 높아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확대되어 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서북지방 회족의 세 가지 경향은, 중국 정부의 민족종교정책과 국내의 정치경제의 제반 사정에 영향을 받아 생겨나는 것이긴 하나, 회족 내부에서의 계층이나 종파들 사이의 다양하고 긴장한 관계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서로 연관돼 있으나, 각각 다른 입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처럼 한가지의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부대개발'의 기운이 거센 가운데, 발전의 기회를 피하지 않고, 자 민족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켜 가는 가운데, 그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 때문에, 회족들은 관용과 이해를 중시, 계층이나 집단 간의 거리나 오해를 초월하여 민족의 단결을 강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만이 서북지방 회족들에 있어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출전 : 佐佐木信彰 編, 『現代中國의 民族과 經濟』  
(世界思想社, 2001)

# 華人資本의 대륙 투자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대부분은, 구 계획경제로부터의 급진적인 시장경제화 노선이 아니라, 주로 점진적인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產權改革'을 피해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그와 더불어 비 국유경제의 발전을 선행시켜,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기도한다. 외자기업, 민영기업 등이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있으며, 그것이 국영기업 개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董宜嫻 (西南大學 강사)

## 서론

경제개혁의 심화와 내수 부진에 따라, 국가경제의 기반으로서의 국유기업의 경영부진이 점점 심화되고, 반수 이상의 국유기업은 적자 사태에 빠졌다. 2001년 현재, 적자경영의 국유기업 6,599사 가운데 46.1%의 기업은 합병, 파산으로 소멸됐고, 27.3%는 여전히 적자로 남아있다.

계획경제체제아래서 형성된 국유기업 메카니즘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국유기업은 근본적인 개혁, 즉 정치에 민감한 국유기업 소유제도의 개혁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어떻게 하여 적자 국유기업을 활성화시켜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국내외의 자본을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조시킬 것인가, 혹은 적자기업을 도산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현재 점점 격화되고 있다.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 개조가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며, 특히 외자

에 의한 국유기업의 합병, 매수가 논쟁의 초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국유기업의 개혁을 행할 것인가.

특히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의 합병, 매수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진정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인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국유기업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대해서 분석, 국유기업 개혁의 난점을 지적한다. 둘째로, 외자(특히 화인자본)에 의한 국유기업의 합병 매수의 경과에 대해서 고찰한다. 셋째로, 외자의 국유기업 매수 합병의 재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대상, 제안을 분석, 중국대륙의 국유기업을 매수 합병할 의향이 있는 화인기업의 참고에 옹하고 싶다.

## 파산과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의 합병, 매수

대륙의 적자 국유기업의 파산은 약 0.5%에 지나지 않는다. 파산의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파산이나 관련부문이 파산 사기를 통해, 다른 등록

기업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으로 채무의 정산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행과 기업간 트러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기업을 상대로 한 융자의 담보와 기업 간의 담보책임 등의 문제도 미해결인 상태이며, 기업의 청산이나 파산을 지연시키고 있다.

파산법은 1986년에 공포되었으나, 기업의 폐업과 청산관계가 강조돼, 기업의 재건문제에 대해서는 겨우 6개 항목이 해당되고 있을 뿐이다. 또 채무의 주식 화 및 신주발행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기업의 채권자는 은행, 국유기업, 사영기업 및 당해 기업의 종업원 등 다방면에 이른다. 파산기업의 상환율도 낮고, 평균 5%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위원회의 파산 기업 그룹에는, 지역의 안정과 경제적 효용을 고려하여, 파산기업의 잔여재산을 가능한 한 낮게 평가, 종업원이나 사영기업에 변제를 많게 하도록 하고 있다. 파산기업의 잔여재산을 과소평가하기 위해, 그 만큼 국유기업의 자산의 유출방지는 곤란하게 된다. 파사기업을 보완해야 할 사회보장제도가 미정비한 단계에서는 파산업무의 수행은 어렵고, 국유은행의 자산의 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합병에 적극적이어서, 코스트를 줄이거나, 공동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려고, 파산보다는 합병이 장려되고 있다. 1996년부터 합병의 건수가 증가되고, 매년 수천 건의 페이스로 진전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이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합병할 기업은 신규투자 등 전통적인 기업규모를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합병될 쪽의 기업은 대부분이 경영부진 혹은 파산 직전의 기업이다. 2, 지역, 업종을 뛰어넘는 합병은 각 레벨의 정부의 이해문제의 대립으로부터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된다. 3, 진행 중의 국유기업의 합병, 재편은 기업 스스로가 시장경제에 대응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512家重點扶持大企業兼併破產企業計劃'이 그 좋은 예다.

제15차 당 대회 이후 주식 화, 합병, 파산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개혁이 급진전되고 있다. 그 가운데 생산요소가 우량기업에 집중, 공유자본을 주체로 한 대기업이 자원 독점을 계속하나, 중형, 소형 국유기업은 결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大放小'(비교적 중요한 것에 힘을 들이고, 작은 것은 방치함)의 풍조아래 재정곤궁의 지방정부에 있어 중형, 소형 국유기업이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가장 편의적인 방법은 외자에 의한 합병 매수를 찾는 일이다. 그것은 외상으로 중형, 소형 국유기업을 합병 매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遼寧省이 1998년에 '遼寧省開放中小企業招商會'를 개최했다. 물론 외자가 직접적으로 주식시장 혹은 재산권 시장을 통해서 주식제의 국유기업을 합병, 매수한다면, 국유재산도 유실할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株式制改造'를 완성한 국유기업의 대부분은 효율이 좋은 우량기업이며, 외자의 구입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 결과, 외자는 비 주식제의 국유기업을 합병, 매수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매력적인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외자에 의한 적극적인 매수행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중앙 및 성 급 부문은 외상이 합병, 매수, 양도 경매 등의 방식에 의해, 비 주식제의 중소형 국유기업을 합병, 매수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유실을 가져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지방 중소형 국유기업 합병 매수의 규모와 템포는 중앙, 성급 부문과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과의 연결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의 합병, 매수를 규제하는 법규체계는 아직 완전히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는 1983년 공포한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와 1995년에 제정된 '外商投資方向指導暫定規定',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關於출심 國有小型企業

產權的暫定辦法'을 참고로 하여 “產權交易所”의 감독 아래 외자에 국유기업의 합병, 매수를 개방하고 있다. 단지 WTO가맹에 의해 ‘外商投資方向指導暫定規定’ 등의 개별 규제법규의 개정과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개정내용은 외국의 직접투자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다.

현행 법률 아래서의 투자의 100% 국유기업 지주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외합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의 합병 매수는 주로 다음 3가지의 방식이 있다. 1. 국유기업이 일부의 자산, 공장, 시설 혹은 생산라인을 할애, 외자와 합병으로 개조하고, 외자의 지주를 51% 이상으로 한다. 2. 또 하나의 방식은 전 공장이 합병을 행하고, 외자의 지주를 51% 이상으로 한다. 3. 외자는 최초는 합자로 자본 참가를 하고, 지주를 50%로 하나, 합병과정에서 외상은 증자에 의해 지주를 증대, 서서히 주권 지배자로 전환한다. 즉 외자에 의한 합병, 매수는 중국대륙에서는 ‘併購’라는 말이 사용되며, 여기서는 그 의미에 따라서 ‘합병, 매수’라는 말을 사용한다.

##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 매수 합병경과

중국이 종래의 폐쇄적인 수입대체정책에서 수출지향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총회(11기 3중전회)다. 중국은 경제개혁, 개방과 동시에, 직접투자도입을 개시했다. 직접투자의 도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광둥, 복건성을 비롯한 연해부의 지역개방을 병행하여 진행해 갔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 외국기업의 대중투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세를 얻어갔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외국기업에 의한 단독 투자의 허가 등의 일련의 조치가 행해진 결과, 중국의 투자환

국내외의 자본을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개조시킬 것인가, 혹은 적자기업을 도산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현재 점점 격화되고 있다. 외자를 이용하여 국유기업 개조가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며, 특히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의 합병, 매수가 논쟁의 초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국유기업의 개혁을 행할 것인가.

경이 개선돼, 1985년부터 1989년(성장단계)의 4년간에 406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들어왔다.

이것은 1979~1984년(초급단계)의 5년간 투자액 173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였다. 계속하여 1989년7월-91년(조정단계)에는 전술의 1989년의 천안문사건에 의한 직접투자는 218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동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1992년 이후는 급속하게 중국에의 직접투자가 증가한다. 예컨대, 1992년부터 1996년의 4년 간에 실제 이용된 직접투자총액 누계 액은 1,515억 달러의 65배를 기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22년간, 실제 이용된 직접투자 총 누계액은 34662억 달러다. 1993년부터 연속 8년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직접투자 수입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에의 직접 투자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서는 직접투자가 급증한 1992년부터 1996년의 고도성장단계에서의 직접투자원에 대해서 살핀다. 동기간에 실제 이용된 직접투자(그 밖의 투자를 포함) 총 누계 액은 1,529억 달러에 달한다. 그 내역은 NIE's가 71.9%(1,099억 달러), 일본이

7.3%(111억 달러), 미국이 7.6%(116억 달러) 등이다. 특히 NIE's의 71.9%의 내역을 보면, 홍콩이 56.2%(860억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만 9.3%(142억 달러), 싱가포르 3.9%(59억 달러), 한국 2.5%(37억 달러) 순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에의 투자 주역은 일본과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 NIE's의 華人자본이라는 점이다. 대만 단독으로만도 일본과 미국을 능가하는 액수의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현재도 대중투자의 주역은 홍콩과 대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화인자본이며, 양자의 합계는 중국의 수입금액(누계기준)의 약 60%를 점하고 있다. 단지 홍콩의 자료에 대해서는 일부의 투자는 홍콩기업의 대륙투자라고 생각되나, 나머지 상당 부분은 제3국 기업이 홍콩의 자회사 혹은 대리자를 통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기업은 중국투자에 의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가까운 홍콩을 통해서 홍콩자회사 혹은 중국 측의 대리자의 명의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전제로, 아래서는 먼저 외자 도입정책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경과와 화인자본의 발전상황을 살펴본다.

### 초기단계(1978-1984) (합병법의 제정과 点에서 線으로의 대외개방)

1979년 이래, 중국은 그때까지 금지하고 있던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도입에 뛰어들어 한편, 대외개방의 국내에의 영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방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한다는 정책을 취했다.

먼저, 기초 법규범의 정비에 있어, 1979년 7월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제정, 주로 조세 특혜정책에 의해 외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三資企業'은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투자방식이 되었다. 특히 1983년 공포한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

企業法實施條例'에서는 기업의 설립, 출자의 방식, 董事會와 매네지먼트관리기구, 경영기한, 세무와 위체 관리 등의 사항에 기준을 설계, 외자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업종을 확립시켰다. 법률로 외자기업의 소유권의 형식을 확실하게 정한 외에,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자주권을 보장했다.

개방지역에 대해, 1980년 8월 전인대는 대만의 수출가공구를 모델로 '廣東省經濟特別區條例'를 승인, 공포, 廣東省의 深, 珠海, 汕頭에 세 개의 경제특구를, 또 동년 10월에는 대만의 맞은편에 있는 복권성의 廈門에 경제특구를 설치했다. 경제특구에서는 기업소득세 등의 우대조치를 취했다. 深 이 홍콩에, 珠海가 마카오에 인접하고 있으며, 廈門, 汕頭가 대만의 대안에 있는 것, 양자가 많은 화교, 화인들의 출신지라는 점등,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4년4월에는 14 항만도시를 연해개방도시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 上海, 溫州, 北海를 제외한 11개 도시에 경제기술 개발 구를 설치했다. 이 시기에 4가지의 경제특구로부터 14연해개방도시에, 즉 点에서 線으로의 대외개방의 기간이라고 위치지을 수 있다.

이 시기, 외국기업의 투자는 대부분이 시험적인 것으로, 그 투자규모는 적고, 기술레벨은 낮았으며, 생산한 제품의 7할을 수출하고 있었다. 또 투자산업은 대부분이 자본회수가 빠른 산업에 편중되어 있었다.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토지, 건물을 제공하고, 외국 측은 주로 소액자본, 기계와 원료를 제공한다고 하는 '三來一補' 합작방식이 가장 많았고, 60~70%에 달했다. 이 시기 중국투자환경이 외자기업에게는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작 방식이 가장 투자 리스크가 적은 것이기도 했다.

외자기업의 투자지구는 입지의 우위도 있으며, 토지 사용비, 세수, 노무비의 정수를 줄인다고 하는 특별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4가지의 경제특구에 집중되었다. 외자 출처에 대해서는 홍콩, 마카오의

화인자본가 주였으며, 미국기업의 투자도 조금 있었다. 1979년부터 본격화한 중국의 개혁개방과 거의 동시에 홍콩기업이 진출했다. 홍콩의 제조업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 수입부족이나 임금폭등 등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잃어갔다. 그 때문에 섬유, 신발, 완구 등의 기업이 낮은 노동코스트를 찾아 광둥성으로 진출했다.

### 성장단계(1985-1989/6) (직접투자도입 정책의 확충과 연해발전전략의 제기)

이 단계는 전 단계의 기초 위에 발전을 계속, 당국은 외자의 투자영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 매크로 투자환경과 법률규범의 정비를 계속했다. 법제의 규범정비에서는, 1986년에 '외자기업법'을 공포, 외자기업이 독자 경영할 것을 허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전부 혹은 대부분의 수출(일반적으로 70% 이상)이라는 조건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외국기업의 단독투자(100%외자)의 길이 열렸다.

이 법령의 공포는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를 변화시켜, 1989년에 '삼자기업'의 시장점유비율은 合作企業이 25.16%, 合資企業(中外共同投資, 經營)이 48.71%, 獨資企業이 26.13%가 되었다. 1985년경부터 도입업종을 선별할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제조업을 우선하게 되었다. 1987년에는 '외상투자흡수방향지도잠정규정'이 제정돼, 도입업종은 장려, 허가, 제한, 금지의 4업종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1988년 공포된 '鼓勸臺商投資規定'이 대만기업의 진출을 불려드렸다.

1988년1월, 趙紫陽총리가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는 '沿海地區經濟發展戰略'을 제기했다. 동 전략은 선진국, 아시아 NIE's 등이 산업구조의 조정을 행해, 이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려는 것이었다. '沿海地區經濟發展戰略'의 제기에 힘입어 대외개방지역이 확대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직접투자 도입정책의 확충과 연해

발전전략의 제기에 의해, 외자도입이 본격화되었다. 외자의 주요 제공 국은 홍콩, 마카오 이외에 대만자본도 가세했다. 외상은 6할의 물자와 4할의 화폐에 의해, 삼자기업을 창설했다. 이 기간에 중국에 진출한 외자의 수는 상당히 많았으나, 금액은 비교적 적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으며, 중국의 입지적 지위(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 수출을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방위적인 투자'였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전 단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규모가 큰 공업투자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조금씩 선진국 기업으로 구성된 공업투자도 있었다. 투자업종도 경 가공업에서 중공업 및 인프라 스트럭처 내지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투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투자지구는 珠江델타, 福建省에서 차차 上海 浦東地區, 遼東半島, 연해의 각 성 및 海南島로 확대해 갔다.

홍콩기업의 대 대륙투자에 대해서는,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급속한 저달러화가 진전되자 '달러백'제를 채용하고 있는 홍콩 달러화 저가화가 진전되었다. 이 때문에 홍콩기업은 수출경쟁력이 보강되어, 광둥성의 생산기지화를 본격화시켰다.지금까지 투자의 주류였던 경 가공업에 대신하여, 가전산업의 진출이 본격화했다. 1980년대 후반에서 위탁무역 가공이 왕성하게 되자, 광둥성은 홍콩경제와의 일체화가 진전되었다. (위탁무역가공이란, 설비, 원재료를 전부 해외에서 가져와, 완성제품을 전부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다) 판매, 자금 및 제품조달, 생산관리 등은 홍콩 측이,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분업체제가 형성됐다.

대만기업의 대 대륙투자는 대만 元의 대 달러 교환율의 절상, 노동 비용, 부동산 비용의 상승을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증했다. 중화민국정부는 1990년 10월 이후, 대 대륙투자를 공식적으로 허가했으나, 현재까지 제3국 경유의 간접투자 밖에 인정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만기

업은 점차 투자를 행하게 되었다.

### 3. 정체기간(1989/7월~1991)(합병기업법의 개정과 상해 浦東개발구의 설치)

1989년 4월에는 합병기업법의 개정에 의한 합병기업의 국유화, 수용을 하지 않을 것, 수용할 경우는 상응하는 보상을 행할 것, 董事長에 외국인도 취임할 수 있게 하고(종래는 중국인만이 취임), 합병기간에 대해서는 특정업종을 제외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좋게 하는 것(종래는 원칙적으로 10~30년) 등을 결정했다. 또 동년 4월에 상해 포동지구의 개방 개발을 결정했다. 이것은 浦東開發區에 경제특구와 같은 조건을 부여,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10년의 개혁 개방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해를 다시 일으켜 세워, 장강 유역의 개발과 병행하여, 상해를 중국의 금융무역 중심지로 하는 구상이다. 1991년에 대만기업 '中興紡織'과 상해방직계통의 9공장과 합작으로 '三槍集團'을 창립, 그 후 5년간 7건의 적자 국유기업을 매수했다. 현재 이들 기업의 태반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켰다.

### 고속성장단계(1992~1994)(개혁 개방의 가속과 규제완화)

1989년 천안문 사건에 의한 정체를 거쳐, 1992년에는 덩소평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개혁 개방이 다시 가속화되었다. 개혁 개방의 가속과 규제완화에 의해 외국의 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 단계의 외자정책은 전면개방으로 전환, 외자의 진출을 테이크 오프 단계에서 고도성장으로 돌입시켰다. 그러면서, 1992년 이후의 직접투자의 격증을 배경으로, 현지기업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또 1992~1993년의 고도성장에 따른 인플레이, 금융질서의 혼란, 부정부패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93년부터 긴축 정책이 취해지게 되었으며, 외자정책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해졌다. 경제정책 전체가 안정성장

지향 쪽으로 바뀌었고, 외자도입정책에 대해서도 선별강화, 우대조치의 취소가 눈에 띄게 되었다.

먼저, 정책적으로는 1992년 6월 27개 소의 국가급의 연해 경제기술 개발구에 추가하여 새롭게 3가지의 개발 구의 증설을 허가했다. 특히 동년 8월에는 重京 등 5개의 양자강 유역의 성도와 휘춘, 만주 등 13개소의 국경도시의 개방을 결정했다. 지역개방은 전방위로 진척되었다. 지역개방이 진전되는 한편, 외자도입에 관한 권한도 지방정부에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내륙부예의 투자를 유도 장려, 주식보유비율과 투자기간의 제한을 가했다. 이들 정책에는 외자기업에 지역분포를 합리화시켜, 지역발전의 격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둘째로, 도입업종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종래 인정되지 않았던 부동산, 금융, 각종 인프라 등에도 외국자본도입이 가능케 되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가의 전통적수출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외국정부가 수입할당으로 제한한 것에 관계한 산업에는 투자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외국기업은 어떤 업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영역의 확대 정책은 외자기업의 중국에서의 투자업종구조에 변화를 만들어내, 1991년에는 외자기업의 제2차 산업에서의 투자는 81.46%의 시장 점유율까지 하강, 제3차 산업은 16.7%에서 42.83%로 상승되었다.

셋째로, 국내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종래 중국은 합병기업 등의 제품을 가능한 한 많이 수출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해 왔다. 외자계 기업의 제품의 수출비율을 단독투자라면 90%이상, 합병투자이면 70% 이상이 일반적이었다. 즉 2000년에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外資企業法'이 개정돼, 외자기업의 수출의무 등을 폐지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앞의 세 단계 투자는 주로 화인자본의 중소기업이었으나, 제4단계는 주로 대규모적인 다국적기업이다. 세계 톱 500개 다국적 기업 가운데, 300사가 대륙에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이후 기술집약기업, 자본집약기업 또는 국유기업에의 출자에 의한 합병기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였으나, 제품의 수출비율을 완화, 외자 기업에의 제품의 국내판매를 많아지게 하였다. 외국기업은 종래의 투자방식을 타파하여, 단독자본(25%) 및 합자(55%)를 주류로 하는 투자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합자방식은 신규기업을 창설하지 않고, 합병에 의해 국유기업을 개조하던가, 넓게는 직접적으로 동 업종 국유기업을 매수 합병하게 되었다.

투자지구의 분포도 연해지구에서 중서부지구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먼저 제2, 3단계에서는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의 매수, 합병은 단지 소형기업 및 적자기업에만 한정돼, 외자에 의한 대형, 중형기업과 흑자기업 매수, 합병은 제한되고 있었다. 제4단계에 들어와서 부터는 각지방의 개혁이 가속화, 일부의 지방정부는 외자에 의한 대형, 중형 국유기업에 투자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예컨대 1992년 4월, 인도네시아 화교인 黃鴻年이 창설한 香港中策投資公司는 산서성의 運城鹽化公司를 매입, 외자에 의한 중형기업 국유기업 매수, 합병의 최초의 문을 열었다. 같은 해 9월에 복건 泉州市의 國有資產投資公司와의 합자로, 泉州中僑集團株式會社를 창설, 현지에 소속하는 37사가 합자에 가담했다.

1993년에는 대련의 경공업계통의 기업 101사와 합병으로 총자본 20억원의 大連輕工業總公司를 설립했다. 한편, 1992년부터 1993년 사이, 山西省, 福建省, 遼寧省, 江蘇省, 四川省에서 다이아 맥주, 전자 의약 식품 시멘트 등의 업종 약 200개사의 중형 국유기업에 투자했다.

1996년에 중책투자공사가 杭州 太原, 重京, 銀川의 고무회사 5사를 매입하여 고무업 그룹을 결성함과 동시에, 지주회사 5사의 맥주공장을 합병하여 '중국맥주지주회사'를 성립시켰다. 그리고 中策投

大륙에의 투자와 대중수입에 과해지는 제한도 서서히 완화될 것이리라. 이것을 배경으로, 대만당국에서는 '小三通'에서 '大三通'으로 단계적으로 해금한다고 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륙과 대만, 홍콩을 포함한 '중화경제권'이 본격적으로 형성돼, 대륙과 대만의 빈번한 경제교류가 통일을 촉진하는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資公司는 자본 국제화와 외국 전문상사 도입을 위해, 1994년에 그가 소지하고 있던 杭州맥주공장과 泉州맥주공장의 75%의 주식을 일본의 朝日맥주와 伊藤忠商社에 양도했다. 1995년에는 北京 및 煙台의 두 개의 맥주공장도 그 후를 따랐다. 중책투자공사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 매수, 합병은 지방 국유기업에, 대규모화, 업종 그룹화, 국제화와의 발전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조정기(1995년부터 현재까지)

1995년 이후 중국의 외자도입은 상당히 호조다.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하강기미를 보여왔었으나, 2000년에 상황은 개선됐다. 1996년의 태국을 비롯한 ASEAN제국에의 직접투자가 여의치 않았음에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홍콩 등이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행해 왔다.

그 이유는 1995년 이후 ASEAN 제국 통화가 달러 백 제로 환율이 높아졌으나, 중국의 환율은 1994년 1월부터 관리제가 되어, 중국의 원은 그 이래 달러에 대해서 비교적 환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이 거론될 수 있다. 그것에 의해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외자정책은 우대정책에 의해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자를 중국의 산업정책에 합치시키는 단계에 들어갔다. 중국은 1995년 '外商投資方向指導暫定規定'과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공포했다. '外商投資方向指導暫定規定'에서는 외국으로부터 투자방향을 지도하기 위해 1990년대의 산업정책에 근거할 것을 명기했다. 1990년대의 신 외자정책에서는 인프라, 소재 산업, 지주산업(기계,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업), 하이테크 분야 등을 종래 이상으로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는 주로 대규모적인 다국적 기업이 적절하다. 그리고 1995년 9월 5중 전회에서는 '제9차 5개년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의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제안'을 채택, 외자에 내국민 우대를 서서히 부여할 것과 투자선 유도, 구조최적화, 외국기업의 중점건설 프로젝트에의 참가 장려 등등, 그밖에 외자도입에 의한 중서부지구개발의 지원 등을 강조했다.

외자기업은 이미 초국민대우를 받지 못하고, 내국민대우에 받고 있으며, 우대의 감소는 외자기업의 진출의 동기를 조금씩 저하시켰다. 한편 1996년에 토지 증식세의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공포, 국유기업의 합병을 장려했다. 이 단계의 외자정책은 투자구조, 지리구조, 산업구조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앞의 3단계의 투자는 주로 화인자본의 중소기업들이었으나, 제4단계와 이 단계는 대규모적인 다국적기업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 또 투자방식에 있어서는, 하이테크를 구비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이 '단독출자'의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기업의 시장비율은 전기보다도 대폭적으로 증가, 합자의 방식은 감소하고 있다. 1999년에 '삼자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합작기업의 20.42%, 합자기업의 39.25%, 독자기업의 38.56%가 되었다. 외자에 의한

중국에의 직접투자는 주로 '삼자기업' 방식, 국경을 뛰어넘은 본격적인 M&A방식으로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에 투자하는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있어, 1999년에 하이테크를 포함한 제2차 산업의 점유비는 68.86%로 상승, 제3차 산업의 비율은 27% 전후까지 하강했다.

대만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해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메카는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대량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했다. 예컨대 대만의 유력한 가전 메이커 聲寶(대만 샤프사)는 2000년 전성기에 2800명이던 대만공장종업원을 1400명으로까지 삭감, 생산거점을 전면적으로 중국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동사는 1990년대 후반에, 천진의 '신 천양'이라는 국유기업과 합병으로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대만자본으로 대륙 국유기업 매수, 합병의 성공 예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내부요인

### 국유기업이 매수, 합병되는 요인

국유기업이 매수, 합병되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그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유기업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부터, 외자의 국유기업 매수 합병의 제 요인을 분석하고 싶다. 국유기업의 내부요인으로는 다음의 4가지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 국유기업이 활로를 찾는 유일한 선택

약 99%의 국유기업은 최근 10년 내 자본주의의 능력이 없고, 새롭게 돈을 빌릴 능력도 없다. 은행의 구 채무변제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상이다. 노후화산업과 공장의 기계설비의 도태에 의한 산업구조의 리스트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의 자산을 매각하고, 자금결핍을 완화시키는 일

이, 많은 국유기업이 활로를 찾는 유일의 활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으로 화교 금융자본의 매수, 합병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교자본이 매수 합병을 행할 경우, 자금의 주입이 빠르고, 또 중국 측의 관리직 계층을 전혀 교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여, 지방의 국유기업 방침의 결정자에 환영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다 미크로 한 관점에서 보아, 예컨대 다른 방법으로는 입수 할 수 없는 상당히 경비가 드는 자원과 능력의 제공, 품질 수준의 향상, 새로운 경영방법의 도입, 새롭고 값싼 조달원의 개발, 추가적 시장의 제공, 새로운 관리능력,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근로문화의 주입, 국경을 뛰어넘은 기업 간 협력, 기술 시스템 그리고 기업 간 네트워크의 촉진 등이다. 상기의 가능성을 적자 국영기업에 가져다 줄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 지방정부가 중앙의 기업소유권 회수를 걱정

개혁 개방이 시작된 후, 지방정부에 지방보호주의가 한층 강화돼, 정부부문이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은 최근 금지된 것으로, 지방정부는 계속 국유기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합병된 기업, 합병할 기업의 선별과 같은 것도 행하고 있다. 적자 국유기업은 보다 더 지방정부를 곤혹케 하고 있으며, 일찍 이 짐을 더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화교자본에 그 경영을 계승시키는 것은 하나의 손쉬운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대만의 '대복집단'은 적자의 천진 합판 공장과, 1991년에 합자를 하고, 경영관리를 개선시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그 후 17건의 적자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합자에 참가했다. 현재 천진의 '福津' 공장은 대륙 최대의 목재가공공장이 됐고, 중국정부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적 원인에 의해, 각지의 국유기업의 투자주체는 대단히 복잡하며, 중앙투자도 있으며, 지방투

자도 있다. 특히 1994년1월에 실시된 분세 제도가, 중앙과 지방의 재산권 모순을 격화시켰다. 만약 과거의 투자자금 출처를 근거로, 국유기업의 재산권을 '투자한 사람이 재산권을 가진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구분한다면, 지방의 국유기업의 재산권은 중앙에 귀속되고 말 위험성이 있다. 국무원은 하방되어 지방관리가 되고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 그 중앙에 속하는 기업재산권을, 각 지방은 자기들 맘대로 매각해서는 안되고,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관계부문의 인가를 얻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외자가 주권을 통제하고 있는 기업도 여전히 각 지방정부 소유기업, 외자에 구입된 부분의 주권은 단지 일부분의 재산을 물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 국유기업의 경영 메커니즘 전환의 첩경

비국유경제와 외자의 좁은 선택 가운데, 많은 지방의 국유기업은 적극적으로 행동, 외자와 합병에 의해 公司制度를 개조, 구 메커니즘의 속박에서 탈각하고 싶어했다. 외자 계 기업의 참가는 국제적인 상 습관의 도입을 통해서 비 관세 장벽으로서의 규제, 상습관, 업계단체의 관행의 시정과 연관된다. 예컨대 외자와의 합병에 의해 국유기업의 재산권의 구분 불분명, 행정, 기업의 불 분리, 악 평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영 메커니즘이 개선돼, 경영효율도 상승하기 쉽다.

### 직원, 노동자의 이익증진

직원, 노동자 임금 및 보너스는 기업의 이윤상승에 따라 높아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업원은 스스로의 경제이익에 근거, 외자의 매수, 합병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기업의 참가를 통해서 위험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산업의 다각화, 고도화를 촉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외자의 국유기업 매수 합병의 외부요인

### ‘기술로 시장과 교환한다’의 필요성

중국정부는 주관적 외자기업에 대해서,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예상이 빗나가,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그 주된 목적은 중국의 조세대우를 향유하기 때문이다. 이 수년 이래, ‘三資’ 기업은 차례로 중국대륙 지원기업의 수출시장으로 침범되게 되었다. 외자기업의 수출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2000년 47.9%로나 달성케 되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장기적으로 발전해 가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국제수지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중국은 1994년부터 외자정책을 검토하기 시작, ‘三資’ 기업에 대해 2종류의 대립적 대우, 즉 ‘초 국민대우’ (자유기업보다도 대우), 와 ‘차 국민대우’ (자유기업보다도 나쁜 차별대우)를 차례로 취소, ‘국민대우’의 실시를 결정했다. ‘국민대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내시장의 개방과 외자에 의한 지원기업의 매수가 포괄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대형 다국적기업을 흡인하여 국유기업을 매수시켜, 중국대륙에서의 인프라 건설이나 하이테크 분야의 투자를 유리하게 한다.

따라서 ‘기술을 가지고 시장과 교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형다국적기업은 합병교섭 때, 특히 주권의 절대지배를 견지할 경향이 나타난다. 적어도 주권의 지배에 관해서, 외자가 국유기업을 매수, 합병할 것과 외자가 단독출자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조금도 변함 없다.

### 중국의 WHO가맹 효과

중국의 WHO 가맹은, 정부부문에 의한 기업에의

관여의 제한이 기대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에서 당과 정부를 분리, 소의 ‘정기분리’의 진행에 의해 국유기업의 민영화, 합병조건의 개선에 의한 외자와의 합병이 가속한다고 예상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많다.

중국의 WHO가맹은 프랑스 영향으로서, 주로 ‘제도, 정책 운용 면에서의 투명도의 향상’, ‘국민대우의 추진에 따른 외자의 규제완화’나 ‘수출의무의 철폐, 국내판매의 원활화’ 등이 거론된다.

중국과 대만의 WHO가맹은 지금까지 외국기업의 중국에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행해 왔다. 홍콩기업에서 특히 커다란 비즈니스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의 중국매수 경험에 추가, 지리, 언어, 문화면에서 홍콩기업은 외자기업에 없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으로 지방의 국유기업에 환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대만기업의 대륙투자에 관해서는, 중국과 대만의 WTO동시 가맹을 계기로 투자가 한층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만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복건성이 최근 투자선으로 새롭게 주목되게 되었다.

중국의 WTO가맹에 의해 대륙이 수입관세를 내림으로서 대륙시장이 흡인력이 되는 한편, 대만의 WTO가맹에 따른 국제경쟁의 격화가 많은 대만기업을 대륙으로 내보내는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륙에의 투자와 대중수입에 과해지는 제한도 서서히 완화될 것이다. 이것을 배경으로, 대만당국에서는 ‘小三通’에서 ‘大三通’으로 단계적으로 해금한다고 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륙과 대만, 홍콩을 포함 한 ‘중화경제권’이 본격적으로 형성돼, 대륙과 대만의 빈번한 경제교류가 통일을 촉진하는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홍콩 대만자본과의 공동출자 등의 제

후에 의한 외자의 국유기업 매수, 합병이 증가할 것이다.

## 결 어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에서 이미 20년 이상이 경과했다. 그 경제적 효과는 눈에 띄게 되었다. 당초 외자계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일부 내지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액에서 점하는 외자 계 기업의 수출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0년의 수출총액에서 점하는 외자 계 기업의 수출점유율은 47.65%이며, 매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전자통신의 설비제조는 외자계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배후에는 국유기업의 약 4할이 적자로 용자를 해준 금융기관도 경영부진, 8천 억에서 1조 원의 불량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와 유사한 상황에 있음과 국유기업 부진의 배경에는 대세의 정부간부의 줄타기 인사에 의해 '親方五星紅旗' 체질이 있으며, 자유스러운 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유기업의 합병, 재편은 기업 스스로가 시장경제에 대응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다. 적자 국유기업에는 잉여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서, 정부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수하고 있는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의 불비로, 그들 잉여인원을 해고도 할 수 없다. 외자가 합병, 매수 할 때도, 매수된 기업 측의 잉여인원문제, 불량 채권문제, 노후화 공장장비의 자산평가문제 등의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받아들인지 이미 상당한 세월이 경과했다. 중국에의 외자기기업의 직접투자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같이,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본격화해 왔으나, 그것과 함께 금후 다양한 문제점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최후로 가장 실행 가능한 대책, 제안을 분석, 중국대륙의 국유기업을 매수, 합병할 의향이 있는 화인기업의 참고에 대응하고 싶다.

먼저, 매크로 레벨에서의 문제점이다. 1995년 6월 말에 발표된 '外國企業投資方向指導暫定規程'에 근거 외국투자대상업종은 장려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으로 분류되어 하이테크지향장려, 노동집약산업의 제한이 분명해 졌다. 노동집약적 화인 계 중소기업에 대한 대치는 차차 엄격하게 되고, 내륙 부의 이전이 지도되게 되고 있다.

금후는, 내외무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WTO가맹에의 대응조치가 취해져, 다양한 우대조치가 단기간 내에 변경될 위험성 뿐 아니라, 이미 진출하고 있는 노동집약업종에 있어서는 내륙 부의 이전이 요청된다.

특히 대만, 홍콩 계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형 기업의 진출이 주이며,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그러면서 적자 국유기업이 많은 업종의 방적업, 식품가공업, 피 제품, 전자통신설비, 화학섬유의 분야는 대만, 홍콩 계 기업의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이며, 그러한 면에서 보면 상호보완관계에 있는지도 모른다. 대만, 홍콩 계 기업은 중국, 대만의 WTO가맹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한편, 새로운 과제에도 조우하게 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의 선진국으로의 직접투자에서 특징적인, 로얄티, 정보의 수집, 상품의 기획, 개발연구를 목적으로 한 화인 계 기업의 중국진출은 현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

이것은 중국이 경비삭감을 위한 생산대체지로서 역할이 주로, 정보면, 기술면 등의 거점으로서는 아직 인식되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대륙에 이전, 대

만 홍콩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투자 패턴이다. 그러나 대만기업의 경우,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노트북 PC나 반도체사업까지 홍콩이나 미국 등의 제3국 경유하여 대륙에 진출하고 있다.

WTO 가맹에 의한 대만산업에 공동화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의 거점이전의 스피드가 너무 빨라, 대만역내 신 산업의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 감이나 대만에서의 하이테크 분야의 기술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종래의 PC관련분야에서 OEM/ODM, 반도체분야에서 바운다리 등에 대표되는 선진국기업으

로부터의 수탁생산에 록인된 기술 캐도를 어떻게 OBM(자사 브랜드 생산)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가 의문시되고 있다.

IT불황에 고민하는 중국경제와 정면에서 부딪치게 된 대만경제가, 산업의 고도화와 공동화의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행방은 금후의 중국과 대만의 정치경제관계나 대륙에서의 대만기업에 의한 매수, 합병의 전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전 : 『問題と研究』(2002/01월 호)

## ●●●●● 신간안내

###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조정남 저 / 교양사회 / 값 15,000원

### 주요 목차

- 제1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론
  4. 내셔널리즘론
  5. 국민국가론
- 제2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료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샐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 대만의 정치변동과 에스노내셔널리즘

하나의 정치시스템에는 기저로서의 정치공동체, 그 위에 구축된 정치체제 및 그 중심내용인 권력기구로서의 정부라는 세 가지 레벨이 존재한다. 정치변동은 이들 레벨의 모든 것에 있어서 발생하나, 가장 중대한 정치변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체제 레벨의 변동일 것이다. 우리들이 이 수십 년 대만정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변동이다.

전후 대만에서는 국민당 일당독재의 '유사 레닌주의적' 조직구조를 가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동서냉전 구조에 의해서 견고하게 존재해 왔으나, 1970년대부터, 대만 토착세력으로부터의 반체제운동의 도전을 받아, 1980년대 후반부터, 야당인 민진당의 결성을 인정, 미디어의 통제를 완화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적 자유화에 뛰어들 것을 강요당했다. 또 1988년의 '스트롱 맨' 장경국 사후에 대만인 총통 이등휘 아래서 '헌정개혁'이 진전돼, 91년과 92년에는 비 개선의원인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만년국회'라고 불리던 국회의 전면개선이 실현됐다. 특히 1996년 3월에는 사상초유의 주민들에 의한 총통 직접선거가 실시돼, 1980년대 초의 권위주의체제 파탄이 시작된 대만정치의 체제전환은 여기에서 한 단계의 완성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若林正文(東京大 교수)

정치체제의 변동은 이 정치시스템의 다른 레벨, 정부 레벨의 변동은 물론, 정치공동체 레벨의 변동에도 연동한다. 전후의 대만은 분열국가로서의 현대 중국의 분열체의 하나였다. 그 때문에, 이 두 가지 레벨의 변동의 연계에는 특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대만 내셔널리즘'과 '중화민국의 대만 화'라고 하는 시각을 제기, 그것에 의해 대만정치의 민주화 프로세스의 분석을 해왔다. '대만 내셔널리즘'이란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체제에의 도전을 개시한 반체제운동('黨外' 세력, 후에 民進黨)의 이데올로기다.

'중화민국의 대만 화'란, 국민당의 권위주의체제

의 민주화가, 소위 '중국법통론'(예컨대 패해 대만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국민당 정권이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주장)에 의거하는 외성인 엘리트의 지배를 붕괴, 필연적으로 대만 토착의 본성인 엘리트의 정치적 우세를 만들어 내는 일, 특히 민주화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표명된 대만 민의에 의해서만(중국대륙의 민의는 묻지 않고)정통화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민주화는 전후 대만에서 일종의 외래국가인 '중화민국'의 토착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화를 거친 후의 '중화민국정부'는 정부인원의 인적구성에서도, 정치권력의 정통성에서도 대만 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만 화'한 '중화민국정부'의 정통

성은 그때까지의 정부와 같이, 이미 중국국민당의 근대중국 혁명사에서의 공헌에 의해 정통화 되지 않게 되었다. 거기서 대만에서의 정치체제의 변동=민주화는 중화민국의 국가로서의 성격(소위 '국체')의 완전한 변경('대만공화국'의 수립)을 만들어 내지는 않지만, 소위 '중화민국 제2공화국'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결국 '국체'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변경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민주개혁의 최종 단계인 1992년 말의 국회 전면 개선 실현 이후의 정치과정은 이러한 시각의 유효성과 함께 불충분성을 나타내 보인다. 소위 '新黨現象'의 출현이다.

'新黨'이란, 1993년8월, '反 李登輝', '反 臺灣獨立'을 주장하는 국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몇 사람의 입법원의원들에 의해 결성된 정당이다. '신당'은 그 후, 94년 말의 대만성, 대북시, 고웅시 시장선거, 의회 선거를 거쳐, 95년 말의 입법원 정례개선(정수 164명)에서 현재의 7명에서 21명으로 대폭 약진을 보였다. 또 '신당'의 선거 캠페인이나 집회, 데모 등에는 대만화 추진자이기도 한 이등휘 총통에 대한 격렬한 증오와 국기 그 밖의 '중화민국'을 상징하는 부호 체계에 강한 정서적인 애착을 나타내는 열광적 대중들이 등장, 사회에 충격을 줬다.

특히, '신당' 지지자는, 국기나 신당 당기에의 강한 구애, 자기들은 '중산계급'이며 民進黨지지자들과는 계급이 다르다는 등의 의식이나 '신질서'의 강조 등, 국민당이나 민진당의 지지자들과는 다른 내부 문화를 가진 집단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신당'의 결성과 그 급속한 성장을, 단순히 헤게모니정당인 국민당이 민주화과정에서 권력과 권력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분열했다고 하는 정치엘리트의 이합집산 레벨의 현상으로서만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신당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신당현상'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분석 시각에 반성을 가하는 것이다. '중화민국 제2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체'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는 정치체제 전환=민주화는 한편에서 '중화민국 제1공화국'의 강한 반공체제를 용해시켜, 대만해협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교류 진전의 커다란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 자체, 대만에 있는 정치공동체에 있어 중 장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결과시킨 것이나,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국체의 탄생과 그에 수반한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의 노력은 여전히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시기를 불러 일으켜, 양안관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1995년의 두 차례에 걸친 중국의 대만근해에서의 미사일 발사연습에 의한 위협행동이 충분히 이를 증명하고 있다. 대만에서의 정치체제의 변동과 정치공동체 레벨의 변동의 연관은 이렇게 확인된 것이나, 정치체제의 변동이 특히 사회로 확산돼, 기존의 사회적 균열에도 충격을 가해, 민주화 후의 정치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반체제운동이 권위주의체제에 도전하는 과정에 '대만 내셔널리즘'이 생겨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당 현상'이 등장한 지금, '중화민국 제2공화국'을 형성해 가는 민주화의 최종단계가, 새로운 내셔널리즘, 즉 '(중화민국)제1공화국 내셔널리즘'이라고도 할 수 밖에 없는 내셔널리즘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것이 생겨나려고 하는 '중화민국 제2공화국'의 정당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제반 정치 주체가 격렬하게 격돌, '그것을 둘러싸고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대만의 전후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균열은 '省籍矛盾'이라고 불리우는 '本省人'(전부터 대만에 거주하던 주민)과 '外省人'(전후 국민당정

권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온 주민)간의 대립, 마찰의 존재다.

이 본성인과 외성인과의 관계(인구비율은 약 6 : 1)는 서로 다른 출신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전후 대만에서의 '중화민국'이라는 국가 아래 상호작용 관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에스닉한 관계라고 할 수도 있다. 거기서, '중화민국 제2공화국'의 구체화 단계에서 등장해 온 '신당 현상' 즉 '제1공화국 내셔널리즘'의 등장이, 외성인이라는 에스닉그룹의 새로운 에스노내셔널리즘의 등장 현상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전의, 반체제 운동의 체제에의 도전의 단계에서 나타난 '대만 내셔널리즘'도, 본성인이라는 에스닉그룹의 에스노내셔널리즘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1980년대 이후의 대만정치의 민주화 과정을,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것이다.

## 민주화운동과 本省人の 에스노내셔널리즘

대만의 성적 모순이 형성된 것은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전반의 시기였다. 성적 모순의 핵심은 정치적인 것이며, 본성인과 외성인의 전후 대만 국가 = '중화민국'과의 상대적 거리와 상호관계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다.

역사적으로는 본성인 측의 228사건때의 가혹한 탄압의 기억, 외성인 측의 대일 도전과 대 중국 공산당 내전의 패배의 기억, 정치적으로는 외성인 엘리트에 의한 국민당, 정부, 군, 정보치안기관, 공영기업 등의 요직 독점과 의회의 점유몰화, 거기서부터 생긴 정치 엘리트들의 에스닉한 이중구조(중앙엘리트=외성인, 지방엘리트=본성인, 후자로부터 전자에의 상승 루트는 좁고, 전자에 의해 통제된다), '籍貫'(거의 부친의 출신지에 상당)기제를 의무 지운 신분증 제도, 및 '籍貫'에 의한 할당 제도가 있는 공무원 시험제도(대륙 각 省籍 사람이 대

만 성적자에 대해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데올로기적 문화적으로는 경직화한 국민당 판 반공적 중화내셔널리즘의 억압과 그 아래서의 '국어'(중국 보통어)의 강행 보급과 그것에 의한 일본 교육을 받은 본성인 세대의 문화적 주변화, 본성인의 모어인 민남어나 객가어 등의 억압 등이 불평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어느 것이든 대만사회에 있어 '중화민국'이 준 정복 국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성적 모순은 권위주의 국가의 강한 억압체제에 의해, 1980년대까지 정치화하는 일은 없었다. 정치화가 시작되기까지의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첫째로, 권위주의적 국가의 대만사회에의 정착에 따라, 일단 외성인과 본성인과의 공간적, 사회적 분리가 진행된 것이다. 공간적 분리는 '眷村'이라고 불리는 도시와 그 근교의 특수한 군인촌에 국민당과 함께 와있던 외성인 군인과 그 가족이, 또 식민지기의 민족적 분리를 계속하여, 과거 일본인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외성인 공무원이, 집주한 것을 말한다.

사회적 분리란 외성인과 그 자녀가 부모의 관계로 '軍公教人員'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 많고(따라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본성인은 농업, 상공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말한다. 전자, 특히 '권촌'은 그 공간적 또는 정치적 폐쇄성(소위 국민당의 '鐵票區')에 의해, 후자는 각각의 자녀의 인생전략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의해, 성적의 간격이 고정화 내지 재생산하는 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외성인 문화에의 본성인의 동화가 일정 정도 진행된 사실이다. 먼저는 인구학적 요인이 있다. 대만에 들어온 제1대째의 외성인 남녀 인구 비는 약 3 : 1이며, 대체적으로 외성인 여성은 외성인에게 시집가고, 남은 3분의 2의 남성 가운데 반수는 미혼인체(대다수는 하급병사), 반

수는 본성인과 결혼했다. 이러한 통혼에서는 외성인 남성이 대만 현지의 문화에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외성인 남성과 결혼한 본성인 여성이나 자녀가, 남편이나 아버지인 외성인 남성의 문화에 동화했다.

이에 더해, 학교교육이나 매스컴을 통한 국가의 정통언설의 침투와 '국어'의 급속한 보급이 있다. 이 동화에 의한 본성인, 특히 그 전후세대가, 외성인 자녀와 동일한 문화적 아이টে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동화의 진행은 경제발전과 그것에 수반한 도시화의 진전에 의해, 외성인과 본성인이 접촉하는 사회적 장면이 증가, 일반 민중의 생활에서 성적의 차이가 차례로 사회적 경계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것과 함께, 1970년대 이후는 권위주의적 체제 당국보다 성적간의 '융화'가 진전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융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요구의 분출과 함께, 본성인 에스니시티의 정치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는 본성인의 에스노내셔널리즘 = 대만내셔널리즘이 최대의 야당 민진당의 이데올로기로서 형성되어 갔다.

민주화 요구가 본성인의 에스니시티를 정치화한 이유가 명백하다. 첫째로, 국민당의 권위주의체제 그것이 성적에 의한 정치적 불평등을 구조화해 갔기 때문이다. 정치엘리트의 레벨에서는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중앙은 외성인 엘리트, 지방은 본성인 엘리트라는 에스닉 한 이중체제가 존재했다. 대중의 정치 참가면에서는, 중앙레벨의 국회는 다음에서 말하는 '반란진정 동원시기'에 있다는 이유로, 의원의 전면개선이 동결되었으며, 대륙 선출의 비개선의 외성인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둘째로, 이데올로기적 면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체제가, '中國法統'의 관념과 비상시기 '反亂鎮定動員時期'의 관념으로 정당화되고 있었다. '중국은 하

나이며, 대만은 그 일부. 중국대륙은 공산당에 찬탈되었으며,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의 정통정권이며, 중국 정통문화의 담당자다', 따라서 그 중국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대만 출신자가 정권인사나 공무원의 일부분을 점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공산당의 전체주의체제에 대해서, 국민당은 이미 '중화민국 헌법'을 시행하여 국가는 '민주헌정'의 단계에 들어가 있으나, 국가는 공산당의 위협을 받을 비상시에 있기 때문에 자유, 민주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 :

이것이 권위주의체제의 정당화 논리였다. 이 논리에서 민주화 요구가, 성적에 의한 정치적 불평등에의 에스닉 한 불만과 직접적으로 연합, 드디어는 '중국법통'의 관념과 그것을 지탱하는 국민당식 중화 내셔널리즘에의 비판과 결합하여 가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내외적 사정이 본성인들의 에스닉한 불만과 중화내셔널리즘에의 비판을 '대만'이라는 개념에 연결, 넓게는 본성인의 에스노내셔널리즘 = 대만내셔널리즘으로 결정되게 되었다.

대만 내외의 사정이란, 국민당의 현저한 정치 독점에 의한, 반대 세력이 국민당에 도전할 때는, '자유', '민주'라고 하는 이념의 쪽은 '대만' '대만인'이라는 언어에 의해 환기되는 본성인의 공통의 역사 기록 밖에, 국민당에 대항해 가기 위한 정치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1950년대 이후 엄격하게 금지 억압되고, 사회주의 교의를 이해할 인텔리도 아주 소수이며, 또 그다지 급속한 경제발전은, 정치화하기 쉬웠고, 동원하기 쉬운 계급적 경계를 사회에 형성하지 않았다. 또, '자유', '민주'라고 하는 관념도,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부인하지 않는 '반란진정동원시기'의 관념에 보다 유효성을 감소 당했

다. 외부적으로는 1970년대의 미중 접근 이후, 대만의 '중화민국'은 UN이나 각종 정부참가의 국제기구에서 북경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대체돼, 세계의 주요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잃었다.

그러나, 각 국은 대만과의 경제중심으로 한 민간 관계는 유지한 것으로, 그것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대만'의 호칭이 '중화민국'에 의해 대신되어, '대만'이라는 개념의 정통성이 차차 상층해 갔던 것이다.

## 대만 내셔널리즘

반체제운동 초기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체제운동의 리더 층에서는 외성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또 본성인의 리더도 대부분은 명백히 본성인의 에스니티에 호소하는 동원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자유', '민주'의 이념에 비해서 성적에 의한 불평등의 시정을 호소하는 동원의 유효성이 선거 등에서 명백해짐에 따라, 대만 내셔널리즘이 반대세력의 중심 이데올로기, 따라서 체제의 정통화 이데올로기인 국민당 판 중화내셔널리즘에 대한 대항이데올로기로서 중심적 지위를 참하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1983년 9월, '당외' 세력이 연말의 입법원 선거에 입후보 할 후보의 '공동정견'의 하나로써 '대만 전체의 주민자결'을 내건 이래, 이 추세가 명백하게 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86년 9월 黨外 세력이 민진당 결성, 그 강령에도 이 '주민자결' 조항이 내포됐고, 특히 1991년 10월에는 강령 개정에 의해 '住民自決式臺灣獨立'을 강령화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면 그 대만 내셔널리즘이란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인가. 현대 대만에서의 에스니시티와 정치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는 대만의 학자 王鼎昌의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자. 그는 W.코너와 같이 에스니시티 관념의 중심에 있는 것은 '공통의 출신'

반체제운동 초기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체제운동의 리더 층에서는 외성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또 본성인의 리더도 대부분은 명백히 본성인의 에스니티에 호소하는 동원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자유', '민주'의 이념에 비해서 성적에 의한 불평등의 시정을 호소하는 동원의 유효성이 선거 등에서 명백해짐에 따라, 대만 내셔널리즘이 반대세력의 중심 이데올로기, 따라서 체제의 정통화 이데올로기인 국민당 판 중화내셔널리즘에 대한 대항이데올로기로서 중심적 지위를 참하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에 관한 관념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에스니티와 민족 관념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하나의 전체사회 가운데 상호관계에 있는 에스닉 그룹은 이 관념을 중심으로 자기와 타자를 구별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출신을 공통으로 한다'고 생각되는 일군의 사람들이 에스닉 그룹이다. 따라서 에스노내셔널리즘의 언설이란 그 에스닉 그룹의 '현재'의 상황에 근거, '미래'의 정치목표를 설정, 또 '과거'에 재료를 찾아 이 목표를 합리화 내지 신성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미래'의 정치목표에서의 해결해야 할 될 문제는, 실제로는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들이란 누군가'라는 에스노 아이덴티티의 문제와, 이 아이덴티티에 관련한 집단적 이익의 문제인 것이다. E. 홉스봄의 '창조된 전통'이라는 시각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셔널리즘의 언설에서는 '미래'에서 (따라서 '현재'부터) 소급적으로 해석되는 '과거'가

## ◆ 국민당판 중화내셔널리즘과 대만내셔널리즘 비교

|     |           | 중화내셔널리즘            | 대만내셔널리즘              |
|-----|-----------|--------------------|----------------------|
| 과 거 | 공통의 문화    | 중화5천년의 문화          | 4백년이래의 전통            |
|     | 공통의 선조    | 炎帝 - 黃帝의 자손        |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온 선조      |
|     | 과거의 영광    | 漢唐번영, 滿清타도 對日전쟁 승리 | 반항의 전통               |
|     | 과거의 고난    | 공산당의 반란            | 대만인의 비애(일본국민당의 외래지배) |
|     | 역사적 기록    | 대일 8년의 항쟁          | 228사건                |
| 현 재 | 우리는 누군가   | 중국인                | 대만인                  |
| 미 래 | 언어 - 문화   | '국어', 중화문화         | 대만어, 대만문화            |
|     | 정치적 전도    | 大陸反攻三民主義에 의한 중국통일  | 독립전국 대만인의 기세         |
|     | 네셔널 아이덴티티 | 중화민국               | 대만공화국                |
|     | 교육내용      | 중화문화, 중국사          | 대만문화, 대만사            |
|     | 상징 - 부호   | 중화민국 국기, 국가 民國紀元   | 신국기, 신 국가, 西曆        |

◆ 출처, 王甫昌, “臺灣反對運動의 共黨動員-1979-1989年兩波挑戰高峰의 比較”, 遊盈隆 主編 〈臺灣政治學刊〉創刊號, (臺灣政治學會, 1996)를 참조 정리. 可兒弘明, p. 379에서 재인용

선택되었다, 혹은 창조되었다는 것은 ‘과거’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들은 누군가’라는 의문에 대해, ‘과거’의 역사에서, 공통의 문화, 공통의 선조, 과거의 영광과 고난, 기념해야 할 역사적 사건 등이 탐색돼,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들’을 상징하는 부호의 체계 등이 신성화된다.

왕은 이러한 구조에 근거, 권위주의 체제를 정통화한 국민당 판 중화내셔널리즘의 이데올로기적 내용과, 이것에 대항하여 계재된 본성인의 에스노내셔널리즘인 대만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의 정의에 조금 수정을 가해, 양자의 대조표로 다음 표(↑)를 정리했다.

이상에서 민주화 과정이 본성인 에스니시티의 정치화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음으로 ‘신당 현상’도 또 민주화 과정의 후반기에는外省人의 에스노시티 정치화 현상인 것을 살펴보자.

## 민주화, 대만화와 ‘신당 현상’

먼저, 신당 지지자의 성적 구성의 문제다. 1992년 ‘신당 결성 전’과 1994년 ‘결성 후’의 2회의 선거에 대해서 선거민의 정당 지지와 성적 및 ‘통독(중국

과의 통일인가, 대만의 독립인가)의 입장과의 관련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92년과 94년의 각종 선거를 통해, 민진당에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 본성인은 전 샘플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 국민당에 투표한 사람의 성적 분포는 샘플 자체의 성적 분포에(실제의 본성인의 인구비율보다 조금 높다) 못 미친다. 한편, 1994년의 각종 선거에서 신당에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 外省人의 비율은 50% 전후로, 샘플에서 차지하는 외성인 비율의 3배 정도다.

대북시만을 보면(대북시의 외성인 인구는 가장 높은 27%이다), 시장 선거와 시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모두 60% 전후로, 샘플에서 차지하는 외성인 비율의 약 2배였다. 1995년 말의 입법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연합보』가 선거전에 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당 지지를 표명한 샘플 가운데 외성인 비율은 대북시에서 56%, 대만성에서는 30%였다. 1995년의 신당 지지자의 성적 분포도, 1994년 선거와 대차 없다고 봐서 거의 틀림이 없다.

또 1992년 선거와 1994년 선거에 비해보면, 전자에서는 외성인 가운데 압도적 다수(96%)가 국민당에 투표하고 있으나, 94년에는 성, 시장선거에서는 75.6%, 성,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68.2%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대북시 만을 봐도, 감소는 특히 현저해,

시장선거에서 33.9%, 시 의외선거에서 47.1%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민진당의 외성인으로 부터의 득표는 이 사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는, 신당이라는 새로운 선택이 생겼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지지자의 압도적 다수가 본성인인 민진당이 본성인 정당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신당은 외성인 정당이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정당에 비해 외성인의 지지를 받을 비율이 현저히 많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그 외성인은 1992년까지는 국민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1992년 말 선거 후부터 1994년에 걸친 1년은 국민당 주류에 의해서는 비주류에 대한 승리의 1년이었으나, 그 한편에서 이들 외성인의 지지를 잃은 것이다. 반대로 이 정도의 외성인의 지지가 움직임으로 '신당 현상'이 결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신당을 지지하는 4-5할의 본성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량적인 조사 자료는 아직 없기 때문에, 대만의 사회상황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신당에 관한 저작에 의하면 신당 내부의 견해로는 신당의 지지자의 평균적 이미지는 도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 특히 '軍,公,教'에 종사하는 중산계급이며, 교육정도는 비교적 높고, 현재의 사회의 불공평한 현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앞에서 살핀 성적에 의한 사회적 분포를 보면, 도시에 살고, 교육정도가 높고, '군,공,교'에 종사하는 신 중산계급이란, 외성인 제2세대의 인생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1970년대 이후에 발전된 도시화란, 이러한 전형적인 외성인과 같은 인생 행로를 걷는 본성인 신 중간계급을 등장시켰다. 대만 사회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대만의 신 중산계급의 '대만인 의식'은 자본가 계급보다도 강하나 노동자계급보다도 낮은 중국인의식 및 대만인이기도 중국인이기도 하다는 이중의 아이덴티티의 의식은

다른 계급보다 명백히 높다. 전후 새롭게 도시의 신 중산계급이 된, 따라서 비교적 젊은 세대의 본성인은, 본성인의 다른 계급보다도, '중화민국 제1공화제'에 의한 동화가 비교적 진전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적 모순이란 또한 대만의 전후 국가=중화민국('제1공화국')과의 외성인과 본성인의 거리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외성인 신 중산계급이, '중화민국의 대만 화'에 의해, 자기와 현실의 '중화민국'('제2공화국')과의 거리가 아버지 세대보다 열렸다고 느껴, 민주화, 대만화의 진전에 의해, 상대적 피 박탈감을 가질 것은 상상키 어렵지 않다. 이것은 그 에스니시티가 정치화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것은 '新國民黨連線', 신당의 '反李登輝', '反台獨'의 언설과 상징조작에 의해 행해졌다. 구체적으로 발휘된 외성인의 에스노내셔널리즘에 의한 열기에, '제1공화국'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비교적 젊은, 사회적 상승에 성공하여 도시에 생활기반을 가진 본성인 신 중산계급의 일부가 동조하고 있는 것이 '신당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제1공화국' 내셔널리즘

선거민의 '통독'의 입장과 정당 지지와의 관련에 있어서도 민진당에 투표한 선거민의 압도적 다수는, '대만독립' 지지 혹은 '현상유지' 지지이며, 이것에 대해, 국민당과 신당에 투표한 선거민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통일' 지지 내지는 '현상유지' 지지로, 국민당지지자와 신당지지자 사이에는 확실한 구별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류 파가 주도하는 이동휘 국민당도, '중국 통일'은 내세우고 있으며, '통독'의 입장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이런 조사에서는, 민진당과 국민당, 신당의 경계는 명백하지만, 국민당과 신당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통독'의 입장을 단순히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신당 현상'의 의미는 분명하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신당을 이해하는 열쇠는 '반 이등회'인 것이다. 거기에는, 신당탄생까지의 경위를 볼 필요가 있다.

신당의 탄생은 포스트 蔣經國 시대 국민당 내의 권력투쟁, 노선 내지 이데올로기투쟁과 불가분하다. 신당의 전신은, 당국체제로 매스컴 부문, 퇴역군인 조직, 선전 부문 등의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강한 섹터로 형성되어온 비교적 젊은 의원들이 중심이 된 입법원에서 만들어진 '新國民黨連線'이라는 의견 그룹이다. 이 그룹은 당초, 대만정치의 무대에서 대두하기 시작한 '대만독립'세력에의 대항과 그를 위한 당내개혁을 호소하여 등장했으나, 90년 봄, 제8대 총통선거를 둘러싸고 당 상층부에 이등회(주류파)대 반 이등회(비 주류파)의 항쟁이 시작되자, 후자로 기울었다. 이등회는 이 소위 '2월 정쟁'을 거쳐 제8대 총통에 당선하자, 비 주류파의 중심 인물인 당시 柏村 국방장관을 수상(행정원장)으로 임명하여, 일단 정쟁을 수습했다.

그러나, 이러한 李登輝와 柏村 간의 평온한 공존은 오래가지 않아, '신국민당연선'은 주류파의 입법원내 세력인 '集思會'와 의회에서 격하게 항쟁, 조

소강도, 92년 가을 각료직을 사임, 12월 선거에서는 대북에서 입후보하여 최고득표로 당선했다. 이 사이, 柏村 내각의 재정부장 王建璠은 버블 경제기에 토지가 폭등과 도시생활자의 주택취득 곤란을 고려, 토지가격 인상에 의한 수입증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 토지의 경영에 의한 이익에 기반하고 있는 본성인 지방세력의 반발을 받아, 이등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사임했다. 그리고 그 후 곧 입법의원 선거에서 대북시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최고득표로 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선거는 제1회 입법원 전면개선이며, 민진당이 약진하여 3분의 1 가까운 의석을 획득, 대북 이외에서 당선한 국민당의 후보의 대부분도, 柏村 내각을 비판 하여 당선했다. 이 때문에, 선거 후, 柏村 수상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등회 총통은 후임으로 본성인 連戰 대만성 주석을 임명, 대만성 주석의 후임에는 당 중앙비서장 宋楚瑜(외성인)을 전임시키고, 후임 비서장에는 주일대표의 許水德(본성인)을 임명했다.

본성인이 행정원장과 당비서장을 담당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로써 국민당 내에서의 주류파 대 비주류파의 항쟁의 대세는 결정되었다. 이후, '新國民黨連線'은 '反李登輝', '反台獨'을 내걸고

#### ◆ 대만화 된 국민당의 중화내셔널리즘과 '신당 현상'에서의 중화 내셔널리즘 비교

|     |           | 중화내셔널리즘(대만화된 국민당)       | 중화내셔널리즘(신당)        |
|-----|-----------|-------------------------|--------------------|
| 과 거 | 공통의 문화    | 중화5천년의 문화               | 중화5천년의 문화          |
|     | 공통의 선조    | 炎帝 - 黃帝의 자손             | 炎帝 - 黃帝의 자손        |
|     | 과거의 영광    | 漢唐번영, 滿清타도 對日전쟁 승리      | 漢唐번영, 滿清타도 對日전쟁 승리 |
|     | 과거의 고난    | 공산당의 반란, 대만인의 비애        | 공산당의 반란            |
|     | 역사적 기록    | 대일 8년의 항쟁, 228사건        | 대일 8년의 항쟁          |
| 현 재 | 우리는 누군가   | 중국인 또 대만인               | 중국인                |
| 미 래 | 언어 - 문화   | '국어', 중화문화, 대만문화, 대만사   | '국어', 중화문화         |
|     | 정치적 미래    |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중국통일(국가통일강령) | ?                  |
|     | 내셔널 아이덴티티 | 대만에서의 중화민국              | 중화민국               |
|     | 교육내용      | 중화문화, 중국사, 대만사          | 중화문화, 중국사          |
|     | 상징 - 부호   | 중화민국 국기, 국가 民國紀元        | 중화민국 국기, 국가 民國紀元   |

◆ 출처, 可兒弘明, p. 388

독자의 가두 대중동원을 개시함과 동시에, 기관지 발행, 정치단체로서의 등록 등, 조직화를 강화, 93년 8월, 국민당 제14회 대회직전에, 신당결성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신당은 명백히 '반 이등회'를 계기로 형성된 것이다. 앞에서 말한 '중화민국의 대만화'의 체제내 추진자는 다름 아닌 이등회였다. 한편 이등회로서는 그 자신은 스트롱 맨 장경국에 의해 박탈된, 당-국체제의 각 섹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외성인 리더에 대항, 개혁에 내몰리는 민진당의 주도권을 빼앗아, 그 대만내셔널리즘 아젠다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민주화와 그것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대만화의 챔피언 지위를 취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등회의 이러한 노선이 화미한 '대만내셔널리즘의 체제화'를 결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등회에 있어서도, '성적'은 무기였다. 이등회도 에스노내셔널리즘에 호소한 동원을 행한 것이다. 90년 봄의 정쟁에서도, 또 '신국민당연선'으로부터 본성인 의원을 이탈시키는데 있어서도, '대만인을 배반하지 마라'라는 언사가 사용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상 국민당으로부터 조소강 등의 이탈, 신당 결성은 포스트 장경국의 국민당 내 권력투쟁, 노선투쟁의 하나의 귀결임과 동시에, '중화민국의 대만화' 추세에 반발하는 외성인 에스니시티의 반발로서 파악할 수도 없다. 다음은 대만내셔널리즘의 아필을 내용으로 한 이등회의 중화내셔널리즘과 신당의 내셔널리즘의 연설 내용을 정리, 대조해 나타내고 있다. 신당을 지지하는 대중은, 이등회의 '중화민국'에 차례로 명료하게 떠오른 '대만'의 각인에 대하여 젊은 외성인 엘리트들의 반발에 감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가 민주화되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성립하는 것은 대의제이며, 대의제의 정

치공간을 채우는 것은 정당제다. 대의제의 성립과 함께 어떤 정당제가 성립하는가, 대만의 정치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면이다.

## 두 가지 에스노내셔널리즘과 중화민국 제2공화국의 행방

민주화 후에 성립하는 정당제가 어떤 내실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민주화의 타이밍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즉 민주화가 진행하여 정당제가 형성될 때 어떤 사회적 균열이 존재하여, 정당의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근대 서구에서는 계급이나 종교가 그것이었다. '

중층적 압축형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NIES의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함께 반공 전제체제아래서, 계급정치의 발현은 엄하게 억압당했다. 그 결과 민주화 단계에 들어섰으면서도, 노동운동은 활발하게 되었음에도 계급정당은 각각 의회 내에 뿌리내릴 수 없었다. 대만,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의회 진출과 그것에 의한 의회와 사회주의정당 자신의 변용이라는 의회정치 발전의 단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계급정치 봉쇄의 한편에서, 권위주의체제에 의한 대중배제는 계급과는 별도의, 정치화하기 쉬운 사회적 균열을 만들어 냈다. 이 '성적 모순'을 전후하여 두 가지의 에스노내셔널리즘이 나타나, 정당을 형성하고, 또 대의제도 가운데 정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성적 모순이라는 권위주의체제 아래 형성된 전후 대만 특유의 사회적 균열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동원돼, 권위주의체제를 움직여, 특히 민주화 후에 태어난 정당제를 성격 지워 나갔다.

출전 : 可兒弘明 外, 『民族で讀む中國』(朝日新聞社, 1998)에서 전재.

# 유럽행을 꿈꾸는 모로코인들

민족현장

피엘 벨무란  
(Pierre Vermeren, 국제 저널리스트)

매년 10만 이상의 모로코인들이 유럽대륙이라는 꿈에 그리는 신천지에 밀입국하려고, 자브랄탈 해협을 넘어려 한다. 그 가운데 수천 명의 꿈은 비극을 끝내기 일쑤다. 그러나 이 익사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익히 알면서도 모로코의 젊은이들은 모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모험으로 내몰고 있는가. 먼저,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낡고, 봉건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는 장래의 전망을 꿈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럽 제국이 텔레비전 방영을 통해서 보여준 매력, 그곳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환상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거리가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경을 넘어 이민에 나서는 것이 1990년대 마그레브 제국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서 대 히트한 팝송 '방황자여, 너희들은 어디로'의 테마였다. 이 이민찬가는 유럽이나 캐나다에 이주한다는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다. 1990년에 구주연합(EU)에서 센겐협정이 성립, 비자 발급이 엄격해짐으로써, 부유하고 자유스러운 유럽 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좌절감이 마그레브의 젊은이 사이에 생겨났다. 그 결과 특히 지브랄탈 해협을 건너 스페인으로의 밀입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협을 넘는 것은 대단히 위험이 높은 모험이다. '파테라'로 불리는 40마력 내지 60마력의 소형어선 이, 남쪽은 수도 라바트근교의 게니트라에서, 모로코북쪽 해안의 여기 저기에서 밀항에 나선다. 해협 경비가 엄해졌기 때문에 선장들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스페인과 모로코를 잇는 최단거리는 12Km밖에 되지 않으나, 이 거리가 위험스러운 수백 Km의 여행으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목적지가 대서양 상의 스페인 영 카나리아제도도 정해진 경우는, 특히 위험하다. 2002년 4월 말에는 모로코 서부 아카딜 만에서 배가 난파하는 사건이

일어나 여러 명이 사망했다.

모로코와 스페인의 경찰에서는, 순시정의 접근에 당황한 선장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던가, 파테라선의 난파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의 유체를 수용하는 작업이 일상화되고 있다. 2000년, 스페인 측에서는 72명의 유체가 수용됐고, 특히 271명의 사망이 생존자들에 의해 증언됐다. 모로코 신문에는, 이러한 북부연안에서의 참사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1998년 9월 26일에는 사상최대 급의 난파사건이 일어나, 38명이 해협의 파도에 휩쓸려 자취를 감췄다. 밀입국 피해자 유족회에 의하면 97년부터 2001년 11월 15일까지 3,286명이 해협연안에서 유체가 되어 발견됐다는 것이다. 가령 3명의 행방불명자 중에 1명의 유체 밖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5년 간 1만여 명이 해협에서 목숨을 잃는 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북부 연해에 있는 스페인에서 떨어져 모로코 쪽에 있는 스페인령인 세우다, 메리아 주변은, 긴박한 공기에 휩싸여 있다. 모로코 북부 주민이면 신분증만 보이는 것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밀입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우

다에는 매일 2만 5천 명이 밀입국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거기서는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이 스페인 요새로 구축된 지역에는 많은 이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모습이 크게 눈에 띄어, 매년 수천 명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스페인의 라호이 내 무장관은 2002년 5월 9일, “모로코정부에는 자국 미성년자들의 상황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모로코 정부는, 스페인으로의 이민은 모로코 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 (특히 중근동이나 아시아로부터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페인 경찰은 이민의 80%는 모로코 인들이라고 말한다. 아프리카 제국에서 이민은 비참한 경우에 놓여져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풍경이 되고 있다. 그들이 알제리아에서 사하라 사막을 넘어 들어오면, 해협 근처의 대두안이나 나돌로 보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항 준비가 이뤄질 때까지의 잠자리를 제공한다. 또 어떤 수속이나 구제수단도 없이, 즉각 알제리아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다. 최근 알제리 국경 근처의 이민수용소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 1만 명을 퇴거시켰다.

자기 나라를 떠나려는 모로코 인들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 상류계급 자제들은, 출입국의 자유를 획득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외국으로 유학하는 것이다. 국내 공립교의 생도들에 있어서는 사정은 보다 복잡하다. 2001년에는, 1만 4천명의 대학입학자격자(거의 4명에 1명 비율)이, 라바트의 프랑스 대사관에,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키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 스페인이나 캐나다로의 신청도 거의 비슷하게 많다.

학위취득자의 대부분은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모하메디아 기술학교(모로코에서 최고의 학교)를 2001년도에 졸업한 정보기술자는 전원

이 외국에 취직했다. 근래 수년, 학위와 지위가 있는 30대의 전문직이 재산을 매각하여 출국하는 예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기가 높은 목적지는 캐나다나 프랑스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 복잡하고 돈이 든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센겐협정 참가국의 비자를 취득, 눌러앉는 것이다. 모로코 스포츠 선수들은, 자주 해외원정의 기회를 이용하여 모습을 감춘다.

## 연간 1억 유로의 움직임

항공편 또한 해외탈출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 경우 비행기 티켓이, 해안 제국에서 몸을 팔기 위해 출국하는 젊은 여성들뿐 아니라, 유럽에 상륙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파리나 로마를 경유하는 오스트랄리아나 중국 행 비행기에 타, 고액의 수수료로 주고 찬 공범자의 손을 빌려, 공항에서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 7000유로의 비용이 필요하나,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육로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부롤탈 해협을 남쪽에서 북으로 건너는 트럭은 매년 10만대를 넘어 상당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라바트의 공업지대에서는 매주처럼, 변변치 못한 식료품을 지닌 젊은이들이, 섬유제품을 운반하는 트럭의 하물 칸에 몸을 실으려 한다. 또 운전수의 공모가 있으면(5000유로), 튀니스 경우로 시칠리아 해협을 건너는 장거리 버스(3000유로)나, 터키나 그리스를 지나는 장거리 버스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1년 8월에는 140명의 모로코 인이, 카사브랑카 남서의 엘 자티다에서 이 방법으로 유럽에 들어가려 했다)

또 개인적인 수단도 존재한다. (결혼, 가족 초청, 이태리에서의 고용계약, 왜곤 차 이용 등) 그러나 가장 잘 사용되는 것이 악명 높은 바테라 선이다. 모로코의 이민자들은 특히 경제가 정체하고 있는

북부 리푸산지의 나들에서 우자, 카사브랑카에서 남동의 베니 메랄, 카사브랑카에서 남서의 마라케슈라는 세 지역 출신자가 많다. 이들 농촌지역에서는 태어난 이후 바라를 보지 못한 사람도 많아, 이 모험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상상할 수도 없다.

모로코에서, 이들 이민 지원자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곳의 알선책들이다. 이 산업은 완벽하게 조직화되어 있다. 지방의 운반책이 (트럭으로 해안까지) 데려가면, 거기서는 다른 중개인이 이들을 인계, 바다가 조용해지기까지 숙식을 제공한다. 특히 선장(대부분은 선박 주인이 아닌 중계 역)이 승객 1명당 200-300유로를 청구한다.

해협 도항을 맡은 마피아에게 총액 1000-1300유로를 지불한 후, 이들 '핫라가'(과거를 태워 버린 사람)는 야간에 작은 배에 승선한다. 이 암 거래는 연간 1억유로의 거래를 만들어 내나, 대마초의 밀수에 비하면 대단한 액수는 아니다. 스페인에서는 최남단의 마을 다리파 근처나 카나리아제도 등에 숙식처가 마련돼 있다. 그것은 결국, 이 인신매매가 국제 마피아집단에 의해, 엄밀하게 조직되고 있음을 말한다. 스페인 마피아를 후원하고 있는 재외 모로코인들이 있다는 증언도 있으나, 그 규모에서 보면 모로코 측에도 공범조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밀입국 피해자 유족회는 사람들이 왜 불법으로 해외로 이주하려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시작, 이 해악과 싸우고, 인신매매의 공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논의의 장을 열고, 유럽평의회로부터의 지원도 받고 있다.

유족회는 2001년, 30세 이하의 젊은 모로코인 600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누가 이주를 권했고, 어떻게 계획이 구체화했는가를 밝히려 하고 있다. 대상이 된 것은 6개 그룹(소학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실업자, 근로자), 각 각 100명씩이다. 이 조사로 이주계획이 어릴 때부터 생겨났으며, 어른이 되면 이미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젊은이는 하나같이 유럽에 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그렇게만 되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조사대상 고교생의 82%, 고정수업이 없는 젊은이 94%가 유럽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정수업이 없는 젊은이의 62%는, 밀입국자로서 비자 없이 출국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모험을 감행하겠다고 대답한다.

## 최후의 선

2001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4만 4841명의 불법체류자(특히 많은 것은 모로코인, 콜롬비아인, 에콰도르인)가 본국송환 또는 국외로 추방됐고, 모로코인 2만 1706명을 포함 2만 2984명이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죄로 구류에 처해졌다. 또 1999년 12월 23일에 시행된 새로운 이민법에 의한 법적 수속을 거쳐, 1만, 2976명의 외국인들이 국외 퇴거를 당했다. 그 가운데 과반수는 모로코인들이다. 오래 전부터 외국에 이민을 내보낸 스페인에서는 자국으로 유입된 이민은 80년대에는 소수였으나, 2001년에는 124만 3919명을 정규 이민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가운데 46%는 EU의 이외에서 들어왔다.

이민은 스페인으로서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국 국장의 전력이 모로코대사였던 것은 상징적이다. 2001년 10월에 모로코 대사가 스페인에서 소환된 이래, 단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양국관계에 이민과 대마 거래가 그림자를 내리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구주평의회에 의하면, 최근 스페인은 불법체류자의 양성화정책이 실시돼, 2000년 3월 3일에서 7월 31일까지 24만 6천 건의 자진신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우다와 메리랴에서는 90%가 각하되었으나, 모로코인은 여전히 스페인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문도 있

기 때문에, 모로코정부는 현상을 유감스럽게 생각 하나, 스페인 정부는 중남미나 폴란드로부터의 이민을 안달시아의 농업부문 등에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중해 양안의 경제성장률, 빈곤, 인구의 차는 너무 커,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풍부한 고스타 델 솔의 연안에는 대마초 재배에 매달리고 있는 게다마지역과 같은 절망적인 곳이 있다. 2000년에는 안달시아 지방의 작은 마을, 엘 에히드에서 폭동이 발생했다. 이 폭동 소식을 텔레비로 알고, 인터뷰에 응한 돈벌이 노동자를 본 많은 모로코인들은, 바다 건너의 동포들의 존재를 실감했다. 그리고 그 후 수주간, 라바트의 스페인 영사관 앞에는, 비자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전에 없던 장사진을 이뤘다.

EU는 이러한 이민의 대량유입 움직임에 대해, 스페인이 센겐협정에 의해 국경을 지키려 하는데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구속한 불법체류자를 모로코로 송환, 1인당 300유로의 비용을 청구한다. 모로코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큰 불쾌감을 나타내, 모로코로서는 불법 이민대책에 성의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으며, 유럽측의 원조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속적인 가뭄으로, 모로코 경제는 대단히 어렵다. 인구의 거의 20%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스페인의 통계에 의하면 불법체제로 구속된 사람의 70%가 실업자라고 한다.

“지부랄탈 해협을 건너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지옥과 천당과를 가르는 최후의 선이다. 이 선을 넘으려 하는 사람은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도박이다. 생과 사의 도박이다” 고 생존자의 한사람이 2001년에 주간지 ‘두만’에 말했다. 유족회의 조사에 대답한 다른 한 사람도 말한다. “나는 파테라선에 3번이나 도전했

다. 한번은 체포됐었고, 나머지 두 번은 배가 난파하여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도전해 볼 참이다. 만약 내가 죽으면, 그것은 경제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리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족을 위해서다.”

이 사람들의 절망을 보면, 불법이민이 모로코에 있어 일종의 안전판이 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외로 나가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존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경제순환이 잘되면 국내에 남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긴다. 그러나 불법이민의 존재는 경제문제 뿐 아니라, 마그레브 제국이 독립당시부터 만들어 온 민족주의의 위기, 특히 국가건설의 좌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띄고 있다. 이것은 정치의 위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정신의 위기이다.

## 텔레비전이 방영하는 세계

1980년대까지 마그레브 제국의 사람들은 자급자족적 경제아래 생활해 왔다. 농촌 사람들은 주변 세계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살아왔다. 국영방송은 유럽식의 소비문명에서 거리를 둔, 국민의 마음 가운데 애국정신을 심어왔다.

엘리트나 이주자 이외에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대단히 소수였기 때문에, 외국인과 만날 기회도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 70년대에 핫산 2세가 관광객에 문호를 열었을 때도, 연간 입국자수는 유럽인 100만 명으로 제한돼 있었다.

1980년대 말에 파라볼라 안테나가 촘촘히 들어서게 되자, 그때까지 마그레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세계상은 한꺼번에 변했다. 튀니지아에서는 이탈리아방송협회의 라디어나 텔레비 방송으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알제리아에서는 프랑스의 뉴스를 듣는 습관이 생겨나, 모로코도 차차로 바깥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

텔레비전 가운데 서양세계가 그들의 시계를 넓히기 시작했다. 90년대가 돼, 위성방송이 알제리아에서 큰 붐이 일어, 모로코에서도 그것을 상회하는 성공을 거둔 것은 이러한 변화의 규모를 말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이 되자, 유럽의 위성방송이 상륙, 마그레브 사람들에게 대량의 영상, 특히 포르영상이 물밀듯 다가왔다.

아랍어 권의 시청자들을 겨냥한 특별 통로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 모로코의 젊은이들에게 계속되는 사회의 중압이나, 경제적 이유로 30세, 혹은 35세 전에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이 여기서 욕망의 대해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출세가도를 달리는 이민들의 성공담이 국영방송으로 방영되었다.

매년 귀향하는 이민들이 다양한 소비재, 특히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최신 자동차 등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유럽이 문을 두드려야 할 황금의 고향과 같이 비쳐진 것은 무리

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EU에 있어 마그레브는 미국에서의 멕시코와 같다. 2001년 현재의 멕시코 인구는 1억이나, 그밖에 3500만 명의 미국 거주자가 있다. 마그레브제국의 현재의 총인구는 7000만 명이나, 1000만에서 1500만 명이 유럽에 체제 해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모로코는 국내인구 3000만 명에 대해서, 해외거주자 500만에서 700만 명이 넘는다.

유족회 회장 카릴 젤마는 이렇게 경고한다. “불법 이민대책은 국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측에 의한 일방적인 압력이 아니라, 균형을 취한 쌍방의 대화에 근거한 남북협력의 일관성 있는 대처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대응으로, 이민의 단속이 아니다. 남측 제국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Le Monde diplomatique, 2002/6월 호에서

## ●●●● 시간안내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 사상과 혁명

조정남 편역 / 교양사회 / 값 10,000원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 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 혁명  
제4부 중국 혁명

#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은 유효한가

민족현장

제럴드 노에리엘  
(Gerard Noiriel,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교수)

과거와 현재에서의 민중의 폭력행동에서 다른 것은 과거의 노동자운동이 폭력을 억제, 그것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했음에 대하여, 오늘날 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적인 반란은 타격을 받는 것도 또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는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민의 통합'을 둘러싼 전문가의 논의는 점점 공허한 것이 되고 있다. '획일사상'을 단절하려 하는 사람은, 역사학적, 사회학적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치구상을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1세기 이상 나름대로 기능해 온 '이민통합의 공화제 모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다. 다양한 생각으로 미화된 과거와, 불안에 찬 현재와를 대립시키려는 방법은 역사가들에 있어 납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현재 인구의 상당수는 3세대 전에는 이민들의 자식이었다.

그리고 이들 수백만 사람들은 서서히 '프랑스의 가마솥'에 용해돼 갔다.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민통합의 '공화제 모델'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중심주의'라고 하는 논리적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보면 패자를 무시한 승자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 소리 없는 사람을 생각지 않고 승자의 궤적만을 추적하는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최근의 연구에 의해 실증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과거에 프랑스로 이동해 온 인간들의 태반이, 정주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들 수 천만 명의 사람들의 '공화제 모델'에 대한

의견은 공화국이 그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방법으로 표명되었다. 이민통합정책의 제1단계가, 외국인을 적절히 받아들여, 여기에 정주하고 싶다고 생각게 하는 것이라면, 공화국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에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에의 정주를 결정한 소수의 이민만을 대상으로, 이것을 '통합의 공화제 모델'로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역사의 알력과 아픔에 가득 찬 측면이 보이지 않고 만다. 노동시장의 저변에 쳐 박혀, 노동 재해의 위험에 둘러싸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배타주의나 경찰의 취조나 국외추방의 표적이 된 이민들은 통합을 위해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 왔다.

이민의 유입은 세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제2제정기(1852-70년)와 1920년대, 그리고 제2차대전 후(주로 1970년대)다. 대거 유입된 이민들은 공업발전의 필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번영의 시대에는 대량의 이주자가 필요시 되었으나, 그 반대로 위기의 시대(1880년대, 1930년대, 1980년대)에는 국경이 폐쇄되었다. 이러한 이민유입의 사이클은 노동공급국의 확대와 일치한다.

19세기에는, 이민들의 출신지는 주로 프랑스의 이웃나라들이었으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 프랑스 기업은 노동력을 유럽 전체(특히 폴란드)로부터 모으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공급원이 된 것은 식민지제국(주로 북아프리카)이었다.

공화제 ‘모델’이라는 말은 거기에 이민의 사회적 통합정책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나 1970~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이 이민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적은 없었다. 19세기 말 이래, 이주자와 그 자손들은 정부나 전문가가 뛰어들이지 않더라도 프랑스 사회에 융해되는 것이 가능했다. 다른 분야와 같이, 이민에 관해서도, 정치가 행하는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

20세기 이민대국인 프랑스와 미국의 비교는 이점에서 대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3세대) 통합 프로세스를 사회적 유동성, 종교관행, 모국어의 유지 등을 지표를 추적해 보면, 정치제도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실은 통합의 제일의 담당자가 이민 자신인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킨다.

이민통합의 프로세스는 지역교류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적 출신, 취로의 기회, 감정적이고 상당히 축적돼 있는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18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새로운 경기확대는 대량의 이민을 불러들여, 그 이전에 정주해 있던 이민들의 사회적 상승을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사회적 메카니즘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곧바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단기간에 이민과 그 자손이 다른 주민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량의 이민을 받아드린 민주주

의 제국은 이 원칙을 준수, 사성에 따라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민통합의 ‘성공 예’가 되어 왔다.

## ‘외국인’의 도입

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통합의 공화제 모델’ 개념은 결국, 민주적 사회의 기본적 원리의 실현을 향한 공화제 국가가 사용한 수법을 의미한다. 프랑스 독특한 사정을 이해하기에는, 제3공화제(1870~1940)가 행한 결정적인 역할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말에 제3공화제의 지도자가 부심한 것은 인민계급을 어떻게 하여 국민국가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두 가지 종류의 개혁에 의해 수십 년 내에 달성되게 된다.

먼저, 그들의 정치참가(시민성)가 촉진된다. 선거법이 개정돼, 상당수의 인민계급 출신자가 하위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

출판과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돼, 이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러한 노동자와 농민은 집단이 되어 정치에 개입할 권력을 손에 넣어,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한 변화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제3공화제는 그 한편에서, ‘사회보장’ 정책의 전개에 의해 인민의 통합을 촉진, 자본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변동의 파괴적 영향을 완화시키려 한다. 국가에의 귀속(다시 말하면 프랑스 국적의 보유)이, 사회적 권리의 획득에 직결하게 된 것이다.

이민(이 말이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였다)의 증가는 이러한 민주화의 직접적인 귀결이었다.

제2제정기의 종료까지, 국내의 주된 대립 축은 지방 명망가와 ‘위험한 노동자계급’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영역에 있었다. 당시의 노동자는 전혀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프랑스

인' 이든, '외국인' 이든, 정부에 있어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프랑스 국가에 귀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하여 외국인, 국민에 부여된 권리를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선거법에 의해 정의되게 되었다.

프랑스공화국이, 왜 이러한 차별정책을 아주 엄격하게 추진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이 모든 구제제하의 동업 조합이나 행정기구를 해체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시 정부는, 종교나 민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지역이나 종교, 직업에 근거한 대립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남아, 개별적 이익을 둘러싸고 싸우는 시민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스스로의 차이를 표현, 집단적인 귀속의식을 키우기 위해 개인에 남아있었다. '재료'는 아주 이른 시기에 두 개의 방향으로 조종됐다. 하나는 계급투쟁(경영자와 노동자)이며, 또 하나는 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이다.

19세기 말 이후에 대량 이민이 유입하자, 이 구별이 강조될 소지가 가능케 됐다. 제3공화제에서의 인민계급에 저항의 힘이 부여된 결과, 대기업은 필요한 노동력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미성년자, 미숙련 노동자, 농업노동자, 가사사용인 등 용통이 편리한 프롤레타리아트를 확보키 위해서는 국민에 부여된 사회적 권리를 가지지 않고, 그러한 경우에 집단으로 항의할 수단을 결여한 주민을 '만들어 낼'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남서부 루지온 지방의 포도원에서 북동부의 모젤 지방의 제철소에 이르기까지 경영자는 이탈리아나 폴란드, 식민지에도 노동력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통합과 외국인 이민의 사회적 배제는 코인의 앞뒤의 관계와 같다. 이 끊을래야 끊기지 않은 관계는 188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행해진 노동시장의 보호정책을 보면 아주 잘 이해될 것이라. 공화국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노동을 허가제로 했다. 정부는 이것에 의해 이민의 유입을 줄여, 경기 후퇴기에는 이민의 입국을 금지, 쇠퇴산업으로 노동력을 돌려, 국민의 인기가 높은 산업부문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단을 확보했다. 같은 시기, 프랑스 인에 한정된 취직 처인 '공무원 직'을 확대하는 조치가 거듭돼, 이러한 제도를 특히 강화했다.

## 제2세대의 이중성

공화제에서의 차별 시스템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면, 프랑스 국적을 둘러싼 문제가 늘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국적법의 근본을 규정한 1889년 법은 외국인의 프랑스국적취득을 이전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민의 통합에 커다란 역할을 행했다. 그러나 이 법제도로, 부동의 통합정책이 확립되었다고 보면 잘못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제도는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의 힘은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는 생각에 빠진 지도자가, 출생률 저하라고 하는 국난에 처해 징병 대상자를 증가하기 위해, 공동체의 벽을 조금 열려고 한 것이다. 공화국은 그것과 동시에, 국적에 관련한 입법조치를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프랑스인의 사회적 배제를 강화했다.

1889년부터(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귀화한 외국인들을 2급 시민으로 취급했다. 그들은 완전한 시민권을 얻기 전에 10년 간의 '연수'를 강요당했다. 이러한 국민과 외국인과의 구별은 프랑스 인을 다양한 계층으로 분단하게 되었다. 공화국은 '출신국'에 근거한 차별 시스템을 도입, 이것을 돌파구로 하여, 대독협력정권을 이끈 페단 장군의 지지자가

외국인 배척과 반유대주의 정책을 전개하게 된다.

통합의 공화제 모델은, 그것이 국민국가의 형성에서 생긴다고 하는 인식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제3공화제는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명확한 일선을 긋는 것으로, 국익의 이름 아래 외국인차별정책의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이나 극우 정당과, 인권의 이름아래 차별의 원화를 요구하는 혁신정당과의 대립으로, 새로운 쟁점을 불러 일으켰다.

20세기를 통하여, 이민에 관한 공화국의 정책은, 이 양대 세력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그 후의 역사를 개괄하면, 진보적 조직의 투쟁, 무역교류의 진전, 인권사상의 사회적 침투 등에 의해, 외국인차별은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완화된 채 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한편에서, “제2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강화되어 갔다. 이민의 자식들은 1950년대부터 70년대라고 하는 번영의 시대에 고용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아이들이기도 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적을 가지나, 일반적으로는 노동자계급에 속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의한 사회적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그들이 통합에 있어서 만나는 곤란은 오늘날의 노동자 전반에 공통하는 문제나, 이민출신의 일부 젊은이들에 있어서는 특히 어려운 문제였다.

프랑스 사회는 1950년대 이후, 커다란 변용을 맞이하고 있다.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 위치하는 사회적인 중간층(15세부터 25세 사이의 ‘젊은이’)이 출현, 대규모 집단주택과 도시화 우선지구가 증가했다. 그 결과, ‘제2세대’가 사회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마스쿠크는 이 그룹의 일부를 점하는데 지나지 않은 마구레브 이민 출신의 젊은이들만을 크게 취급했다. 그들은 늘 민족적 출신, 태반이 실천하고 있지 않은 종교, 그리고 많은 프랑스인과 같이 스스로에게는 무관계한 국제정치문제와 연

결된 것으로, 법에 의하지 않은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차별정책의 희생자가 됐다.

이 젊은 노동자들은, 모든 ‘제2세대’에 특유의 사회학적 특징을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다. 양친이 저항하는 힘도 없으면서 극도의 종속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매일과 같이 주변으로부터 소외된 것을 체험함에 따라, 그들은 사회적인지를 강하게 요구하게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기들을 경멸하고 있는 세계에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일부에 의한 폭력적 행위는 그들이 그곳 사회에의 통합을 행하고 있어도, 주어진 역할을 감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기에 프랑스로 이주한 이민의 자식들은 1950년대에는 이러한 통합과 반역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공산당이라는 정치적 조직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과거와 현재에서의 민중의 폭력행동에서 다른 것은 과거의 노동자운동이 폭력을 억제, 그것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했음에 대하여, 오늘날 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적인 반란은 타격을 받는 것도 또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는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민의 통합’을 둘러싼 전문가의 논의는 점점 공허한 것이 되고 있다. ‘획일사상’을 단절하려 하는 사람은, 역사학적, 사회학적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치구상을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그것을 부르조아적 질서에의 ‘통합’을 표방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 행동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방법으로 민중의 통합과 자율성의 회구를 표명키 위해서는 집단적 행동의 새로운 구조를 추진하도록 정치구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

출처 : Le Monde diplomatique, 2002/1월 호

## 축구, 그 마법의 주문

무게 410g, 둘레 70cm. 오각형 조각 열두 개와 육각형 조각 스무 개를 꿰매 만든 첨단과학의 결정체인 축구공이 전 지구를 뒤흔든 6월이 지나갔다. 60여 억의 인류가 그 작은 공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일희일비했던 꿈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은 시작부터 여러 면에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2002년 월드컵은 새 천년을 맞아 지구적 평화와 공존을 향한 첫 번째 국제적인 행사이며, 유럽과 남미에 편중되어 온 월드컵이 그동안 축구의 변방이었던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 개최되어 온 인류의 축제인 월드컵의 온전한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월드컵을 기화로 대륙별 균등개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어 2010년에는 아프리카의 '검은 월드컵'을 기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바야흐로 화합을 위한 월드컵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가능해졌다. 또한 월드컵 개최 역사상 전무한 국가간 공동개최, 그것도 역사적 적대적 감정의 골이 깊게 남아 있는 멀고도 가까운 두 나라간의 공동개최라는 형식으로 치러진 대회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역대 어느 월드컵보다 훨씬 강했다. 흔히 전투에 비유될 정도로 격렬하고, 실제로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전쟁과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축구가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일약 재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축구 기원의 역사와 그 부정적 속성을 도외시한 지나친 찬사일까?

이 진 원 /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축구와 관련한 통계를 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축구에 사용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동하고 있으며, 엇비슷한 수의 사람들<sup>1)</sup>이 이 작은 공을 더 잘 차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이 펼치는 경기 수는 연간 2000만여 게임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월드컵 대회 시청자 수는 예선을 포함하여 연인원 600억 명을 넘어서고 있고, 1990년 이탈리아와 1994년 미국월드컵 때의 TV시청자 수는 각각 260억 명과 320억 명에 이르렀다. 이번 월드컵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인원 4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기를 관전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60억 명 남짓한 지구촌 주민 한 사람이 평균 예닐곱 번 중계방송을 시청한 셈이다.

월드컵에 대한 높은 관심은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고 또 가장 사랑 받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임을 말해준다. 1904년 창설 당시 유럽 대륙의 7개 국가로 출발한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금은 유엔보다 더 많은 200여 남짓의 회원국-엄밀히 말하자면 각 국 축구협회-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를 증명한다.

축구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흥미 있는 통계가 있다. 축구의 나라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주말 축구에 승리하면 다음주 생산성이 12.3%가 증가하고, 패배하면 사고 발생률이 15.5%가 증가한다는 수십 년 동안의 평균적 통계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브라질만의

일은 아닐 듯하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가 다름 아닌 축구'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렇다면 왜 축구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어떻게 그것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을까. 축구 애호가들로서는 공과 발이 어우러져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는 축구경기 자체의 매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축구만큼 열광적인 스포츠도 없다. 이는 축구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축구가 개별국가 혹은 전 세계 수준에서 인기스포츠로 발전하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과 경기 외적인 요인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축구의 기원과 발전

### 온 인류의 전통경기, 축구

현재의 축구에 대한 열광은 하루아침에 태어나 형성된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기까지 적어도 1백년 이상의 세월이 융축돼 있다. 그만큼 축구에 얽힌 사연도 가지가지다. 축구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발전과정을 거쳤으며, 그 열광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함의는 적지 않다.

축구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영국이 현대축구의 발상지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영국이 축구를 고안해 낸 것도, 축구의 역사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도 아니다. 비록 규칙은 달랐지만 축구 혹은 이와 유사한 경기는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이 오래 전부터 즐겼던 민속경기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축구의 전통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할 말이 적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삼국시대에는 '농주(弄珠)'를 발로 갖고 노는 놀이인 '축국(蹴鞠)'이 있었으며,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유신과 김춘추도 축국을 통해 처남-매부 사

이가 됐다는 기록이 있다. 축국은 중국에서 전래한 것으로 사가들은 말한다. 기원전 한(漢)나라 때 축국이 성행했으며, 당(唐)나라 때는 돼지나 소의 오줌보에 바람을 넣어 공터에서 차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에도 축국과 비슷한 '게마리'라고 하는 민속놀이가 지금껏 전해진다.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하페스톤'을 축구의 기원으로 본다. 기원전 7-6세기에 행해진 이 경기는 골라인을 지키는 두 팀 사이에서 벌어져 요즘 축구와 닮은 점이 많다.

이런 전통경기들이 오늘날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이 바로 영국을 통해서였다. 영국은 지역마다 서로 달랐던 축구 경기의 규칙을 통일해 널리 전파한 나라다. 1863년에 축구를 즐기던 귀족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이 모여 규칙을 통일하고 축구협회를 설립한 것이 그 시초였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인이 자국의 축구가 1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은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축구(football)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1424년에 이르러서다. 이는 이 해에 발간된 스코틀랜드 법령집에 "왕이 축구를 금하며, 위반자에게 4펜스의 벌금을 물린다"는 포고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옥스퍼드 대사전).

### 계급 대립으로 성장한 현대 축구

초창기에 축구는 영국에서조차도 선수나 관중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그다지 평이 좋지 않았다. 16세기 엘리엇은 "이처럼 야만적 폭력이 난무하는 운동은 없다"고 했으며, 셰익스피어도 희곡 리어왕에서 '더러운 축구선수'란 말을 욕으로 사용했을 정도이다. 처음의 폭력적 오명을 벗어 던지고 축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며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은 것은 19세기 무렵이다. 사커(soccer)란 명칭도 이 때 처음으로 생겨났다. 소수 엘리트에 의해 시작된 현대축구의 대중화 과정에서 1883년은 분수령을 이룬다. 이 해 FA컵 결승에서 노동자 계층의 선수로 구

성된 프로팀 ‘블랙번 올림픽’이 사립학교 출신의 아마추어로 구성된 ‘올드 이토니안’을 2-1로 꺾고 축구의 주인이 노동자 계급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 시기부터 축구는 더 이상 소수 엘리트의 스포츠가 아니었다.

축구를 즐기고 관람하는 사람들의 수는 해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출범 초기 여름 스포츠인 크리켓에 밀려 겨울에만 경기를 해야 했던 축구가 크리켓은 물론 그 사촌 격인 럭비까지 따돌리고 영국의 국기이자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의 원인으로 철도와 방송매체의 발달 등의 기술적 발전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던 노동자 계급이 축구에 대해 느꼈던 매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대표적인 상류층 스포츠인 럭비와 크리켓 등 당시 축구와 경쟁하던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 축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축구의 대중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축구에서는 공수의 교체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긴 전진 패스가 허용된다. 절대적인 수세에 몰려 있던 팀이 한 번의 전진패스로 역습해 한 순간에 승리를 낚아챌 수 있는 것이다. 기껏해야 두 세 골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기에서 이런 특성은 축구의 의외성을 높지게 된다. 대중이 환호를 보냈던 것은 바로 이 의외성이었다. 명목상 현대사회는 계층상승의 길이 열려 있는 사회다. 하지만 평범한 하층계급 자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층상승을 이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없다면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리 수단을 찾게 마련인데, 축구가 바로 그 수단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영국식 축구의 특징인 긴 전진패스와 역전의 장면을 지켜보며 그들은 현실에서의 좌절의 경험과 그 결과로 농축된 응어리가 풀리는 후련함을 느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부터 축구는 보다 조직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개인기보다 패스를 중시하는 팀 플레이가 각광받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는 집단의식을 강하게 고취하는 축구의 특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 반칙을 써서라도 승리를 쟁취하려는 경향 역시 강해졌다. 신체접촉이 많은 스포츠인 축구는 보다 파워풀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모해갔다. 이는 축구의 의외성에 매혹됐던 노동자 계급이 그들의 기호에 맞춰 축구를 변형시키고자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축구가 주로 노동자 계급의 스포츠로 인식됐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현대축구를 만든 것은 엘리트였지만, 축구의 발전은 엘리트와 노동자 계급 간의 대립 속에서 우위를 점한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 축구의 세계화

축구는 영국의 ‘발명품’임과 동시에 ‘수출품’이기도 했다. 19세기 세계 곳곳에 진출한 영국인들은 모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스포츠를 현지에 전파하는 축구 ‘선교사’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혁명으로 국력이 팽창한 영국의 상인·군인·선교사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으며 이들을 통해 ‘공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축구를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등에 소개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 유럽 제국들의 세계를 향한 팽창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했으며, 축구의 보급도 이를 통해 가속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세계는 유럽 열강들에 의해 분할되었는데, 특히 식민지 경영에 몰두한 영국은 세계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했다. 이에 기반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영국의 기술자, 선교사, 공장 경영자, 군인, 외교관들은 축구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축구는 처음에는 유럽으로, 그 다음에는 남미로 확산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국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놓

있던 경험이 있는 미국의 경우 축구는 그다지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했던 반면, 영국의 직접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던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 지역에서는 축구가 국민 스포츠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한국에 축구를 처음으로 소개한 국가도 영국이다. 1882년에는 군함 '플라잉 피시호'의 승무원들이 한국에 상륙, 심심풀이로 축구를 한 것이 한국에 축구를 전파한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세기 초 중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현대 축구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창설과 월드컵 개최를 통해서 급속한 외형적 성장을 계속해왔다. 특히 축구의 양적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월드컵이다. 1930년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처음 개최된 월드컵의 역사는 FIFA의 창설과 때를 같이한다.

1904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7개국이 파리에서 FA회의를 통해 FIFA를 창설하면서 "축구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를 열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 세계적인 대회 구상은 FIFA의 초대 회장인 프랑스의 로베르 게랑에 이어 1906년 2대 회장인 D.B. 윌포르 때에도 추진되어 오다가 FIFA의 3대 회장으로 프랑스의 줄 리메가 취임하면서 가시화되었다. 1920년 FIFA는 독자적인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계획을 발표했고 10년 뒤 첫 대회가 열리게 됨으로써, 1905년 처음 FIFA에 의해 구상된 월드컵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까지 16회 대회를 치른 월드컵은 외형만 보더라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 13개국만이 참가한 우루과이 대회서는 총 43만 4,500명이 운동장을 찾는데 그쳤지만 1994년 미국 월드컵은 24개국이 참가, 본선 52 경기서만 모두 358만7,538명(경기 당 평균 6만8,991명)으로 세계 최대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1970년 멕시코대회부터는 기술의 발달로 TV 위성중계가 가능해짐

으로써 40억 전 세계인이 동시에 경기를 시청,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처음부터 흑자대회로 자리잡은 월드컵은 1978년 아르헨티나대회 이후에는 대회마다 수입이 평균 54%씩 증가했다. 1978년 당시 3,686만



줄 리메

달러였던 대회 수입이 1994년 미국 월드컵서는 2억 2,500만 달러로 약 65배나 늘어난 것. 미국대회조직위에 따르면 관광객과 고용창출, 광고효과 등으로 40억 달러(약3조2,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월드컵은 어느 나라나 유치하고 싶은 매력적인 행사가 된 셈이다.

그러나 월드컵이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다. 34년 이탈리아월드컵은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선전하고 정당화하고자하는 야심으로 유치돼 월드컵의 스포츠 정신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켰고, 38년 프랑스대회 이후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중단되었다가 12년 만에 재개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74년 서독대회는 2년 전 뮌헨올림픽서 발생한 '검은 9월단 테러사건'으로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서독 당국은 군부대를 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를 펼쳤으며, 이 때문에 관중은 6번이나 검문을 통과해야만 경기를 관전할 수 있었다. 또한 94년 미국월드컵대회에서는 자책골을 기록했던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는 귀국 후 괴한에게 피살당하는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참사를 빚기도 했다.

## 축구의 특성과 집단역식

### 축구의 특성

이처럼 우리를 열광케 하는 축구의 매력은 무엇일까. 축구에 대한 관심도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축

구의 마법을 풀고자 노력했다. 우리에게 축구라는 경기가 친숙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축구는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고, 참가인원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며, 도시의 공터 어디에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축구가 대중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는 큰 이유가 되었다. 더불어 축구와 비슷한 형태의 경기는 유서 깊은 민속경기라는 점도 '영국식' 현대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축구 그 자체가 지닌 특징적 매력도 빼놓을 수 없다. 축구는 가장 물리적인 접촉이 많은 대표적인 경기이다. 많은 스포츠에서 신체적 접촉은 금지되나, 축구는 솔더차지 등의 일정정도의 물리적인 공격을 인정하는 다분히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경기로 집단 내 혹은 집단 간 생존을 위한 전투에 대한 원시적인 충동을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집단 경기로서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는 경기가 바로 축구다. 흔히들 기본 포메이션이라는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는 11명의 플레이어들의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내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의 기본 틀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축구는 지피지기의 원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경기로서 또 한번 전쟁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공격적이며, 집단적이고, 과학적이기까지 한 축구가 더욱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중요한 특성은 바로 축구가 가진 결과의 의외성이다. 설 새 없이 공격과 수비가 되풀이되고, 격렬한 몸싸움이 장시간 계속 되어도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찰나에 터지는 한 두골에 불과하다. 때문에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승패를 예측하지 못한다. 골이 많이 터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농구에 비해, 역설적으로 축구는 한 순간에 역전이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열광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직접 뛰는 선수나 감독뿐만 아니라 특정 팀

을 응원하는 관중 모두를 경기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경기는 비단 축구만이 아니다. 모든 경기는 관중들을 몰입시키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축구가 특별한 점은 스포츠일반의 이런 특성이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경기이기 때문이다. 11명씩 편을 갈라 상대를 몰아 부치면서 내지르는 슛과 허점을 파고드는 기습 돌파, 거친 태클 등은 경기를 하는 선수뿐 아니라 관중석의 군중들까지 흥분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이와 연동하여 축구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양산한다.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고,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란 식이다. 즉, 축구는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을 자극하여 우리편과 상대편을 분명하게 분리함으로써, 인종이나 민족 또는 지역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경향이 매우 강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 축구와 집단의식

축구는 집단적 일체감을 고양시키는 가장 좋은 스포츠다. 고양된 집단의식 혹은 집단적 일체감은 종종 극단적인 방향으로 표출하여 건장을 수 없는 폭력양태를 띠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홀리건(hooligan)'들의 난동이다. 홀리건은 축구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난동과 파괴행위(Football Hooliganism)를 통해 자신들의 '향락'을 추구하는 경기장의 난동꾼이다. 일부 광적인 팬들에 의해 벌어지는 축구장 안팎의 난동은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영국인들 스스로가 이를 '영국 병'(English Disease)으로 부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강한 전염성에 있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등의 많은 유럽국가들이 홀리건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가장 끔찍한 홀리건 참사는 1985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리버풀(잉글랜드)과 유벤투스(이탈리

아)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발생했다. 흥분한 잉글랜드 응원단이 이탈리아 응원단을 향해 돌진, 무너진 담장에 39명이 깔려 죽고 4백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홀리건의 폭력성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잉글랜드 홀리건은 각 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등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각 국 정부의 노력으로 90년도 초반 주춤하던 홀리건의 난동은 90년대 중반에 다

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98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는 이들의 난동이 일상화되다시피 하였다. 홀리건은 그 자체로도 왜곡된 집단단식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홀리저니즘에는 인종차별주의자, 극우 민족주의자 등과 같은 인류의 공존을 파괴하는 극성분자들이 축구 열성팬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홀리건은 극우 민족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한일 월드컵에서는 홀리건의 출몰은 없었으나 러시아에서는 자국 팀의 패배에 흥분한 열성 팬들이 시내에서 폭동을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축구를 매개로 한 집단적 광기는 종종 '난동'을 훨씬 능가하는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벌인 축구 전쟁이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1969년에 멕시코 월드컵 지역 예선전에서

**홀리건은 축구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난동과 파괴행위를  
통해 자신의  
'항략'을 추구하는 경기장의 난동꾼이다.  
일부 광적인 팬들에 의해 벌어지는  
축구장 안팎의 난동은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영국인들 스스로가 이를 '영국 병'  
으로 부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강한 전염성에 있다.**

맞붙었다.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소수의 지배층이 대부분의 땅을 소유한 엘살바도르는 많은 수의 농민이 근접 국인 온두라스로 이주하여 미개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온두라스 경제권을 좌지우지하던 상태였다. 이를 온두라스 국민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한 온두라스 정권은 해소방안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30만 엘살

바도르인의 토지를 몰수하였고, 양 국가의 민족감정은 점차 대결양상을 띠고 있던 참이었다.

1차 예선전에서 양국은 환희와 비탄으로 극명하게 엇갈렸고, 그 경기 직후 울분을 참지 못한 엘살바도르의 아멜리아 블라니오스라는 한 소녀가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의 장례식은 대통령과 군 장성, 장관들이 참석하여 침통한 가운데 치러졌고, 엘살바도르 신문 <엘 나시오날>은 소녀의 죽음을 이용해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이후 온두라스가 원정 경기를 하러 엘살바도르에 왔을 때 엘살바도르 군대가 경기장을 에워싸 삼엄한 분위기에서 경기가 진행되었고, 경기가 끝난 직후 흥분한 양국 관중들에 의해 난투극이 벌어져 원정은 온두라스 축구 팬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추방되었다.

경기에 지고 자국 응원단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소식을 접한 온두라스의 테구시알파 시민들은 엘살바도르 교민들에 대한 살인, 약탈, 방화를 자행하기



◆홀리건의 난동

시작했다. 30만 명에 이르는 엘살바도르 교민들 대부분은 국경 너머로 피했으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수십 명이 피살됐고 수천만 달러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축구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이다. 다음날인 1969년 6월 16일 온두라스 정부는 엘살바도르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고, 엘살바도르는 18일 세계 인권위원회에 온두라스의 살상 행위를 제소했다. 그리고 23일에는 국교단절에 이르렀다. 3차 전에서는 엘살바도르가 승리했으나 1969년 7월 13일 새벽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 국경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엘살바도르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두 나라간의 긴장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이처럼 축구에 의해 고양된 집단 의식은 종종 인종주의나 민족주의 형태로 쉽게 전환된다. 그 과정은 일부 집권층과 결탁한 엘리트층, 언론 등에 의한 민족감정의 자극이 선행하고, 이는 더 큰 형태의 폭력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드컵이나 국제 대회 때 언론들은 스포츠 정신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국 팀이 상대 팀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형태로 선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패배한 팀의 응원단들은 상대팀 응원단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분풀이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 축구의 내셔널리즘

국경을 허무는 거대한 정치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유럽에서 축구는 내셔널리즘을 표출하는 마지막 형식으로 보인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국기인 유니언 잭을 흔드는 것은 극우적인 행동으로 비쳐진다. 유니언 잭은 과거 제국주의시대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가 펼쳐지는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는 쉽게 유니언 잭을 볼 수 있다. 또한 나치즘의 홍역을 치르면서 국호를 부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는 독일인들도 축구장에서만은 '도이칠란트'를 연호한다. 독일인에게 있어 축구는 마르크화와 더불어 전후 독일 부흥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다. 유럽에서의 축구와 내셔널리즘의 관계에 있어 한 가지 흥미 있는 것은 미국이 못하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더 열광적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인터넷 잡지인 슬레이트닷컴에 의하면 "만약 미국이 올림픽에서처럼 축구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면 세계 각국의 민족주의는 반미감정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을 정도다.

미국인들의 입장도 미묘하긴 마찬가지다. 미국의 4대 스포츠는 야구, 미식축구, 농구, 아이스하키인데, 왜 축구가 꼽히지 못했을까?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곳에도 민족감정이 개입된 흔적이 역력하다. 19세기 야구와 미식축구 등이 미국 고유의 스포츠로 각광받은 반면, 축구는 영국의 스포츠로 인식됨으로써 경시되었다. 이 시기 미국사회에는 야구, 미식축구, 복싱을 좋아해야 미국인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

게다가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적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높은 축구에 대한 반감까지 생겨나 더 이상 미국에서 축구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지 못했다.

축구가 고양하는 집단적 일체감과 내셔널리즘은 흔히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초기 축구체제를 정비했던 영국의 엘리트들은 축구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축구를 통해 하층계급의 무분별한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보려는 목적에서였다.

축구가 상류층에서 노동 계급으로 확산된 것은 모범적인 노동 계급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고용주들은 축구 등의 스포츠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노동 규율을 부과하고 싶어했다.

그 결과, 아스날 팀은 울리지의 로얄 아스날(왕립 병기 창고) 노동자들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은 랭커셔와 요크셔 철도 노동자들로 구성됐고,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 팀은 탬즈 철강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지역주의와 공생하면서 발전한 영국과는 달리 축구의 부르주아적 성격이 오래 지속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축구는 지역주의보다 국가적 차원의 민족주의와 결합되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대륙 내 혹은 대륙 간 국제대회가 잇따라 창설되면서 축구는 스포츠 민족주의의 전형이 되었다.

## 축구의 정치: 지배의 문화? 저항의 문화?

### 지배의 문화로서의 축구

사회구성원의 일체감과 집단의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특성으로 인해 축구는 오랫동안 기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고대 로마 지배자들의 지배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로마의 지배자들은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콜로세움(노천 원형 극장)에 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과 오락을 제공했다.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남미의 군사정권이 정치선전과 통제수단으로써 축구를 이용하고자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나라의 정부가 자국 내의 갈등을 봉합하거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월드컵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시민 학살을 무마하려 한 1970년의 멕시코, 양민 살해를 호도하려 한 78년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장사와 문화를 결합한 98년의 프랑스가 좋은 예다. 예컨대 1962년 칠레의 호르헤 알레한드라 정권은 인플레이와 생활수준 하락에 반발하여 일어난 격렬한 파업에 맞서 월드컵을 이용해 파업 파괴를 의도했다.

1966년에는 영국이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을 국민들의 생활 수준 하락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는데 악용하기도 했다. 당시 해럴드 윌슨 노동당 정부는 출범한 지 2년도 안 돼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했는데, 윌슨 정부는 국민들이 자국의 월드컵 우승에 관심이 쏠려 있는 틈을 타 임금을 동결했다. 윌슨은 자국의 승리 군단을 대중적 분노의 방패막이로 내세웠던 것이다.

1976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쿠데타를 통해 호르헤 비델라 정부가 등장했다. 비델라 정부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을 자신의 인권유린과 잔혹성을 감추고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했다. 많은 나라들이 아르헨티나에서의 월드컵 개최를 반대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FIFA는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을 개최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sup>2)</sup> 우여곡절 끝에 열린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군사 정부는 승부까지 조작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sup>3)</sup> 그들은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군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누그러뜨려 줄 것이라 믿었고, 경기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자국 팀의 승리감에 도취된 국민들은 실제로도 그러했다. 그 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예정된 우승을 차지했다.

축구 황제 펠레는 이처럼 월드컵이 억압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항

의 표시로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을 끝으로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았다. 그는 "1971년쯤 해서 나는 조국의 실정에 대해 진실의 일부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고문, 살인, 실종 등. 나는 군부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은 브라질 대표 유니폼을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고 말하며 그 이후로는 월드컵 출전을 거부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축구는 식민지배의 도구로 이용되곤 하였다. 애당초 축구는 서구문명의 산물로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고 확산되었고, 축구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는 거의 모든 국가의 전통 놀이였기 때문에 흡수가 쉬웠을 뿐만 아니라 축구가 불려일으키는 집단적 일체감은 피식민지민들을 포섭하고 융화시키는 데 훌륭한 기능을 수행했다.

## 저항의 문화로서의 축구

이와는 달리, 피식민 국가의 경우, 축구경기는 지배국가에 대한 저항의 문화로서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 모두는 축구가 사회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프랑코 독재하의 스페인에서 축구는 저항의 수단으로서의 한몫을 했다. 프랑코는 바스크 독립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는데, 1970년대 초 바스크에서 축구 경기는 민족주의와 반 프랑코 정서를 표출하는 수단이었다. 바스크의 애스레틱 빌바오(Athletic Bilbao)와 레알 소시에다드(Real Sociedad) 팀의 경기는 늘 팬들의 항의 배너 물결과 함께 치러졌다.

선수들 또한 대개 그 지방 출신이었고, 이런 대중의 정서와 떨어져 있지 않았다. 축구 선수들은 정치수 사면을 요구하고, 억압에 항의하는 배너를 들고 경기장을 돌아다녔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클럽 팀은 오랫동안 파시스트와 군주제를 지지해왔는데, 그 때문에 이 팀은 바스크에서 경기를 치를 때마다 관중들로부터 살인마 에스파냐라는 조롱과 야유를 받았다.

## 화합의 문화로서의 축구

축구가 늘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표면적인 갈등을 순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스페인의 축구는 축구가 지배의 문화를 그리고 저항의 문화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합의 문화를 일구어낸 아주 좋은 사례다. 스페인은 지역마다 문화와 역사가 크게 다르다. 분리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북부의 바스크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동부 해안의 부유한 카탈루냐 지역과 이슬람문화가 짙게 남아 있는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은 수도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과 대별된다. 특히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어 대신 독자적인 언어(카탈루냐어)를 쓰고 자체 축구대표팀을 구성, 외국대표팀과 친선경기를 벌인다.

프로축구의 양대 산맥인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치열한 경쟁도 서로 질수 없다는 뿌리 깊은 지역대결 의식에서 자양분을 얻는다. 클럽 팀 간 경쟁이 너무 심해 대표선수 소집에도 비협조적이라 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낸다는 말이나 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대립이 이전과는 달리 경기장 폭력이나 지역 간 유혈충돌로 비화되는 일은 없다. 축구를 통해 국민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대리 발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축구는 지역갈등을 순화시킴으로써 지역 간 균등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축구는 스페인의 오늘을 있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1982년 월드컵을 유치한 것은 프랑코 사후의 사회혼란을 막고 경제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역갈등이 심각한 정치, 사회문제가 된 것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700년 이상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1922년 독립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의 영국에 대한 증오심은 뿌리가 깊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관계는 간혹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비되기도 한다. 아일랜드 인들은 늘 잉글랜드와 맞붙는

나라를 응원하고 모든 분야에서 영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축구만큼은 축구중주국에 몸을 맡긴다. 아일랜드 프로리그 수준은 한국 K리그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다. 유망 선수들이 나타나 할 것 없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월드컵 예선에 출전한 아일랜드 선수 중 30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22명)와 퍼스트디비전(8명) 소속이다. 자국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보기 위해 '본토'로 향하는 게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말 일정이다.

또 아일랜드 축구를 일으켜 세운 주인공 역시 잉글랜드의 축구영웅 잭 찰튼이었다. 그는 1986년 아일랜드 사령탑에 올라 10년 간 자리를 지키며 아일랜드 축구의 도약을 이끌어낸 공로로 지금은 아일랜드 인이 가장 좋아하는 잉글랜드 인이 됐다. 현 아일랜드 대표팀 감독인 믹 매카시는 찰튼 감독의 수제자로 90년 월드컵 8강 진출 당시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매카시 감독도 잉글랜드에서 태어났으며, 강한 잉글랜드 서부 액센트로 인해 아일랜드 인에게는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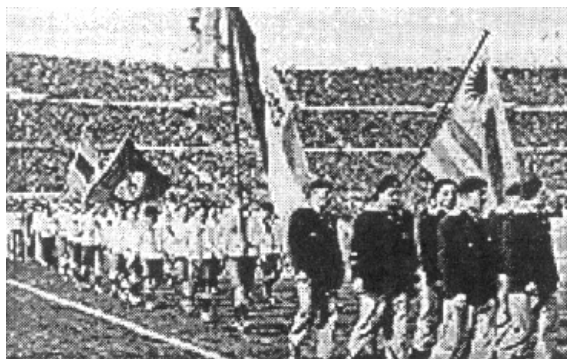
그럼에도 아일랜드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독자적인 축구협회를 운영하면서 각자 대표팀을 구성하여 월드컵 등 국가 매치 경기에 참여하는 경쟁관계이지만 이처럼 축구 교류를 통해 지역갈등의 긍정적 해소에 노력하는 역설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의 지배자들은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콜로세움(노천 원형 극장)에  
사람들을 불러모아 음식과 오락을  
제공했다.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남미의 군사정권이 정치선전과  
통제수단으로써 축구를  
이용하고자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월드컵과 민족주의

### 월드컵과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의 향연 장으로서의 월드컵

1930년 축구를 통한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기치로 세운 제1회 월드컵 대회가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을 때 FIFA와 갈등 관계였던 잉글랜드 등 영국 4개 축구협회와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강호들이 대거 결장함으로써 월드컵은 그 시작부터 심상찮



◆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

은 앞날을 예고했다. 이들 국가의 불참은 단지 한 달여 동안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한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유럽 축구의 자부심은 남미 각 국가들의 그것과 대립관계에 있었고, 당시 이들 국가들은 월드컵의 취지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sup>4)</sup> 13개국이 경쟁한 이 대회에 참가한 유럽국가는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벨기에 등이 고작이었다. 이 대회 결승전은 개최 국인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였는데, 당시 어느 나라의 축구공으로 경기를



◆ 프랑스와의 경기후 자국팀의 상징인 사자상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세네갈 국민들.

하느냐의 문제로 양 팀의 신경전이 대단했다. 결국 전반전은 아르헨티나제로 후반전은 우루과이제로 경기를 진행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결승전 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르헨티나 인들이 도로로 뛰쳐나가 우루과이 영사관에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그 때문에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월드컵은 그 시작부터 치열한 내셔널리즘의 격돌 현장이었다.

월드컵의 승패는 단순한 감정대립이나 시위로 끝나지 않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모국을 떠나는 일도 생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잉글랜드이다. 1966년 당시 런던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승리하자 호주와 뉴질랜드로의 이민이 격감하고, 이와 반대로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패배하자 그 격감을 이상으로 이민율이 증가했을 정도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내셔널리즘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경기가 많았다. 경기를 치르는 양국 간에 과거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있었거나, 혹은 축구에 있어 일종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경기를 바라보는 양 국가 국민들의 감정이 더욱 미묘해진다. 이번 월드컵에서 벌어졌던 몇몇 경기를 통해 이 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5월 31일 개막전 경기로 열린 전 대회 우승국 프랑스와 월드컵 본선 처녀 출전 국민 '아프리카의 프랑스' 세네갈과의 경기결과는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무도 이번 대회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국으로 꼽히는 프랑스가 질 것이라고 예상치 못 했다. 경기를 마친 후 세네갈 현지는 그야말로 온통 축제의 분위기였다. 그들에게 있어 프랑스와의 경기는 경기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1902년 프랑스로 편입된 세네갈은 60년 독립했지만 아직도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프랑스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바다에 접한 수도 다카르의 건물양식만 보아도 유럽의 소도시를 옮겨 놓은 듯하며 이는 축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프랑스월드컵 지역예선에서 뛴 선수 중 12명이 프랑스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고, 프랑스 출신의 브루노 메추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세네갈 축구의 원류는 프랑스다. 때문에 세네갈에 있어 식민모국 프랑스와의 개막전은 단순한 축구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면에서 프랑스에 대하여 열등감과 피

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네갈이 프랑스를 꺾었을 때 세네갈 국민들의 기쁨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결여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날 세네갈 대통령은 닭요리를 준비시켰다고 한다. 프랑스 팀의 상징인 수탉을 세네갈 팀의 상징인 사자가 취식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에피소드이다.

6월 9일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조별예선전이 벌어졌는데, 이 경기에 쏠린 일본인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전날 신 요코하마 역 광장에서 열린 월드컵 기념조형물 점등식을 지켜보며 많은 응원단들이 노숙한 것을 비롯하여, 당일 경기장 앞에는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서포터들까지 거리 응원을 위해 몰려들어 일본인들의 러·일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이런 뜨거운 관심은 이 경기가 비단 일본의 16강 진출의 중대한 고비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러시아와의 일전이라는 사실에 고무받은 점이 컸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지인 산케이(産經) 신문은 러시아전 중계 장면과 2차 대전의 패전으로 잃은 북방 4개 섬 지도를 함께 지켜보는 시사만화를 게재하기도 했으며, 대표적인 우익인사로 알려진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기회에 러시아에 본패를 보여야 영토반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러시아전을 보는 일본인들의 미묘한 감정을 드러냈다.

극적인 동점으로 마무리된 6월 10일 한국과 미국의 조별 예선 2차전은 후반 직전 드라마틱한 동점 골보다는 이를 성공시킨 선수의 골 세례모니로 더욱 화제가 되었다. 한국 선수들은 지난 동계올림픽에서의 미국 선수의 시물레이션 액션을 재현함으로써 한국민의 일반적인 대미감정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심지어 포르투갈 전에선 미국을 예선 탈락시키기 위해 포르투갈과 비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실제 응원현장에서 포르투갈을 연호하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슬로베니아에게는 여느 본선진출국보다 이번 월드컵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옛 유고연방에 소속되어 나뉘대로 축구의 역사가 깊지만, 독립된 주체로 FIFA에 가입된 지 불과 10년 만에 본선 진출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독립과정에서 무력충돌을 빚었던 신 유고연방을 1승 1무로 제치고 본선 티켓을 딴 탓에 축구사랑은 애국심과 동의어가 됐다.

이런 것들이 슬로베니아를 단시일 내 축구강국으로 부상시키고 있는 배경이며, 월드컵 기간 내내 현지에서의 그 분위기는 사뭇 비장하기까지 했다.

‘죽음의 조’라고 불린 F조에 속한 스웨덴과 잉글랜드는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처럼 오랜 세월 축구에 있어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잉글랜드의 최근 17년 간 스웨덴전 전적은 5무3패, 86년 평가전서 0대1로 패한 이후 16년 간 단 1승도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일전은 시작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는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잉글랜드의 데이비드 베컴이 유럽챔피언스리그 준결승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곳이 바로 스웨덴 언론들이었다. 더구나 잉글랜드 대표팀을 맡고 있는 감독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장 �벤 고란 에릭손 감독이었기에 경기 전 분위기는 흡사 전장에 가까웠다.<sup>5)</sup> 6월 2일 이 경기에서 양 팀은 나란히 한 골씩을 넣어 무승부를 기록함으로써 잉글랜드인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한을 푸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파라과이, 잉글랜드와 나이지리아의 경기도 과거 지배와 피지배 역사로 인해 또 다른 민족감정이 작용하였다. 더구나 나이지리아의 경우 월드컵을 250여 개의 부족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

이들 과거 피 식민국가들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 대표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선수들은 대부분 그들을 통치하였던 국가의 프로리그 소속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피 식민국가였던 세네갈 대표선수들의 경우 이번 월드컵 출전 멤버 23명 가운데 21명이 프랑스 리그 소속 선수이며, 나이지리아의 스트라이커 누앙퀴 카누나 수비수 셀레스틴 바바야로 등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외국에서, 특히 그들에게 아픈 상처를 줬던 식민국가에서 하면서도 월드컵 등의 국가 간 대항 경기가 있을 때면 자신의 모국을 찾는다. 폴란드로 귀화해 폴란드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 울리사데베가 “내 몸 속에 나이지리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모국의 피가 여전히 박동 치고 있는 것일까.

## 원거리 내셔널리즘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을 때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교민들과 유학생들의 응원함성 또한 높았다. 사실 거리응원도 이 곳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세계 유명도시의 거리 거리에는 한국인들, 아니 한민족들이 거리행진을 하며 한국의 승리를 자축했고, 해당 국가의 시민들도 이들을 격려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이민 2, 3세의 젊은이들이었다. 사실상 그들은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한국국적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으며, 그런 만큼 그들은 민족적 동질성을 체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이 땅에 대한 기억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에 환호하게 하고,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에 태극기를 휘어 감은 채 들어갈 수 있는 자부심을 키워주

었을까. 익히 알려진 바대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세계의 변방 국에 대한 은연 중의 차별과 부당한 시선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이민자들도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축구에서의 한국팀의 승리는 이들의 억눌린 감정에 대한 위안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본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분석이 가능하다.

전지구적인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은 국경의 문턱을 낮춤과 동시에 그의 직·간접적인 결과로 인해 각 국가들은 출혈 적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되는 집단들은 지역이나 민족 혹은 종족 등의 원형적 집단에 기대고자 하는 소망이 강해진다.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족 간 갈등이나 극우주의의 준동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화의 진척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인 폐쇄적 집단주의나 쇼비니즘 등은 세계화가 가져온 생채기를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월드컵 기간에 나타난 이민 2, 3세의 열광은 그들이 이민사회에서 영원한 타자로 남아있지 않기 위하여 민족 공동체로서 자각과 함께 체제 국에서도 건강하게 동화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변화의 조류

### 순혈주의의 약화

엄밀하게 말하면 내셔널리즘의 근간은 혈연이다. 경우에 따라선 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혈연공동체를 중심으로 동질성과 소속감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이 내셔널리즘이다. 축구는 이런 내셔널리즘을 가장 크게 고양시키는 스포츠이며, 국가 간 대항인 월드컵이야말로 내셔

널리즘의 경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대표팀의 선수를 구성하고 감독을 선임하는 문제에 이런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또한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그 자체가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월드컵과 내셔널리즘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좀더 복잡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우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월드컵 때마다 외국인 선수 귀화 문제가 논란이 되곤 한다. 가까운 예로 98년 월드컵 당시 포항에서 활약하던 유고 출신의 공격수 라데 보그다노비치를 귀화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라데 또한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그의 귀화에 한가지 단서, 즉 '월드컵이 끝나면 원래 국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조건을 붙여 끝내 라데의 귀화는 무산되고 말았다. 올해 초에는 브라질 출신의 산드로(수원 삼성) 귀화 문제로 축구협회가 떠들썩했다.

월드컵 때마다 이런 귀화문제가 제기되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없다. 국가의 대표성(때론 민족의 대표성)을 부여받는 데에는 그만큼이나 높은 순혈주의의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각 국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다. 축구대표팀과 순혈주의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최근의 경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 대회였던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은 개최국인 프랑스가 우승했다. 프랑스의 우승은 세계 축구팬들을 두 번이나 놀라게 하였다. 당시 호나우도가 버텼던 브라질의 전력은 최강 중의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러한 거함 브라질이 무명이나 다름없던 지단의 프랑스에게 철저히 농락 당했던 것이다. 당시 축구의 신황제 호나우두를 압도한 지단의 플레이는 티벳에 있는 동자승까지 놀라게 했다. 우리



◆ 환호하는 스님들.

에게도 소개된 영화 '컵(원제: The Cup)'에서 티베트 오지의 동자승들이 월드컵을 보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sup>6)</sup> 세계인을 한번 더 놀라게 만든 것은 98 월드컵 분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프랑스 팀의 선수 구성 분석이다.

우승국 프랑스 팀은 갈리아 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다인종 다민족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런 '잡탕팀'의 구성은 전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승한 프랑스 대표팀은 프랑스령 기아나,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 세네갈, 아르메니아,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안디구아 바부다, 뉴칼레도니아, 아르헨티나, 알제리, 그리고 본토 프랑스까지 무려 9개국 출신 선수로 구성돼 있었다. 에밀 자케 감독이 뽑은 스물 두 명의 선수들 가운데 오리지널 프랑스 사람은 고작 아홉 명뿐이었다. 스타팅 멤버만 고려하여 통계를 내면 11명 가운데 7~8명이 알제리계, 아르메니아계, 가나계 등 이민계 선수이다.

특히 프랑스 전력의 핵을 이루는 센터 라인인 드사이(중앙 수비수), 지단(플레이 메이커), 앙리(최전방 공격수)는 피부색의 농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아프리카 출신들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프랑스는 '98 프랑스 월드컵을 기점으로 유로 2000을 휩쓸고 2001 대륙간컵까지 차지하여 일명 트리플 크라운의 명예를 획득하면서 브라질을 밀어내고 FIFA 랭킹 1위에 마침내 등극하게 되었다. 명실상

부한 세계 1위 프랑스 팀의 이러한 선수구성은 세계 축구의 미래를 알리는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가 다양한 인종을 포괄하는 선수 구성을 통해 축구에 있어 괄목한 발전을 이룩한 배경에는 그들의 독특한 민족주의관이 크게 작용했다.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에르네스트 르낭(1823-1892)의 연설문 「국민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프랑스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네이션(nation) 관념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이 연설문에서 그는 프랑스라는 '국가'(state)를 구성하는 '국민'(nation)은 종족(인종)과 언어, 종교, 이익공동체 및 지리를 초월한다고 역설했다. 인종이나 종교, 지역 등등을 불문하고 프랑스 국민이 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프랑스 국민이 될 수 있으며 프랑스 국적(French nationality)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프랑스 내셔널리즘을 대변하는 르낭은 이어 이 연설 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국민은 매일 매일의 인민투표다". 다시 말해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프랑스 국민은 매일 매일 재탄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국민이고 싶은 사람은 전부 프랑스 국민이라는 뜻이다.

국민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 때문인지 프랑스 축구의 역사는 걸출한 '이민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축구황제 펠레를 탄생시킨 대회로 유명한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이끈 레이몽 코파(Raymond Copa, 1931년생)는 원래 폴란드 태생으로 1949년에 프랑스로 이주,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다. 당시 13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중 최고자'로 등극한 쥐스트 퐁텐이 있었지만 "쥐스트 퐁텐은 레이몽 코파가 없었으면 그렇게 많은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 프랑스 대표팀에서 레이몽 코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게다가 쥐스트 퐁텐도 모르코 출신이다.

그 후에도 코파는 Stade Reims팀에서 뛰며 팀을 1953, 1955년 프랑스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폴란

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 최고의 미드필더였다.

프랑스 이외의 나라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헝가리 무적시대의 주역으로 대표팀 84경기에 85골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푸스카스(Ferenc Puskas, 1927년생)는 1956년 조국 헝가리가 소련에 침공 당하자 스페인으로 망명하여 1958년 월드컵에는 스페인 대표로 월드컵에 나오기도 했다. 그 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여 마드리드의 유럽 챔피언스컵 6연패에 기여하는 등 스페인 축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포르투갈의 신화적인 존재인 '검은 표범' 에우제비오(Eusebio Ferreira da Silva, 1943년생)는 그의 애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잠비크 태생의 선수이다. 그는 1962년 벤피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며 유럽컵을 거머쥐는데 맹활약을 했으며 1965년 유럽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포르투갈을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고 3위를 차지하는데 일등 공신이었다. 우리에게는 8강전이었던 북한과의 경기에서 경기초반 0-3으로 뒤졌으나 4골을 혼자서 연속으로 몰아치며 5-3의 대역전극을 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1966년 월드컵에서 그는 9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득점왕의 타이틀을 획득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지금도 포르투갈 국민들은 그들 축구역사의 최고의 인물로 루이스 피구와 함께 에우제비오를 꼽을 정도다. 이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축구 대표팀에 있어 순혈주의의 관습은 철옹성과도 같았다. 하지만 프랑스팀의 비약적인 발전은 온 세계 축구 팬들을 매료시켰고, 세계 각국은 브라질 대신 프랑스 축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이는 유럽식 힘과 남미의 기술을 결합한 프랑스식 '아트사커'의 형식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순혈주의를 고집하던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식 대표팀 구성, 즉 순혈주의 벽을 넘어

〈표 1〉 2002 한일 월드컵 외국인 감독 분포

| 년 도  | 외국인 감독수 | 퍼센트 | 출 신 국 |      |    |     |      |       |      |
|------|---------|-----|-------|------|----|-----|------|-------|------|
|      |         |     | 프랑스   | 이탈리아 | 독일 | 스웨덴 | 네덜란드 | (구)유고 | 콜롬비아 |
| 2002 | 9명      | 28% | 2     | 1    | 1  | 1   | 1    | 2     | 1    |

서는 '잡탕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대회 본선에 오른 각 대표팀의 감독과 선수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 한-일 월드컵 본선 진출 국 감독/선수 구성

이번 월드컵이야말로 월드컵의 순혈주의 역사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대회였다. 포연도 포성도 없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나라는 외국의 지혜로운 사령관을 데려와 전투를 지휘하게 하기도 했고, 어떤 나라는 전투에 능한 용맹한 용병을 고용하기도 했다. 월드컵 성적이라는 결과는 각 나라별로 사뭇 달랐지만 변화의 조짐이 강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 각 국 대표팀 감독들의 면모

감독의 경우 비교적 실력있는 외국인 감독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 편이다. 역대 월드컵을 통해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 좋은 성적을 낸 국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감독으로 16강 제조기로 불리는 유고 출신의 보라 밀루티노비치감독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 서로 다른 5개국 대표팀을 맡아 모두 본선에 진출시키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멕시코(86년 8강), 코스타리카(90년 16강), 미국(94년 16강), 나이지리아(98년 16강) 등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체팀을 이끌면서도 16강 진출에 성공시켜 마술사라는 칭호가 부여됐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본선 진출 32개국 가운데 외국인을 감독으로 영입한 나라는 축구종가 잉글랜드를 비롯해 공동 개최국 한국과 일본 등 9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5개국이 16강 문턱에 진입함으로써 다시 한번 외국인 감독의 비중을 입증했다.

이들 외국인 감독들을 분석해보면 98년 이후 몰아치던 프랑스팀을 벤치마킹하려는 각 국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로제 르메르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비롯하여 일본의 필리프 트루시에, 세네갈의 브뤼노 메추 등 3명의 프랑스 출신의 감독이 월드컵 지휘봉을 잡았다. 전술적으로 가장 진보되고 발전돼 있다는 프랑스가 지도자 수출에서도 단연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 98년 월드컵에서 4명의 지도자가 나섰던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서 자국대표팀의 스킨리 감독 한 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유고가 2명씩 배출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으로는 자국팀의 지오바니 트라파토니 감독과 체사레 말디니 파라과이 감독이 있다. 독일 출신의 감독으로는 루디 펠러(독일 대표팀 감독)와 빈프리트 셰퍼 카메룬 대표팀 감독이 이번 월드컵에 출전했으며, 중국 대표팀을 맡고 있는 보라 밀루티노비치와 슈레치코 카타네츠 슬로베니아 감독이 유고 출신이다. 그 밖에도 콜롬비아 출신의 에르난 다리오 고메스 에콰도르 감독,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 한국 감독과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의 스벤 고란 에릭손 감독도 스웨덴 출신으로 이방인 감독들이다.

이들 외국인 감독들 중에는 조별 예선전에서 모국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알곤투운명을 맞이한 감독

독들도 있었다. 에릭슨 잉글랜드 감독의 조별예선 첫 번째 상대는 바로 스웨덴이었으며, 세네갈의 메추 감독도 모국인 프랑스와 1차전을 맞이해야 했다.

또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카메룬의 빈프리트 서페 감독도 E조에서 조국 독일과 16강 진출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비록 귀화를 해서 외국인 감독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코스타리카의 알렉산데르 기마라에스 감독도 모국 브라질과의 일전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서 본선 진출국 32개국 중 이들 외국인 감독들은 총 9명으로 28%를 상회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런 외국인 감독들에 힘입어 중국, 슬로베니아, 에콰도르는 처음 본선에 진출하였고, 한국, 세네갈, 일본등도 각각 4강, 8강, 16강에 오르는 괄목한 성과를 냈다.

◆ 이번 월드컵을 통해 특별한 인상을 남겼던 일부 외국인 감독들을 소개한다.

### • 한국, 거스 히딩크 감독

한국은 수차례의 월드컵 본선진출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무대에서 1승도 올리지 못한 축구의 변방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의 영입으로 이



◆환호하는 히딩크

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을 넘어 4강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에는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흘러 나왔고, 한국이 평가전에서 큰 점수차로 졌을 때는 그

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도 종종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한일 월드컵에서의 성공은 이 모든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켰을 뿐만아니라 히딩크라는 국민적 영웅을 만들어냈다. 한 때 그의 귀화설이 나돌 정도로 히딩크 감독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신드롬 그 자체였다.

폐쇄적 민족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한국에서 외국인 감독에 대한 열광은 매우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 선수의 국가대표팀 선수 발탁에 부정적이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타자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을 치루면서 외국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며, 세계를 향한 열린 시각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낯선 타자에 대한 유례없는 찬사와 열광은 한국민 고유의 배타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잉글랜드, 스벤 고란 에릭슨 감독

축구종가라는 자존심 때문에 국제축구연맹(FIFA) 가입은 물론 1950년까지 월드컵 참가도 외면했던 잉글랜드는 월드컵에서만큼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66년 홈 대회 우승과 90년 이탈리아대회 4위가 내세울 수 있는 성적의 전부다. 하지만 중주국의 자존심을 과감히 버리고 스웨덴 출신의 이방인 스벤 고란 에릭슨을 감독으로 영입하는 극약처방으로 명실상부한 사자(축구협회 마크)로 거듭나고자 했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에릭슨 감독의 영입은 잉글랜드축구협회 14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실력 없는 축구종주국은 포기한다'는 참담한 자기반성이 담긴 일대사건이었던 것이다. 에릭슨이 잉글랜드축구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잉글랜드의 2002 FIFA 월드컵 예선전 성적은 부진 그 자체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주국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고

2001년 1월 영국축구협회(EFA)가 에릭손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지명한 것은 엄청난 모험일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한 것이 처음인데다, 영국 언론이 워낙 애국심이 높아 대표팀이 조금이라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여지없이 날카로운 비난을 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릭손 감독 영입의 여파는 즉각 나타나기 시작했다.

9월 뮌헨에서 열린 예선전에서 독일을 5-1로 대파한 역사적인 승리로 에릭손 감독은 구세주라는 찬사까지 받았고 잉글랜드가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할 때까지 그의 인기는 계속되었다. 8강전에서 비록 세계 최강 브라질에게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잉글랜드의 전적은 과거의 영예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일본, 필리페 트루시에 감독

최근 10년 사이의 일본 축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일본의 16강 진출을 낙관했었다. 이렇게 급성장한 일본축구의 힘은 필리페 트루시에 감독 체제 이후 4년 동안 담금질해 온 조직력에서 나온다. 물론 축구강국 일본의 탄생에는 트루시에 감독 이전 외국인 지도자들의 선진축구 전수가 밑거름이 됐다. 먼저 독일 출신의 데트마르 크라머는 동네축구 수준이던 1960년대 일본 축구계에 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은인이다. 그는 국제축구연맹(FIFA) 순회 코치 자격으로 64년 도쿄올림픽 일본대표팀을 지도한 데 이어 68년 멕시코 올림픽 때는 일본팀을 전담, 동메달을 따냈다. 91년 한국올림픽대표팀도 지도했던 명조련사 크라머는 ‘골을 많이 넣는 게 축구의 기본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평범한 진리와 함께 유소년 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일본축구 저변확대에도 기여했다.

크라머가 일본 축구의 대강을 완성했다면 네덜란드 출신의 한스 오프트는 부분전술을 한단계 발전

시킨 지도자였다. 92년 4월 감독을 맡은 오프트는 단조로운 정석축구에서 벗어나 응용력을 높였다. 또 플레이메이커를 중용하는 축구를 도입해 나나히히로시, 나카타 히데토시 같은 재능있는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는 데 공을 세웠다. 필리페 트루시에는 선배들이 구축한 부분전술과 강한 체력 등을 바탕으로 팀워크와 팀전술을 완성했다. 이처럼 일본 축구의 비약적인 발전은 적극적으로 선진 축구를 적용시켰던 외국인 감독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 ● 세네갈, 브루노 메추 감독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낳은 스타감독 중 하나인 세네갈의 메추 감독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있다. 월드컵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본선 1차전에서 프랑스를 격파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처녀출전국인 세네갈을 일약 8강에 올림으로써 세네갈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명장의 반열에 서면서 스타감독이 된 메추는 프랑스의 한 국민이면서도 세네갈 정부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세네갈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다. 세네갈 여성과 결혼, 축구를 뛰어넘는 세네갈에 대한 애정을 몸소 실천해 세네갈을 제2의 조국으로 삼았고, 세네갈을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그는 또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프리카인으로 동화되었다.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빼고는 난 그대들과 똑같다. 나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고, 세네갈 사람이다. 왜 조국을 위해 뛰기를 거부하는가”라면서 모국의 대표팀으로 뛰는 것을 오히려 주저하던 엘 하지 디우프, 파프 말리크 디오프 등 세네갈 선수들을 설득했던 메추 감독은 가장 세네갈인다운 프랑스인이다.

## ● 에콰도르, 에르난 다리오 고메스 감독

이번 월드컵에 거는 기대는 어느 나라인들 없을 까마는 경제위기로 허덕이는 남미국가들의 경우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월드컵 조예선 탈락이 확정된 후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흐느꼈던 아르헨티나의 바티스투타는 이런 모국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에콰도르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온 에콰도르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은 바로 고메스 감독이었다. 호쾌한 성격에 두드러진 뱃심의 사나인 콜롬비아 출신이다. 비록 본선에선 1승 2패로 아쉽게 16강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에콰도르의 본선 첫 진출을 쥘어내면서 FIFA 랭킹이 53위에서 37위로 꺾중 뛰어오른 그에 대한 에콰도르 선수와 국민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다.

## ● 코스타리카, 알렉산더 기마라에스 감독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에 선수로 출전, 코스타리카의 16강 진출을 일궈낸 알렉산더 기마라에스 감독은 2000년 말 사령탑에 오른 뒤 한일월드컵 북중미 최종예선에서 팀을 1위로 끌어올려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다. 브라질에서 태어났지만 1985년 코스타리카인과 결혼, 코스타리카 국적을 얻은 그는 코스타리카 축구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 각국 대표선수들의 면모

자국의 대표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감독의 선임 문제보다 보다 미묘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라운드 위에서 실제로 플레이를 펼치는 이들은 바로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자기나라의 전쟁에 다른 나라의 군대를 빌어 이긴다고 해도 별로 기분이 좋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선수로 피가 섞이지

않은 이민족을 발탁하는 것이 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1998년 월드컵을 지나면서 순혈주의의 벽이 점차 허물어져가기 시작하더니,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런 변화가 보다 확연해졌다. '혼혈문화'의 대명사 프랑스뿐만 아니라 혈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인 국가와 선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프랑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프랑스는 1998년 이래로 '혼혈팀'의 위력을 가장 크게 발휘한 국가이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비교적 개방적인 네이션 관념과 다인종화에 대한 이념적 바탕이

군건하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의 국적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국적규정에는 "인종과 언어는 불문에 부친다.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 프랑스 국민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프랑스 국민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이를 가장 충실히 지키는 국가로 꼽을 수 있다.

이번 대표팀의 선수구성을 보더라도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로서의 모습은 여전히 드러난다. 98년에 이어 프랑스 전력의 핵인 알제리 이민 2세의 지네딘 지단이 중원을 지휘하는 것을 필두로, 미드필더 파트리크 비에라는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이고, 수비수 릴리앙 튀랑은 프랑스령 과달루프 섬,



◆ 프랑스의 간판스타 지단은 알제리 이민 출신이다.

또 다른 수비수 빅상테 리자라쥐는 바스크족 출신이다. 수비수 마르셀 드 사이는 가나 출신이고, 포투루칼이 고향인 피레스도 대표팀에 발탁되었다.

## ■ 독일

세계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순혈주의적 전통을 '훼손' 하는데 부정적인 팀도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 그런 사고의 전형을 지닌 팀들인데, 그들은 게르만 전차 군단에 대한 환상과 로마 군단의 신화를 여전히 지켜 나가고자 애쓰는 팀이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이번 대표팀 구성에서도 여전히 게르만 중심주의가 관철되고 있으면서도 예년에 비한다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은 월드컵 본선 13회 연속 진출, 우승 3회(54년, 74년, 90년), 준우승 3회(66, 82, 86년)를 일궈내는 등 브라질에 버금가는 화려한 월드컵 성적을 자랑한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며 몰락의 징후를 보여왔다. 94년 미국월드컵과 98년 프랑스 월드컵 8강에서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에 발목을 잡히며 탈락하더니 2000년 유럽축구선수권서는 조예선에서조차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2002년 월드컵 예선에서는 플레이오프 끝에 간신히 본선 티켓을 얻을 수 있었다. '늙은 전차군단'이라는 오명을 쓴 독일은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축구에서도 혈통 중심 내셔널리즘이 축구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은 심심찮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98년 '다인종 군단'인 프랑스가 월드컵을 제패하자 독일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베켄바워를 비롯한 독일 축구 지도자들은 독일 정부가 외국 출신 선수의 독일 시민권 획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통에 집착해온 독일은 순혈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미봉책으로 상비군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취했으나, 이 또한 몰락해 가는 독일 축구를 구원해줄 구세주는 아니었다.

이처럼 순혈주의의 강고한 성을 쌓은 독일에게 조심스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월드컵을 대비하여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직 '순혈주의적 사고관'만을 외치던 과거와는 달리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수라면 그의 출신지나 피부색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수혈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가나 출신으로 독일로 귀화한 게랄트 아사모아가 있다. 게르만 전사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대표팀에 발탁된 가장 두드러진 경우가 아사모아이다. 그는 독일 전차 군단이 철저하게 망가진 시점에 메시야처럼 등장한 선수이다. 게랄트 아사모아는 보란듯이 지난 월드컵 예선 5경기에 출전하여 눈부신 활약을 보여 주었다. 독일 축구사상 최초의 흑인 대표선수인 가나출신 게랄트 아사모아의 발탁은 축구로부터 촉발된 독일 사회의 변화를 시사하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이번 월드컵에서 호나우도와 마지막까지 득점왕 경쟁을 벌인 독일의 떠오르는 신예 스트라이커인 미로슬라프 클로제는 자신이 태어난 폴란드를 등지고 선수로서 자신을 낳은 생활 무대인 독일을 선택한 선수다. 독일 대표팀의 루디 뮐러 감독과 폴란드 대표팀의 예제 앙겔 감독은 모두 뛰어난 포워드의 자질을 발휘하고 있던 클로제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서로 자국의 대표 선수로 선발하려는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예제 앙겔 감독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폴란드 출신의 클로제는 독일을 자신의 조국으로 선택했으며, 독일은 클로제의 선택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전의 독일이라면 아마 이런 모습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 ■ 폴란드

혈통 중심의 내셔널리즘의 강도가 독일만큼이나 짙다고 할 수 있는 폴란드의 경우는 최근 순혈주의의 극복 문제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월드컵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 스트라이커인 올리사데베를 귀화

시켰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유색 인종이 얼마나 폴란드 사회에 뿌리내리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002 FIFA 월드컵 이전부터 엠마누엘 올리사데베는 폴란드 대표팀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다. 그는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폴란드 대표팀 선수로 선발되고 또 득점한 선수이다. 올리사데베는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18세에 라고스에서 아스퍼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뛰었는데 폴란드 스카우터들이 그를 눈여겨보고 폴란드로 오도록 설득하여 그의 본격적인 축구인생은 폴란드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폴란드로 건너와 폴로니아 바르샤바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겨우 18세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이지리아 대표팀에서는 그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 후 올리사데베는 폴란드인 교사와 결혼하여 폴란드 시민권을 획득하라는 설득을 받았으며, 얼마 후 폴란드 대표팀 감독인 예르치 앙겔은 그를 폴란드 대표팀으로 선발하였다. 올리사데베는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7득점을 기록하며 1986 FIFA 월드컵 멕시코 이후 처음으로 폴란드가 본선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가 되었고, 또한 자랑스런 폴란드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 그도 1997년 처음 폴란드에 왔을 때 심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한다. 그가 프로리그에서 경기를 하면 어김없이 '검둥이는 가라'라는 노골적 야우와 함께 바나나가 날아들곤 했다.

폴란드는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자국 태생의 독일의 클로제를 자국 대표팀으로 발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며, 아르헨티나 출신의 디에고 페르난도 클리모비치의 귀화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수혈작업에 나서기도 했었다.

## ■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며 순혈주의에 입각한 사고와 의식이 충만한 나라다. 그런 일본이 역

설적이게도 선진 축구의 수입과 귀화 외국인 대표 선수의 역사는 매우 깊다.

이미 일본은 1970년대부터 자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브라질에 장기 축구 유학생들을 보내어 브라질의 선진 축구를 익히게 하였으며, J리그에 세계적인 선수를 끌어 들여 자연스런 학습 효과의 장을 만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70년대 브라질 출신의 벨손 요시무라를 대표팀에 기용한 것을 시작으로, 80년대 후반에는 라모스를 귀화시켜 94년 월드컵 예선에서 활약하게 한 바 있다. 일본이 92년 베이징 다이너스티컵 결승전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한 데는 브라질로부터 귀화한 걸출한 플레이메이커인 라모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라모스의 뒤를 이어 한국전에서 멋진 골을 터뜨렸던 그라운드의 신사 로페스가 등장하였다. 그는 98월드컵 본선에서 일본 팀을 이끌었지만 정작 뛰어난 활약은 보이지 못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지난 2월 브라질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알렉산드로 산토스를 귀화시켜 대표팀에 전격 발탁하기도 하였다.

## ■ 세네갈

세네갈의 미드필더 실뱅 은디아예는 조금 다른 케이스다. 그는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상 세네갈인이다. 하지만 그는 월드컵 이전에 한번도 세네갈에 온 적이 없는 프랑스인이기도 했다. 즉, 조부가 세네갈인이었던 세네갈계 프랑스인이다. 그런 은디아예는 메추를 만난 이후에 세네갈 대표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활발한 공격형 미드필더인 은디아예는 프랑스 나티포날 리그로부터 릴르 소속으로 1부 리그까지 올라갔고, 작년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했을 정도로 이미 세계적인 선수다. 그는 디우프와 더불어 세네갈의 공격을 이끄는 중심 선수로 이번 월드컵에서도 디우프를 지원하여 세네갈이 8강에 오르는 1등 공신이 되었다.

## 무너지는 순혈주의?

이번 대회를 계기로 각 국가 대표팀의 구성이 점차 인종과 민족적인 측면에서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것이 전반적인 현상이나 주류는 아닐지라도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미 지적한 바대로, 축구는 국민대중의 집단적인 정서를 자극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경기이며, 따라서 자국의 대표팀이라고 하면 내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런 관념에서 순혈주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쉽사리 넘을 수 없는 문턱이기도 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표팀 구성에 있어 감독과 선수들의 개인적인 실력과 대회에서의 성적이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번 월드컵 본선에 참여한 32개국 중 외국인 감독(귀화한 감독을 포함하여) 9개 팀에 이르고, 귀화한 선수를 활용한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폴란드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 모두가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16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계 감독들이 지휘한 9개 팀 중 5개 팀이 16강 문턱을 넘어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여기에다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밀루티노비치 중국 감독과 슈레치코 카타네츠 슬로베니아 감독, 그리고 에르난 다리오 고메스 에콰도르 감독들은 각 국가들을 처음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키는 큰 성과를 감안할 때, 외국인 감독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다음 대회에서는 보다 많은 외국계 감독들이 활약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인 한국·일본·세네갈 팀 모두가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 성공적인 변신을 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점으로 기존 전통이

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풍토 위에 외국의 선진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괄목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세 나라 모두 감독을 전통 축구 강국에서 '수입' 했는데, 민족주의나 국가 의식이 아주 강한 한국과 일본이 네덜란드인과 프랑스인을 각각 '축구 총사령관'으로 영입한 것이나, 세네갈이 과거 식민 종주국 프랑스인을 감독으로 앉힌 것은 대단한 변화다.

사실 축구팀의 민족구성성은 식민주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셸 플라티니에서 지네딘 지단으로 이어지는 혼혈구단의 대명사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등은 옛 식민지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나 독일 대표팀에는 외국 선수가 많지 않다. 이들이 가진 강한 순혈주의 전통에다가 짧은 식민지 역사는 외국계 선수들의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대회에서 외국계 선수를 자국 대표팀 선수로 발탁하여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는 순혈주의의 가장 견고한 벽을 가지고 있던 독일이었다. 미로슬라프 클로제, 올리버 노이빌레, 그리고 게랄트 아사모아 등 전투력 높은 용병을 기용한 독일은 그간의 녹슨 전차군단의 오명을 씻어내고 준우승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독일의 이런 변화는 98년 우승팀 프랑스만큼이나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일의 재부상은 강한 순혈주의 전통을 함께 견지하던 이탈리아와 비교된다. 월드컵 3회 우승의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16강에서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에게 쓰라린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우리와 달리 다소 느슨한 '민족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프랑스나 영국처럼 오랫동안 제국을 이루었던 국가들은 자신들 연방에 속한 이민족에 대해 더욱 관대한 편이다. 여기에 사회에 전반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다원적 문화환경이 결합되면서 이들 민족 관념이 보다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 축구는 점차 서로 이질적인 사회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문화적 융광로로 기능하는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성적이 좋은 축구팀은 인종적인 면에서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혼성팀이 대부분이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웬만큼 우수한 팀치고 다양한 인종적 구성을 갖지 않은 팀이 없을 정도이다. 지난날 스타일이 구분될 정도의 독자적인 축구스타일을 가졌던 두 대륙의 축구가 거의 차이가 없어진 것도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의 아트사커관 개념도 축구에 있어 이 두 이질적인 요소를 함께 융해한 것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독자성이 점차 약화되는 현상은, 유럽 여러 나라의 프로축구리그에서 다른 대륙출신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룸으로써 기술, 전라습득의 교류와 혼합을 가져오고, 이것이 점차 한 국가대표팀의 다 인종적 구성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프랑스가 21세기 최고 팀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선수들을 끌어안은 문화적 융광로가 적극적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앞에서 분석한 대로 역대 최고의 팀으로 불리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은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부터 카리브해의 마리티니크에 이르기까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출신들이 인종대표라 할 만큼 골고루 멤버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월드컵을 다 인종 다 문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실현할 기회로 삼았고, 그리고 그것은 극적으로 성공했다.<sup>7)</sup>

이런 다원적이고 통합적인 문화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면서 고전적인 민족관념과 내셔널리즘을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있다. 한 지역의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대상은 더 이상 자기 지역의 선수도 아니며, 또한 특정 국적의 선수에만 배타적이지는 않다. 또한 자국의 국가대표팀 선수의 피부색이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 개의치 않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점차 축구 팬과 선수 혹은 감독 사이에 인종적 국가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이나 긴장감이 줄어들고 있다. 아마 이것은 축구가 낳은 새로운 종류의 일체감일지도 모른다.

##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월드컵에는 내셔널리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축구라는 공통언어를 매개로 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공존한다. 이번 월드컵 동안 가장 놀라웠던 일은 브라질의 우승도, 한국이나 터키의 4강 신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700여만 명의 한국민들의 거리 응원이었다. 단지 숫자의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월드컵의 새로운, 아니 숨겨진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축구는 전쟁이다'라는 말에 의미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격렬하고 공격적이며,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동반하는 경기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열한 전장이기 때문에 패배는 죽음이며, 승자만이 모든 걸 독식한다. 이러한 특성이 홀리전으로 대변되는 현대축구의 어두운 면을 양산하였으며, 우리가 결과에 그토록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연유에서이다. 여기서 내셔널리즘은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그러나 700여만 명의 길거리 응원은 그 궤를 달리한다. 그들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에 주목했다. 우리의 '길거리 응원'이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의 응원문화가 유럽·남미의 그것과 달리, 비폭력적이며 다양한 계층, 연령, 성을 아우른다는 데 있다. 서구의 월드컵은 출발에서부터 노동자계급의 스포츠라는 특성이 강하게 작용했고 그런 계급성, 남성성이 홀리거니즘 등 월드컵의 주된 특성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반면 우리의 경우 터키와의 3, 4위전이 진행되면서 대형 터키 국기가 관중석을 덮고, 우리가 경기에서 졌음에도 불

구하고 경기 직후 선수들끼리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경기장을 둘 때 많은 이들이 환호했다. 함께 축제의 한마당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지 기대하지 않은 4강 신화를 일군 '포만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바



◆ 'PRIDE OF ASIA' 라는 대형 카드섹션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응원단.

유일한 슈퍼강대국인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통합력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미국의 영화와 첨단기술이다.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시장의 80%를 차지하게 된 막강한 힘은

로 숨어있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얼굴이지 않았을까. 지금 세계는 폐쇄적인 국경을 넘어 닫힌 '순혈주의'에서 열린 '공존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화,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말도 서로 이질적인 민족, 사회, 국가를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공통의 '언어'를 찾는 통합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월드컵도 닫힌 내셔널리즘의 경연장이자 보다 각자의 열린 정체성을 찾고 확립해 가는 호기일 수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들은 오래 전부터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국 팀의 전력 극대화란 구체적인 명제아래 '혼합주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다민족과 혼혈 족으로 구성된 문화적 다원주의에서 비롯된 바 크다. 영화만이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력 역시 1백 종이 넘는 잡다한 인종이 한데 어우러진 데서 생겨난 저력이라고 일컬어진다.<sup>8)</sup>

그 어디에도 고정불변의 것은 없다. 내셔널리즘 역시 절대적인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새롭고 규정된다. 미래의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편협한 국수주의로만 치달아, 그것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키려는 민족과 국가에 대해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1)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전세계 회원국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FIFA의 204개 회원국 가운데 78.9%인 161개국이 답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구촌 축구선수는 전세계 인구의 4.1%인 2억4237만여명으로 나타났다.

2) FIFA의 석연치 않은 아르헨티나 개최 강행에 맞서 네덜란드의 축구스타 요한 크라이프와 서독의 주장 프란츠 베헤른바워가 대회참가를 거부하였고 각국의 축구스타들은 국제 사면위원회에 아르헨티나의 정치범 석방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3) 당시 아르헨티나와 페루와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조작으로 6-0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점수차로 승리했다. 이를 지켜보고 격분한 브라질 기자는 "아르헨티나가 500골이 필요했다면 그것도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이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페루 골키퍼가 뇌물을 먹었을 것이란 소문이 설득력 있게 회자되기도 하였다.

4) 영국의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올림픽의 아마추어리즘을 선호했다. 하지만 FIFA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진정한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자는 논지를 펼쳐 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월드컵이 탄생했다. 그러나 애초에 이를 반대했던 나라들은 결국 제 1회 월드컵을 불참하고 말았다.

5) 스웨덴 또한 50년전 잉글랜드 출신 조지 레이노 감독의 지도 아래 전성기를 누린 적이 있다.

6) 실제로도 티벳에서의 축구열기는 대단한 것이라고 한다.

7) 96년 대표팀에 예국가도 모르는 흑인과 외국인이 너무 많다고 비꼬았던 프랑스 언론도 98 월드컵을 지켜보며 "다양한 피부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선수들이 프랑스를 대표한다"며 이방인들의 명활약을 격찬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빨간색-흰색-파란색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국기가 흑인-백인-아랍인등 다양한 인종을 상징한다고 말해 월드컵을 계기로 급변하고 있는 타인종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기도 했다.

8) 미국의 이러한 '혼합문화'를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합성하여 '실리콘밸리 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 스포츠, 내셔널리즘 그리고 붉은악마

- '붉은 악마' 담론의 서로 다른 민족주의 -

인터넷을 통해 결성된 10만 명의 거대한 조직은 완벽하게 수평적인 연대를 이룬다. 홈페이지에서 경기관람 신청을 하면 사무국이 추천해서 몇개 조로 나눠 참가자 명단을 발표한다. 회원 중 여행업이나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응원단의 비행기 예약과 교통·숙박 일정을 담당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자 중에 뽑힌 각조 조장들은 인원 확인, 차량이나 숙소 배치 등 각종 굵은일을 도맡아 한다. 물론 혜택은 없다. 30대 이상이 조직 운영의 큰 책임을 맡고 있지만 주축은 20대와 10대다. 이렇게 인터넷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발랄한 세대들은 억지로 짜인 위계를 거부한다.

이들의 공식적인 조직 이름은 '붉은 악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현상을 '붉은 악마 현상'이라 부른다. 월드컵보다 더 흥미를 유발시키는 조직, 아니 그 현상을 통해 이제 서로 다른 두가지 이야기를 풀어가려 한다.

강권찬 /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 붉은 악마 그 후

### 카니발 그리고 붉은 광장

전국에서 700만이 모였다는 4강 전날, '붉은 광장'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게 된 시청 앞 광장, 그리고 전국 동시다발적인 거리 카니발.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승리의 기쁨이 오랫동안 억눌려온 지루하고 따분한 삶의 신경계를 자극해서일까. 적어도 축구! 또는 월드컵에서의 놀랄만한 승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과잉된 감정의 분출. 그리고 거리와 광장과 '열렬한' 만남. 몸의 자유는 함께 한다는 쾌락을 일깨우고 축제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이걸 셋김굿에 비유했다. 히딩크와 대표팀은 줄지에 무당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제례에 참석한 거대한 군중들. 제례를 통한 환희와 회열, 또

는 해탈... 그래서 셋김굿이다.

### 새로운 현상? 또는 익숙한 반복?

이제 전문가들이 바빠질 차례가 온 것 같다. 국민적 유전자부터 사회 병리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원인을 찾기에 분주하다. 그리고는 결론도 한결 같다. 붉은 악마 현상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치권의 새로운 통합에 대한 비전 제시를 주문한다. 국민통합, 국민적 에너르기의 발산, 다이내믹 코리아... 그래서 이제 '경제4강'으로 가자고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4회 우승한 브라질을 예로 들며 축구는 축구일뿐 현실은 냉정하다라는 반론은 고무된 대!한민국에 의해 용단폭격을 맞는다.

누군가는 한국인은 '뜨거운 홍의 민족'이라고 한다. "한국 국민성의 원형질에는 단결성과 열정이 내포돼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는 위기를 기회

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민족원형질론? 아니면 민족유전자론? 19세기의 인종주의의 21세기 버전 등등 특히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고 자발적 동기만 유발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국민성이 한국인에게 잠재돼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의 ‘금모으기 운동’ 등을 그 증거로 들이민다. 아무튼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 특성이 기업경영 현장에선 ‘신바람 경영’으로,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압축 성장으로, 문화면에선 한류(韓流)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누구는 집단 히스테리로 ‘정신을 분석’해 냈다. 너나 없이 받아온 스트레스를 푸는 집단 카타르시스(Catharsis)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급속한 근대화·민주화 과정에서 비롯된 집단 히스테리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 6월의 상징, 그리고 이데올로기 투쟁

이제 6월에는 많은 상징이 있게 되었다. 전쟁, 민주화, 빨간 티, Be the Reds, 태극기, 대~한민국.

자극적인 상징들 속에서 사람들은(또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보고, 혹은 보고자 하는 것을 끌어내려 한다. 빨간색에서 레드컴플렉스의 해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를, 그리고 태극기 패션에서 경건주의의 쇠퇴를 이야기한다. 아직 공유된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되었다면 기록될 正史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아직은 담론을 둘러싼 해석투쟁, 正史가 되기 위한 서로 다른 코드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시기인 것이다.

시청앞의 태극기가 6월항쟁을 계승한 민주와 통일 의 상징이 될지, 30대 빨갱이를 때려잡는 20대와 50대의 보수 연대의 상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be the Reds”가 단순히 ‘붉은 악마가 되자’로 머물지, 레드컴플렉스의 극복을 상징하는 ‘빨갱이가 되자’로 해

석될지 모르는 일처럼 말이다.

‘붉은 악마 현상’의 기저를 움직이고 있는 이데올로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또한 필자에게는 그것을 분석할 능력도 없다. 다만 ‘붉은 악마 현상’이 측구에 ‘Nation’(국가, 국민, 또는 민족)을 대입한 단순 방정식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논쟁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민족주의와 파시즘이 제목인 이유가 그것이다. 둘은 사실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둘다 민족적 또는 국가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가치를 개입시키면서 전자는 ‘좋은 가치’ 후자는 ‘나쁜 가치’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이 두가지 전제가 개입된 민족주의 담론이 붉은 악마 담론을 둘러싸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 보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한국적 지형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 글은 붉은 악마를 빌려쓴 민족주의와 그 반비판에 대한 작은 소고가 될 것이다.

## 스포츠 내셔널리즘

### 스포츠와 정치의 만남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강력한 군대양성,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 강화로 스포츠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손기정 선수의 옷에 있던 일장기를 사진에서 말소한 사건이나, 19세기 스포츠를 통하여 국민 단합을 시도한 체조의 도입이 그 예이다.

복잡한 사회에 불안, 고독, 궁핍에 허덕이는 대중은 이성을 잃고 현실 정치에 대한 좌절, 무력감, 절망감 등을 느낀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보다는 연극, 음악 또는 축구, 야구, 권투, 레슬링 등 스포츠에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에서 무력감에 빠진 대중에게 정치권력이 선진국가 건설, 일등국민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이

다. 스포츠 정치화의 매체로 가정과 학교도 있으나 현대사회에 광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한 조작이다. 정치와 스포츠의 결합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청이요, 국가적인 사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체육과 스포츠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필요한데 그 성격은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 축구와 정치의 만남

축구가 세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축구라는 종목은 타 종목에 비해 규정이 단순하다. 손으로만 건드리지 않으면 자유자재로 공을 다룰 수 있는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규정도 단순하다는 점은 축구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축구공과 공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축구의 특성 역시 축구를 전 인류의 스포츠로 만든 이유이다.

성인 남자치고 어릴 적 축구 한번 안 해 본 사람은 없다.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스포츠이다 보니, 가장 많은 팬과 관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단 한 번의 승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극적인 요소도 세계인들을 축구에 열광하게 만든 요인이다. 여기에다 국가 대표팀끼리 겨루는 월드컵 축구대회는 각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흥분과 열기에 휩싸이게 한다.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세계화의 큰 흐름속에 동참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항상 민족과 국가를 자각하고 염려하는 민족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며 “월드컵이라는 국가대항 스포츠를 계기로 민족주의가 진정한 방향으로 표출된 결과가 바로 응원문화”라고 설명하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길거리 응원은 전쟁과 대립으로 점철된 20세기의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위력과 영

향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보여주었다”며 “하지만 과거와 달리 민족주의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토대로 표출돼 그 성격이 매우 개방적이고 건전하게 변했다”고 진단하던 “우리 대표팀 경기에서는 개인들은 격렬한 응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됐다는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평상시의 소외감을 떨쳐버린다”고 하던간에 축구를 통해 더 집단적 가치를 투영시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축구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 이입된 감정이다. 그리고 스포츠 특히 축구는 이러한 집단적 감정의 이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는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기제라는 것이다. 국가간 시합을 통해 드러나는 민족주의 논리는 사회 갈등을 거짓으로 해소하고 허위의 통합을 형성하며, 대중매체와 결합한 보는 스포츠로서의 기능은 상업화의 첨단을 달린다.

##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발현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또 다른 아이러니는 중국의 태도이다.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사례는 중국인이 월드컵에 이입한 감정의 결과물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그 감정 이입이 어떠한 집단적 결과물인지 잘 드러난다. 국가, 민족, 그리고 국민의 집단적 실체는 축구를 통해 상상되고 순위가 매겨진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확산된다. 그것이 공격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국민통합과 국민애니지의 분출이라는 순기능에 앞서 그 역기능을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6강전과 8강전에서 세계의 강호들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마저 무너뜨리자 중국 언론들의 복잡한 심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국 내에서 월드컵 특집방송을 진행하는 <채널5>의 남녀 사회자와 해설위원은 입을 모아 “한국축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히 16강전에서 이탈리아의 항의가 빗발치자 생중계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선수가 잔디구장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는 모습과 심판이 이탈리아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들이대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심판의 오심을 되풀이해서 지적했다. 이 경기 뒤부터 방송은 물론 신문 등 인쇄매체까지 가담해 유럽 일부 언론의 음모론을 가감 없이 집중 보도했다. <베이징르바오>는 “심판 갈수록 지나쳐”라는 제목으로 심판의 오심을 질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울러 스페인 선수들의 눈물, 감독이 심판을 향해 항의하는 사진 밑에 “눈이 있나 없나”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중국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어느 나라 못지 않다. 그들은 부진한 중국팀에 대한 분노가 한국팀에 대한 질투로 둔갑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축구 때문이 아닌 것이다. 서양에게 대패한 중국과 서양을 이겨버린 한국과의 사이에서 초라해진 대 중화민족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상처받아왔던 열등감의 발로였던 것이다.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팀을 응원하였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카드섹션에 감동받기도 한다. 그들은 유럽의 강팀에 대항하는 남미팀들을 전통적으로 응원해 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유럽 강호를 하나씩 격파해 가는 한국팀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한국이 하면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을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축구 이야기가 아니다. 축구에 이입된 감정은 국민적, 또는 민족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오랫동안 한국은 스포츠 민족주의에 길들여져 있었다. 박찬호가 일본의 메이저리그 진출 선수와 싸워서 진다는 것은 상당한 허탈감을 불러일으킨다. 박세리는 한국민족의 뛰어난 저력을 세계에 알렸고 국난극복의 모델이 되었다. 즐기는 게임은 여전히 소수의 차지일 뿐이다. 스포츠를 통한 열광적인 민족주의의 소비는 선수자체 또는 경기자체

에 대한 관심을 항상 상회한다.

## 국기주의 VS 공동체주의

### 민족주의의 두가지 경로

민족주의는 사람들의 자발성에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민족주의는 이러한 명분으로서의 최상의 것이었다. ‘민족의 승리’라는 명분은 교통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거리행진을 할 때 연도에 어른들의 박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됨과 자부심을 주었다. 너무나 명분이 확실하기에 전혀 위험이 없는,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통해 더욱 증폭되는 즐거움. 민족주의는 사람들을 불러모았고, 그들을 어울리게 했으며, 어울림을 통해 하나되는 즐거움을 제공했다.

연속되는 대표팀의 승리와 어울림의 미학은 곧 ‘민족적 자긍심’으로 전환되었다. 패배적, 방어적 민족주의의 역사를 떨구어내고 민족적 자긍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강팀’임을 확인하고, 이제는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패배주의적 습성을 벗어나 자신감 있게 세상과 맞서 싸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식민근성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리고 식민근성을 강요하는 내부의 논리에 자신있게 싸워나가자는 것이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20대들의 애국주의에 감동을 받기도 한다. 태극기 사랑이 지극하다며 칭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20대의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반공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고 한다. 이른바 20대의 민족적 자긍심과 반김정일주의의 결합을 주장하는 것이다.

민족적 자긍심과 결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역시 규정될 수 없다. 민족주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주의와 접합하여 팽창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 수도 있고, 시민권과 접합하여 보편적인 시민적 민족주의의 양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부국강병과 경제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세계화시대에 약소국간의 연대를 지향하고, 다양성의 공존을 지향하는 이념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민족주의의 두가지를 나는 여기서 국가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누어 구분하고자 한다. 후자가 국가주의의 극단적 형태라면 전자는 공동체주의의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두가지가 충돌한다는 것은 지난한 한국의 역사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가주의의 역사적 구조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와는 달리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적 체험과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된 강력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국가우선주의 + 국가중심주의 + 국가건설주의 + 국수주의)의 정치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 상당한 구조적 제약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국가는 수시로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법적 무기를 구사하거나, 때로는 국제스포츠대회의 영광된 우승이나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 혹은 북한의 남침위협이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군사대국화 등을 내세우면서, 아직도 신민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많은 한국인들을 국가의 권위에 순응하는 성실한 세금납부자, 양순한 준법주의자, 자발적인 국방의무자 등으로 만족하게 하거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의 보유자로 치켜 올리며 영원히 국가중심적 사고와 행위의 틀에 얽어 두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국가건설(State Building)이 상당히 진전되기까지는 국가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중심가치로서 수용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남북한 모두 개별적으로는 이미 국가건설을 완료한 셈이지만 여전히 통일국가의 건설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배적 권력집단은 필요에 따라서 국가주의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국가정치의 최우선적 목표로서 남북통일이라는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지상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통일의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는 국가 건설이라는 미완의 국가주의적 프로젝트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까지 통일론의 대세를 이루었던 통일지상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통일국가라는 국가숭배적 가치를 은연중에 확산,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의 강력한 국가통치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로 통일이 성취되든 그 결과는 역시 또 하나의 강고한 국가체제의 성립으로 귀결될 것이다.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상정하는 통일된 한국의 모습이란 강력한 단일 중심의 국가체제이지, 느슨하고 자유롭게 결합된 연방주의체제는 결코 아닌 것 같다. 나아가 분단상황하에 있는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국가주의적 권위와 기율에 순응하는 훈련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한국의 역사는 수많은 외침(外侵)에 저항하는 민족투쟁의 역사였다. 특히 조선말에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민중적, 민족적 각성과 저항이 엄청나게 고조되었으며, 봉건적 사회질서를 대체하려는 시민사회적 욕구 또한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는 시민사회의 구축에 대한 관심보다는 민족독립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념을 한국사회에 매우 강력하게 확산시켜 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반일(反日)의식과 통일염원이 줄기차게 한국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스포츠대회 우승의 감격을 갈구하는 스포츠민족주의가 전통적인 국가주의와 끊임없이 상호보강 작용을 하고 있다.

## 공동체주의의 지향?

붉은 악마는 무엇보다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과거 한국의 국가주의가 보여주었던 위로부터의 동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자발성과 열정을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의 핵심주장이다. 이것은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민족주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성숙이라는 중요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동체주의는 엄청난 대중적 에너지의 폭발을 국가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의 이상팽창이라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붉은 악마가 민족주의의 발호라는 것에는 공동체주의도 수긍한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우선 국가주의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더불어 이미 거의 사회적 존재의의를 상실하다시피 한 애국가·태극기 등 낡은 국민국가적 상징들이 다시 복권되는 현상, 그리고 어느 응원인과 속에서도 나오는 "내가 한국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라는 감격어린 진술 등 어느 하나 국가주의의 '자발적 확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으로 '민족주의적 광기'라고 불려도 마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가'라는 기표들과 애국주의·국가주의라는 기의 사이에 일정한 '미끄러짐', 즉 불일치를 공동체주의는 포착해내고 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하여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에 모인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애국가와 태극기, 그리고 '대한민국'은 엄숙 경건한 최대 상징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합행동을 묶어주는 최소 상징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 격렬한 카니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낡은 집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린 존재의 거처로서의 공동체, 최소한의 분열되지 않은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과 행동은 외면적 격렬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주의의 소산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공동체주의의 소산에 가까운 것이다.

## 민족주의에의 경고-붉은 악마의 의미

### 파시즘의 징후

국가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해석논쟁이 민족주의의 긍정성을 인정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면 그 정반대편에서는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인식이 존재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 6월24일자에 실린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은 삼시간에 인터넷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운을 떼 이 논평은 "'붉은 악마' 현상이 바야흐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응원 열기는 결코 자발적인 현상이 아닌 거대 매스컴에 의한 대중동원현상"이며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정치적 무관심, 인간의 주체성을 죽이는 군중심리가 있을 뿐, '붉은 악마' 현상은 파시즘을 가능케 하는 병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히 게시판은 찻은 대부분의 네티즌은 "500만 of 자발적 응원을 매도하지 말라"며 인권운동사랑방에 거센 항의의 뜻을 표했으며 한때 홈페이지가 접속불능이 되기도 하였다.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나 월드컵에 대한 다양한 이견은 가려진 채 언론과 자본에 의해 '하나의 축제'로 꼭 즐겨야만 되는 행사인 양 애기되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장 절정인 축제의 날에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왔다.

붉은 악마는 겉은 훈육된 집단적 제식훈련 문화의 반영이며 문화적 다양성의 부족을 국민주의가 매꾼데서 오는 결과이며 그것이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인식이다. '국가대표'에 대한 과도한 열광

은 결국 길거리에서 냉소적인 젊은이들이 애국가4절까지 복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걸 '민족적 자부심'의 발로나 '공동체 정신의 회복'으로 '오버'해서 찬양하는 기성세대는 공동체로부터 억압받은 한국 젊은 세대의 일탈과 해방의식마저 국민의식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

민족주의를 파시즘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온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그 뜻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위험하다고 본다. 하나가 될 수도 없으며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무서운 획일적 집단주의 세계관이 한국사람들 정신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외국인들이 한국 응원단의 '일사분란함'에 대해 느끼는 '전율'도 아마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쾌거'는 수사학으로 괜찮지만 사실과는 어긋난다. '온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선동 속에서 수많은 사회적 국외자 그리고 '국민'과 관계 없는 수많은 집단의 목소리를 은폐시키기 때문이다. 국민은 매우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며 그 외의 집단적 규정 및 정체성은 그 밑의 하위단위로 인식되거나 사라진다. 무슨 큰 사건만 터지면, 다양하고 모순적인 집단 및 개인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즉각 '국민'으로 적당히 뭉뚱그려버리며 그 안에 모든 것을 녹여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충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추상적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의 성원,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국민'을 강조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을 '온국민' 혹은 '한마음 한뜻'의 이름으로 묶고 싶어하는 언론과 국가의 욕망, 또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깔려있는 것은 지독하게 획일적인 집단주의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16강'이라는 구호는 사실 국민이 하나의 동질적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내셔널리즘의 표현이다. 거기서 국가, 국민, 사회는 하나로 혼용되며 거기서 개인과 아웃사이드는 실종되는 것이다.

## 내셔널리즘, 그리고 그후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특징은 저항주의적 민족주의의이며, 항일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체육, 스포츠는 민족주의의 이념이 강력히 내포되었으며,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저항주의적 스포츠 내셔널리즘이 되었다. 미디어는 박찬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심지어는 8.15 광복 특집의 주인공으로 박찬호를 방영하기도 했다. 붉은 악마 현상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붉은 악마 현상이 스포츠 민족주의와 본질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발성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코드이다. 참여와 자발성, 그리고 자부심. 이것은 민족주의의 코드를 포함하는 세대적 현상이다.

민주화이후의 세대들,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으로 무장한 세대,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줄 알며 이미 한류에 중심이 된 문화세대. 이들의 멘탈리티는 20세기의 민족주의적 담론과는 분명 다르다. 여전히 20세기의 역사가 우리 뇌리에 음각해 놓은 멘탈리티로 21세기를 살며 패배와 좌절, 또는 분열과 소외에 익숙한 것은 이들 세대의 논리가 아니다.

붉은 악마 현상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진로를 밝혀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민족주의 논쟁은 곧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또는 파시즘에 대한 경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새로운 세대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동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민족주의로의 전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 논 단

### 말레이시아의 민족문제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라고도 하는 말레이계가 중국계, 인도계 등과 어우러져 살고 있는 나라이다. 1999년 기준으로 2271만명의 인구 중 말레이계는 62%, 중국계는 27%, 인도계는 8%이다. 말레이계의 인구가 전체의 62%정도밖에 안되지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의 정치적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35%정도의 중국계와 인도계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특기할 만하다.

박지원 /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 서 론

사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말레이계의 정치적 우위를 지키면서 각 민족에게 비교적 잘 개방된 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민주주의의 전형으로까지 인식되었었지만, 1969년의 대규모 민족 폭동 이후 민족문제의 관리를 위해 권위주의로 이행했다. 이후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에 대한 경제적 특혜를 제도화하여 말레이계를 경제적 약자에서 경제의 한 주역으로 키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에서 국내 민족의 민족성(ethnicity)을 다른 개도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볼 수 없다.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인들은 중국계에 대한 경제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민족성(ethnicity)을 가지고 있고, 이는 동남아시아 정치의 중심 문제 중 하나이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이웃나라인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와 같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중국계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 두 국가 모두 다수민족만을 위한 국가를 건설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특성과 말레이계 국가들에 포위된 형국이어서 중국계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성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말레이계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지만 말레이계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27%정도의 중국계가 가진 압도적인 경제력을 감안할 때 말레이계의 정치적 우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전 사회에 걸친 말레이화를 진행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민족의 동화보다는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말레이인의 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민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말레이어를 국어로 삼고 말레이계의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자 국교인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의 말레이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마하티르가 집권한 1982년부터 더욱 본격화된 것으로 말레이 민족의 민족성을 강화하여 정치·경제·사회에서 말레이계가 더욱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 기존의 비경제적인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말레이시아 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같이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벌여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가져온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고, 탈냉전으로 보다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경제전쟁에 대한 대비책이었던 것이다.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국내환경을 조성해야 했고, 말레이계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이슬람교에 집중한 가치체계를 보다 유연한 합리적 사고체계로 전환해야 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게 된 동기였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체제로서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라는 사상누각(砂上樓閣)과도 같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적인 구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민족간 안정과 통합이 말레이시아 정치의 최대 핵심과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말레이계 우대정책과 경제성장 정책 사이를 오가고 있다.

## 90년대 이전의 말레이시아 정치와 민족문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에서 민족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들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 정부나 다수 민족인 말레이계가 가장 민족적인 색채를 띄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민족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민족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다른 민족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발을 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가 말레이시아인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계에 대한 우월한 사회 지위 부여는 당연시된다. 이들이 원주민이고 정치적 실세이며 다수집단이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바로 1969년 5월 13일의 대규모 민족폭동이 그 뒤에 숨어있다. 영국 식민지 시기에 시작된 민족간 분업체제로 인해서 독립 이후 심화되어온 중국계의 경제력 독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말레이계의 대규모 폭동은 2년간의 헌정질서 정지를 가져올 정도로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

말레이계가 다수민족이라고는 하나 겨우 과반수를 넘기는 정도이고 경제력의 90%를 외국인과 중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레이계가 처한 입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력의 불균등한 편재는 식민지 시절 영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민족간 분업체계의 영향 때문이다. 영국인들은 말레이계가 근대적 이윤추구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고무, 야자유 같은 플랜테이션 농업이나 주석광산 등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인과 인도인을 대거 유입시켰다. 더 나아가 중국인들

의 적극적인 이윤추구는 영국인들로 하여금 중국인에게 경제를 맡기게 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술탄들에게 정치적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간접통치를 하면서 말레이인들에게 정치를 맡기게 된다. 이러한 분업구조는 1957년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되어진다.

말레이시아 정치의 핵심정당이자 다수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는 1946년 자파르(Dato Onn bin Jaafar)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1948년 말레이 반도, 페낭, 멜라타의 모든 주가 통합된 연방이 결성되었다. 말레이 공산당의 폭동 후 영국은 비상조치를 통해 공산당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대신 말레이계와 중국계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통해 공산당 세력을 정치적으로 차단시키고자 하였다. 라만(Tunku Abdul Rahman)의 주도로 UMNO는 MCA(Malayan Chinese Association), MIC(Malayan Indian Congress) 등과 결합하여 1952년 동맹당(Alliances)을 출범시키기에 이른다. 1955년 총선에서 동맹당은 반공산주의, 반식민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여 52석 중 51석을 얻는 성과를 내었다. 결국 영국은 1957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로부터 철수를 결정하고 말레이시아는 독립을 획득했다.

UMNO는 급진적인 말레이 민족주의와 농민계급에 기반을 둔 이슬람 정당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영국 식민세력과 말레이 전통 지배계급간의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중국 자본가들은 MCA를 통해 중국계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제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MIC 역시 급진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권을 견제하려는 인도계 중산층의 의도가 적절하게 결합되었던 조직이었다. 이러한 동맹당의 자유방임적인 경제정책은 식민지 시절의 경제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96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고실업 상태와 낮은 성장, 민족-계급간 불평등의 심화는 발화점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sup>1)</sup>

그 결과 1969년 5월 13일에 대규모 민족폭동이 일어났다. 5월 10일의 총선에서 야당의 대대적인 약진, 특히 중국계 정당의 약진은 말레이시아 전 국민의 절반 이상과 국민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계에게 경제적 소외에 이어 정치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이른바 5.13사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폭동의 결과 말레이시아의 헌정은 2년간 정지되었고, 기존의 방임적인 경제정책에서 빈곤퇴치와 경제적 불평등, 특히 민족간 경제적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고 이것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정치도 이전의 각 민족에 개방된 협의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 동맹당도 보다 문호를 개방하여 많은 정당이 참여하는 국민전선(National Front: NF or Barisan National: BN)으로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도정당인 UMNO의 패권화가 더 강화되었다.

즉, 1969년 민족 폭동의 경험이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에 미친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사회통합과 정치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sup>2)</sup> 인종갈등을 비롯한 사회갈등이 제어되지 못할 경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주 역설적으로 다민족 복합사회를 구성하는 거대한 다른 민족집단의 존재 때문에 특정민족, 즉 말레이계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철저한 권위주의 정부가 등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말레이계는 전 인구의 과반수 정도이고 제2민족인 중국계가 압도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비말레이계에 속하는 중간계급이 정부의 말레이족 보호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정부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비말레이계 정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현 정부의 안정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사회적이고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현 정부의 질서가 최고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레이계 중간계급 역시 사회질서의 안정을 위해 1969년 이후 노골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권위주의적 조치를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레이계 중간계급은 현 정권의 중요한 기반인 동시에 견제의 잠재성도 가지고 있다. 한편, 여전히 중국계의 경제적 실력은 정부로 하여금 중국계 기업의 이해관계를 전적으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중국계 기업의 한계는 정치권과의 친분이나 연고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sup>3)</sup>

말레이시아의 권위주의체제는 산업화 전략의 전환보다는 권력자와 도전세력간의 정치적 투쟁, 그리고 다민족복합사회의 사회갈등의 맥락에서 더 잘 설명된다. 집권여당의 결속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배세력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조절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권위주의체제의 강화는 UMNO 집권에 대한 도전세력은 물론이고 집권세력 내부의 권력경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필수적인 대책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강화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민족복합사회에서 어느 한 민족 중심으로 일방적인 권위주의적 지배를 관철시키고자 할 경우 부딪치게 될 타 민족의 정치적·사회적 도전은 수월한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경쟁의 역동성은 말레이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극단적 심화를 저지하는 견제장치로 작동하기도 한다.<sup>4)</sup>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의 심화 현상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민족적 갈등의 관리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5)</sup>

## 신경제정책

신경제정책의 기본목표는 국민경제의 재편성을 통한 경제 성장이었고 그 주도권을 정부가 장악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sup>6)</sup> 1969년과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이었다. 즉, 신경제정책은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지위와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혜적 조치의 추진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목표를 담고 있는 경제정책인 것이다.<sup>7)</sup> 말레이시아의 경제개혁은 처음부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합리성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함께 다민족사회의 정치적 안정까지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민족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균등하게 발전을 담보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말레이계에 편향된 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계와 외국인의 자산을 상당부분 가져와야 하는 제로섬게임이 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계는 국가 자산의 22.5%를 차지하던 중국계의 자산은 50%대로 올라섰고, 1.9%대였던 말레이계도 30%에 근접하게 되었다. 결국, 60% 이상이었던 외국인들의 자산이 줄어들게 된 것이어서 국내에서 중국계와 말레이계의 심각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국내적으로 제로섬적인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신경제정책은 전통적 산업부분에 편중되었던 말레이계를 도시화하고 경제적으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신경제정책은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던 말레이계를 위해 국공립대에서 정원의 70%이상을 말레이계 학생만을 받도록 쿼터를 설정하고, 국가기관과 사기업 모두에서 말레이인 고

용의무, 말레이시아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말레이인의 지분소유의무, 토착 말레이인을 뜻하는 부미푸트라 기업에 대한 각종 사업권의 우선 배정 등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말레이계를 말레이시아 경제의 한 주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도시 이주정책과 정치·경제적 우대정책은 말레이계가 경제적 약자의 처지에서 말레이시아 경제의 한 축으로 올라서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물론, 중국계에 비한다면 아직도 열세이기는 하지만 말레이계의 경제력 성장은 경제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민족간 균형을 이루는 데 성공하는 등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신경제정책의 말레이인 우대정책은 보조의존적인 국민의식을 가진 말레이인 형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했고,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큰 딜레마가 되었다.<sup>8)</sup> 또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배려는 경제정책 자체의 합리성을 제약하였다.<sup>9)</sup> 즉, 신경제정책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민족화를 가속화시킨 것이다.<sup>10)</sup> 싱가포르가 국민들에게 어떤 특혜에 대한 기대나 권리의식을 가지지 않게 만들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인 우대정책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말레이인 중산층’ 만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 한편으로 말레이인들 중에 자신들에게 내려진 특혜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말레이인이 돈을 받고 명목상 대표가 되어 정부의 특혜를 이끌어 내주고 실제 소유와 경영은 중국계가 하는 소위 알리바바 경영(Ali-Babaism)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경제적 고려가 부족한 말레이인 우대조치는 거대한 부실과 의혹을 곳곳에 만들어냈다. 이는 말레이시아 국민경제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있어서도 압도적인 중국계 자본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의 무리한 추진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중국계 자본은 신경제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사업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알리바바 경영을 하는 등의 대응을 했지만, 주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경제정책은 알리바바 경영과 같은 왜곡된 경제 행태를 양산하여 경제구조가 강화되지 못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면서 애초에 의도했던 부의 재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싱가포르식의 경제 삼각구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다국적 기업의 유치로 인해서 신경제정책이 가진 정치성이 합리적인 경제운용정책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말레이계 자본과 중국계 자본의 대결구도에서 외국계 자본의 추가는 국가경제의 균형상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의 주도세력은 정부가 육성하고자 했던 말레이계 기업도 아니고, 정부의 비중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중국계 기업도 아닌 다국적 기업이다. 신경제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생산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저하는 1980년대 중반의 세계적 불황의 여파로 더 이상 방관될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되었고, 1980년대 후반 신경제정책이 수정되어 외국인 투자에 의한 산업화가 도입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유치는 말레이시아 경제에 활기를 주고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말레이인 우대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국내의 국가자본을 중심으로 한 말레이계 자본과 중국계 자본 모두가 제조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제조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서 말레이시아 경제는 외국계 자본의 유출입에 의해 크게 요동치는 종속상태를 보이게 됐다<sup>11)</sup>. 이는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경우와 같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려면 국내적 안정을 담보해야 함을 의미했다. 즉, 내적 안정을 위해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신경제정책은 경제규모의 성장이라는 절대적 기준에서 말레이시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말레이 공동체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나 소득구조의 획기적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중국계와 인도계와의 상대적 기준에서의 말레이계들의 경제적 열등 지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고,<sup>12)</sup> 말레이계와 중국계 등 모든 민족집단 내부의 빈부격차는 도리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신경제정책은 국가통합을 위해 빈곤퇴치와 민족간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목표로 했다. 만일 신경제정책이 중국계의 완전한 경제적 박탈을 원했다면, 말레이시아에는 결국 파국이었을 것이다. 신경제정책은 공존을 위한 차별장치였지 파국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1969년 5.13사태의 악몽이 공존을 위해서 타민족들이 말레이계에게 경제적 양보를 해야한다는데 동의를 이끌어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신경제정책은 국가통합을 위해 이루어진 차별정책이라는 아이러니적인 정책이었다.

## 9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와 민족문제의 변화

독립 이후 1969년의 5.13사태 이전까지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족간 분업체계를 따라 중국계 민간기업에 너그러운 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5.13사태 이후 1970년대부터는 민족간 경제적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신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구체적 방법으로 국가자본의 확장이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발전하여 말레이계 중심의 중공업화정책이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의 전세계적 불황과 말레이계의 중공업화 추진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까지의 말레이계 육성을 위한 국가자본 확장정책이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마하티르 정부는 싱가포르식의 외자유치를 위한 개방정책을 시행한다.

20년간 지속된 신경제정책은 경제적으로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말레이계를 경제적 주체로 만들려 하다 보니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의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당사자인 말레이계는 물론이거니와 중국계 또한 기형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안주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낮은 생산성과 기술력, 그리고 생산적인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같은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특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경영과 자본동원 능력이 부족한 말레이계와 정부의 특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경영과 자본동원 능력이 뛰어난 중국계의 결합이 일반적이었다. 특혜를 받기 위해 외견상 말레이계를 대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소유와 사업은 중국계가 하는 소위 알리바바 경영이 횡행한 것이다. 그래서 신경제정책이 의도했던 20년내 말레이계의 국가자산 소유비율 목표인 30%가 달성되었다고는 하나, 이중 1/3이상이 알리바바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 경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산업화 전략은 말레이계를 대표하는 국가자본과 중국계 자본의 양자구도에서 외국자본의 추가로 삼각구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삼각축의 형성은 기존의 왜곡된 경제구조에 경제적 합리성을 진작시키게 되었다. 비효율적인 국가자본과 중국계자본의 구도에서 효율적인 다국적 기업의 진입은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를 단기간에 국제 무역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바꾸어 놓게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말레이시아의 고도성장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강력한 영향력은 그만큼 말레이시아 경제를 외국자본의 영향에 노출시킨 결과를 가

져왔다. 왜냐하면, 유치된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순식간에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켜서이다. 결국,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와 같이 국내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다국적 기업이 계속 남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세제와 각종 지원, 그리고 노동통제를 통한 좋은 생산조건의 제공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안정의 유지도 중요한 것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2002년 현재 똑같이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서 산업화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시작 의도에서 중요한 차이를 하나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된 직후부터 좁은 국내시장과 도시국가적 취약성 때문에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수출지향적인 산업화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다. 싱가포르의 생존을 위해 조화와 안정을 추구한 李光耀가 경제의 주도권을 중국계에게 주지 않고 외국자본을 직접유치한 것은 중국계의 경제력 독점이 민족간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아서이다. 그렇다고 싱가포르가 경제적 주도권을 다국적 기업에 내준 것은 아니었다. 국가자본을 확충하고 중국계 자본을 존속시켜 자본의 삼각축을 형성하여 어떤 자본에 의한 경제력 독점을 견제하여 경제력 독점으로 인한 사회관계의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여지를 제어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계에게 경제적 주도권을 인정했다가 민족간 경제적 불균등의 심화로 심각한 사회불안정을 경험해야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족간 경제적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신경제정책을 시행하여 말레이계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려 하였다. 대다수의 말레이계가 전근대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는 국가가 자본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민영화하는 형태로 말레이계에게 넘겨주는 말레이계 진흥정책인 부미푸트라정책을 수행하였지만, 말레이계의 능력이나 정부의 역량 모두 의도한 결과를 이루는데 역부족이었다. 과도한 말레이계에 대한 특혜는 비효율적인 낮은 생산성만을 안겨주었다. 또한, 연고주의와 알리바바 경영이라는 왜곡된 부분을 초래하여 정부의 정책의도에 기생한 말레이계와 중국계 사업가들을 무수히 양산해냈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말레이시아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성장한 것은 국가의 대규모적인 자본투입 때문이었다. 결국, 이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말레이시아정부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했다.

말레이시아가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중요했다. 1980년대까지 말레이시아가 이룬 경제성장도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신경제정책이 애초에 의도했던 민족간 경제적 불균등의 해소도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이 마하티르로 하여금 싱가포르식의 선 고도성장 후 민족간 분배라는 방식을 도입하게 만든 동기 중의 하나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진행된 산업화는 나름대로 말레이시아 경제구조를 개선시켜서, 1990년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1997년 말에 닥친 외환위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큰 소요없이 견딜 수 있었다. 즉, 외환위기는 경제전반의 위기로 이어졌지만, 민족간이나 사회적 긴장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개혁과 민족갈등 해소과정이 각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실업증대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9년 중반 실업율은 4%대였고 인플레이션도 5%이하로 비교적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민족정책과 경제정책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신경제정책의 종료와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뿐이다. 이들 국가는 특정 정당과 지도자가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외국인직접 투자형식의 다국적기업 진출에 의한 산업화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다민족 국가라는 태생적 문제점에 직면하여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더 강한 내적 통합의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가 직면한 과제이다. 다민족 구성의 원심성을 구심성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경제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이질적이고 분열적인 민족구성을 갖춘 국가에서는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말레이시아 문제의 뿌리가 다민족 복합사회의 특성에서 나왔고, 민족적 차이가 정치권이나 정치세력의 형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민족 집단에 기반을 둔 정치적 동원과 정치의식이 활발하다는 점과, 민족문제가 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뇌관으로 잠복해 있다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특징이다.<sup>13)</sup>

이 점에서 마하티르의 아시아적 가치론이 다분히 서구의 독주를 겨냥한 대외적인 주장을 위한 논리라고는 하지만, 다민족 사회인 말레이시아 내부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민족주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마하티르는 자신의 저서 『도전』에서 “원인이 물론 타민족 때문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말레이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내야 한다. 신은 민족 스스로가 변화하려 노력하지 않는 한, 한 민족의 운명을 결코 변화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말레이시아 내부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이 인종적 차원으로부터 다민족 복합 사회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마하티르의 말레이 민족주의의 쇄신은 아시아적 가치의 복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담았다.<sup>14)</sup>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주장에는 정치 안정을 이룬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을 묶어두려는 경제적 의도도 숨겨져 있다. 사실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는 나라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뿐인데, 이 두 나라 모두 다국적 기업에 의한 산업화를 추진한 국가들이고, 이들이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한 계기도 기존 정치질서를 존속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좋은 투자환경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즉, 정치체제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의한 산업화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제적 측면도 강하다. 이는 물론 역도 성립되는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을 이룸으로써 정치적 안정도 보장받으려는 의도 역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하티르는 서방 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외국 자본가들의 반응은 역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서방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마하티르 정부에 대한 비판과는 대조적인 것이다.<sup>15)</sup>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가 경직화될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의 생산기지를 찾아 떠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국내의 중국계 자본들도 나름대로 인내의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하티르는 새로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싱가포르가 일찍부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경제 부문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던 것에 비하여 말레이시아는 초창기의 방임정책이나 1970년 이후의 신경제정책이 표방한 말레이계 우대정책 등에서와 같이 개방적이지 못한 경제정책을 시행해 왔다. 결국, 말레이시아도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싱가포르와 같이 외국자본을 붙잡기 위해 기존 정치구도의 유지를 통한 국내 안정을 담보해내려고 노력하

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가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의 추구이다. 물론, 싱가포르의 아시아적 가치가 중국적 가치에 기반한 것과는 달리 말레이시아의 아시아적 가치는 말레이적이며 이슬람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들이 기초한 기본 개념은 다를지 몰라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치안정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라는 기본적인 목적에서 양쪽의 주장은 일치한다.

한편, 기존의 이슬람화 정책에 대한 중화도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적 가치를 추구하게 만든 이유의 하나이다. 말레이계 우대정책과 이슬람화 정책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계의 민족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여 정치·사회적 주도권을 고수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합리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기존의 말레이계 우대정책과 이슬람화 정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외국인 개방정책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하티르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의 정치적 구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동시에 수용해야하는 딜레마를 아시아적 가치라는 기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즉, 기존의 말레이계에 대한 우대와 이슬람화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롭게 요구되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접목이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새롭게 등장한 말레이 중산층들은 말레이계에 대한 특혜가 없어질 경우 정부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신경제정책이 의도했던 빈곤퇴치와 민족간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요소 중에 제대로 된 것은 극빈자의 수만을 줄여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빈곤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민족간 경제력의 차이는 의도했던 것에 비해 적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민족간 경제력 차이보다도 민족 내부의 빈부차이의 심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90년에 공식적으로 말레이계에 대한 우대를 기본으로 하는 신경제정책이 종료되었지만, 새롭게 시작된 국가개발계획(NDP)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계에 대한 우대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너무도

표1 민족별 빈곤율의 변화(단위: %)

|       | 1970년 | 1990년 |
|-------|-------|-------|
| 부미푸트라 | 65.0  | 23.8  |
| 중국계   | 26.0  | 5.5   |
| 인도계   | 39.0  | 8.0   |
| 기타    | 44.8  | 12.9  |

표3 지역별 빈곤율의 변화(단위: %)

|       | 1970년 | 1990년 |
|-------|-------|-------|
| 전체빈곤율 | 49.3  | 17.1  |
| 농촌    | 58.7  | 21.8  |
| 도시    | 21.3  | 7.5   |

표2 민족별 기업자본소유의 변화(단위: %)

|               | 1970년 | 1990년<br>(신경제정책목표치) | 1990년(성과) |
|---------------|-------|---------------------|-----------|
| 부미푸트라(말레이인)   | 2.4   | 30.0                | 20.3      |
| 非부미푸트라(비말레이인) | 32.3  | 40.0                | 46.2      |
| 외국인           | 63.3  | 30.0                | 25.1      |
| 명목상 기업        | 2.0   | -                   | 8.4       |

출처: Samsudin Hitam, Development Planning in Malaysia Labour Market and Human Resource Planning in Asia: Perspective and Evidence, Geneva: ILO, 1993, p.185

많은 말레이계들이 말레이인들에 대한 우대를 당연시하고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 철회는 곧 정치적 기반의 상실일 수 있다. 이는 새롭게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마하티르 정권에는 정치·경제적인 부담이 되었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합리화를 위해 아시아적 가치가 주장되는 것이다. 사실 새롭게 형성되어진 의존 지향적인 말레이계 중산층과 엘리트들은 일종의 마마보이와도 같다. 이들을 울리지 않고 새로운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의 제시와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존의 것과 너무 달라도 안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시아적 가치론과 선진국 입성을 목표로 하는 ‘비전2020’이 나타난 것이다.

어쨌든, 정부기준 빈곤선에 의해 측정된 말레이시아의 빈곤이 1970년 이래 현저히 감소되어 왔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막대한 경제 성장과 신경제정책 하에서의 공공부문 지출의 성장여력이 저소득층에 내려오는 엄청난 적하효과에 기인한 것이다.<sup>16)</sup> 민족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말레이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국가적 빈곤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 비록 빈곤의 문제가 농촌에서 그리고 부미푸트라 집단에서 완전히 일소된 상황은 아니지만 20년 전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발전은 서구와는 다른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발전의 경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서구 민주주의자들의 말레이시아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마하티르는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론에 대해 특수성이 아닌 아시아적 보편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한 이슬람과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합리성의 결합이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상반된 가치들의 결합인 아시아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적 가치론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마하티르는 서방의 언론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론의 보편성 추구는 대외적인 성격보다는 대내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다. 보편성이라는 말은 다민족사회의 복잡성에 대한 일종의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한데, 말레이시아 국내의 동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시아적 가치론의 아시아적 보편성은 매우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의 서구화와 배금주의의 확산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이데올로기적 대응의 성격도 가진다.

## 이슬람과 말레이시아

513사태 이후 거세진 이슬람의 도전에 직면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대응전략은 ①정부 스스로가 이슬람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이슬람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슬람학을 대학입시의 주요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이슬람화 정책과 ②여러 전략적,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종교운동단체인 닥와집단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억압정책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기할 만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마하티르가 경제적 발전이 정신적인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이슬람적 가치의 회색없이 규율적이며 도덕적으로 건전한 현대화된 사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슬람근본주의자들에게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동양의 선진국인 일본

및 한국으로부터 경제발전모델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동방정책을 채택했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이슬람적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엄격한 이슬람원칙하에서 운영되는 이슬람은행, 말레이시아사 이슬람발전재단, 이슬람 보험회사 및 이슬람 전당포를 설립했다.

1982년 출범한 마하티르 정부는 제반 이슬람 행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슬람 종교학교를 증설하는 대신에 전통적인 종교교사인 뿐독에 대한 통제는 강화시켰다. 이같은 공공정책의 이슬람화 추진은 이슬람 종교업무권한을 둘러싼 마하티르 수상과 무슬림 수장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술탄들 간의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주 술탄의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던 이슬람 관련 현안들을 연방정부로 통합시킴으로써 마하티르 수상의 정치적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별히 뿐독에 대한 통제는 말레이계 무슬림을 기반으로 하는 야당인 말레이시아이슬람당 PAS(Parti Islam Se-Malaysia)의 전통적인 정치적, 종교적 기반을 위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슬람 단체들인 닥와(dakwah)집단을 약화시키기 위해 영향력이 강한 정적을 정부여당으로 영입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1982년 ABIM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안와르 이브라힘을 UMNO에 영입하여 그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여 젊은 말레이인들의 지지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슬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마하티르 수상의 또다른 대응전략은 새로운 말레이인의 민족정체성 창조를 시도하는 것이었다.<sup>17)</sup> 신경제정책은 목표설정대로 말레이계 중산층 및 부르주아 계층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풍요로운 경제여건 속에서 영어를 구사하면서 말레이어, 말레이문화 및 말레이 술탄을 상징으로 하는 말레이민족주의에 그다지 집착을 보이지 않는 말레이사회의 이 새로운 사회계층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집단으로서 이슬람과 현대화의 접목을 시도하는 마하티르 정부의 이슬람관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이러한 사회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마하티르 수상과 UMNO의 부르주아 지도자들은 이슬람국가 설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PAS와 닥와집단의 이슬람관과 상충되는 신말레이인의 비전을 창조하면서 이슬람의 도전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부흥운동은 침체의 기미가 역력하다.

그러나, 현실점에서 볼 때 비록, 이슬람부흥운동은 이슬람국가 건설이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사회전반에 이슬람적 기풍을 강화시키는 데는 성공했다.<sup>18)</sup> 1970년대 이전과 비교하여 이슬람적 기풍과 가치가 널리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슬람적 기풍의 강화는 이슬람세력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전개된 마하티르의 이슬람화 정책의 결과이다.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과 말레이 민족정체성과는 여전히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말레이계와 비말레이계를 구분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말레이계 단합의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 이슬람계와 이단시된 이슬람계로 구분되어 분열의 요소이기도 하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화 정책과 억압정책을 통해 이슬람 세력을 통제하는데 성공했고, 이슬람세력들은 정부에 수세적인 입장이다.<sup>19)</sup>

한편, 마하티르와 말레이계 각료들은 비무슬림 사회가 정부로부터 공정한 게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말레이계에서도 이슬람화 과정은 반드시 다민족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비무슬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이슬람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인들도 많다. 그러나, 중국계들은 이슬람부흥운동과 이슬람 정책 등 이슬람화 과정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 왔다. 중국계를 비롯한 비무슬림 사회는 대체

로 이슬람 관련사항은 말레이인들의 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이슬람화 조치가 비무슬림들에게 영향을 끼칠수록 민족간의 갈등과 긴장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마하티르는 말레이인들이 말레이인다움(Malayness)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 즉, 말레이인의 생존은 정치적 헤게모니와 경제적 우월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하티르의 이슬람 정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슬람을 통해서 말레이 민족의 정체성을 개발하여 말레이인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것이며, 둘째, 비무슬림계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다민족사회의 안정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마하티르의 이슬람은 실용적이며 세속적인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슬람화 정책을 통해서 말레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말레이 민족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서 다민족 사회인 말레이시아에 자신의 이슬람정책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sup>20)</sup>

이러한 이슬람 정책의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전에는 이슬람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해 방임하고 있었다. 5.13사태를 전후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이슬람부흥운동과 이를 주도하는 닥와집단과 이슬람정당으로 UMNO와 지지경쟁을 벌이는 PAS를 견제하는 목적과 함께 말레이계의 민족성을 고취하기 위해 이슬람부흥운동에 참여와 통제를 시작한다. 1980년대에 들어 마하티르가 집권하면서부터 이슬람부흥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써 정부가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을 시작한다. 이는 경쟁정당인 PAS나 닥와들을 견제하면서 정부가 이데올로기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이슬람화 정책은 그 정도를 낮추게 된다. 대신에 이슬람과 자본주의가 대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시아적 가치론을 들고 나오게 된다.

이러한 이슬람 정책이 불가피한 것은 이슬람교가 말레이 민족성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현재 말레이인을 구분하는 가장 1차적인 요소는 이슬람교이다. 말레이계라고 해도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면 말레이인으로서의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집단정당인 UMNO의 주요지지세력이 농촌 무슬림이었고, 현재는 이들과 더불어 도시에 새롭게 형성된 말레이 중산층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지지세력으로 유지시켜야 UMNO가 지배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서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가치를 배제하는 전통적인 이슬람교리로 인해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발전은 논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도전받을 여지가 많다. 이 때문에 양자를 융합하고 UMNO의 권위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여 기존의 경제성장전략을 유지하고 사회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아시아적 가치가 주창되어지게 된다.

## 결론

말레이시아는 경제적인 성과를 올려야 민족간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탐색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말레이계를 우대한 산업화 정책은 기형적인 경제 행태를 양산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임이 드러났다.

싱가포르가 일찍부터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다국적 기업에 의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시작했던 것

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국가적인 생존조건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내국인 중심의 산업화를 시작하였지만,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특정 민족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었고, 이는 심각한 내적 불안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불안은 급기야 1969년의 5.13사태로 비화되어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민족간 불만의 위험을 뚝뚝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는 빈곤퇴치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내건 신경제정책이 나오게 만들었다. 신경제정책은 민족간 안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열세인 말레이계의 경제력 상승을 위해 말레이계에 대한 교육, 공직, 사업 등에 있어서의 우대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경제정책은 20년 내에 국가 전체 자산의 3%도 소유하지 못한 말레이계가 자산의 30%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레이계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주고 공직진출과 사업활동에 특혜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인구의 35%를 넘기는 중국계와 인도계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5.13 사태의 악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레이계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민족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핵심인 이슬람교가 강화되었다. 또한, UMNO의 지지기반인 말레이계 무슬림, 특히 농촌 말레이계를 놓고 지지경쟁을 벌이는 야당인 PAS나 이슬람운동단체들인 닥와집단들의 공세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하여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추진된 신경제정책은 다른 민족들의 인내로 인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말레이계 우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엄청난 재정투여로 능력이 결여된 말레이계에게 이권만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이 잘 된다해도 생산성은 형편없었고, 특혜만을 가지고 장사하는 알리바바 경영이 성행했다. 중국계도 신경제정책을 피하기 위해 생산적인 방식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투기나 청탁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결국, 말레이시아 경제의 생산성은 비효율적이 되었고, 경제적 합리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는 대내외적인 경제적 악재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면역력을 낮춘 것이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의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1982년에 집권하여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수행중이던 마하티르로 하여금 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착수하게 만들었다.

새롭게 시작된 외국인 투자에 의한 산업화는 싱가포르와 같은 경제의 삼각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증진시켜 고도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가치를 배척하는 이슬람 교리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했고, 이에 따라 아시아적 가치가 주장되었다. 아시아적 가치는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우선 이슬람적 가치를 중화시키는 것이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안정을 이루려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의 독특성과 견제함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서구 언론의 전망보다는 좋은 것이어서 1997년 닥친 아시아 경제위기를 나름대로 잘 넘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현재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안와르 이브라힘 전부수상 문제는 포스트 마하티르 시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민족간 불안하나마 균형이 유지되겠지만, UMNO를 중심으로 한 집권엘리트들이 패권을 유지해가면서 모든 민족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상당한 딜레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통합이 아닌

類似的 통합상태만을 보일 것이다.<sup>2)</sup>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국가를 재편하였지만, 중국계와 인도계를 비롯한 여타 민족들은 아직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도 아직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강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국문단행본

- Mary F. Somer-Heidhues 著, 朴銀瓊 譯, 『동남아시아의 華僑』, 서울: 형설출판사, 1993.  
 S.시그라이브 저, 원경주 역, 『중국인이야기-보이지않는제국, 화교』, 서울: 프리미엄북스, 1997.  
 김선향, 『마하티르의 도전』, 서울: 학문과 사상사, 2000.  
 김영명 편,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8.  
 김영애 외저, 『동남아의 종교와 국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0.  
 동남아시아연구소 편, 『동남아시아 지역학 개론』,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2.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경제: 산업화와 발전전략』, 서울: 서울프레스, 1995.  
 박사명 외역, 『동남아의 정치리더십』, 서울: 서울프레스, 1996.  
 서울대 국제지역원 편, 『아시아·태평양』,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아시아·태평양』,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양중희, 유석춘, 박길성 공저,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 5개국 비교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 2. 국문논문 및 기사

- “화교경제권과 아세안 국가들”, 『평화연구』, 제7호(1998.12).  
 김두진, “말레이시아의 정치와 사회변동”, 『고려대 아세아연구』, 86호(1991.7).  
 김승희, 「말레이시아의 종족갈등과 신경제정책(1971-1990)」,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소병국, “말레이시아 이슬람 부흥운동의 발전과 침체(1970-1990): 주요 담화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외대동남아연구』, 6호(1997.12).  
 양승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정책”, 『한국외대논문집 어문학회과학자연구』, 31호(1999.6).  
 정영국, “말레이시아 경제개혁의 정치과정”, 『청주대국제문화연구』, 16호(1998.2).  
 박재림, 「말레이시아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과 새로운 딜레마: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의 관점에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박지원, 「싱가포르의 민족정책과 경제발전-李光耀의 대중국계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오영민, 「말레이시아 華僑의 種族性 變化에 관한 研究」, 부산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운재, 「말레이시아의 경제와 한국」, 『고려대 아세아연구』, 86호(1991.7).  
 홍석준, “현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 『서울대 지역연구』, 2호 4권(1993.12).

### 3. 영문단행본

- Amy L. Freema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thnic minorities: Chinese overseas in Malaysia, Indonesia, and th United States, Routledge, 2000.  
 David Brown, State and ethnic politics in Southeast Asia, Routledge, 1994.

- 1) 이선향, 『마하티르의 도전-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와 아시아적 가치』(서울: 학문과 사상사, 2000), pp51-52.
- 2) 같은 책, p69-70.
- 3) 같은 책, p72-73.
- 4) 같은 책, p74.
- 5) 같은 책, p67.
- 6) 같은 책, p87.
- 7) 정영국, "말레이시아 경제개혁의 정치과정", 『청주대국제문화연구』 16호(1998.2), p93.
- 8) 박재림, 「말레이시아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과 새로운 딜레마: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의 관점에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41.
- 9) 정영국, 앞의 책, p93-94.
- 10) 김두진, "말레이시아의 정치와 사회변동", 『고려대 아세아연구』 86호(1991.7), p236.
- 11) 박재림, 앞의 책, p45.
- 12) 정영국, 앞의 책, p101.
- 13) 이선향, 앞의 책, p193.
- 14) 같은 책, p173-174.
- 15) 서울대 국제지역원 편, 『아시아·태평양』(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613.
- 16) 김승희, 「말레이시아의 종족갈등과 신경제정책(1971-1990)」,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54.
- 17) 양승훈 외, 『동남아의 종교와 국가』(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p178.
- 18) 같은 책, p180.
- 19) 같은 책, p181.
- 20) 양승훈,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정책", 『한국의대논문집 어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31호(1999.6), p363.
- 21) 박재림, 앞의 책, p50.

## FOCUS

### 아프칸의 상처

작년 9·11테러사건 이후 세계적으로 태풍의 눈이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선포 이후 총체적 변화를 겪었다. 미국은 신무기와 각종 작전을 통해 본국의 신행무기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봇을 기자로 투입하면서 신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정당한 명분은 그 누구도 미국의 결주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제3세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아프간 동부에서 미군 1천500여명과 호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와 아프간병력 1천명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아나콘다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알-카에다 잔당의 근거지라 간주되는 곳에는 매일같이 용단폭격이 쏟아진다.

전쟁이 10개월 가량 지속되고 아프간 본토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본거지를 아직 확인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과 오마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저 무고한 국민들만이 미군의 용단폭격과 잔당 소탕작전을 두려운 눈으로 피해 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폭과 오인 사격 등 전장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무고한 인명피해 때문인 것이다.

어떤 서방국가도 확고한, 그리고 정당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해 반기를 들 수 없다. 다시 말해, 아프간을 도와줄 국가는 없다. 오직 UNHCR, 혹은 인권단체들만이 도덕적 차원에서의, 인권측면에서의 정당성만 내세우며 전쟁종결을 촉구할 뿐이다. 영국은 특수부대를 계속 중파하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도 기간을 연장시키며 체류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독일 등 서방 선진국은 아프간이라는 수백만이 살고 있는 하나의 국가에 대한 잔학 행위는 제쳐두고 대 테러전쟁이라는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자국의 군사훈련을 아프간에서 실제상황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더욱 아프간을 어렵게 하는 사건은 알-카에다가 거의 소탕되고 새로운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아프간 국민들끼리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아프간 내 군벌들은 대 테러 전쟁이후 자신들의 공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며 과도정부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벌간·종족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전에 알-카에다 요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역 테러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1년 11월 13일 미·영국군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함락한 이후 7개월 만인, 2002년 6월 13일 하미드 카르자이가 아프간 과도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2년 6월 25일 현재, 아프간엔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내각이 구성되고 각료가 임명되었으나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2의 종족갈등이라 볼 수 있는 부통령 암살사건이 발생했다. 정국은 혼란상태고, 미국이라는 대부에 의해 또 다른 이식된 민주주의의 길을 걷게 될 아프간의 미래는 아직 어떤 모습일지 미지수이다. <유정식>

## 논 단

#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미국이나 중국, 캐나다,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대표적인 다민족국가로 민족문제가 상존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의 민족문제라 하면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 국제화는 어느 국가도 피해갈 수 없는 물결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전통적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도 어느 듯 민족문제에서 초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민족문제의 전면적인 대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배경과 현재 한국의 외국인 현황, 그리고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외국인 노동자 정책, 즉 세계화 시대의 올바른 민족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유정석 /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 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 국제적 배경

제2차 대전이후 선진국들의 경제모델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었고, 이는 유럽과 북미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 세입의 재분배를 통한 복지비용의 과도한 지출은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며 1980년대 들어, 국가는 재정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영국은 대처 수상의 등장으로 대처리즘(Thatcherism)이, 미국은 레이저노믹스(Reaganomics)라 불리는 정책을 각각 내놓았다. 이들 모두는 복지국가의 해체 및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시장의 경쟁적 성질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 기업은 노동의 유연화, 수적 유연화, 보수 유연화 과정을 통해 노동자 집단을 해체시키게 되었고, 노동자는 국가가 제공하던 사회적 보호막(social safety net)이 사라지고 시장에 자율성이 부여된 상황 하에서 해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초점은 자본가의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에 맞추어졌고, 국가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던 복지는 최소화되었다. 유럽의 노조는 영국을 제외하곤 급격히 몰락하였으며 자본의 국제적 이동뿐 아닌 노동의 국제적 이동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유럽뿐 아닌 전 세계를 강타하며 모든 국가에게 같은 식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며 구조조정에 압력을 가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었다. 아시아에서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라면 산업 후진국에서 산업 선진국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즉, 동남아로부터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의 유입이 그것이었다.

## 국내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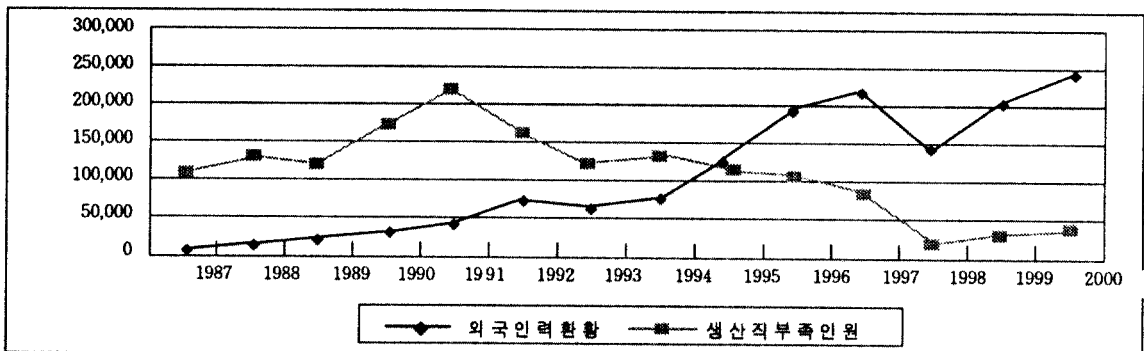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1980년대 고도성장에 따라 산업부문의 인력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노동공급의 양적 증가는 크게 둔화되어 왔다. 그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인력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 관련직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1989년 인력부족율이 3.2%에서 1991년에는 5.5%로 급증하였다. 특히 생산직의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하여 1991년에는 부족율이 9%를 넘었고 이 중에서 종업원 30인 미만의 소기업의 생산직 부족율은 15.3%를 기록하였고, 30~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생산직 부족율이 12.6%를 기록하였다.

고도성장에 따라 임금수준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1987년 이후의 노사분규의 급격한 증가로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급상승하였다.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급상승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과의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1990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노동자의 월평균소득은 중국 노동자의 26배 가량 되었고 태국 노동자의 5배 가량 되었다.

인력부족과 임금상승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발전이 지속된 1980년대 중엽에는 '3D' (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직종의 일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3D현상의 특징은 이 직종의 인력난이 심해서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취업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3D직종에 집중된 중소기업체나 영세기업체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을 높여 내국인 노동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노동환경과 보수가 열악하여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분야에 인력공백이 발생하였고 이 공백을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충원하게 되었다.<sup>1)</sup>

〈표 1〉 생산관련직 부족인원 및 단순기능 외국인력 추이

(단위 : 명)



자료 : 생산직 부족인원 통계는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참조, 2000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외국인 노동자라 하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외국인 노동자를 칭한다.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합법취업자,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중 합법취업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노동자고, 불법체류취업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의 목적이 아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하여 연수업체를 이탈한 자, 그리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자를 칭한다.<sup>2)</sup>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조사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밀입국, 합법 체류기간 말소 등의 이유로 불법 체류자가 증가해서 정확한 인구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부랴부랴 미봉책으로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제도를 공포하고,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 까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2003년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자진 신고기간 내에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인은 재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및 그 고용주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 외국인 노동자 현황

2001년 3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는<sup>3)</sup> 26만5천848명이며,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92개국에서 밀입국자가 1만476명이고, 이중 중국이 15만1천313명(재중 동포 9만1천736명), 방글라데시 1만7천87명, 필리핀 1만6천78명, 몽골 1만3천952명, 베트남 1만3천952명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의 취업분야는 제조업 8만9천174명(35%) 건설 5만5천907명(22%), 음식점 3만 4천573명(14%), 가사보조 9천500명, 농·어업 2천400여명 등이었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월 평균 80만원정도, 이중 100만원 이상 소득자의 89%

〈표 2〉 체류자격별 외국인근로자 수 <sup>4)</sup>

(단위 : 명)

|      | 전 체     | 취 업 비 자 | 연 수 비 자 | 불 법 체 류 자 |
|------|---------|---------|---------|-----------|
| 1990 | 21,235  | 2,833   | 0       | 18,402    |
| 1991 | 44,850  | 2,978   | 0       | 41,877    |
| 1992 | 73,868  | 3,395   | 4,945   | 65,528    |
| 1993 | 66,919  | 3,767   | 8,644   | 54,508    |
| 1994 | 81,824  | 5,265   | 28,328  | 48,231    |
| 1995 | 128,906 | 8,228   | 38,812  | 81,866    |
| 1996 | 210,494 | 13,420  | 68,020  | 129,054   |
| 1997 | 245,399 | 15,900  | 81,451  | 148,048   |
| 1998 | 157,689 | 11,143  | 47,009  | 99,537    |
| 1999 | 217,384 | 12,592  | 69,454  | 135,338   |
| 2000 | 285,506 | 19,063  | 77,448  | 188,995   |
| 2001 | 329,555 | 27,614  | 46,735  | 255,206   |

자료 : 노동부

인 2만4천875명은 중국인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만9천명, 서울 8만2천명, 인천 1만4천명, 대구 3천300명, 부산 2천200명 등 전체의 77%인 20여만 명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었다.

지난 96년 12만9054명이던 불법체류자는 97년 14만8048명으로 늘었다가 IMF 환란위기로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진 98년에는 9만9537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99년 13만5338명, 2000년 18만8995명으로 다시 급격히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02년 말에는 처음으로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최근과 근접한 2001년 12월말의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33만 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등록, 미등록의 형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 법률·제도적 측면<sup>4)</sup>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 기술인력을 제외한 단순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고용을 금지하고 연수생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해왔다<sup>6)</sup>. 정책적으로는 최초, 1991년 10월 26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부 훈령 제255호)” 및 동 시행세칙의 제정을 계기로 11월1일부터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산업 연수생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993년 4월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였다. 1993년의 변화라면, 우선 기존 산업 기술연수제도의 미비점의 보완 및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 업종과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알선, 연수,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산업기술 연수생의 사후관리의 보완과 연수생 도입업체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 연수생들은 본격적으로 1994년 5월부터 입국하기 시작했고<sup>7)</sup>, 2000년 4월에는 산업연수생의 실질적으로 노동을 허가한 연수취업제도가 시행되어, 총 3년의 연수기간 중, 2년 동안은 연수를 그 외의 1년 동안은 취업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나 인권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2년 연수 후 연수업체가 연수생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연수취업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제도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2001년에는 이러한 무리에도 불구하고, 연수 취업기간을 2년으로, 연수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였다.

2002년 현재 상황은 단순기능 위주 인력의 국내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체 취업자의 1%에 가까운 단순기능 외국인력이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 등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연수생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등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정부 통제 밖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력이 전체 외국인력의 64.1%로서 다수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권탄압, 노동 착취 등으로 비난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간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국제적인 나쁜 이미지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외국인력의 도입·활용에 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저임금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요구가 급증하였고, 연수생 도입 업종이 중소제조업에서 건설업, 연 근해 어업까지 확대되고 불법취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외국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  
순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주 논의되어 오던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고용  
허가제 입법안은 전반적인 인력수급 차원에서 부족인력은 가급적 국내 잠재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국내인  
력이 기피하는 직종에만 최소한의 인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유입을 허용하되 업체별로 고용상  
한선을 정함으로써 국내노동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sup>8)</sup>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  
논의는 1995년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표명한 이래 상존해왔다. 고용허가제 반대론의 논의는 주  
로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행동과 국내인권단체와의 공동투쟁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중소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인력수급의 신축성을 결여할 것이라는 논의다.

이에 대해 찬성론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고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연장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가  
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재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극단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  
박하며,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급,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대체하므로 중소기업에의 인건비  
부담도 상쇄될 뿐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은 현행 연수 업체 선정절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특별히 절차나

〈표 3〉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sup>9)</sup>

| 구 분            |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br>(연수취업제도)                                                                     | 고용 허가제                                         |
|----------------|-----------------------------------------------------------------------------------------------|------------------------------------------------|
| 도 입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br>관리법             |
| 정책책임기관         | 중소기업청                                                                                         | 노동부                                            |
| 운영주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업인력관리공단                                       |
| 주요정책<br>결정기구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br>위원장:국무조정실장<br>위 원:경제부처차관<br>외국인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br>위원장:법무부 차관<br>위 원: 경제부처 국(과)장 |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br>위원장:노동부장관<br>위 원:경제부처차관 및 위촉자   |
| 도입절차           | 중기협: 연수업체 선정<br>법무부: 입국·체류 허가                                                                 | 노동부:고용허가<br>법무부: 입국·체류 허가                      |
| 인력모집<br>및 선발   | 연수추천단체(중기협 등)가 송출 기관 이<br>모집, 선발한 인력을 배정                                                      | 외국인력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공적 기구 가 제시하는<br>대상자중 사업주가 최종선발 |
| 도입신분<br>및 체류기간 | 연수생(2년)<br>연수취업자 경우 근로자(1년)                                                                   | 근로자(1년) 단, 1년단위로 최장 3년 간 기간연장 가능               |
| 고용분담금          | 없음                                                                                            | 부과                                             |
| 임금<br>(연수수당)   | 연수생: 연수수당, 연수관리비, 숙식비,<br>기타 수당<br>연수취업자: 기본급, 법정수당                                           | 기본급, 법정수당                                      |
| 상여금 및 각종수당     | 없음                                                                                            |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 수당, 생리수당 지급                      |
| 숙식제공           | 의무적으로 제공                                                                                      | 숙박시설 확보, 식대부담 없음. 단, 내국근 로자<br>식대 제공시 지급       |
| 노동3권           | 없음                                                                                            | 보장                                             |
| 출국교통비          | 업체부담                                                                                          | 없음                                             |
| 사후관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위탁관리<br>회사(중기협 지정법인)                                                            | 노동부                                            |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인권적 측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소수(minority)에 대한 문제로 꾸준히 쟁점화 되어왔다. 각종 언론매체와 사회·인권 단체 등은 활발히 정부에 대해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수준에 도달하진 못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정부 3자가 모두 만족할 만산 제대로 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도 없으며, 이런 정책의 부재는 결국 이방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가속화 시켰다.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문제는 다양하다. 임금체불문제에서부터 산재문제, 사망사건, 자녀문제, 혼인문제, 폭행사건, 매매춘 문제에 이르기까지 법적 보호의 미비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중 일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의식마저 키우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한국 사회 내부의 파장뿐 아닌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자 인권 옹호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불안한 법률적 지위에서 기인한다. 또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은 월40만원 정도의 낮은 연수수당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도 존재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인권보장 대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추방대상인 불법체류자로서의 지위가 상충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인권현실은 결국 정책의 문제로 환원된다. 정부에선 2000년8월1일 대통령 훈령 제91호에 의하여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대책을 심의하고 관계 정부부처간의 대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 발족시켰다.<sup>10)</sup> 하지만, 우선 불법체류자의 현황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고용정책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현행법 하에서의 외국인근로자 보호대책의 철저한 시행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과로 산업재해, 사후관리업체의 불법 인권유린 행위(감시, 협박), 연수생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 근무업체에서의 부당 대우 및 사생활 통제, 임금체불 및 부당 해고, 산재처리기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폭행), 생산현장에서의 연수생에 대한 폭행, 출입국사무소 내 폭행과 금품 요구, 산재자 공상처리,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무리한 불법체류 단속 등 그 형태와 종류를 헤아릴 수 없다. 통계적으로, 2001년 2월부터 9월까지 검찰 집중단속에서 모두 809명의 외국인 인권침해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2000년과 비교해볼 때, 이 중 불법입국 및 체류 알선 관련 비리사범은 63명에서 96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여성 성희롱·폭력은 1건에서 10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483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입국·체류알선·인력송출 관련비리 159명, 산업재해 67명, 불법체류자 단속관련 비리 30명, 폭력 등 학대 25명, 성폭력 11명, 기타 34명 등이다.

이러한 인권 문제의 근저에는 정책 이외의 한국 문화의 배타적 측면 부정적 측면의 인권유린 조장도 빼놓을 수 없다. 배타적 가족주의, 위계의식과 권위주의, 육체노동의 천시, 여기에 의사소통의 문제까지 중첩되어 있다.<sup>12)</sup> 이러한 문화적 차이의 부정적 요소가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차갑게 하고 있는 것이다.

##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비교

### 대만의 외국인력정책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은 인력이 부족한 업종 및 직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외국인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만의 경제발전, 경기변동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응, 각 직종의 노동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규모를 최소화하는 원칙 하에 업종별로 제한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사업체의 경우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본금이 2억 대만달러 이상인 업체로 제한한다.

대만 정부는 전체 외국인력의 숫자, 업종별 배분, 외국인력의 취업직종, 고용부담금, 업종별 외국인 취업자수의 제한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외국인력과 대만기업 간의 고용관계 체결은 민간알선기관이나 기업에 위임한다. 대만의 인력수입국가는 대만과 우호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현재 필리핀, 태

〈표 4〉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수 추이<sup>13)</sup>

(단위 : 천명, %)

| 연 도    | 외국인 근로자수(A) | 임금근로자수(B) | 실 업 자 수 | A / B |
|--------|-------------|-----------|---------|-------|
| 1991   | 2,999       | 5,666     | 130     | 0.05  |
| 1992   | 15,924      | 5,856     | 132     | 0.27  |
| 1993   | 97,565      | 6,008     | 128     | 1.62  |
| 1994   | 151,989     | 6,160     | 142     | 2.47  |
| 1995   | 189,051     | 6,260     | 165     | 3.02  |
| 1996   | 236,555     | 6,287     | 242     | 3.76  |
| 1997   | 248,396     | 6,423     | 256     | 3.87  |
| 1998   | 270,620     | 6,555     | 257     | 4.13  |
| 1999   | 294,967     | 6,624     | 283     | 4.45  |
| 2000   | 326,515     | 6,746     | 293     | 4.84  |
| 2001.8 | 320,827     | -         | -       | -     |

〈표 5〉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현황<sup>14)</sup>

(단위 : 명, %)

|     | 2000년 말 |         | 2001년 8월 |         |
|-----|---------|---------|----------|---------|
| 전 체 | 326,515 | (100.0) | 320,827  | (100.0) |
| 제조업 | 181,998 | (55.7)  | 168,883  | (52.6)  |
| 간병인 | 98,508  | (30.2)  | 105,520  | (32.9)  |
| 건설업 | 37,001  | (11.3)  | 36,221   | (11.3)  |
| 가정부 | 7,823   | (2.4)   | 9,015    | (2.8)   |
| 선 원 | 1,185   | (0.4)   | 1,187    | (0.4)   |

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별 배정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수입국가를 결정한다. 또한, 인력수입에 따른 자국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비 숙련 외국인력의 대규모 유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고용부담금(levy)제도를 도입했다.

## 싱가포르의 외국인력정책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정책은 숙련 직 및 전문직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비 숙련 외국인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에 따라 월급이 2,500 싱가포르달러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법에 의하여 고용허가(work permit)를 노동부로부터 발급 받아야 이 민국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 기간은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동일인에 한하여 4년 간 만 허용되며 귀국하면 재 입국이 불가능하다. 고용허가증 소지자의 고용주는 5,000 싱가포르달러의 귀국보증금(말레이시아 인은 제외)을 정부에 예치하도록 한다. 싱가포르 역시 대만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의 수입국가를 제한하고 있고 외국인력을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취업업종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였다는 역사적 배경,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말레이시아인에 대해 고용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국적에 따라 취업업종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제조업부문의 취업은 말레이시아, 홍콩, 마카오, 한국, 대만 국적의 외국인만 취업이 가능하며, 건설업부문의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북아시아국 모두가 가능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외에 북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만 가능하다.

개방적인 외국인력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비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이나 정착에는 상당한 규제가 있다. 즉, 1개 사업체 당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숫자도 제한되고 서비스산업의 취업에는 최소 고

〈표 6〉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도입업종·규모 및 고용부담금<sup>15)</sup>

(단위 : 싱가포르 달러)

|         | 외국인 고용 상한선                      | 근로자의 구분 | 고용부담금 |    |
|---------|---------------------------------|---------|-------|----|
|         |                                 |         | 월     | 일  |
| 제 조 업   | 총종업원수의 40% 이하                   | 숙련      | 30    | 1  |
|         |                                 | 미숙련     | 240   | 8  |
|         | 총종업원수의 40% 이상에서 50% 이하          | 숙련      | 30    | 1  |
|         |                                 | 미숙련     | 310   | 11 |
| 건 설 업   | 싱가포르인 상시근로자 1명당<br>외국인 근로자 5명까지 | 숙련      | 30    | 1  |
|         |                                 | 미숙련     | 470   | 16 |
| 조 선 업   | 싱가포르인 상시근로자 1명당<br>외국인 근로자 3명까지 | 숙련      | 30    | 1  |
|         |                                 | 미숙련     | 295   | 10 |
| 서 비 스 업 | 총인력의 30%까지                      | 숙련      | 30    | 1  |
|         |                                 | 미숙련     | 240   | 8  |
| 부두하역업   | 싱가포르인 상시근로자 1명당<br>외국인 근로자 5명까지 | 면허 소지자  | 30    | 1  |
|         | MPA 항운노조원 자격 소지자 수×2 이내         | 면허 비소지자 | 240   | 8  |
| 가 정 부   | -                               | -       | 345   | 12 |

\*고용부담금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

〈표 7〉 체류자격별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추이<sup>16)</sup>

(단위 : 명, %)

|                     | 1990      | 1995      | 1998      | 2000          |
|---------------------|-----------|-----------|-----------|---------------|
| 전문·기술분야 근로자         | 67,983    | 87,996    | 118,996   | 154,748(21.8) |
| 특정활동(기능실습생 등)       | 3,260     | 6,558     | 19,634    | 29,749(4.2)   |
| 시간제근로에 종사하는 유학생·취학생 | 10,935    | 32,366    | 38,003    | 59,435(8.4)   |
| 일계인(日系人)            | 71,803    | 193,748   | 220,844   | 233,187(32.9) |
| 불법취업자               | 약 100,000 | 약 280,000 | 약 270,000 | 232,121(32.7) |
| 계                   | 약 260,000 | 약 610,000 | 약 670,000 | 709,240       |

( )내의 숫자는 구성비(%).

육기간을 규정한다든지, 비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으며 싱가포르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싱가포르도 인력수입에 따른 자국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비 숙련 외국인력의 대규모 유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국인고용부담금제(levy)를 도입했다.

##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일본 경제사회의 활성화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단순근로자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사회 및 국민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제정된 이래 유지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고용기회가 부족한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단순기능외국인력의 고용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거나 산업구조의 개선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 근로자의 실업문제나 사회적 비용 발생을 야기하지 않도록 단순노동외국인근로자의 활용에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일본에서는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단순기능인력의 공급은 주로 「일계인」(日系人)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기능실습생과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외국인 유학생·취학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12월말 일본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71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근로자(5,356만 명)의 1.3% 수준이다.

71만 여명의 외국인근로자 이외에도 일본에는 2000년 현재 54,049명의 외국인연수생이 존재한다. 외국인연수생은 근로가 아닌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므로 근로에 종사해서는 안되지만 이들의 일부도 현장연수기간 중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수생, 연수취업자, 「일계인」 등에 대한 총 도입규모(quota) 또는 국가별 도입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 결 어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민족문제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며,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의 허상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충격, 국내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

의 법칙은 자연스레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를 초대하였고, 이제 그들은 30만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규모에 걸맞지 않는 한국의 푸대접에 이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혼란에 빠져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선 국익의 차원에서, 이들은 가능성은 적지만, 국내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세력화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30만의 노동자가 한순간에 모두 국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노동인구의 세계적 이동추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각 국은 이에 대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수립을 통해 이들의 수입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의 국가는 이러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흡수를 이루고 체계적인 노동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긴급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은 축소되고, 축소된 노동시장은 새로운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벌써 30만 명이 넘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고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될 긴급한 사안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 있다. 이제는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통해 위험을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절름발이식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바로잡는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종교단체 및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운동은 아주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태영,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00
2. 박강로, 『외국인노동자정책의 정태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2001
3. 박정규, 『한국의 탈북자 정책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아태지역학과, 2000
4. 박종화, 『외국인노동자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1996
5. 유명기, 『노동문제 논집』 제13호,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1997
6. 송병준, 『노동문제 논집』 제13호,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1997
7. 이변송 · 권주안, 『노동문제 논집』 제13호, “외국인 근로자고용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방향”, 1997
8. 김정렬 · 김성훈, 『노동문제 논집』 제15호, “외국인력 정책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1997
9. 남성일, 『서강경제논집』,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개선방향”, 1995
10. 강현아,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수용정책변화와 관련단체의 반응」, 1995
11. 설동훈, 『신학사상』 113호,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대책”, 2001

## 〈신문검색〉

1. 각종 주요 일간지 2000년 1월 1일-2002년 6월 23일

##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 조사 기간: 2002년 6월 17일-6월 24일(최종점검)

1. <http://www.jcmk.org/>

- 1) 윤인진, 「외국인노동자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발제문, 2001
- 2) 한국노총, 「외국인력 정책방안 세미나 자료」, 2000
- 3) 2001년 12월 말 기준, 법무부
- 4) 각 년도 12월말 기준, 연수비자에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과 산업연수생이 포함되어 있음.
- 5) <http://www.migrantworkers.org/> 검색일자: 6월 20일
-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 7) 1993년 법률 개정지침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했으며, 이 때는 총 2년의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 8) 박강로, 「외국인노동자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2001. 12,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0
- 9) 박강로, 「외국인노동자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2001. 12,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10) 위원장 : 법무부장관, 위원 : 각 관련부처차관, 중소기업청장,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시민단체 대표 1인
- 11) 문화일보, 2001년11월12일, 사회면
- 12) 유영미, 『노동문제 논집』제13호,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1997
- 13) 각 년도 말 기준, 자료 : 행정원 노동위원회, 『노동국통계연간』 2000
- 14) 각 년도 말 기준, 자료 : 행정원 노동위원회, 『노동국통계연간』 2000
- 15) Ministry of Manpower, A Guide on Work Permits, 2000.
- 16) OECD, SOPEMI Report for Japan : Statistical Annex : December 2001, 16p

● ● ● ●  
신간안내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을 통해 본 일본정치의 실체 규명

# 일본의 민족문제

조정남 저 / 교양사 / 값 15,000원

## 주요 목차

## 일본민족의 형성

## 일본민족론의 전개

재일외국인 정책

## 재외일본인 정책

## 일본의 민족적 과제

부록 / 일본인해외이주년표

- 1) 이선향, 『마하티르의 도전-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와 아시아적 가치』(서울: 학문과 사상사, 2000), pp51-52.
- 2) 같은 책, p69-70.
- 3) 같은 책, p72-73.
- 4) 같은 책, p74.
- 5) 같은 책, p67.
- 6) 같은 책, p87.
- 7) 정영국, "말레이시아 경제개혁의 정치과정", 『청주대국제문화연구』 16호(19982), p93.
- 8) 박재림, 「말레이시아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과 새로운 딜레마: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의 관점에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41.
- 9) 정영국, 앞의 책, p93-94.
- 10) 김두진, "말레이시아의 정치와 사회변동", 『고려대 아세아연구』 86호(19917), p236.
- 11) 박재림, 앞의 책, p45.
- 12) 정영국, 앞의 책, p101.
- 13) 이선향, 앞의 책, p193.
- 14) 같은 책, p173-174.
- 15) 서울대 국제지역원 편, 『아시아·태평양』(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613.
- 16) 김승희, 「말레이시아의 종족갈등과 신경제정책(1971-1990)」,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54.
- 17) 양승훈 외, 『동남아의 종교와 국가』(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p178.
- 18) 같은 책, p180.
- 19) 같은 책, p181.
- 20) 양승훈,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정책", 『한국의대논문집 어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31호(19996), p363.
- 21) 박재림, 앞의 책, p50.

## FOCUS

### 아프칸의 상처

작년 9·11테러사건 이후 세계적으로 태풍의 눈이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선포 이후 총체적 변화를 겪었다. 미국은 신무기와 각종 작전을 통해 본국의 신행무기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봇을 기자로 투입하면서 신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정당한 명분은 그 누구도 미국의 절주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제3세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아프간 동부에서 미군 1천500여명과 호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와 아프간병력 1천명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아나콘다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알-카에다 잔당의 근거지라 간주되는 곳에는 매일같이 용단폭격이 쏟아진다.

전쟁이 10개월 가량 지속되고 아프간 본토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본거지를 아직 확인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과 오마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저 무고한 국민들만이 미군의 용단폭격과 잔당 소탕작전을 두려운 눈으로 피해 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폭과 오인 사격 등 전장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무고한 인명피해 때문인 것이다.

어떤 서방국가도 확고한, 그리고 정당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해 반기를 들 수 없다. 다시 말해, 아프간을 도와줄 국가는 없다. 오직 UNHCR, 혹은 인권단체들만이 도덕적 차원에서, 인권측면에서의 정당성만 내세우며 전쟁종결을 촉구할 뿐이다. 영국은 특수부대를 계속 중파하고 있으며 일본 자위대도 기간을 연장시키며 체류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독일 등 서방 선진국은 아프간이라는 수백만이 살고 있는 하나의 국가에 대한 잔학 행위는 제쳐두고 대 테러전쟁이라는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자국의 군사훈련을 아프간에서 실제상황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더욱 아프간을 어렵게 하는 사건은 알-카에다가 거의 소탕되고 새로운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아프간 국민들끼리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아프간 내 군벌들은 대 테러 전쟁이후 자신들의 공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며 과도정부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벌간·종족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전에 알-카에다 요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역 테러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1년 11월 13일 미·영국군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함락한 이후 7개월 만인, 2002년 6월 13일 하미드 카르자이가 아프간 과도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2년 6월 25일 현재, 아프간엔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내각이 구성되고 각료가 임명되었으나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2의 종족갈등이라 볼 수 있는 부통령 암살사건이 발생했다. 정국은 혼란상태고, 미국이라는 대부에 의해 또 다른 이식된 민주주의의 길을 걷게 될 아프간의 미래는 아직 어떤 모습일지 미지수이다. < 유정식 >

## Bushmen - 남아프리카 최초의 인종

“우리 가난한 부시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곳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치고 있는 우리 부시맨을 동정하십시오. 우리 부시맨은 이곳에 최초의 민족인데, 어찌해서 뭐든지 우리는 마지막 줄에서는 겁니까? 우리가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을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도 함께 말입니다. 그림만 남아서 우리 존재를 알려 줄 것입니다.”

피터 고드윈 / Peter Godwin (National Geographic 기자)

최철호 / 교양사회 대표

### 남부 애인에 실던 “진정한 사람들”

남부 아프리카의 최초 민족을 불쌍히 여겨라. 이름도 없는 이 민족을 동정하라. 여러분이 단 하나의 민족이라면, 다른 민족과 구별할 필요성이 전혀 없으니 말이다. 과거 잠베지(Zambezi)에서 회망봉, 대서양에서 인도양까지 독점 소유하였던 이 민족을 가엾게 여겨라. 1200년 전에 이곳에 온 칼라하리(Kalahari)의 츠와나(Tswana) 이웃 민족은 그들을 바사르와(Basarwa), 즉 “무소유의 민족”이라 부르고 있다. 同系인 목장 주인들은 그들을 San(산), 즉 아웃사이더 혹은 유랑자라 부르고 있다. 그들 민족에게는 고대의 과거는 있지만 역사의 기록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로 羚羊, 코끼리, 댜서, 사냥꾼을 그린 영광스러운 巖石畵가 남아 있는데, 그 중 몇 작품은 3,000년 세월의 태양,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 있다. 가장 최근의 그림은 항해중인 배와 말을 탄 기수를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은 없었다.

350년 전 아프리카 남부 해변을 유린한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들을 단순히 부시맨이라 불렀다. 이주자들은 그들을 “길들일 수 없는 종족” 또한 가축에 위협이 된다해서 부시맨을 해충으로까지 취급하여 대량 학살하였다. 19세기 프리차드(J.C. Prichard)의 “인류 자연과학사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인류학 조사 보고서에서 프리차드는 부시맨의 운명을 “이처럼 궁핍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더 이상 인간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라고 요약한 바 있다.

“아프리카의 꼬마 지구인”으로 광고하면서 소수의 부시맨 무리를 인기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별난 쇼”에 참가시켜 영국을 누비게 하고 있다. 일찍이 인류학자들은 부시맨을 “살아있는 화석”, 즉 모든 인류와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인간 진화의 잃어버린 연결 고리로 보고 있다. 다른 인류학자는 그 독특한 부시맨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가 아닌, 동물의 소리로, 이를테면 “닭의 꼬꼬댁 소리나 칠면조의 깉깉 소리”로 여기고 있다.

부시맨은 사회의 외곽 벽지에서, 아프리카 남부의 신분체계, 카스트의 최하위로 신음하게 된다. 많은 부시맨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반투(Bantu) 민족의 사실상 노예가 되었으며, 다른 부시맨은 백인 농장의 막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현재 약 85,000명의 부시맨이 존재하는데, 문명단절의 벽지에서 서성거리며 주로 칼라하리 사막, 보츠와나, 나미비아, 앙골라,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그리고 잠비아의 외곽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부시맨은 지구상의 토착민족으로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부시맨이 사냥꾼-채집자 존재, 그리고 인간이 가축을 기르고 농작하기 이전, 수 만 년 전까지 영위했던 인간의 생활양식과의 마지막 연결선 중의 하나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자연 자체에 의존하던 그 시기.

오랫동안 부시맨들은 지금처럼 사냥꾼이나 채집자로서 완전히 고립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니다. 어떤 인류학자들은 1950년대 시추공으로 알려진 우물이 소개되면서 칼라하리 부시맨의 마지막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사회에 비해 부시맨의 우월성은 물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좁이 풍부한 멜론과 감자 그리고 우기에 물로 가득 채워진 타조알을 밀봉해서 파묻었다가 건조기에 회수하는, 부시맨 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부시맨은 다른 민족들이 살 수 없는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재능은 소용이 없었다. 목축업자들이 시추공이 있는 땅을 차지하면서, 부시맨은 쫓겨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생존한 25여 그룹 중, 소위 순종 부시맨 부족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자연과 완벽하게 합일되어 살고 있는 부족이 나미비아 동북 나이에 나이에(Nyae Nyae)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들의 낭만적인 부족생활은 영화, "The Gods must be crazy(신은 분명

미치광이)"에 묘사된 바 있다. 그 지방의 부시맨은 자신을 주호안사이(Juhoansi), 즉 "진정한 사람들"이라 부르고 있으며, 1,6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나이에 나이에에는 보츠와나와 국경선에 위치한 삭막한 평지다. 과거에는 인종격리형의 "본 고장"으로 그 당시 나미비아는 사실상 남아프리카 지방이었다. 나미비아 독립 후 80년만인 1990년에 나이에 나이에에는 부시맨 자치보호구역으로 선포되었다. 다행히 주호안사이(Juhoansi)는 그들 선조의 땅에서 혹은 그 일부에서 생활하고 있다.

덴위(Denui) 촌락은 나이에 나이에를 구성하고 있는 수십 개 중의 하나이다. 그 촌락은 관목이 우거진 칼라하리 저지대의 울퉁불퉁한 길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부시맨이 살고 있는 초가는 그들 선조들 것과는 거의 다르지 않으나 겨우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움막으로서 사냥과 채집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의 주거형태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촌락은 영구촌락으로 유리 소재로 만든 초등학교가 있고, 시추공에서는 음료수가 뿜어 나오고 있었다.

## 선조의 땅을 지키며 지금지족

우리는 그 촌락에 가까운 덤불 속 빈터에 캠프를 설치하였다. 그 날 밤 나는 눈을 뜬 채로 가래 끓는 듯한 매사냥 소리, 결핵기침 같은 헛기침, 갓난아이들의 칭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소리들은 배회하는 재갈의 울부짖는 소리와 서로 다투며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의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칼라하리는 겨울철이라 추위는 뼈를 에이는 듯 하였다. 새벽 4시 몇 분전에 닭이 울기 시작하였다. 텐트에서 빠져 나왔을 때, 부시맨이 "새벽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목성이 수평선에서 밝게 타고 있었다. 주전자의 물이 뿜뿜 열어 있었다.

우리가 촌락에 들어섰을 때, 몇 가족들이 모닥불

주위에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이들 몇몇은 서츠를 입지 않은 맨몸이었고, 어른들은 기껏해야 누더기 담요로 앙상한 어깨와 드러난 갈비뼈를 감싸고 있었다. 조식으로는 열매와 묶은 차가 고작이었다. 텐 위 지도자인 남스(Namce)가 통나무에 앉아 갈대, 羚羊의 힘줄, 기린의 뼈 등을 사용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고 있었다. 화살촉에는 스티브(영양의 일종)의 빨에서 나온 독을 발랐다.

부시맨의 독은 전설처럼 유명하다. 어떤 사냥꾼은 독사의 독과 선인장즙의 혼합물을 사용하거나 전갈과 문썩거미의 분말을 사용한다고 전해진다.

여기 칼라하리 북부 지역에서도 부시맨들은 다이앰피디아와 폴리클레다의 딱정벌레와 나무의 진을 섞은 강렬한 독을 사용하고 있다. 그 독은 혈

관에 들어가면 몸을 마비시키는데, 작은 영양이 독을 맞으면 24시간만에 죽고 만다. 큰놈은 며칠 걸리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해독제도 없다고 한다.

초기 정착자들을 공포로 떨게 한 것이 바로 부시맨의 독살이었다. 선교사 존 캠프벨은 1800년 초, 부시맨의 화살을 어깨에 맞은 동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머리 주위와 목구멍 부위가 엄청나게 부풀은 그의 모습이 우리를 경악시켰다. 그 독이 서서히 발가락까지 내려오다가 같은 방법으로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부기로 일그러진 얼굴이 보기에 끔찍하였다.” 그 사람은 다음날 저녁 죽고 말았다.

신중하게 독을 다루다가 남스는 흡연을 위해 휴식을 취했다. 그는 금속 파이프에 나무 껍질과 바위너구리 배설물을 채워 놓고 매운 연기를 빨아들이

다가 흡족해하며 내뿜은 후, 이마에 구슬로 장식한 늙은 여인에게 파이프를 넘겼다.

그 파이프가 나에게 왔을 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나의 통역이 사냥감 흔적을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당신 민족이 독서하는 방법과 똑같이 수풀은 우리의 책이요.”

독화살로 무장한 한 무리의 사내들이 사냥 길을 떠났다. 그 사내들은 가끔씩 땅을 훑듯 훑듯 보면서 빠르게 걸다가 걸음을 멈추고 사냥감의 흔적을 살폈다. 나의 부시맨 통역자는 그들이 흔적을 읽는 방법을 독서에 비유하며 설명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 민족은 책을 읽죠. 수풀이 우리의 책이랍니다.” 사내들은 동물들이 남겨 놓은 흔적을 보고 동물의 나이와 성을 알아낸다.

한 여인이 옆구리에 맨 부대를 가득 채우면서 수집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식물과 동물의 사용법에 대해, 어떤 나무 뿌리는 토혈을 치료하는데 좋고, 다른 것은 열이나 감기에 좋다고 설명해 줬다.

한 젊은 사내가 무릎을 꿇고 한 하터비스트(羚羊의 일종) 배설물을 살펴보고 배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화가 덜 된 것이고 더 나이가 들었다고 판별해 낸다.

부시맨은 짓밟힌 개미집을 다시 짓는 흰 거미, 풀잎이 젖혀졌다가 제자리로 온 상태, 거미줄을 다시 만드는 거미를 보고, 그 흔적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판단한다. 부시맨은 사냥감이 화살을 맞는 경우 바로 쫓아가지 않는다. 사냥감이 서 있었던 곳에 가서 그 사냥감의 독특한 냄새나 발자국을 기억해 둔다. 그런 후에야 사냥감이 쓰러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추적한다. 이러한 사냥 재능 때문에 군대나 헌터, 농부들이 게릴라나 사냥감, 밀렵꾼을 추적하기 위해서 부시맨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오늘 사내들은 빈손으로 돌아온다. 나이에 나이

에서의 사냥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냥은 부시맨이 먹는 것의 작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식량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어느 나이에 나이에 촌락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냥이 매주 식량의 20% 이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가뭄 구호기금에서 거의 40%, 35%는 연금, 수공품 판매와 임금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식량을 구매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소나 마초 수집으로 충당하고 있다.

며칠 후 태양이 얼음장같은 아침을 녹이고 있을 때, 나는 촌락 부녀자로 구성된 마초 수집 원정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부녀자들은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개암열매 크기의 만게티 열매를 수집할 예정이었다. 부녀자들은 영양 가족으로 몸을 감싸고, 갓난아기들은 등에 끈으로 걸텐 채 아주 빠른 걸음걸이로 덤불을 헤치며 출발하였다. 자동차 타이어로 만든 조잡한 샌들을 신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거의 맨발이었다. 얼굴에는 문신, 눈에서 푸른 광채를 내면서 아침 햇살을 받은 황금빛 넘실거리는 풀의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얼마 후 여인들은 나뭇잎 더미와 땅을 막대기로 뒤적이고 있었다.

한 여인이 옆구리에 멘 부대를 가득 채우면서 수집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식물과 동물의 사용법에 대해, 어떤 나무 뿌리는 토혈을 치료하는데 좋고, 다른 것은 열이나 감기에 좋다고 설명해 줬다. “그리고 이 뿌리는 행운의 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를 얼굴에 바르면 모든 사내가 사랑한대요,”라며 잡초를 캐내면서 전해 주었다.

우리는 마침내 만가네티 덤불 숲에 도착하였다. 최근에 다녀간 코끼리때, 토네이도로 인하여 나무들이 뿌리째 뽑힌 채 갈갈이 찢어져 있었다. 8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갈 쯤에는 부녀자들의 부대가 수집 품으로 볼록 나와 있었다. 아기들을 등에 고쳐 멘 후 석양을 등지고 저 멀리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는 촌락으로 향하였다. 집에 도착한 여인들

은 잡아온 딱정벌레의 날개를 찢어낸 후 모닥불 더미에 몇 초 간 구운 뒤 한 움큼 나에게 선물하였다. 나는 한 개를 입에 넣고 불안해하며 오독오독 씹었다. 그 벌레 액이 혀를 적시자 서둘러 삼켜 버렸다.

밤에 촌락에서는 가끔 모닥불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곤 하는데, 이 춤은 부시맨의 주요한 靈性的의 하나인 광란의 춤으로 발전하곤 하였다. 수년간 선교사들이 부시맨을 크리스찬으로 개종시키려 했으나 텐위 촌락에선 허사였다. “우린 전통주의자란 말이오,” 그 촌락의 지도자가 설명하였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말을 건네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우리도 말을 걸 수 있단 말이오, 하느님은 아무래도 좋소, 단지 그에게 말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부녀자와 아이들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 손뼉을 치고 있을 때, 사내들은 발로 땅을 쿵쿵 밟아 먼지를 일으키고, 가족으로 걸친 허리를 흔들며 대면서 불꽃 주위를 돌고 있었다. 점차 손뼉과 뜻 모를 합창의 리듬이 빨라졌다. 기린 댄스라고 부르는 이 의식은 그 지방 샤먼인 노인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은 구슬이 달린 머리띠에 타조 깃을 꽂고 있었으며, 바지위로 황토색 주머니가 펄럭거리고 있었다. 그는 모닥불을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광란으로 빠져들어 갔다. 이러한 무의식 도취 상태에서 병자를 치료할 수 있고, 죽은 자 혹은 부재중인 친척과 대화할 수 있다고 부시맨은 믿고 있는 것이다.

병든 계집아이의 어머니가 그 샤먼에게 자기 딸이 왜 병 들었는지를 알아달라고 부탁하자, 그 샤먼은 그 아이 어머니의 생각을 알아내려는 듯이 그 여자의 어깨를 잡고, 어깨에 이마를 눌러댔다. 다른 주민들은 갈대 뿌리로 만든 향료를 샤먼의 몸에 비벼 바른 후, 한 움큼 모닥불에 던지자 불꽃이 일어나면서 무수한 작은 별들이 튀었다.

돌연 그 샤먼은 나불거리는 모닥불을 떠나, 적잖이 나이 들었음에도 근처 나무로 꺾충 뛰어 갔다.

거기에서 그는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을 향해 괴성으로 으르렁대었다. 몇 분 후에 땅에 폭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가시 가지에 찢려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광란의 춤을 계속하면서 찬 허공을 향해 내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문제는,” 샤먼이 죽은 조상을 대신하여 선언한다. “모든 게 잼스복(영양의 일종)에서 시작된 거야. 네가 그 고기를 먹으면서 내장과 밥통, 발굽을 버렸단 말씀 야. 낭비고 말고. 그래서 혼이 노한 거야. 이제 네 딸은 죽어. 남기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광란의 춤은 때로는 긴장을 풀기도하고 결속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낭비는 나쁘다는 이 경구는 드문 일이었다. 영혼과의 대화에서 윤리에 대해 지껄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샤먼은 성난 영혼에게 이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한다. 그런 후 샤먼은 차가운 황토 먼지 위에 쓰러진다. 사지가 경련을 일으키며 마비가 되자 지도자와 주민들이 달려들어 그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경련이 진정되었다.

## 공동체사회를 이루이며 살아온 부시맨

부시맨의 문화에 대해서 인류학은 물론 민속관광 측면에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한 관심이 부시맨 문화유산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옹호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WIMSA, 즉 남아프리카의 순종 소수민족 실무그룹과 같은 단체는 부시맨이 과거처럼 착취당하지 않도록 부시맨과 여행사 사이의 거래에 관여해 오고 있다. 나이에 나이에는 그러한 민속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투 아프리카(Intu Afrika), 즉 부시맨 공동체가 있는 나미비아 남동지역의 백인 소유의 사냥터와 같은 위험요소들이 현존하기 때문에 전통관습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시맨의 문

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다.

날이 갠 후 황갈색의 대지가 눈에 흰히 들어온다. 저편으로 좁고 긴 모래언덕이 마치 모래 바다의 거대한 파문처럼 솟아 있고, 칼라하리의 서쪽 끝에 국경 수비대가 눈에 보인다. 관광객들이 트럭으로 인투 아프리카에 도착하여 약 40명의 소(Xoo)족 부시맨의 환대를 받았다. 오늘 아침 그 부족의 알렉스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타조 트랩 설치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의 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지 옷감으로 몸을 감싸고 있지만, 알렉스는 고작 영양가죽으로 윗몸을 가리고 허리에 천을 두르고 있었다.

부시맨은 야생동물을 흉내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알렉스도 미끼로 다가오는 타조를 완벽하게 흉내내고 있었다. 대가리가 올라가며 걸린 타조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친다. 결국 성공하는 했지만, 대가리는 잘려지고 만다.

알렉스와 그의 동료들은 더 이상 타조를 잡아 식생활을 하지 않는다. 대신 월급이나 팁, 기념품을 팔아 생활한다. 나는 다음날 클레인 데이비드와 네명의 부시맨과 동행하여 잼스복 추적에 나섰다. 숙소 책임자인 힐튼 흄이 사냥총을 들고 우리를 따랐다. 부시맨이 모래언덕을 오르내리며 걷고 있는 동안 데이비드가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대부분 이들 부시맨은 근처 백인과 헤레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시맨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고 만 보츠와나 국경근처에 있는 작은 벽지, Corridor 17 출신이라 했다.

“그곳엔 야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데이비드가 불평하며 설명했다. “토끼조차도 남아 있지 않아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소년이었을 때, 사냥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근처에 사는 농부들이 울타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는 간헐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누군가의 땅을 통과하면, 붙잡혀 감옥에 간답니다. 이제 옛 생활은 없어졌어요. 결코 다시는 돌

아오지 않을 겁니다.”

“클레인 데이비드라는 이름은 제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그는 생각에 잠기며 말을 잇는다. “저의 부시맨 이름은 치소(Tchixo)거든요. 불운하다는 의미죠. 제 아버지가 射手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답니다. 아버지는 행방불명되었어요. 요즈음은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새로운 이름,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었거든요. 과거에 성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서류에 필요하니까 이제 성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저의 성은 삼셉(Xamseb)으로, 코이(Khoi) 말로 사자랍니다. 그러니까 치소 삼셉, 불운한 사자죠.”

인류학자인 제임스 수즈만(James Suzman)이 Corridor 17 근처의 농장에서 일하는 부시맨 10,000명 가량을 조사해본 결과로 보면, 부시맨이 상당히 먼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땅을 빼앗겼을 때는 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긴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부시맨은 가능한 곳은 어디서나 불과 10 혹은 20 평방 마일의 익숙한 지역 내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용이 됐든 아니든, 또한 아무리 심한 처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백인 혹은 헤레로(Herero) 농장에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들 최초의 영토이며, 그 이외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Corridor 17과는 달리 인투 아프리카(Intu Afrika)는 사냥감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홈(Holm)은 겐스복과 V형의 가늘고 긴 뿔이 달린 얼룩 사슴을 잡아왔다. 부시맨은 능숙하게 칼질을 하며 내장으로 만든 자루에 담았다. 피를 몸에 바르는데, 이는 겐스복의 혼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클레인 데이비드가 설명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반짝대는 염전을 가로질러 부시맨 촌락으로 돌아왔다. 그 곳의 농장 이름을 따서 黎明이라 부르는 촌락에서 클레인 데이비드와 다른 사람들이 떼를 지어 허물어진 벽돌집에서 살고 있

었다. 마당은 쓰레기, 낡은 바퀴 테두리와 자전거 잔해로 장식되어 있었다. “지었을 당시에는 집이 정말 훌륭했답니다.” 홈이 말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다 허물고 말았어요. 벽돌집에 사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인투 아프리카(Intu Afrika)에서 국경을 건너 약 47,500명의 부시맨 최대 부족의 터전인 보츠와나로 들어갔다. 대부분이 목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수 부시맨은 지금은 아프리카의 최대 사냥터, 중앙 칼라하리 사냥 보호구역(Central Kalahari Game Reserve)인 조상의 영토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곳은 일년 거의 식수를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다. 1961년 처음으로 보호구역이 세워졌을 때, 부시맨 관리인인 실버bauer(George B. Silberbauer)는 부시맨이 전통방식만으로 사냥을 하는 경우에 야생은 물론 순종 부시맨을 보호하는데도 설치목적을 두었을 거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보츠와나 정부는 의도한 바가 점차 마찰을 일으키자, 국제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시맨을 떠나도록 하는 장려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말썽이 많아 현재 보류 중에 있다.

중앙 칼라리 사냥 보호구역내에 있는 부시맨의 마지막 정착지 중의 하나인 모라포(Molapo)는 가나(Gana)족 부시맨의 터전인데, 숫자는 줄어 현재 150명이 있다. 일부는 학교, 병원, 식수 그리고 재정착 보너스로 일인당 소 5마리, 염소 15마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의로 사냥터 외곽에 있는 정부 지정 정착지로 이주하였다.

내가 이곳에 유일한 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오사카에 있는 국립 인종 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nology)에서 온 일본 학자가 있었다. 카주노부 이케야(Kazunobu Ikeya)가 10년 여 동안 이 부시맨의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 지역의 사실상 단 하나

인, 머리카기 보다 큰 나무에 도끼질을 하고 있는 부시맨의 모습을 비디오 촬영하고 있었다.

“손가락 피아노((엄지손가락으로 튕기는 소형 아프리카 악기)를 만들기 위해 나무 한 조각을 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케야는 그 나무에 줄렌즈를 들이대며 말했다. 손가락 피아노는 엄지손가락으로 튕기며 연주하는 여러 가닥의 금속 줄로 된 소형 아프리카 악기이다.

손가락 피아노용 나무 조각을 떼어낸 바로 그 나무 몸통에 남아 있는 과거의 상처 자국을 손으로 가리키며, 부시맨이 얼마나 자연 보존을 하며 재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케야는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 부시맨이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보니 그 악기 나무는 쓰러질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케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다. 장차 손가락 악기보다는 당장 땀값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았다.

모라포(Molapo) 부족은 조상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과거 부시맨의 전설적인 사막생활은 하고 있지 않다. 지하 배관을 통해서 급수는 하고 있지 않지만, 높게 설치된 대형 플라스틱 급수 탱크를 이용하고 있다. 매달 모소멜로(Mothamelo)에서 오는 정부 급수차가 급수 탱크를 채우고 있다. 이곳에는 염소도, 당나귀도 있다. 이제 그들은 활을 메고 도보로 사냥은 하지 않고, 말을 타고 창으로 무장한 채 사냥개를 동반하여 사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식량을 지급하고 있다.

촌락 구성원이며 칼라하리의 최초인 위원회, 즉 부시맨 권익을 위해 캠페인 벌이는 로비 그룹의 의장인 로이 세사나(Roy Sesana)가 부재중일 때는 깊게 주름진 부시맨 노인, 코보우(Kobou)가 사회를 본다. 그는 두툼한 털실 스킨 모자를 쓰고, 끈 없는 군화를 착용하고 참석한다.

“정부에서 수 차례 방문하여 뉴 세이드(New Xade)로 이주할 것을 설득한답니다.” 그가 말을 이

었다. “우리는 거절했죠. 이곳은 우리 고향이에요. 돈도 필요 없고요.” 위협받은 일은 없었으나, 정부에서 급수를 중지한다면, “우린 이주하거나 죽을 도리 밖에 없죠. 우리는 야생 펠론, 뿌리 등을 먹고 버틸 수는 있지만 그것도 고작 우기 때인 3개월 뿐입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수년간에 걸쳐 전염병의 도움을 받았지만 부시맨의 숫자를 격감시키는 정책을 수행한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였다. 1980년대까지 그 나라에 생존한 부시맨 그룹은 전혀 없다고들 하였는데, 인종격리 정책이 폐지된 이후 흩어진 코마니(Khomani)족 부시맨, 약 250명이 리트폰테인(Rietfontein) 주위 농장과 캠프에 거처를 정하게 된다.

1996년에 발족한 SASI(South African San Institute)의 변호사인 로저 체널즈(Roger Chennells)는 코마니(Khomani) 부시맨 부족에게 Northern Cape Province에 있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반환시키는 새로운 남아프리카 헌법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

칼라하리 겐스복 국립공원, 현재 Kgalagaya Transfrontier Park로 흡수된 과거 칼라하리 겐스복 국립공원을 포함한 넓은 면적이다. 나는 그를 따라 붉은 모래언덕과 칼라하리 남부의 가시 숲, 웰콤(Welkom) 정착지에 갔다. 많은 코마니 부시맨이 체널즈의 요구에 따라 집회를 열어 공동체 지도자를 선출하였던 곳이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어로 진행된 떠들썩한 선거였으며, 체널즈는 한껏 고조된 그 그룹에게 외래의 투표방식을 대략 설명해 주었다.

지도자로 선출된 페트루스 발보이(Petrus Vaalbooi)는 참석한 부족민에게, “암사자가 출산하면 그 새끼를 훔쳐야 하는데, 도와 주시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을 어르는 방식이다. 몇 개월 후 2000년 초에 남아프리카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보호지역 바로 남쪽에 있는 한 구획의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아직도 그들은 그 땅을 관광 혹은, 농장용으로 개

발하는데 엄청난 난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승인, 토지권 획득을 위한 모든 부시맨의 투쟁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이처럼 극히 적은 수의 부시맨이 있지만, 그곳은 지구상 가장 큰 부시맨 정착의 본고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곳으로 슈미츠드리프트(Schmidtsdrift)라는 곳이 있다. 앙골라, 나미비아에서 온 4,300명의 부시맨이 킴벌리, Northern Cape의 지방 수도인 킴벌리(Kimberley)의 서쪽에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슈미츠드리프트에 고립된 채 갇혀있다.

그곳은 폐허나 다름없는 음울한 곳이다. 약 1,900개의 군인 텐트가 발(Vaal)강 언덕으로 통하는 자갈 투성이 구릉지대에 설치되어, 격렬하게 반목하고 있는 부시맨의 두 그룹 즉, 수(Xu)족과 크웨(Khwe)족을 분리시키고 있다. 1990년 이후 이곳은 남아프리카 육군의 임시 부시맨 대대였다. 그 대대는 인종격려 정책이 폐지된 후 1994년에 해체되었으나 부시맨은 떠나지 않았다.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 자연 친화적인 부시맨의 투쟁

슈미츠드리프트(Schmidtsdrift)가 아마 부시맨의 가장 풍족한 공동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과거 군인이었던 많은 부시맨이 계속 연금을 받고 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직원으로 잘 갖춰진 위생병원이 있다. 그러나 슈미츠드리프트에서는 이 민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외부 세계에 대한 상실,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알콜과 대마초가 만연되고 있다. 상점의 회전문을 통하면 첫 번째로 주류코너가 나온다. 맨 밑 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는데, 톱 브랜드의 백포도주가 날씬한 병이 아닌 은박지 백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것 같다.

병원의 군의관은 12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알콜에 중독되어 있으며, 결핵이 제1의 킬러라고 일러 준다. 부시맨은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의 전통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말기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병원을 찾아온다고 한다.

부시맨은 서방 의약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어서, 문화장벽을 뛰어 넘을 수가 없노라고 그 의사는 토로했다. 캠프 학교에서 점심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다. 1,600명이 넘는 학생이 식사, 즉 국자로 퍼주는 걸쭉한 수프와 빵 한 덩어리를 배식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 이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하루 한끼 식사이며, 또한 수업의 담보가 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수프는 없는 것이다.

슈미츠드리프트의 수(Xu) 전통 보존 위원회의 지도자는 수(Xu)족 부시맨으로 마리오 마혼고(Mario Mahongo) 하사다. 그는 수(Xu), 크웨(Khwe) 공동 자산 협회의 회장이다. 이 단체는 수와 크웨 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문기구이다. 이 협회는 전 공동체를 인근 농장으로 이주시켜, 정부와 개인의 지원을 받아 영구 주택, 전통 기념품의 제작, 판매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마혼고는 수염을 기르고 거북껍질로 만든 선글라스, 군복, 갈색 군화를 착용한 키가 작은 사내이다. 그는 캠프 중앙에 사무실 겸용 이동식 주택에 앉아 있다. 그 뒤의 벽에는 구호가 적혀 있는 포스터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곳의 많은 사내들처럼, 포트갈 식민지 주민 편에 서서 앙골라 독립투쟁에 참여한 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하였다.

“우리와 흑인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죠,” 그가 털어놓는다. “흑인들은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어요. 포트갈 사람들이 이를 눈치채고, 또 그들 역시 흑인들과 갈등을 겪기 시작하자 우리에게 접근한 거죠, ‘뭉칩시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라며.”

1975년 포르투갈인이 앙골라를 떠난 후, 남아프리카

카는 부시맨을 모병하여 나미비아의 친 독립게릴라와 전투를 벌렸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나미비아 역시 독립국가가 된 후, 부시맨은 보복이 두려워 남아프리카로 다시 도주하였다.

“우리는 국경선도 없고 울타리가 없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마혼고가 계속한다. “그러나 이곳 남아프리카에선 잊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것이 꾸러미처럼 포장되어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앙골라에는 아직도 자연 그대로 야생할 수 있는 곳이 남아 있기는 하죠. 나미비아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제 마음은 아직도 앙골라에 가 있는데, 지금 제 자식들에게 그곳은 외국이랍니다. 제 고향은 과거나 현재나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 문화를 실생활에서 찾아 볼 수 없어요.

즉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숲에 갔다 돌아온 후 그 숲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식에게 전해 주는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전해줄 이야기 없는 거죠. 후대에게 남겨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옛날에는 악기를 만들어 반주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시내에 가서 테이프를 서서 듣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수(Xu)와 크웨(Khwe) 협회의 연락 장교인 바티스다 살바도르(Batisda Salvadore)는 나를 그 캠프여행에 데리고 갔다. 그는 포트갈인 아버지와 수(Xu)부족의 어머니를 둔 사내였다.

“정부는 부시맨은 부시맨이라면서 우리 모두를 뭉뚱그리고 있죠. 이곳에는 2개의 부족이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요. 문제는 크웨(Khwe) 부족은 수(Xu) 부족보다 식사를 더 많이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아내를 탐하고 있어요. 전혀 부시맨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설명하였다.

과연 크웨족은 반투(Bantu)족을 닮은 것 같았다. 키가 더 컸고, 피부색은 더 검었다. 그 부족은 서구

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시맨의 전형적인 외모를 닮지 않았다.

나는 살바도르와 발(Vaal)강가로 걸어 나갔다. 반대편에는 관개시설이 되어 있는 알팔파 밭과 잘 갖춰진 백인 소유 농장이 있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소수의 부시맨 부족이 강가로 이주해서 강가에 기대어 만든 작은 움막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강 여울에 벌거벗은 채로 헤엄을 치며, 모기장과 구멍이 뚫린 세이드 천을 사용하여 메기를 잡고 있었다.

“왜 캠프를 떠났습니까?” 의혹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있는 한 가족에게 내가 묻자, “소음과 술주정뱅이들이 지긋지긋해서요,” 깡마른 중년 여인, 캄귀아 문딘다(Kanguia Mundinda)가 말을 받는다. “우린 계속 이주할 거예요. 그게 우리 방법이거든요.”

슈미츠드리프트를 떠날 때, 마혼고가 와 작별인사를 하며 애원했다. “우리 가난한 부시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곳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치고 있는 우리 부시맨을 동정하십시오. 우리 부시맨은 이곳에 최초의 민족인데, 어찌해서 뭐든지 우리는 마지막 줄에서는 겁니까? 우리가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을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도 함께 말입니다. 그림만 남아서 우리 존재를 알려 줄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부 부시맨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민속 진열관 뒤로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혼고의 애원은 벌써 아득한 외침으로 들린다. 남아있는 부시맨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아마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별나게 자연 친화적인 그들 문화의 과거 유산이 아닌가 싶다.

출전: < National Geographic > Feb/2001

## 부라트인과 한국인의 역사적 상호관련성

부라트 족과 한민족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증거는 고고학자들이 이불긴 주거지에서 발굴한 유물들이다. 이곳에서는 개와 돼지의 뼈가 말이나 염소의 뼈보다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또한 고대의 난방시스템으로서 부라트 민족 및 한민족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온돌(부라트어-칸)이 발굴되었다. 따라서,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부라트인들과 한국인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민족이며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마리나 덤브레노브나필데노바 / 썸페페르부르그 국립대학 박사과정  
번역 · 김인성 / 同대학 박사과정

### 인민족의 발생과 문화를 재조명

몽고학, 불교학, 및 북부 티베트 학 분과의 러시아학술아카데미 회원이자 부라찌야 국립대학 교수인 바이르 다쉬발로프 박사는 수년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로 2002년2월 “부라트 민족과 몽골 민족의 고 중세 역사 개관”이라는 저서를 내 놓았다. 이 저서는 부라트 민족의 발생과 관련하여 많은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부라트 민족의 발생 및 문화의 형성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해결함에 있어 오늘날에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주요한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다쉬발로프 박사는 수많은 유적 탐사 작업에 참여한 바 있는데, 그 결과물로서 시베리아 바이칼 지역의 중세 쿠룸친 문화의 연구와 관련된 40권이 넘는 저서를 발표해왔다. 부라트 민족의 형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민족 자신의 역사라는 협소한 범주에서 벗어나서 몽골인, 야쿠트인, 에벳트인들처럼 동일한 민족적 기원을 가지는 집단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변한다.

여기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 중에서 특

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부라트인과 한국인을 포함한 몇몇 동아시아 민족들이 가까운 관계이며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동일하다는 그의 가설이다. 이는 제시되고 있는 자료들, 또한 저자의 흥미로운 해석 및 학문적 발견과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토착 부라트 민족의 발생은 중세시기의 호리(x o p u)족과 관련되어 있다. 호리족에 대한 이해는 고고학적 유물을 연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집단 취락지, 주택, 관개수로, 고대 농경지, 무덤, 기념비들 등을 통해 현재 상당부분 밝혀진 쿠룸친 문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비교를 통하여 저자는 많은 발견 물들이 한국의 고대 문화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를테면, 쿠룸친의 봉분 유물들에서는 청동으로 만든 종들과 작은 방울 종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 북부 등 극동의 고대문화에 특징적인 것들이다. 또 다른 예로서 나선형 및 타원형의 장식무늬, 또한 아무르 강 유역의 사카치-알란의 암석에 새겨진 조각들, 고대 한국의 귀족들의 봉분에 그려진 예식용의 말들, 말 탄 사람 등의 그림들은

호리 족들의 암석 벽화들과 유사하다. 이러한 예들은 해당민족들의 예술이 동일한 문화집단 속에서 발전하였으며, 동일한 기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몽골인들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이와 관련하여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대개의 학자들은 많은 동아시아 민족들의 조상은 둔후(Дунху), 즉 동방의 호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바이르 다쉬발로프 박사는 이들을 호리-몽골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들은 유목민이자 농경민들이었고, 높은 수준의 문화적, 지적 잠재력으로 인해 그들은 많은 종족들을 지배하였으며, 몇몇 다양한 민족들을 형성하였다.

## 우호적 관계의 민족과 러시아의 방향

호리인들은 어떻게 현 부랴트야의 영토에 출현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조상의 땅은 어디인가? 다쉬발로프 박사의 확신과 고고학적 유물들이 증거하는 바를 따르자면, 부랴트야에 정착한 호리 족의 기원은 내몽고와 둔베이 지역이다. 이 지역은 몽고족-만주족-한민족의 중심지로서 이들의 역사적 친척성의 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으로부터 호리 족들은 북쪽으로(야쿠트 호리족), 남쪽으로(부랴트 호리족), 남서쪽으로(호리-토곤족), 남동쪽으로(고구려-고려를 형성한 한민족 국가의 귀족들) 이동하였다.

한민족의 역사책들에 따르면 이 국가의 시조인

동명은 전설적 국가인 고리(Кори) 출생이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자면, 이 전설은 실제에 기반한 것이다. 역사 서들에 따르면, 한민족은 석관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둔후족, 즉 호리 족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세 개의

발을 이용한 도자기들, 즉 三足器들도 발굴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농경민족문화의 특징이다. 연구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고리'와 '호리'는 부랴트어와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단지 두 언어에서만 이 명칭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부랴트 족과 한민족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증거는 고고학자들이 이

바이르 다쉬발로프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고고학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부랴트인들과 한국인들의 집단 취락 및 농경 문화들이 같은 친족관계로서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들을 증명한다.

불긴 주거지에서 발굴한 유물들이다. 이곳에서는 개와 돼지의 뼈가 말이나 염소의 뼈보다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또한 고대의 난방시스템으로서 부랴트 민족 및 한민족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온돌(부랴트어-칸)이 발굴되었다. 따라서,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부랴트인들과 한국인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민족이며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수년동안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다쉬발로프의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의 의미가 과소 평가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들 두 민족에게 공통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러시아와 한국간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2. 1

2002. 7

2002. 1. 4

### 인종차별철폐회의 폐막 4개월만에 선언문 합의

2001년 9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열린 유엔인종차별철폐회의가 폐막 4개월 만에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완전 합의를 도출하고 세부 합의내용을 공개. 선언문과 행동계획은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등에 역사적 사실 인정 및 반성을 토대로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을 종식해야 한다는 내용.

2002. 1. 9

### 미국 불법체류 중동남성 6천명 검거 나서

미 법무부는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활동하는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미 정부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실시. 미 법무부가 이미 추방명령을 내린 이들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30만명. 이중에서도 검거의 1차 대상은 중동 출신의 남성 6000여명.

2002. 1.22

### 인도 콜카타 미 문화원 피습

인도 동부 콜카타(옛 캘커타)의 미국문화원 앞에서 4명의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 경비 중이던 인도경찰 5명이 숨지고 행인 1명 등 20명이 부상.

2002. 2. 5

### 세계경제포럼 통해 민족, 국가, 종교간 갈등 확인

처음으로 스위스의 다보스를 떠나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종결. 불안정한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은 불안해진 세계 정치·경제 상황과 국가·민족·종교간 갈등 해소 방안 등을 토론, 결렬.

2002. 2. 20

### 콩고공화국서 인종 충돌

소총·칼 등으로 무장한 3백명의 렌두족(族)이 고마 북서쪽으로 3백57km 떨어진 부니아주(州)의 헤마족을 공격, 충돌이 발생, 2백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유엔 군사감시단이 진상조사에 착수. 두 부족은 커피 등을 놓고 충돌해옴.

2002. 2. 28

### 이, 팔 난민캠프 대규모공격

이스라엘군이 탱크와 헬리콥터의 엄호 아래 요르단강 서안의 발라타 및 제닌 등 난민촌 2개소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12명 등 13명이 숨지고 130여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

2002. 3. 14

### 유엔, 팔 독립국가로 첫 인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양측간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최초로 통

과시킴.

2002. 3. 29

### 스리랑카 평화협상 태국 개최 합의

스리랑카 정부와 반정부 게릴라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간의 18년에 걸친 분리주의 독립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노르웨이의 주선으로 태국에서 열리게 개최.

2002. 3. 30

### 이슬람 단체, 이스라엘 팔' 침공에 단결투쟁 맹세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지하드 등 팔레스타인 정치, 종교 등 각계단체들이 상호 연대, 이스라엘의 라말라시 재점령에 저항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2002. 3. 31

### 앙골라 내전 27년만에 평화협정 서명

앙골라 정부군과 반군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맹(UNITA)'은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27년 동안 50여 만명의 인명을 앗아간 내전을 끝내는 협정에 서명.

2002. 4. 2

### 유엔, 르완다 학살 주모자 재판 시작

지난 1994년 르완다에서 50만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집단학살을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있는 르완다군 장교 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 당시 100일 이상 계속된 집단학살로 소수 민족 투치족 및 후투족 중 온건파 5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음.

2002. 4. 11

### 팔레스타인 사망자 500명

사예브 에라카트 팔레스타인 수석 협상대표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지난 12일 동안 500명이 숨졌으며 그곳의 팔레스타인 사회를 겨냥한 이스라엘측의 중대한 범죄가 계속되고있다"고 지적.

2002. 4. 13

### 유엔요원, 코소보 폭력사태 피해 철수

세르비아인들의 거주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북부 코소보에서 최근 폭력사태의 확대에 따른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유엔민간요원들이 대부분 철수. 코소보내에서 민족분규가 가장 격심한 이 지역에서 지난 1년중 가장 치열한 이날 충돌사태는 유엔경찰군이 세르비아인 거주지역에 검문소 1개소를 설치하려다 발생.

2002. 4. 18

### 콜롬비아내전 희생자, 올해 650명 초과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콜롬비아 내전으로 반군 452명과 정부군 205명 사망. 콜롬비아정부 부는 제2의 반군조직인 민족해방전선(ELN)과 협상중.

2002. 4. 20

**보스니아, 민족평등 보장 수정헌법 제정**

보스니아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정. 개정헌법에 따르면 기독교 세력이 우세한 세르비아에 사는 이슬람 교도와 크로아티아인, 이슬람계가 주도하는 크로아티아에 사는 세르비아인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대표선출권 부여.

2002. 4. 22

**필리핀, 남부 헤네랄 산토스에 비상사태 선포**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연쇄 폭탄테러 사건으로 14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친 남부 헤네랄 산토스에 비상사태를 선포. 이슬람 무장단체인 아부 사야프는 폭탄폭발사건은 아로요 정부의 남부 이슬람 소수민족 말살에 맞서기 위해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며 앞으로 추가 공격가능성을 경고.

2002. 4. 22

**인도 종교충돌 재발 100명 이상 사상**

인도 최악의 종교분쟁 지역인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간에 또 다시 충돌사태가 발생, 18명이 사망, 최소한 91명이 중상.

2002. 4. 23

**영국 인종폭력사태**

영국 중부 랭커셔주의 프레스턴에서 서남아계와 백인간의 인종폭력사태가 발생. 영국은 지난해 여름에도 중부 산업지대를 중심으로 서남아계와 백인들간의 인종폭력사태가 확산됐었음.

2002. 5. 1

**인도, 구자라트 사태는 인종청소**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州)에서 2002년 2월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힌두-이슬람교도 유혈충돌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이슬람교도 말살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유럽연합(EU) 조사단 보고서를 인용해 30일 보도.

2002. 5. 9

**무사라프, 보안군에 최고경계령 발동**

페르베즈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발생한 버스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 보안군에 최고경계령을 내리고 테러리즘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 파키스탄 내의 많은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올해 초 무사라프가 5개 이슬람 무장단체를 불법화하자 이에 대한 복수전 지속.

2002. 5. 13

**전유고군장교, 코소보 인종청소 명령문 목격 증언**

코소보 주둔 유고슬라비아군 출신의 한 알바니아계 장교가 코소보 내전 때 군에 '인종

청소' 명령을 하달한 전문을 직접 목격했다고 유엔 구유고전범법정(ICTY)에서 증언.

2002. 5. 20

#### 시에라리온, 카바 대통령 재선

10년 간의 내전으로 2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가운데 양측이 휴전과 선거를 통한 새 정부 구성에 합의, 지난 14일 총선과 함께 실시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반군보다는 유엔과 영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는 카바 대통령을 선택.

2002. 5. 24

#### 인-파, 핵전비화 경고 속 분쟁격화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경고 속에 양측간 분쟁이 더욱 격화.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5월 17일 이슬람 무장괴한의 공격 이후 카슈미르지역 희생자는 9명으로 늘어났고 가옥 80여 채가 파괴됐으며 곳곳에서 화재 등 피해가 속출, 1만8천여 주민들이 집을 잃고 임시 난민수용소에 수용.

2002. 5. 28

#### 콜롬비아 정부군-반군 충돌

콜롬비아 대통령선거 이틀후인 28일 게릴라조직인 친(親)쿠바계 민족해방전선(ELN), 반군조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정부군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폭발로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선 후유증 지속.

2002. 5. 29

#### 카슈미르 집권당, "자치 위해 투쟁할 것"

주정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도령 카슈미르주 집권당인 국민회의당은 인도로부터 자치를 얻기위해 투쟁할 것이라 천명. 반면 카슈미르주 소수민족인 힌두족을 대표하는 우익 단체들은 인도 정부에 대해 자치권을 줄 경우 카슈미르 주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2002. 5. 30

#### 중국 소수민족 언어 억압

중국 정부가 이슬람인 밀집지역인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간판대학에 위구르어(語) 대신 중국어(普通話)로만 교육할 것을 지시, 위구르인들이 반발.

2002. 5. 31

#### EU, '테러' 구실 이민 강박억제방안 추진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과 13개 EU 회원국 후보국들은 이날 로마에서 내무장관 회담을 열어 불법이민 억제에 의견을 모으고 '유럽 국경경찰대' 창설안 마련.

2002. 6. 4

#### 태국 통학버스에 총기난사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서 약 10km 떨어진 라차부리성 남부지역에서 3명의 무장괴한들이 통학버스에 총기를 난사 10대 학생 2명이 숨지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 당국은 괴한들이 두건과 군복을 착용하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미얀마 인근의 소수민족인 카렌족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2002. 6. 5

#### **스페인 의회, 바스크당 불법화안 가결**

스페인 하원은 바스크 분리를 주장하는 무장단체 ETA의 정치조직인 바타수나당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

2002. 6. 5

#### **이탈리아 의회, 지문날인 요구 새 이민법안 채택**

이탈리아 하원은 이민자들의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이민법안 승인. 이 법안이 곧 상원에서도 통과, 법으로 확정되면 이민자들의 추방이 더욱 용이해지고 아울러 위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

2002. 6. 6

#### **미얀마군, 산족 공격 중 70여 명 사망**

미얀마 정부군이 태국 접경지역의 산족 반군에 대한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다 최고 7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태국군 고위 소식통이 전함. 이번 교전은 올해 태국-미얀마 국경에서 벌어진 교전 중 가장 치열한 전투.

2002. 6. 7

####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 열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 6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상하이(上海)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최. 6개국 정상들은 특히 중앙 아시아에서 국제 테러, 소수민족 분리 움직임, 종교적 극단주의 등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

2002. 6. 9

#### **콩고서 민간인 약 400명 학살**

콩고민주공화국(DRC) 북동부 이타루 지역에서 최근 사흘사이 약 4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됐다고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한 반군단체가 밝힘. 현재 콩고내전은 짐바브웨와 앙골라, 나미비아 군대가 킌사샤 정부를, 르완다와 우간다 병력이 지난 98년 8월 봉기한 반군을 각각 지원하는 국제전 양상으로 전개 중.

2002. 6. 17

#### **이스라엘, 350km 분리장벽 건설 시작**

이스라엘은 16일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 테러공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요르단강 서안을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차단하는 총연장 350km의 장벽을 건설 시작.

2002. 6. 20

**미상원 “탈북자 복송 중단하라”**

미국 상원은 탈북자들의 망명 허용과 북한 송환 중단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탈북자들에게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안당국에 붙잡힌 탈북자들의 신변을 확인,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

2002. 6. 20

**세계난민 1980만명 1년 새 200만명 감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19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난민 현황에서 2002년 1월 현재 세계 난민 수는 국내추방자들을 포함해 1980만 명으로 집계.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381만명으로 여전히 세계 난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55만4000명의 부룬디 난민과 이란에 있는 53만 명의 이라크 난민의 순서.

2002. 6. 21

**독일 대통령, 이민법 서명**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마련한 이민법은 외국 이민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기술 인력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 이민법은 오는 2003년 1월 1일 정식 발효.

2002. 6. 25

**미국, 인종편견 동기 범죄 350건 수사**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9.11테러 참사이래 지금까지 중동과 아시아 출신자를 상대로 인종편견에 의한 위협과 폭행, 폭파음모 그리고 파괴 혐의 등이 포함된 350건의 범죄 보고 수사중.

2002. 6. 27

**미국 “탈북자 난민인정 검토”**

콜린 파월(Powell) 미국 국무장관은 일부 탈북자들에게 국무부의 ‘P-2(Priority-2)’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Brownback) 상원의원이 밝힘.

2002. 7. 1

**우간다 반군 난민캠프 공격**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LRA)’이 우간다 북부의 북부 굴루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푸롱고 캠프를 공격으로 10명사망, 11명 부상.

2002. 7. 5

**가이아나 반정부폭동 10여명 사상**

중남미의 소국 가이아나에서 반정부 폭동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12명이 부상. 흑

인제는 동인도계인 자그데오 대통령 정부 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

2002. 7. 11

**미국, 흑인소년 구타, 제2의 로드니 킹 사건 우려**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서부 잉글우드에서 백인 경관들이 흑인 10대 소년에게 수갑을 채운 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 TV로 방영되면서 이 지역의 흑백 갈등 재연.

2002. 7. 15

**발칸 3국 지도자, 내전후 첫 협력선언 서명**

유고연방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 발칸 3국의 지도자들이 내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

2002. 7. 15

**시라크 암살 기도범 극우파 공범 수사**

프랑스 경찰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극우파청년 막심 브뤼네리(25)가 다른 극우파 행동대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지를 수사 중. 그는 최근 급진연합(RU)으로 불리는 한 극우단체에 가입했으며, 이 단체는 유럽 인종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설파했다고 전해짐.

2002. 7. 17

**미얀마군, 소수민족 난민 탄압**

영국의 국제사면위원회측은 미얀마의 산족과 몽(Mon)족, 카렌(Karen)족인 소수민족 출신 난민 100명을 태국에서 면접한 결과, 미얀마 정부군의 군사 활동이 활발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민간인의 강제노역과 구금, 약식 처형 등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

2002. 7. 19

**필리핀 정부군-반군 충돌 12명 사망**

필리핀 정부군과 반군인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남부 라나오 델 수르주(州)의 포나바야바오에서 충돌, 정부군 4명과 반군 8명 등 모두 12명 사망.

2002. 7. 22

**독일, 신 나치당원, 아시아인 거주 건물에 화염병 투척**

구(舊) 동독지역인 로스토크의 리히텐하겐 지역에서 신(新)나치 조직원들로 의심되는 이들이 다수의 아시아 이민이 거주하는 건물에 화염병 투척.

2002. 7. 22

**수단, 내전 종식 남부자치 합의**

지난 19년간 2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內戰) 당사자들이 내전 종식 방안에 합의. 수단은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이슬람계 정권이 남부지역 비(非)이슬람계 주민들을 차별·탄압하면서 분쟁이 격화, 19년간 내전으로 200만명이 숨지고 4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

2002. 7. 23

**팔레스타인, 가자시티 공습 ICC 제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스라엘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시티 주택가를 공습, 15명을 살해한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겠다고 밝힘.

2002. 7. 27

**스리랑카 정부, 반군과 고위급 회담 가져**

스리랑카 정부의 장관급 대표가 영국 런던에서 반군조직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의 협상 대표와 평화회담 사전준비를 위한 회담 개최. LTTE는 지난 83년부터 소수민족인 타밀족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분리독립 투쟁을 벌여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6만 여명 사망.

2002. 7. 27

**미국, 난민예산 탈북자에 지원**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국무부의 2003년도 난민지원회계예산(MRA) 중 일부를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 지원에 사용 예정 확정.

2002. 7. 28

**마하티르 총리, 말레이시아 인종갈등 해소 강조**

내년 10월 말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힌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마지막 과제로 '인종 간 갈등 해소' 선언. 아울러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슬람 말레이당(PAS) 야당지도자들에게도 연일 공개적인 메시지 전달.

2002. 7. 30

**쿠바 청년 23명 캐나다서 탈주**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쿠바 청년 약 200명 중 23명이 대표단을 이탈, 쿠바의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지위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쿠바 가톨릭 주교회와 쿠바 캐나다재단 발표.

2002. 7. 30

**콩고-르완다, 평화협정 체결**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가 지난 4년 간 지속돼 온 아프리카 최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30일 서명. 콩고는 1994년 르완다에서 소수종족인 투치족 50여 만명을 학살하고 콩고로 도주한 다수종족 후투족 반군들을 체포·무장 해제시킨 뒤 르완다로 송환하기로 합의.

2002. 7. 31

**파키스탄-방글라데시, 31년만에 화해 모색**

방글라데시를 방문중인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군이 자행한 잔혹한 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31년만에 양국간 화해의 토대 마련.